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and System Establishment Plan (II):
Restructur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Focusing on Future Competencies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외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and System Establishment Plan (II):
Restructur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Focusing on Future Competencies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외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4-15-01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자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전효정, 손승희, 배선영, 김유미, 김지연, 유주연, 정정희,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 김민솔, 강현주		
주관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Choi Eun-young)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구자연 부연구위원 김문정 전문연구원 이승미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혜진 교수 (대구대학교)	-
협력 연구기관	한국아동학회	전효정 회장	손승희 대외협력이사 배선영 이사 김유미 이사 김지연 이사 유주연 이사	강현주 박사수료 (동아대학교대학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	김언경 총무위원 김윤희 국제편집이사 박건령 국제학술이사 이효림 총무이사 김민솔 이사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 구축 방안(II): 미래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1차년도 연구인 '미래형 유아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연구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탐색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과 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역량의 정의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역량을 조망하는 관점과 정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교사,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20인 내외)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정의, 범주 및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1-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도입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 보았으며,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핀란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수준 보육과정에서 미래 역량 관점을 영아 보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과 의미를 고찰한 후 영아기 미래 역량의 반영이 가지는 시사점과 적용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 상의 역량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형 유아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유아 역량에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유아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부모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를 위해 영유아기 인간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설정을 위한 개념과 하위 요소(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반영한 총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방향을 검토하여 추

구하는 인간상의 총체성과 연속성의 고려,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인간상의 제시, 인간상의 개념 명확화 및 의미 연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핵심역량의 위상 및 위계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핵심역량 중 영유아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설명하면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안)을 제시하였으나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해석과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영유아기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총론의 방향성으로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개념을 재정의하되, 정의된 개념의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총론에 제시된 역량이 각론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역량의 하위 요소 간의 연계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초중등학교급과는 달리 영역별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제안하지 않고, 총론에서의 역량이 각론에서 하위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 함께 국가교육과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한 후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키워드 : 미래형, 영유아, 교육과정, 핵심역량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to the first-year study,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and system establishment plan (I): Exploration of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plan' conducted as a cooperative research of the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In the second year of this research, we built upon the 'future-oriented design direc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plored in the first year. We derived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future competencies for early childhood, identified the corresponding sub-elements, and presented a plan to restructur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based on these future core competencies.

For this study, we review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human image and capabilitie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and analyzed the definition and form of the capabilitie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erspectives and definitions of capabiliti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vious studies on early childhood capabilities, and the methods of handling capabilities in the curriculum to derive implications. Next, we organized an expert panel centered on expe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teachers, field experts, and curriculum experts (about 20 peopl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d a Delphi survey, and derived the definition, categories, and sub-elements of future capabilities in early childhood. Following thi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a total of 1,500 parents with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grades 1-3) on the human image required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capabilities required in young children, the early stages of lif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plored the human imag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human image in future education, and the human image pursued in the curriculum, examined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ies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and examined the curricula of Finland, British Columbia, Canada, New Zealand, and Singapore to examine overseas curricula centered on early childhood competencies. Second, we examined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future competencies in the national-level childcare curriculum,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directions of reflecting future competencies in infancy,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mpetency reflection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In addition, as a basic task for proposing the direction of designing a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we conducted a trend analysis centered on domestic academic papers related to early childhood competencies, and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sub-elements of early childhood competencies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compared to the core competencies propos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n addition, opinions on the human image and capabilitie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infant and toddler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were analyzed through expert FGI, Delphi survey, and parent survey. Thir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infant and toddler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for fostering future capabiliti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human image of young children was presented, and concepts and sub-elements (plans) for establishing core capabilities of infants and toddlers were proposed. Furthermore, we outlined the direction of the general theory reflecting the future capabilities of young children.

Based on the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human image in infants and toddlers should be reviewed to ensure the totality and continuity of the pursued human image. This includ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clarifying the concept of the human image, and connecting its meaning. Second, a social consensus on the identity of core competencies and a review of their status and hierarchy should be established. The sub-elements (draft) of core competencies should be presented, focusing on aspects that need emphasis in early childhood. However, the interpretation and sub-elements of core competencies in early childhood should be validated and refined through follow-up research.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young children should be redefin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as a general direction for fostering future competencies in early childhood, but the sub-elements of the defined concept should be established and validated.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ways how the competencies presented in the general theory can be linked to the specific theories, and how

the sub-elements of competencies can be interconnected. Additionally, given tha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is structured in an integrated manner by area, unlik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ore competencies in specific theories should not be proposed. Instead, the competencies in the general theory should be designed to be reflected as sub-elements in specific theories.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discussion on how to link core competencies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whether to independently define them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should be centered on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e values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shared across all school levels, including early childhood, and develop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evel.

Keyword :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core competency

정책 제안

- 1)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시,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선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또한 교육·보육을 통해 기대하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인간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의 추구하는 인간상이 특수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보인다.
 - 교육과정 개정에서 인간상의 변천을 고려할 때, 6차 교육과정기까지 제시되었던 '건강한 사람'을 추가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 웰빙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 2)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해석과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핵심역량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교과와의 연계 부재가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에서 역량 개념의 수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그 탐색 결과가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총론뿐 아니라 영역별 교육과정(내용 체계 및 세부 내용)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와 영역별 교육과정의 특수성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유아교육의 국제적 트렌드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보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 영역마다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에 대한 보완과 보다 명확한 설계가 요구된다.

3) 영유아기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총론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역량의 요소들이 균등하게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경험될 필요는 없지만, 경험의 경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역량 요소가 영유아에게 적절한지, 교육과정에서 부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시 총론과 각론을 연계하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초중등학교급과는 달리 영역별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제안하지 않고, 총론에서의 역량이 각론에서 하위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다.
- 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과 함께 국가교육과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한 후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추진 체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래의 인간상	13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13
2.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15
3. 미래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간상	17
4.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19
5. 시사점	21
제2절 역량의 의미와 영유아기 역량	22
1. 역량의 의미	22
2. 영유아기 역량	24
3. 소결	28
제3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29
1. 핵심역량의 도입의 흐름과 특징	29
2. OECD 핵심역량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34
3. 핵심역량의 정체성 탐색	38
4.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49
5. 시사점	71
제4절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	74
1. 핀란드	74
2. 캐나다	78
3. 뉴질랜드	82
4. 싱가포르	87
5. 소결	94

제3장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분석 및 미래 역량 탐색

제1절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101
1.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영아 역량 반영의 필요성	101
2. 제4차 표준보육과정 총론의 영아 역량 반영 요소	104
3. 제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영아기 역량 요소 분석	114
제2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133
1. 총론 문서상의 핵심역량 반영 실태	135
2. 영역별 내용 문서상의 핵심역량 반영 실태	140
3. 소결	144
제3절 선행연구 및 언론기사 분석	146
1. 유아 역량 관련 국내 학술연구 동향분석	146
2. 핵심역량의 하위개념과 핵심역량 내용에 따른 유아교육 연구경향 탐색	163
3. 영유아기 미래 역량 도출을 위한 언론 기사 분석	174
4. 소결	182
제4절 영유아기 미래 인간상 및 역량에 대한 의견	183
1. 초점집단(FGI) 인터뷰 결과	18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29
3. 부모 의견조사 결과	241
4. 소결	256

제4장 미래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제1절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261
1.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261
2.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설정	270
제2절 영유아기 역량을 반영한 총론의 방향	285
1. 비전과 인간상, 역량의 제시	285
2. 설계시 고려사항	286
3. 역량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으로 재정의	287

C O N T E N T S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89
■ 참고문헌	291
1. 단행본, 학술논문	291
2. 보도자료	303
3. 참고 웹사이트	303
4. 참고 법령	303
■ 부록	305
부록 1. 유아 역량 관련 국내 학술연구 동향분석 관련 표	306
부록 2. 영유아기 미래 역량 도출을 위한 언론 기사 분석 관련 표	314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표	331
부록 4. FGI 질문지	338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341
부록 6.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2차)	346
부록 7. 부모 설문조사 질문지	351

표 차례

〈표 Ⅰ-3-1〉 FGI 개최 현황	6
〈표 Ⅰ-3-2〉 FGI 참여자 특성	7
〈표 Ⅰ-3-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7
〈표 Ⅰ-3-4〉 부모 의견 조사 응답자 특성	8
〈표 Ⅰ-3-5〉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개최 현황	9
〈표 Ⅰ-3-6〉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현황	9
〈표 Ⅱ-1-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15
〈표 Ⅱ-1-2〉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16
〈표 Ⅱ-1-3〉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20
〈표 Ⅱ-2-1〉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26
〈표 Ⅱ-2-2〉 초등 통합교과 역량의 변화	26
〈표 Ⅱ-2-3〉 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27
〈표 Ⅱ-3-1〉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의 특징 및 배경(요약)	33
〈표 Ⅱ-3-2〉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의 세 범주	35
〈표 Ⅱ-3-3〉 OECD 학습나침반 2030의 구성 요소별 정의	37
〈표 Ⅱ-3-4〉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발의 역사와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과의 유사성 비교	40
〈표 Ⅱ-3-5〉 이해의 6가지 측면	44
〈표 Ⅱ-3-6〉 핵심역량의 정체성 탐구(정리)	48
〈표 Ⅱ-3-7〉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성취기준-교수·학습-평가 활동 간 일관성 규정	55
〈표 Ⅱ-3-8〉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56
〈표 Ⅱ-3-9〉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반영 방안 개발 관련 교육부 수탁과제 목록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57
〈표 Ⅱ-3-10〉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 (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63
〈표 Ⅱ-3-11〉 교과 역량의 개선 방안(유지 또는 폐지)(2022 개정 기초 연구의 안)	65
〈표 Ⅱ-3-12〉 교과 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66
〈표 Ⅱ-4-1〉 핀란드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	76
〈표 Ⅱ-4-2〉 집단별 핵심역량에 대한 고려 사항	79
〈표 Ⅱ-4-3〉 창의적 사고 내 프로파일	82
〈표 Ⅱ-4-4〉 뉴질랜드 5개 핵심역량 설명	85

CONTENTS

〈표 Ⅱ-4-5〉 싱가포르 주요 단계 성과	91
〈표 Ⅱ-4-6〉 싱가포르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하위요인	93
〈표 Ⅱ-4-7〉 국가별 역량 설명 비교	94
〈표 Ⅱ-4-8〉 국가별 역량 내용 비교	95
〈표 Ⅲ-1-1〉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추구하는 인간상의 변화	105
〈표 Ⅲ-1-2〉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106
〈표 Ⅲ-1-3〉 표준보육과정의 영아 보육과정 목적 및 목표 변화	108
〈표 Ⅲ-1-4〉 제4차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과 목표 비교	109
〈표 Ⅲ-1-5〉 2022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영아기 반영	112
〈표 Ⅲ-1-6〉 0~1세 기본생활영역 인간상 반영	114
〈표 Ⅲ-1-7〉 0~1세 신체운동영역 인간상 반영	115
〈표 Ⅲ-1-8〉 0~1세 의사소통영역 인간상 반영	116
〈표 Ⅲ-1-9〉 0~1세 사회관계영역 인간상 반영	116
〈표 Ⅲ-1-10〉 0~1세 예술경험영역 인간상 반영	117
〈표 Ⅲ-1-11〉 0~1세 자연탐구영역 인간상 반영	118
〈표 Ⅲ-1-12〉 0~1세 기본생활영역 역량 반영	118
〈표 Ⅲ-1-13〉 0~1세 신체운동영역 역량 반영	119
〈표 Ⅲ-1-14〉 0~1세 의사소통영역 역량 반영	120
〈표 Ⅲ-1-15〉 0~1세 사회관계영역 역량 반영	120
〈표 Ⅲ-1-16〉 0~1세 예술경험영역 역량 반영	121
〈표 Ⅲ-1-17〉 0~1세 자연탐구영역 역량 반영	122
〈표 Ⅲ-1-18〉 2세 기본생활영역 인간상 반영	122
〈표 Ⅲ-1-19〉 2세 신체운동영역 인간상 반영	123
〈표 Ⅲ-1-20〉 2세 의사소통영역 인간상 반영	124
〈표 Ⅲ-1-21〉 2세 사회관계영역 인간상 반영	124
〈표 Ⅲ-1-22〉 2세 예술경험영역 인간상 반영	125
〈표 Ⅲ-1-23〉 2세 자연탐구영역 인간상 반영	126
〈표 Ⅲ-1-24〉 2세 기본생활영역 역량 반영	126
〈표 Ⅲ-1-25〉 2세 신체운동영역 역량 반영	127
〈표 Ⅲ-1-26〉 2세 의사소통영역 역량 반영	128
〈표 Ⅲ-1-27〉 2세 사회관계영역 역량 반영	128
〈표 Ⅲ-1-28〉 2세 예술경험영역 역량 반영	129
〈표 Ⅲ-1-29〉 2세 자연탐구영역 역량 반영	130
〈표 Ⅲ-2-1〉 2019 개정 누리과정 - 총론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39

〈표 Ⅲ-2-2〉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40
〈표 Ⅲ-2-3〉 2019 개정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41
〈표 Ⅲ-2-4〉 2019 개정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42
〈표 Ⅲ-2-5〉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43
〈표 Ⅲ-2-6〉 2019 개정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44
〈표 Ⅲ-3-1〉 ‘역량’ 개념의 정의(본문 내 인용)	147
〈표 Ⅲ-3-2〉 연구주제 분석 절차	151
〈표 Ⅲ-3-3〉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요약	151
〈표 Ⅲ-3-4〉 주제명 설정 및 주제군별 출현 비중	153
〈표 Ⅲ-3-5〉 유아역량과 관련된 연구주제군 및 대주제 범주	155
〈표 Ⅲ-3-6〉 주제명 설정 및 주제군별 출현 비중	156
〈표 Ⅲ-3-7〉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내용	160
〈표 Ⅲ-3-8〉 유아역량 하위요소 탐색 절차	160
〈표 Ⅲ-3-9〉 6대 핵심역량의 개념 및 세부 역량 범주	164
〈표 Ⅲ-3-10〉 핵심역량 하위 요소와 관련된 유아교육 논문 수(n)	166
〈표 Ⅲ-3-11〉 유아의 자기관리 개념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67
〈표 Ⅲ-3-12〉 지식정보처리와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69
〈표 Ⅲ-3-13〉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70
〈표 Ⅲ-3-14〉 유아의 심미적 감성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70
〈표 Ⅲ-3-15〉 유아의 소통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71
〈표 Ⅲ-3-16〉 유아의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173
〈표 Ⅲ-3-17〉 검색 키워드	175
〈표 Ⅲ-3-18〉 검색어별 기사 발현량(연도별)	178
〈표 Ⅲ-3-19〉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179
〈표 Ⅲ-3-20〉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180
〈표 Ⅲ-3-21〉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181
〈표 Ⅲ-4-1〉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대한 의견	183
〈표 Ⅲ-4-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186
〈표 Ⅲ-4-3〉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187
〈표 Ⅲ-4-4〉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대한 의견	196
〈표 Ⅲ-4-5〉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203

C O N T E N T S

〈표 Ⅲ-4-6〉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212
〈표 Ⅲ-4-7〉 미래형 인재상에 대한 의견	214
〈표 Ⅲ-4-8〉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216
〈표 Ⅲ-4-9〉 인간상과 역량의 영유아기 적용	220
〈표 Ⅲ-4-10〉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223
〈표 Ⅲ-4-11〉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및 핵심역량에 대한 타당도	229
〈표 Ⅲ-4-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230
〈표 Ⅲ-4-13〉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230
〈표 Ⅲ-4-1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232
〈표 Ⅲ-4-1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1차 조사결과	233
〈표 Ⅲ-4-1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2차 조사결과	234
〈표 Ⅲ-4-17〉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정의: 1차 조사결과	235
〈표 Ⅲ-4-18〉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한 타당도 인식: 1차 조사결과	237
〈표 Ⅲ-4-19〉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1차 조사결과	237
〈표 Ⅲ-4-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미래 역량	238
〈표 Ⅲ-4-21〉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 1차 조사결과	239
〈표 Ⅲ-4-22〉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에 대한 타당도 인식	240
〈표 Ⅲ-4-23〉 영유아기 역량으로 추가되어야 할 역량	240
〈표 Ⅲ-4-2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	242
〈표 Ⅲ-4-2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1순위, Top20)	243
〈표 Ⅲ-4-2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종합, Top30)	243
〈표 Ⅲ-4-27〉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1순위)	245
〈표 Ⅲ-4-28〉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1+2순위)	246
〈표 Ⅲ-4-29〉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	247
〈표 Ⅲ-4-30〉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1순위)	248
〈표 Ⅲ-4-31〉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1+2순위)	249
〈표 Ⅲ-4-32〉 2022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	251

〈표 Ⅲ-4-33〉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	252
〈표 Ⅲ-4-3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내용 중 자녀 이용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복응답)	254
〈표 Ⅲ-4-3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254
〈표 Ⅲ-4-3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외에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255
〈표 Ⅳ-1-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264
〈표 Ⅳ-1-2〉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변천	266
〈표 Ⅳ-1-3〉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선(안)	268
〈표 Ⅳ-1-5〉 영유아기 핵심역량과 하위요소(안)	284
〈표 Ⅳ-2-1〉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 (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287

그림 차례

[그림 Ⅰ-4-1]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10
[그림 Ⅱ-1-1] 4차 산업시대의 인간상과 핵심능력	14
[그림 Ⅱ-1-2] 지구촌이 직면한 장단기 10대 위협	17
[그림 Ⅱ-1-3]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악영향	18
[그림 Ⅱ-1-4] 미래형 인재상(안)	20
[그림 Ⅱ-2-1] 21세기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23
[그림 Ⅱ-3-1] 개인과 집단의 목표와 역량(OECD의 DeSeCo 프로젝트)	34
[그림 Ⅱ-3-2] OECD 학습나침반 2030	36
[그림 Ⅱ-3-3] Erickson의 지식의 구조(과학과의 사례)	45
[그림 Ⅱ-3-4]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의 위상(2015/2022 개정 교육과정)	62
[그림 Ⅱ-3-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조정 구도	70
[그림 Ⅱ-4-1]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	78
[그림 Ⅱ-4-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 내 핵심, 하위 역량	80
[그림 Ⅱ-4-3] 하위 역량: 창의적 사고	81
[그림 Ⅱ-4-4] 교육과정의 다른 측면과 연관된 핵심역량	84
[그림 Ⅱ-4-5] 교육과정 간 연계	86
[그림 Ⅱ-4-6]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87
[그림 Ⅱ-4-7] 싱가포르의 역량에 대한 총체적 모델 및 21세기 역량 체제	89
[그림 Ⅱ-4-8] 싱가포르 NEL 주요 개념	92
[그림 Ⅲ-1-1] 4차 표준보육과정 0-1세 및 2세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나타나는 영아의 역량	131
[그림 Ⅲ-1-2] 보육과정에서 각 역량 요소가 포함된 비율	132
[그림 Ⅲ-2-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역량, 목표의 관계도	136
[그림 Ⅲ-3-1] 분석대상 논문 선정 및 분석 절차 요약	146
[그림 Ⅲ-3-2] 연도별 빈도 분석	149
[그림 Ⅲ-3-3] 워드 클라우드(출현 상위 키워드 500개 기준)	150
[그림 Ⅲ-3-4] 연구주제별 출현 동향	153
[그림 Ⅲ-3-5] 연구주제-주제어 연결망 지도	154
[그림 Ⅲ-3-6] 게재 연도별 연구주제의 출현 비중	155
[그림 Ⅲ-3-7] 시기별 출현 주제의 비중	157
[그림 Ⅲ-3-8] 연구주제별 출현 시기 빈도	157

[그림 Ⅲ-3-9]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도식화	160
[그림 Ⅲ-3-10] 유아역량별 논문 편수	161
[그림 Ⅲ-3-11] 유아역량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 탐색	162
[그림 Ⅲ-3-12] 검색어별 기사 발현량(연도별) 추이	177
[그림 Ⅲ-3-13]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179
[그림 Ⅲ-3-14]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180
[그림 Ⅲ-3-15]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181
[그림 Ⅲ-4-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244
[그림 Ⅳ-1-1]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5개 영역과의 연계	281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Ⅲ-3-1〉 유아 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의 관련성 탐색	306
〈부록 표 Ⅲ-3-2〉 기간별 미래사회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14
〈부록 표 Ⅲ-3-3〉 기간별 미래사회 교육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15
〈부록 표 Ⅲ-3-4〉 기간별 미래사회 학교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17
〈부록 표 Ⅲ-3-5〉 기간별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18
〈부록 표 Ⅲ-3-6〉 기간별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20
〈부록 표 Ⅲ-3-7〉 기간별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21
〈부록 표 Ⅲ-3-8〉 기간별 미래사회 보육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323
〈부록 표 Ⅲ-3-9〉 기간별 미래사회 인간상 관련 화제어(Top30)	324
〈부록 표 Ⅲ-3-10〉 기간별 미래사회 역량 관련 화제어(Top30)	326
〈부록 표 Ⅲ-3-11〉 기간별 미래사회 학생 역량 관련 화제어(Top30)	327
〈부록 표 Ⅲ-3-12〉 기간별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관련 화제어(Top30)	329
〈부록 표 Ⅲ-4-1〉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331
〈부록 표 Ⅲ-4-2〉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332
〈부록 표 Ⅲ-4-3〉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중심 재구조화 시 고려사항	334
〈부록 표 Ⅲ-4-4〉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역량중심 재구조화 시 영유아/교사/기관 수준에서 고려(준비)할 사항	3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수준에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도입에 대한 관심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에 마무리된 OECD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의 세 가지 범주로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의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 작용하는 역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을 제시하였다(OECD, 2005: 5).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OECD에서는 OECD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핵심역량을 포함하는 학습나침반 2030(the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하였는데, 학습나침반 2030은 “학습자들이 잠재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지구의 웰빙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규정한 것이다.

2022년 개정·고시된 초·중등의 새 교육과정 개발도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21. 11. 24), 학습자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1).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2019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2012년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누리과정 제정 시, 유아교육계와 보육의 이해 상충으로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성격, 인간상을 규정짓지 못함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위상과 체계를 명확히 갖추어 성격과 인간상을 신설하고, ‘공통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문복진, 2019). 유아교육 혁신에 근거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있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내지는 실천을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김영옥, 2019). 또한 교육과정 개정과 현장에 자료를 보급할 때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 여러 집단이 협력하여 개발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촉박한 일정,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상의 한계가 있어 국가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정을 주관하는 인력부서 또는 담당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김영옥, 2020).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교육의 목적을, 3.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학교급별 중점사항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이라는 학교급별 중점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해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영

유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추구하는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형태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된다(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외, 2023).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출발한 것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핵심역량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만 발현되거나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사회의 인간상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최은영 외, 2023). 영유아기 역량 관련 논의들은 영유아기의 특수성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최근 연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 핵심역량, 유아교육 목적, 유아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유아교사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오은순, 김윤희, 2019)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타난 초등교육과정 핵심역량의 반영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진숙, 2021), 유초 연계 차원에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안한 연구(성승희, 홍후조, 2021)들이 수행되었을 뿐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1차년도 연구인 ‘미래형 유아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연구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설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 교육·보육과정의 개선 방안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탐색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요소를 도출하고,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과 영유아기 역량의 연계,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총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문서 체제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 역량을 반영한 문서상의 교육·보육과정 재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영유아기 교육·보육과정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안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중장기 연구로서 미래의 인간상을 설정하고, 미래 세대 영유아들의 기초 소양과 역량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모든 국민들,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 폭넓은 대상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미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도출하고, 하위 요소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을 분석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역량 의미와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래 역량의 범주 및 하위 요소 설정하고, 미래 역량의 의미를 규정한다.

둘째,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국외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을 분석한다. 영유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주요 국가(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역량중심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영유아기 역량에 대한 관점과 요소를 분석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역량의 관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방식을 검토하여 영유아기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의미와 방향성을 고찰한다.

셋째,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규정하고, 교육·보육과정에서의 반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역량 반영 요소,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역량 반영 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언론, 연구,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래 역량의 의미와 요소를 도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의 연계 요소를 파악한다.

넷째, 미래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역량 중심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형식 및 내용 체계 접근 방안, 미래 역량을 반영한 총론 시안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과 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역량의 정의와 형태를 분석한다. 또한 영유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역량을 조망하는 관점과 정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빅데이터 분석

1) LDA 주제 모델링 기법

주제 모델링 분석 기법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국내 학술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초록에서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 속의 잠재적 의미를 도출하여 연구주제군을 분류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etMiner 4.5버전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서 추출한 후, 유사어 정제 및 지정어, 제외어를 지정하는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III-1 참조).

2) 언론 기사 분석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언론의 최근 10년간 기사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사회 변화, 역량, 인간상’ 관련한 키워드를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에서 수집하였다. 추출 도구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54개 언론사의 텍스트 기사, 사진, PDF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기사 DB이자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교사,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20인 내외)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정의, 범주 및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1) 초점집단 인터뷰(FGI)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교사,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총 26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표 1-3-1〉 FGI 개최 현황

일시 및 방식	대상	주관	면담 내용
2024. 4. 25.(목) 19:00, 온라인	보육 현장 및 학계 전문가 5인	한국아동학회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또는 능력)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2024. 4. 26.(금) 18:00, 온라인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 5인	한국유아교육학회	
2024. 4. 29.(월) 17:00, 온라인	교육과정 전문가 2인	육아정책연구소	
2024. 4. 29.(월) 19:00, 온라인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 5인	한국유아교육학회	
2024. 4. 30.(화) 19:00, 온라인	보육 현장 및 학계 전문가 5인	한국아동학회	
2024. 5. 3.(금) 10:30, 온라인	교육과정 전문가 2인	육아정책연구소	
2024. 5. 3.(금) 15:00, 대면	교육과정 전문가 2인	육아정책연구소	

〈표 1-3-2〉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소속기관	전문영역	구분	소속기관	전문영역
유아교육계	대학	유아교육	아동학계	대학	아동학/보육
	대학	유아교육		대학	아동학/보육
	대학	유아교육		대학	아동학/보육
	대학	유아교육		대학	아동학/보육
	대학	유아교육		대학	아동학/보육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보육복지재단	아동학/보육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보육사업수행기관	아동학/보육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보육진흥원	아동학/보육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 아동학/보육
	시교육청	유아교육		어린이집	유아교육, 아동학/보육
교육계	연구기관	교육학			
	대학	교육학			
	대학	초등교육학			
	연구기관	경제학			
	대학	교육학			
	대학	초등교육학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응답자는 총 20명이었으며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유아교육학 전공자 10명, 아동학 전공자 6명, 교육학 전공자 4명이었다. 소속 기관은 4년제대학 11명, 전문대학 2명, 유치원 3명, 보육관련기관 3명, 연구기관 1명이었으며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소속 학과는 유아교육학과 4명, 아동관련 학과 4명, 보육관련 학과 2명, 기타학과가 3명이었다.

〈표 1-3-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개월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1차	2차		1차	2차
성별			소속기관		
남자	1	1	전문대학	2	1
여자	19	18	4년제대학	11	11
전공			유치원	3	3
유아교육학	10	10	연구기관	1	1
아동학	6	5	보육관련기관	3	3
교육학	4	4	소속 학과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1차	2차		1차	2차
경력			유아교육학과	4	3
대학교수 경력	180.6 개월	167 개월	아동관련 학과	4	4
유치원 총 경력	161.1 개월	161.1 개월	보육관련 학과	2	2
어린이집 총 경력	46.2 개월	36.9 개월	기타학과	3	3
계	20	19	계	20	19

라. 부모 의견 조사

초등 저학년(1-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남성 53.7%, 여성 46.3%로 성별 분포는 유사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78.6%로 대부분이었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15.6%,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8% 있었다.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7.9%로 대부분이었고, 비취업 상태도 10.4% 있었다. 가구특성으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53.1%, 2명인 경우 40.7%로 유사하였고, 3명 이상인 경우도 6.2% 있었으며 맞벌이 가구가 66.5%로 2/3가량 차지하였다.

〈표 1-3-4〉 부모 의견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비율	사례수	구분	비율	사례수
성별			최종 학력		
남성	53.7	(805)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	(87)
여성	46.3	(695)	대학교 졸업	78.6	(1179)
자녀 소속반(학급)			대학원 졸업 이상	15.6	(234)
영아반(0~만2세반)	33.3	(500)	취업 상태		
유아반(만3~5세반)	33.3	(500)	정규직	77.9	(1169)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3	(500)	비정규직	5.7	(85)
거주지			자영업	6.0	(90)
광역시	38.5	(577)	비취업	10.4	(156)
시/도	55.0	(825)	경제활동 상태		
군	6.5	(98)	맞벌이	66.5	(998)
자녀수			외벌이	33.5	(502)
1명	53.1	(797)			
2명	40.7	(610)			
3명 이상	6.2	(93)			
계	100.0	(1,500)	계	100.0	(1,500)

단위: %(명)

마. 워크숍 개최

교육과정 전문가, 협동연구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여 영유아기 역량 정의 및 요소를 도출하고, 미래 역량 중심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형식 및 내용 체계 등을 논의하였다.

〈표 1-3-5〉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개최 현황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2023. 11. 24.(금)	원내 연구진, 외부 공동연구진, 한국아동학회 연구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구진	- 해외 교육과정의 영유아기 주요 역량 및 역량을 다루는 형태 - 초·중등 교육과정의 주요 역량의 개념 변화 및 역량을 다루는 형태
2024. 3. 15.(금)	원내 연구진, 외부 공동연구진, 한국아동학회 연구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구진	- 중간보고 관련 논의
2024. 7. 12.(금)	원내 연구진, 외부 공동연구진, 한국아동학회 연구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구진	- 최종보고 관련 논의

바.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교육과정 전문가,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제4차 표준보육과정 개발진, 교사, KDI(정부 3대 개혁과제 총괄기관)의 전문가 참여 등이 참여하여 영유아기 미래 역량 및 하위 요소와 반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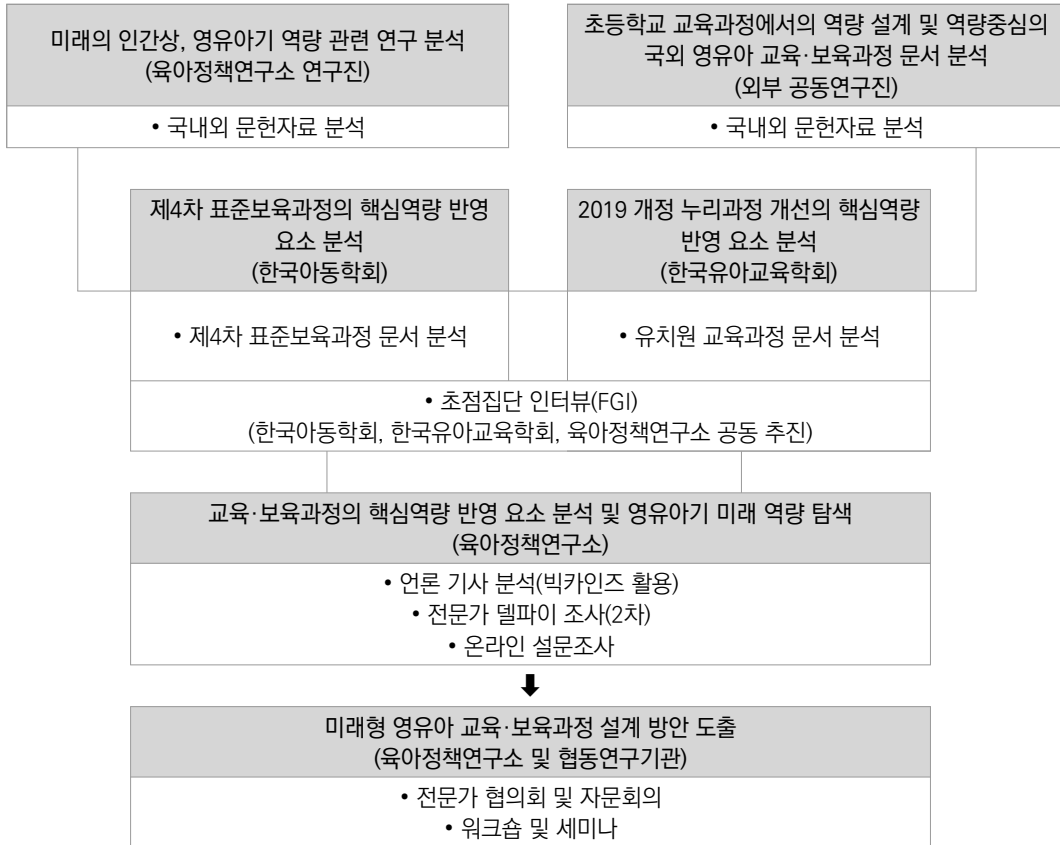
〈표 1-3-6〉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현황

일시	전문가	자문 및 회의내용
2023. 9. 15.(금)	교육과정 전문가 1인	미래사회 학교지식의 구상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2024. 1. 18.(목)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연구진 2인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도입 및 방향 논의
2024. 2. 2.(금)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통합교과 연구진 2인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도입 및 방향 논의
2024. 8. 8.(목)	유아교육 전문가 3인, 보육/아동 전문가 4인, 교육과정 전문가 1인	역량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 논의

4. 연구 추진 체계

상기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추진 체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1]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제1절

미래의 인간상



인간상(人間像)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미래의 인간상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미래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았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고동환, 서영선, 정용찬, 하승희, 김나연, 조민정 외, 2023)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고급기술을 가진 통합자와 혁신자를 의미한다. 고급기술과 관련된 역량에는 디바이스와 SW 운용,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콘텐츠 또는 제품 제작, 정보 및 데이터 활용 능력이 포함된다. 통합자는 조직의 요구에 맞게 디지털 솔루션을 맞춤화할 수 있으며, 혁신자는 고급 디지털 전문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고동환 외, 2023: 130).

논어와 유자의 가르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탐색한 윤인현(2021)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술의 첨단 시대가 될수록 인간은 인간다움을 그리워할 것이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인성을 지닌 사람이며, 인성이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다(윤인현, 2021: 208-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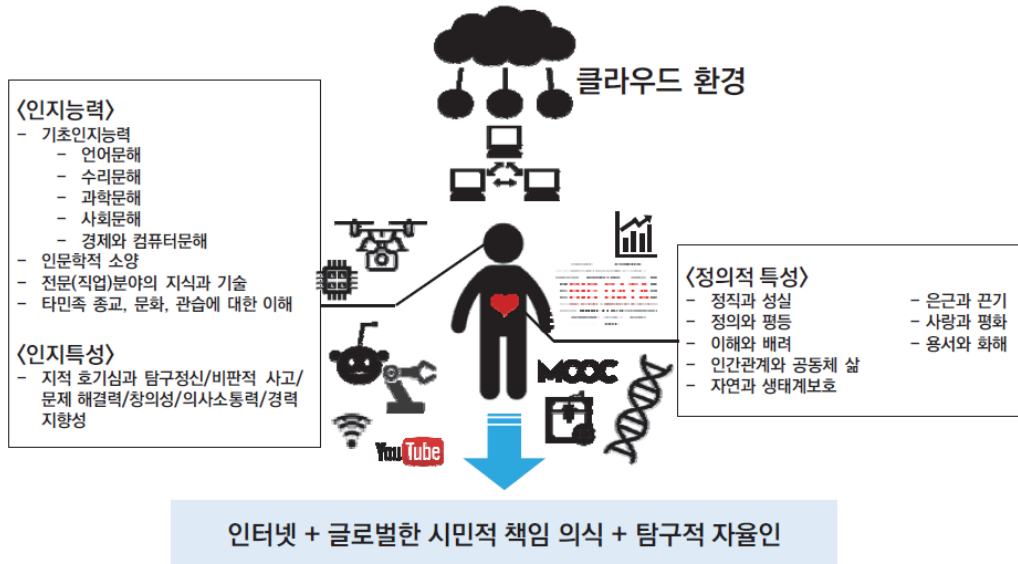
이경호(2019)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간상 또는 인재상은 변화하는 미래사회 모습을 예측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 성품, 기술 등을 갖춘 사람으로, 특별한 상황과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경호, 2019: 147). 이경호(2019)는 정부 인재상, 기업 인재상, 미래학자 인재상, 연구기관 인재상을 중심으로 인재상을 구성하는 주요 공통역량을 범주화하였다. 인재상 구성 주요 공통역량에는 인지적 역량, 기술적 역량, 인성적 역량이 포함되었다. 인지적 역량은 기본 인지 역량, 문해력, 특정분야 전문성이며, 기술적 역량은 창의력과 메이킹 능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고, 인성적 역량은 공감

과 배려, 참여와 열정, 자기관리 능력이다(이경호, 2019: 157).

정홍인, 조대연, 최지수, 이종민, 장은하, 강현주(2018: 63)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미래사회 인재의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생애단계별 우선순위 역량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 인재란 미래지향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사회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탁월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사람이다(정홍인 외, 2018: 64)

성태제(2017)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체제에서 개인의 다양한 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탐구역량을 개발·향상시키는 자율적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성태제, 2017: 7, 10). 성태제(2017)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대상인 인간상으로 “목적 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상호 협력하는 탐구적 자율인”을 제시하였다(성태제 2017: 10). 성태제(2017: 11)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능력과 중복되나 더욱 전문적인 능력과 정의적 행동 특성 및 세계시민으로의 특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과 핵심능력은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4차 산업시대의 인간상과 핵심능력



자료: 성태제(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p. 10. [그림 2].

〈표 II-1-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구분	미래 관련 중심어	미래의 인간상
고동환 외 (2023)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 고급기술을 토대로 조직의 요구에 맞게 디지털 솔루션을 맞춤형할 수 있는 사람 • 혁신자: 고급 디지털 전문지식과 연구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윤인현 (2021)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고유 영역인 인성과 감성을 갖춘 사람
이경호 (2019)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미래사회 모습을 예측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 성품, 기술 등을 갖춘 사람 → 특별한 상황과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사람 - 인지적 역량: 기본 인지 역량, 문해력, 특정분야 전문성 - 기술적 역량: 창의력과 메이킹 능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 인성적 역량: 공감과 배려, 참여와 열정, 자기관리 능력
정홍인 외 (2018)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 미래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사회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탁월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사람
성태제 (2017)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 인지능력 •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상호 협력하는 탐구적 자율인 • 인지능력,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을 갖춘 사람

자료: 1) 고동환 외(2023).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p. 13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윤인현(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논어(論語)』와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pp. 208-20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이경호(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제 탐색. pp. 156-15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정홍인 외(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단계별 미래인재 필요역량 및 우선순위 역량 도출. pp. 81-8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성태제(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p. 1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과 관련하여 김경애, 류방란, 김지하, 김진희, 박성호, 이명진(2018) 연구에서는 로봇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본질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 고유의 본질에 대한 강조를 토대로 미래 사회는 세대 차이, 다문화사회 등 다양성이 증대되어 글로벌 감수성, 세계시민으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며, 불확실성의 팽배와 복잡성의 증대에 따라 모호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강조되어 글로벌 직업 창출인이 되길 요구받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김경애 외(2018)는 미래교육에서의 '유'자형 학습자를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억에 의존하는 얇은 영역을 감당하게 되면 학습자는 감성과 이성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인간적 지혜를 추종하게 되어 미래교육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감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데 강조점을 둘 것이라고 제시하였다(김경애 외, 2018: 14).

미래교육 관련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과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립한 이재호, 백승욱, 이윤조와 이경화(2018)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된 시대를 위한 미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산업화 사회의 교육이 아닌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 교양, 사회적 및 인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이재호 외, 2018: 319). 이러한 미래교육관을 토대로 이재호 외(2018)는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서 추구해야 할 인재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미래교육에서의 인재상은 첫째, 미래 기술·정보를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지식과 경험 및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셋째, 타인과 어울리고 소통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이재호 외, 2018: 315-316).

초·중등교육 영역의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를 연구한 정미경, 황준성, 이선호, 허은정, 최수진, 김성기 외(2017)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자주적 인간, 교양 있는 인간, 창의적인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을 미래 인간상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중에서 행복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을 강조하였다(정미경 외, 2017: 46-48).

〈표 II-1-2〉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구분	교육의 비전	미래의 인재상
김경애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고유의 본질 • 글로벌 감수성 • 세계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직업 창출인 • '유'자형 학습자: 이성과 감성이 총체화된 형태
이재호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 미래인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기술·정보를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람 •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지식과 경험 및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 타인과 어울리고 소통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정미경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잠재력 개발 •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적인 인간 • 교양 있는 인간 • 창의적인 인간 • 더불어 사는 인간

자료: 1) 김경애, 류방란, 김지하, 김진희, 박성호, 이명진(2018).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p. 1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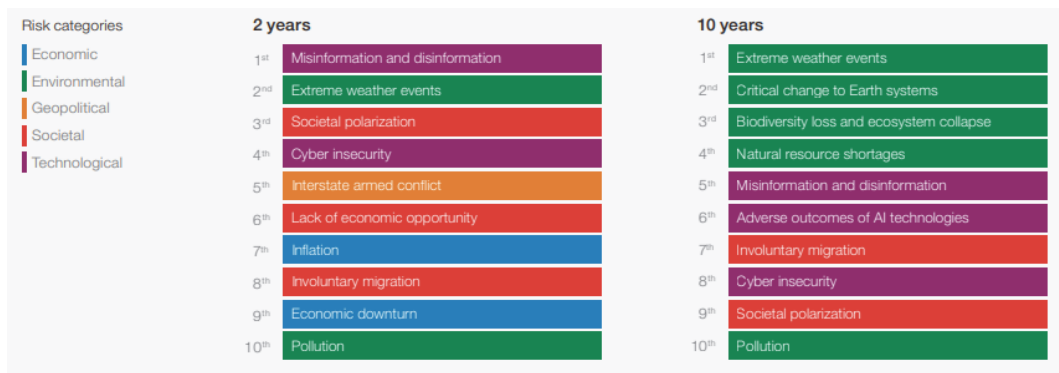
2) 이재호 외(2018). 미래인재 역량 정립 연구. pp. 315-31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정미경 외(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초·중등교육영역. p. 4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미래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간상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2023년 7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끓는 지구의 시대가 왔다고(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언급하면서 지구의 기후 위기를 경고하였다.¹⁾ 기후 위기는 단순한 사고나 사건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24)에서도 극한 기상 이변은 장단기 위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위협은 단기(2년)에서는 극한 기상 이변과 오염이 포함된 반면, 장기(10년)에서는 5개(극한 기상 이변, 급격한 지구시스템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부족, 오염)가 포함되어 생태·환경 변화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World Economic Forum, 2024: 7-8).

[그림 II-1-2] 지구촌이 직면한 장단기 10대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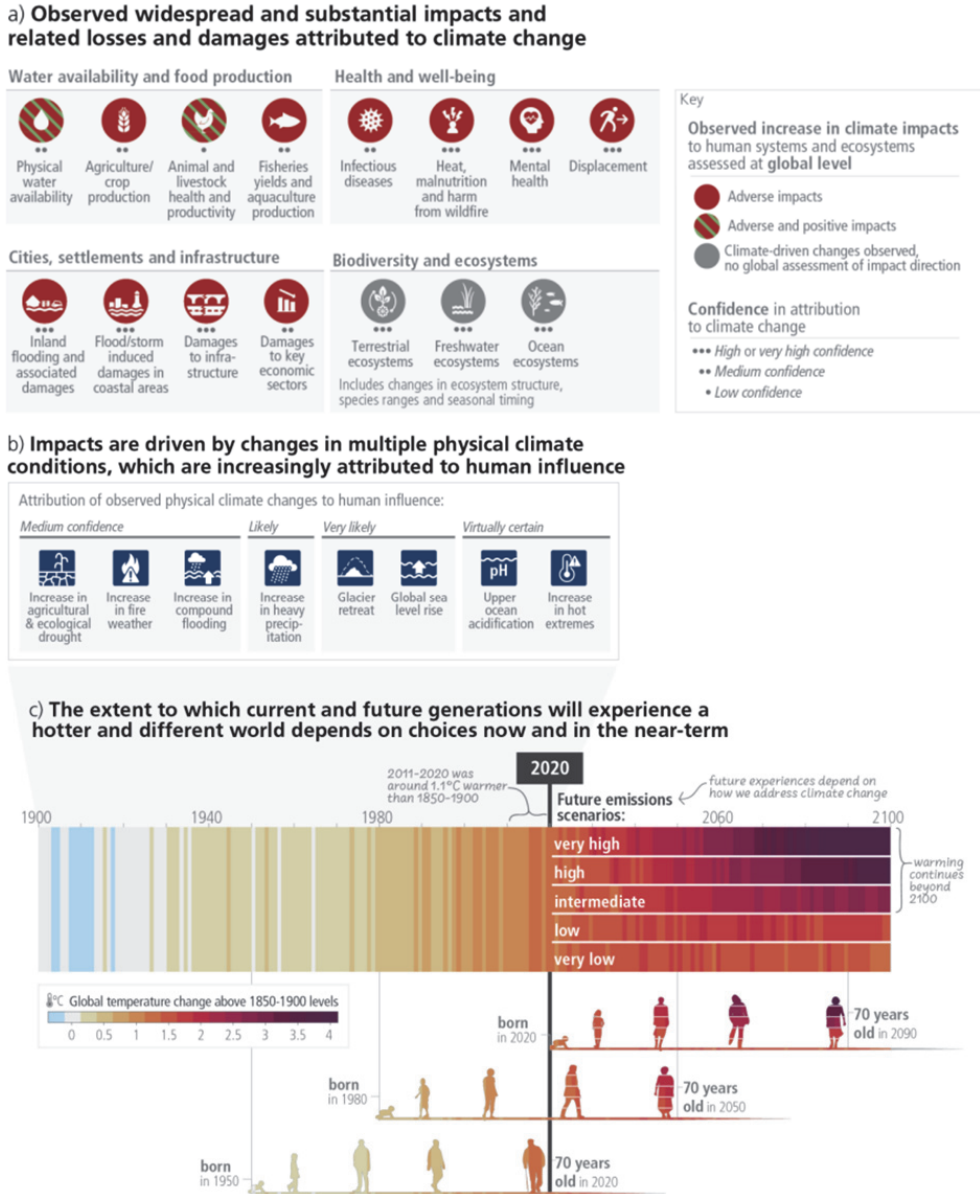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4). The Global Risks Report 2024-19th edition, Insight Report. p. 8. Figure C.

IPCC 보고서(2023: 5-7)²⁾에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손실과 악영향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미 날씨와 기후에 따른 변화와 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미래 세대의 경험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1) United Nations,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23/07/1139162>. (2024. 3. 6. 인출).

2) IPCC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pp. 1-34, doi: 10.59327/IPCC/AR6-9789291691647.001.

[그림 II-1-3]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악영향



주: a) 기후 변화는 이미 인간 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과 관련 손실 및 피해를 야기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구, 담수 및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킴. b) 관측된 영향은 인간의 영향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음. c) 1850~1900년 대비 전지구 지표 온도의 관측(1900~2020년) 및 전망(2021~2100년) 변화로, 기후가 이미 어떻게 변했고, 3개의 대표 세대(1950년생, 1980년생, 2020년생)의 수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줌.

자료: IPCC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p. 7. Figure SPM.1.

기후 변화는 자연과 인간에게 광범위한 손실과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교육과정에서도 환경교육과 더불어 기후시민으로서의 인간상과 기후 행동(생태 및 기후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시민으로서의 기후소양은 생태·환경 변화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윤순진(2024: 63)은 기후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1) 에너지 기본권 향유 권리(기본 서비스), 2) 기후위기와 대응정책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유 요구, 3) 기후위기 인식, 기후정책과정 참여, 기후행동 실천, 4) 에너지, 식생활 폐기물 등 전생활영역에 걸쳐 자원 소비 결과에 대한 책임과 윤리 의식, 5)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용을 제시하면서 생활 속 기후친화 실천과 에너지 생산자 되기를 강조하였다.

4.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한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문에서는 누리과정(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교육부, 2019: 6).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교육부, 2022a: 5).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

〈표 II-1-3〉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분	조항	추구하는 인간상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달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자료: 1) 교육부(2019).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p. 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인재상과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검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인재상(안)에는 혁신적 포용 인재를 목표로 주도성과 책임감, 배려와 포용,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이란 중 심어가 강조되었다(교육부, 2021: 11).

[그림 II-1-4] 미래형 인재상(안)



자료: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1.

5. 시사점

제2장 제1절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미래의 인간상을 파악하고자 선행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탐색하였다. 미래의 인간상이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인간상으로 인간 고유의 본질인 인간다움과 인성 및 감성을 갖춘 사람이 강조되었다. 이는 누리과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과 맥을 같이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인성과 감성, 인간다움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변화에 적응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전문가가 미래의 인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사회에는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사람, 다양한 지적 욕구를 토대로 탐구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의 인간상을 고려하여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는 적응유연성, 주도성, 창의성, 융·복합성 등의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구촌 전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미래사회의 인간상으로 글로벌 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이 제시되었다. 개별 국가의 국민을 넘어 지구촌 전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공동체성이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증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 생태·환경 변화와 관련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에 미래의 인간상에서 기후시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후시민으로서 기후소양(생태 및 기후 감수성과 시민성)을 갖추는 토대가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가 증시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인재상은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역량의 의미와 영유아기 역량



1. 역량의 의미

역량(competency)은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기업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기업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의미한다(HRD 용어사전, 2010. 9. 6.). 이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역량(competency)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이다. 여기에는 지식, 기능, 사고유형, 정신자세, 사고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 역량을 조직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 특성이나, 효과적 수행자와 비효과적 수행자를 분별하는 특별하고 일관된 행동동기, 특질, 기능, 심지어는 우수한 인재의 벤치마크(Bench mark)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역량 정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기여하는 인지적 필요능력이란 의미, 둘째,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자아의식 등 개인의 행동적, 심리적 요인을 망라한다는 의미, 셋째, 성공적 인물에게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과거에 해당 기업을 이끌어 왔으며 또한 적절하게 전환되거나, 추가로 역량을 축적시키면서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기업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능력으로 조직 내부의 기술이나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는 노하우(know how)를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으로써 기업의 차별적 경쟁력의 원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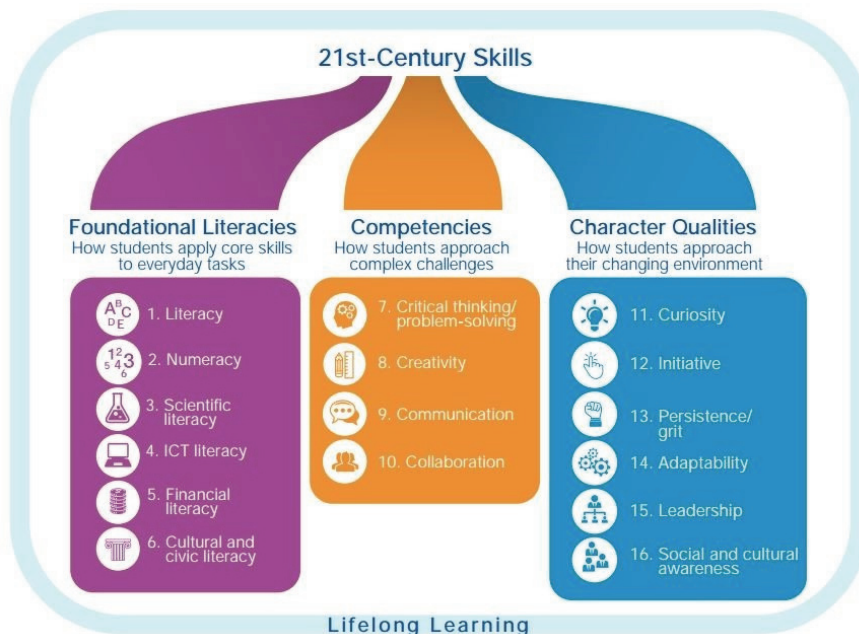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RD 용어사전, 2010. 9. 6., (사)한국기업교육학회)

OECD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의 조건으로 사회와 개인을 위한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해야 하고,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해야 한다는 것 3가지를 들었다(OECD, 2005: 4).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3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OECD, 2005: 5). 첫째, 개인은 환경과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정보 기술과 같은 물리적

도구와 언어 사용과 같은 사회 문화적 도구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언어, 상징, 텍스트/지식과 정보/기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해서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세상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질적인 그룹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타인과 원만한 관계 맺기/협력하며 팀으로 일하기/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셋째, 개인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 두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전체적 조망 속에서 행동하기/인생 계획과 개인 과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권리, 이익, 한계, 필요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은 21세기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을 찾기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 21세기 기술에 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기초 문해력, 역량 및 성격 특성 세 가지 범주로 16가지 기술을 도출하였다. 기초 문해력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산술 능력, 과학 소양, ICT 소양, 금융 소양, 문화적 시민 소양,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성격적 특성에는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적 인식을 제시하였다(그림 II-2-1 참고)

[그림 II-2-1] 21세기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p. 3.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는데, 교육은 4번째 목표에 해당되며 7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유아교육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박은혜, 2017: 119). 세부목표의 특징을 보면, 문해력의 개념이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형식적인 학교교육내의 교과나 지식, 기술 중심의 교육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둬으로써 정서나 동기 같은 soft skill을 강조하고 있다(박은혜, 2017: 127).

OECD(2019)는 Learning Compass 2030 보고서를 통해 역량(Competencies)과 더불어 학습자 행위주체성/행위성(Learner agency)을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였고, 교과나 가르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던 것을 '전통적인' 것으로, 역량과 학습자를 중심으로 가치, 태도, 지식, 학습 성향 배양과 더불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미래적인' 교육과정으로 보며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이연선, 2023: 91). 실제 삶과 직업에 필요한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개혁을 주장하는 국제기구와 싱크탱크, 미래교육 연구소 등의 담론에서 출발한 역량은 일반적으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와 가치(value)를 말하는데, 기술에는 인지와 메타인지 기술, 사회 정서적 기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이 포함된다(이연선, 2023: 95). 2019 Learning Framework에서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을 추가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였는데, 환경문제와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변화를 이끄는 것을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이연선, 2023: 95).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완화하며, 책임감을 가진다(이연선, 2023: 95-96).

2. 영유아기 역량

영유아기 역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길러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미래역량을 추가한다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영유아기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 초중등 교육연구사례에서 교과와 역량 통합모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 영유아기 통합모델에서는 역량(가치, 태도, 스킬과 성향)을 먼저 두고 학습 영역을 뒤에 배치하거나, 혹은 학습 영역에 역량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형태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연선, 2023: 108). 또

한 어린이를 초기 학습자이자 평생학습자로 보고 역량을 키우기에 앞서 초기에 학습 성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며, 학습 성향의 개념은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초적인 마음의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이연선, 2023: 109).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도 영유아기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적 공존 가치와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가치, 태도의 기초를 기르는 것을 핵심에 둔다(이연선, 2023: 110). 결국 영유아기에는 역량 자체보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성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서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해 부족과 혼란뿐 아니라 선정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적절성, 더 나아가 역량기반 교육과정 자체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변혁시켜갈 수 있는 ‘힘 있는 지식’에 대한 탐구도 이어졌다(강현석, 2023; 서경혜, 2020; 심성보, 2020, 이진희, 2023: 123에서 재인용).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한계와 함께, 직업교육과 기업에서 사용되던 역량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인적자본이론을 재포장한 것일 따름이라는 비판 등 역량 개념의 태생적 문제나 교육과정의 중심축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역량 개념을 거듭 다듬어가며(예컨대 OECD 교육2030)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이진희, 2023: 124).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미래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하여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후 2022 개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역량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11. 24).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5).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 II-2-1〉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감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함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함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

자료: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p. 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초등 통합교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미래 역량이란 지금-여기-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 생활은 지금-여기-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슬기로운 생활은 지금-여기-우리 삶을 탐구하는 힘을, 즐거운 생활은 지금-여기 우리 삶을 놀이하며 즐기는 힘을 각 통합교과별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격과 목표에 각각 진술하였다(조상연, 2023: 35).

〈표 II-2-2〉 초등 통합교과 역량의 변화

교과	2015 개정	2022 개정	
		통합교과 공통 역량	성격 및 목표의 역량 추출
바른 생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금-여기-우리 삶을 살아가는 역량	지금-여기-우리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힘
슬기로운 생활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금-여기-우리 삶을 탐구하며 살아가는 힘
즐거운 생활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금-여기-우리 삶을 놀이를 즐기며 살아가는 힘

출처: 조상연(2023).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이음과 횡단. 2023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초청강연. p. 36

영유아기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최근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2023)에서 발간한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이음교육 이론편: 교사용 안내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음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기초역량을 정의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유아기에 함양할 수 있는 4가지 기초역량으로 신체운동역량, 생애학습역량, 자기조절역량, 사회정서역량을 명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3〉 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기초역량		내용
신체운동 역량	대·소근육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기능이 잘 발달하였다(예: 공을 던지고 받기) • 연필을 바르게 할 수 있다. • 선을 따라 가위질을 할 수 있다.
	기초적 자기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 • 스스로 옷(신발)을 입고 벗으며, 정리할 수 있다. •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배변 처리를 할 수 있다. • 계단, 복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애학습 역량	문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 대화 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한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일상생활(학교,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표를 대부분 이해한다. •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간단한 글자를 읽고, 따라 쓸 수 있다.
	수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예: 나이, 주소 등 맥락에 따라 수가 가지는 의미가 다름을 이해하기) • 기본적인 수 세기(1-20)를 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길이, 무게 등을 재어보고, 비교한다. (예: 친구와 나의 우산 길이 비교하기) • 기본 도형(네모, 세모, 동그라미, 둥근 기둥, 상자 등)의 특성을 인식하고 구별한다. •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예: 빨-파=빨-파 다음에는 빨강이 나올 것을 이해하기)
자기조절 역량	정보 인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해 낼 수 있다. (예: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전달하기) • 새로운 사실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탐색하고 도전하기를 즐긴다.
	문제해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예: 곤충책을 통해 평소 곤충에 대해 궁금해 하던 점을 알아보기) •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이나 상황에 맞게 문제해결방식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예: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할 수 있지만, 학교 미술시간에는 그림 그리기 과제를 완수해야 함을 알기)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황별(수업시간, 급식시간 등) 규칙이 있음을 이해한다. • 주어진 여러 상황별(수업시간, 급식시간 등) 규칙이 있음을 이해한다. (예: 놀이터 규칙 지키기) •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거나 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정서 역량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한다. • 주위 또래 또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있다. • 마음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친숙한 어른에게 다가가 도움을 구한다.

기초역량	내용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한다. • 새로운 친구에게 친근하게 인사한다. •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다. • 친구에게 적절한 말을 한다. • 여러 친구와 함께 놀이에 참여한다.

출처: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2023).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이음교육): 교사용 안내서. pp. 36-39

3. 소결

역량(competency)과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어떤 일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기여하는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OECD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3가지 범주로 다양한 도구 사용,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을 들었다.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은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의 범주로 기초 문해력, 역량, 성격 특성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는 형식적인 학교교육내의 교과나 지식, 기술 중심의 교육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OECD에서는 최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역량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소 다른 점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역량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유아기에는 역량을 기른다고보다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기의 역량을 초등학교로의 연계를 위한 기초역량 4가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영유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는 어떤 역량이 핵심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차원에서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누리과정 개정 시 혹은 0~5세 교육과정 제정 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역량을 영유아기에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지, 영유아 교육과정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제3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1. 핵심역량의 도입의 흐름과 특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행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1954년 고시)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제2차 교육과정(1963년 고시)에서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제3차 교육과정(1973년 고시)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제4차 교육과정(1981년 고시)에서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이끌었다. 1990년대에는 열린 교육의 열풍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더불어 성취기준의 개발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실시 등으로 표면화된 행동주의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국가 교육과정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래 교육의 화두로 핵심역량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부터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2009개정 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9. 26), 실제 도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핵심역량은 미래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등 기존의 교육과정 사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할 수 있다. 또한 핵심역량은 국외의 교육과정 최신 동향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당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여러 교육과정 사조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여러 교육과정 사조의 경우, 특히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외의 영국, 미국 등 일부 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이미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적용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단계에 도입되었던 열린 교육은 1960년대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천되어 온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에서부터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성은,

2008). 또한 성취기준 개발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위기와 그를 타파하기 위한 공교육의 개선 움직임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즉, 당시의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동안 교육과정의 개발이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해 온 공교육 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학교 수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의 수용 및 신자유주의의 유입 등의 시대적 배경을 타고 1990년대 중후반에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공교육 책무성 확보의 주요 방안으로 안착하였다(김영숙, 2003).

이에 비하여 핵심역량은 세계의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전례가 찾기 어려운 공교육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해당한다. 그 이전에서도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였으나, 이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 또는 직업 교육에서 특정 직업인으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어 왔다(정희영, 정운, 2015: 358).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삶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사회적 능력 또는 가치·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핵심역량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의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도출된 개념이다(OECD, 2005: 3-5).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정의된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을 본격화한 사례는 먼저 주 수준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는 2001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5년에,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2007년에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Québec, 2001; Ministry of Education, Ontario, 2005;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2007). 그리고 2007년에는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국가 수준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으며(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7;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07), 핀란드에서는 2014년에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4). 이 중에서 호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가 아닌 지역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개발·적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도 2007년에 발표하였던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2007년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던 영국은 2014년에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지 않았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위의 사례에 비하여 몇 해 뒤로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이상에

서 제시한 핵심역량 도입의 국제적인 경향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이 표방되었으나 정작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도입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현장 적용 시기에 해당하는 2012년에 지역 수준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한편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과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경기도 교육청, 2012).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한 몇 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시·도의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문서에 포함하였다.³⁾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이후 경기도 교육청으로 대표되는 지역 수준의 핵심역량 선정 및 적용 방안 탐색은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선정 및 적용 방안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핵심역량의 일부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다(이승미, 박순경, 김영은, 이동원, 이근호, 권점례, 2017).

이상의 흐름에서 나타난 핵심역량 도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 사조는 외국의 교육 현장에서 이미 적용된 이론 및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변형되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핵심역량은 OECD의 교육 정책이 국제 사회에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성열관(2014)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OECD의 영향력을 ‘글로벌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국내의 정부가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기구인 OECD가 각국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단편적 지식에 대한 암기 위주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온 초·중등 교육에 대해 OECD에서 초·중등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핵심역량이 적절한 해소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내부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OECD에서 2003년에 마무리된 DeSeCo 프로젝트와 그 이후 2019년에 발표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3)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체제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체제로의 개선이 이루어진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부터 시·도 교육청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2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경기도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해당 문서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해당하지 않은(경기도 교육청 산하 학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자료임을 명시하였으나, 이후 몇 시도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차용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해당 지역의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이다(“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4. 2. 15. 인출)

Skills 2030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정을 거쳤으며 PISA 등의 국제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외부적 정당화’의 과정을 큰 저항없이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도입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소속감과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용”하였다는 것이다(성열관, 2011: 24, 26, 33).

둘째, 1990년대에 초등학교에 도입되었던 열린 교육에 대한 열풍이 그러했듯이 핵심역량의 도입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이전에 먼저 일부 지역 또는 학교 수준에서 적극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국가 수준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 및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관련 네트워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 또는 학교 수준의 경우 국가 수준에 비하여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속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수를 고려할 때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국가 수준에 비하여 적다. 이 과정에서 핵심역량은 외부적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지역의 자체적인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성열관, 2011: 35).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지향하고 지역 및 학교 수준의 자율성의 폭을 넓혀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나 대구 교육청과 같이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인 성취기준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및 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재로 핵심역량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즉, 지역 또는 학교 수준에서도 국가 수준에 못지않게 국외의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규모의 측면에서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용이하였고, 국가 수준에서 지역 또는 학교 수준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 수준보다 먼저 핵심역량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핵심역량의 도입이 도입되더라도 국가 교육과정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부 지역 또는 학교 수준에서 핵심역량이 도입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셋째,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 수준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야 비로소 핵심역량이 반영되었다. 그 원인을 특

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내부적 수준에서의 정당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교육과정 사조와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핵심역량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교육과정 총론에서 국가 수준의 핵심역량 선정과 역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문제의 복잡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따른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II-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3-1>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의 특징 및 배경(요약)

특징	배경
OECD의 교육 정책이 국제 사회에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차용’을 통해 외부적 정당화의 과정을 용이하게 거칠 수 있었음.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이전에 먼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 수준에서 적극적, 구체적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지역 및 학교 수준에 정보 유입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 - 지역 및 학교 수준이 국가 수준에 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용이하였음. - 제6차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발휘의 가능성이 확보되었음.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이 일부 지역 또는 학교 수준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내부의 정당화 과정이 쉽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사조의 측면에서 핵심역량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견 존재하였음. -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국가 수준의 핵심역량 선정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구체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타진 및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였음.

이에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의 특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도입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는 OECD 핵심역량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OECD 핵심역량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핵심역량의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고 4장에서는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핵심역량의 선정 및 그에 근거한 교육 내용 조직의 방안이 결정되기까지 제기되었던 논의와 남은 과제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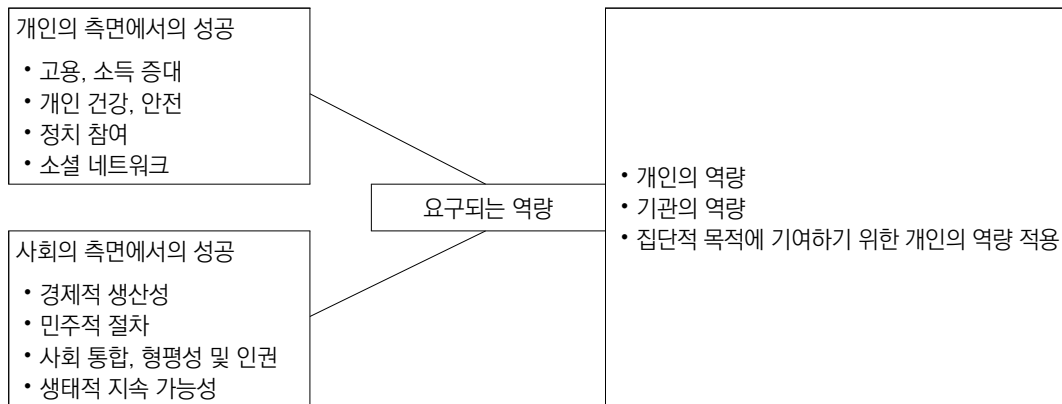
2. OECD 핵심역량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가. OECD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핵심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필요한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떤 개인적 자질과 인지 능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위한 심리 사회적 전제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직업을 찾고 유지하며 변화하는 기술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일 뿐 아니라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포함한다(OECD, 2005: 6)(그림 II-3-1 참고).

[그림 II-3-1] 개인과 집단의 목표와 역량(OECD의 DeSeCo 프로젝트)



출처: OECD(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 6.

또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성, 기업가 정신 및 개인적 책임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개인 ‘적응력’, ‘혁신’, ‘창의성’, ‘자기주도성’, ‘자기 동기화’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핵심역량은 ‘축적된 지식의 재생산’을 뛰어넘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창의적인 능력, 태도, 동기 및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한다(OECD, 2005: 8). 그리고 오늘날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차이와 모순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입장이나 생각 사이의 상호 연결과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인 반성적 사고야말로 핵심역량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맥락에서 핵심역량은 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핵심역량과 결합하여 작용한다(OECD,

2005: 9). 이상을 바탕으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표 III-2-1>과 같이 세 가지 역량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표 II-3-2>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의 세 범주

핵심역량의 세 범주	필요한 이유	역량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기술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목적에 맞게 도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세계와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 	A. 언어, 기호 및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사용 B. 지식과 정보의 상호작용적 사용 C. 기술의 상호작용적 사용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룰 필요성 공감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A.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B. 협력하고 팀으로 일하기 C.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 	A.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하기 B. 인생 계획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실행하기 C. 권리, 이익, 한계, 필요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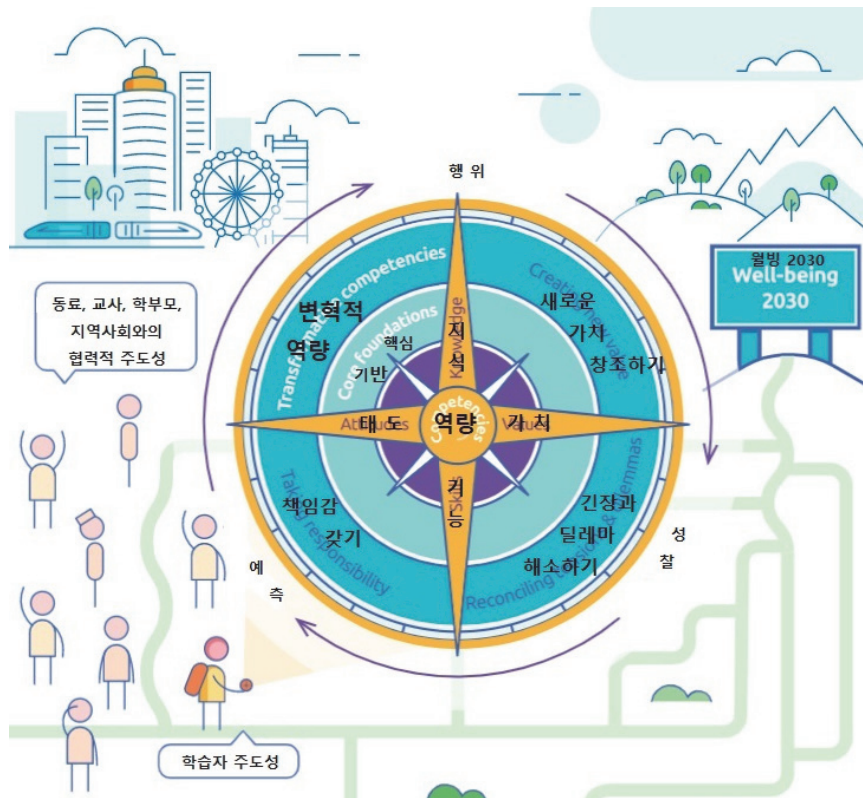
출처: OECD(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p. 10,12,14.

나. OECD 학습나침반 2030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간의 탐색을 통해 등장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에서는 자동화와 컴퓨터로 대표되는 산업 3.0을 넘어 가상물리시스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산업 4.0으로의 진입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둔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지향하게 되었다(OECD, 2019: 6).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연령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전인적으로 발전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개인, 지역사회, 지구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미래”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었다(OECD, 2019: 11).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에 비하여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할 뿐 아니라(OECD, 2019: 10), 분업에서 책임 공유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더 큰 생태계의 일부인 교육 생태계에서 지역 내의 학교 간과 관련 조직 간의 협력 등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가치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뿐 아니라 학생 및 관련 기관 등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뉴노멀(New Normal)을 구현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한다(OECD, 2019: 13-14), 그리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2003년에 발표한 OECD의 핵심역량에 이어 변혁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학습 프레임워크 ‘OECD 학습나침반 2030’을 발표하였다.

‘OECD 학습나침반 2030’은 핵심 기초(Core Foundation),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학습자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Student agency/co-agency),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가치·태도(Attitudes and values), 예측-행위-성찰 사이클(Anticipation-Action-Reflection cycle)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9: 16-17)(그림 III-2-1 참고).

[그림 II-3-2] OECD 학습나침반 2030



출처: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 OECD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 Notes. p. 15.

즉, ‘OECD 학습나침반 2030’은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제시한 세 가지 핵심역량 범주만을 제시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볼 때,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변혁적 역량과 더불어 변혁적 역량이 실현되기 위한 기반(핵심 기초)과 학습자상(학습자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 학생이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의 범주(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학습 과정(예측-행위-성찰 사이클) 등의 핵심역량이 실현되기 위한 교육의 제 측면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 학습나침반 2030의 각 구성 요소별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2-2>와 같다.

〈표 II-3-3〉 OECD 학습나침반 2030의 구성 요소별 정의

핵심 기초	핵심 기초는 학습자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핵심 기능, 지식, 가치·태도를 의미함.
변혁적 역량	변혁적 역량은 세상에 기여, 번영,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갖기로 구성됨.
학습자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	학습자 주도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함. 협력적 주도성은 학생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배우고 성장하고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동료,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과 상호 지원으로 개발됨.
지식	지식은 실제적 이해, 이론적 개념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문적, 학제간,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기능	기능은 과정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감있게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유형을 사회적, 감정적, 실용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으로 구분됨.
가치·태도	가치·태도는 개인의 선택, 판단, 행동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신념을 의미함.
예측-행위-성찰 사이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사고를 개선하고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반복 학습 과정을 의미함.

출처: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 OECD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 Notes. pp. 16-17.

이상과 같이 OECD에서 규정한 핵심역량을 살펴볼 때, OECD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그 동안 직업 교육에서 제시하여 온 특정 직업의 역량 또는 일반적인 직업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중등 전체 학교급을 통틀어 길러져야 하는 전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경제기구에 해당하며, OECD DeSeCo 프로젝트가 국제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하는 PISA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정된 핵심역량이 평가 문항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도입을 행동주의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역량이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⁴⁾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던 암기 위주의 (또는 문서로서 존재하는) 단편적인 지식 중심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 중심 교육은 과도한 교육 열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 교육이 잘못 해석·적용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지 교과 교육 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4) 일반적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또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전자가 핵심역량을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로서 중점적으로 활용한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핵심역량이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비하여 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조작적 정의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저서나 논문에서 이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 혹은 후자를 모두 포함하여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행동주의적 접근, 자유교육, 지식 교육의 관점에서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3. 핵심역량의 정체성 탐색

가. 행동주의적 접근과 핵심역량

핵심역량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역할을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20세기 후반 및 21세기에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이 국제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하는 PISA와 관련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에 소경희(2009: 6-8)는 20세기 초반에 직무 분석을 통해 분업화의 원리를 도입한 Tylor와 그의 영향을 받은 Bobbitt의 활동 분석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을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기원으로 본다. 그런데 핵심역량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은 그보다 조금 더 먼 19세기 후반의 Herbert Spence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여 년 전인 1860년에 Spencer는 그의 저서 ‘교육론: 지, 덕, 체’(1861: 14-43)에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육이 실제적인 삶과는 무관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이상적인 교육은 (미래의) 삶에 대한 완벽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일상생활에 유용한 과학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Spencer를 현대 교육과정사의 출발로 인식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이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 온 7자유과(동양의 경우 4서 3경)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비하여 Spencer는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미래의 삶을 학생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포괄하여 고려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Bobbitt은 1924년에 발표한 ‘교육과정 구성법’이라는 저서에서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Bobbitt은 교육의 과학화에 기여한 학자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과학적인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아닌 그 이후의 삶의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는 교양있고 잘 훈련된 성인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영역을 조사하여 ‘언어 활동’, ‘건강 활동’, ‘시민권 활동’, ‘일반적인 사회 활동’, ‘여가 시간 활동’, ‘정신적 건강 유지’, ‘종교 활동’, ‘부모 활동’, ‘전문적이지 않거나 비직업적인 활동’, ‘직업에 따른 노동’ 등의 9가지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

였고 영역별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도출하였다. 그는 그가 개발한 교육 목표 자체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교육의 목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과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기존의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교육 내용을 가르쳐왔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 목표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Bobbitt, 1924; Eisner, 1967: 31-3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Spencer와 Bobbitt의 주장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21세기의 교육의 방향성을 핵심역량에서 탐색하려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와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을 포함하는 현 교육의 문제 의식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에 Spencer와 Bobbitt이 그러하였듯이 21세기에 들어 활발해진 핵심역량 도입에 대한 주장도 교육과정 분야에서 쉽게 합의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Bobbitt의 주장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20세기 초에 과학적 경영과 직무 분석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Taylor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소경희, 2009: 7-9). 그리고 이는 이후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및 Mager, Gagne 등에 의해 명세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되었다. 즉, 이상에서 제시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명세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은 그 결과 체계적으로 명세화된 교육 목표를 도출해낼 수는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숙고 및 합의의 측면에서 교육 목표 설정의 과정을 간과하였으며, 교육의 목표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육의 목표를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그 동안 중요시되어 있었던 교육 내용의 내재적 목적을 무시하고 외재적인 교육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요약하면,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방법은 행동주의적 접근과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박민정, 2009, 82-84; 홍후조, 2011:164).

이상을 종합하여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을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3-4>와 같다.

〈표 II-3-4〉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발의 역사와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과의 유사성 비교

	특징	의의	한계	비고 (핵심역량 교육과정과의 유사성)
Spencer (1861)	• 교육과정은 이상적인 교육은 (미래의) 삶에 대한 완벽한 준비이어야 함.	•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로서의 교육과정의 역할 확립		• 유사한 문제의식(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에서 출발
Bobbitt (1924)	•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과학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성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영역과 교육 목표 도출	• 과학적인 절차를 활용한 교육 목표의 발견과 그에 따른 내용	• 행동주의적 접근 • 환원주의의 오류	•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핵심역량의 선정과 그에 따른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Tyler (1949)	•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개발			
Mager (1962)	• 관찰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형태로 수업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			

출처: 1) Spencer, H.(1861).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New York: D. Appleton.
 2) Bobbit, F.(1924). How to Make a Curriculum. Boston: Houghton-Mifflin.
 3)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 Mager, R. F.(1962). Preparing Instructional Objectives. CA: Fearon Press.

그런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행동주의적 접근과 환원주의적 오류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언급한 1세기 이전의 교육과정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역량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기 바로 직전인 1990년대에 영미권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강력하게 불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열풍과 그 일환으로 적용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고부담 평가의 영향력이 공식적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고부담 평가와 그 결과에 기반한 국가 간, 지역 간, 학교 간의 경쟁이 과열화되어 학교 수업이 비정상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Madaus, 1998: 78-81). 바로 이러한 문제의 실태를 교육 현장 전문가와 교육과정 학자들은 가장 근접하여 경험하였다.

관련하여 아직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반영되기 이전에 핵심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박민정(2009), 소경희(2009), 이원희(2015)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활용하게 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목표-교육 내용-평가의 일관성 추구에 대하여 교육과정사에서 행동주의적 접근이 야기하였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행동주의적 접근과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기 위

한 방안으로 핵심역량의 역할과 위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표면적인 연구 결과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역량’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핵심역량’이 지향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 단편적인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기능 및 가치·태도를 포괄하는 핵심역량의 개념 등이 본래 교과 교육이 추구하여 온 교육 내용의 방향이며 온전한 의미의 지식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교과 교육을 본래의 의도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할 ‘지식 교육과 핵심역량’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나. 지식 교육과 핵심역량

1) 온전한 의미로서의 지식의 개념과 핵심역량⁵⁾

기능과 가치·태도를 포괄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전한 의미로서의 지식의 개념은 서양 역사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arete’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arete는 어원적으로 좋음의 최상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 사물의 최고로 탁월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가장 탁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Guthrie, 1986: 23). arete를 우리말로 ‘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덕적인 의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탁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모두 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식을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부터이다. 이와 같이 지식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arete에 대해 탐색한 것은, 그 시대에도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통합된 상태로서의 arete를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근대에는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이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칸트가 제시한 객관주의에 의해 그 중에서도 명제적 지식이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신소림, 1992: 8-10).

현대에 이르러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지식의 구분과 그 중에서도 이론적 지식 또는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해 온 전통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학에서 흔히 거론되는 학자에는 G. Ryle, M. Polanyi, M. Oakeshott 등이 있다. 먼

5) 이승미(2001: 44-52)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저, Ryle(1949)은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명제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식이 발현되는 실제 삶의 장면에서 방법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을 포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olanyi(1962)는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 또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식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인식 주체인 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삶의 확장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akeshott(1967)은 지식은 정보와 판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무엇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정보는 명제적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며, 판단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신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등장은 교육에서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정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개인적 지식, 암묵적 지식,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제기하려는 시도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량(competency)라는 용어는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개인적 지식, 암묵적 지식, 판단이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정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핵심역량이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오히려 온전한 의미의 지식에의 도달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식의 실용주의적 측면과 교육의 도구적인 성격의 한계를 경계해 온 전통적인 지식 교육의 관점에서 핵심역량의 등장은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으로서 지식 교육의 관점의 측면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으로서 지식 교육의 관점과 핵심역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은 일부 지역 또는 학교 수준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그 이유를 앞에서는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정보 유입과 소통 원활, 지역 및 학교 수준 내에서의 설득 과정의 상대적 용이성,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지향에 따른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발휘의 가능성 확보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일부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핵심역량을 도입하고자 한 원인은 일부 지역 및 학교에서 핵심역량의 도입이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정보에 해당하는 단편적 지식에 대한 암기 위주 교육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핵심역량의 도입은 지식 교육의 한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식 교육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hristodoulou(2014/2018: 31-56)

에 따르면 Rousseau, Dewey, Freire 등이 사실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삶이나 이후의 학문에서의 적용이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순한 주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하였지만, Bloom의 인지적 목표 분류학에 제시된 가장 첫 번째 항목이 '지식'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지식에 대한 학습이 없으면 이후의 적용이나 발전 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 지식에 대한 선대 학자들의 비판이 실은 교육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적 지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실적 지식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 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제기하는 주장은 핵심역량의 도입 이전부터, 예를 들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나 그의 일환으로 추구되어 온 열린 교육의 초등학교 교육 현장 적용 등 암기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에 대한 대안이 등장할 때마다 (그와 같은 대안보다는)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식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그 관점을 제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가장 먼저 인용되는 것은 Bruner가 1960년에 발표한 '교육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이흥우(1998: 53-67)는 '지식의 구조와 교과'라는 저서에서 Bruner가 '교육의 과정'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리학자와 동일한 일을 한다"는 탐구학습의 원리를 학습자의 밖에 있는 물리학적 지식을 기본 개념과 원리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침으로써 학습자의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때 지식의 구조야말로 지식의 팽창을 대처할 방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 안에는 지식 교육은 첫째, 학습자의 안목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교과 교육의 목적과 더불어 둘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경우 지식의 팽창에 대처할 수 있다는 교육의 효용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식의 구조를 가르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효용성은 Bruner 이후의 여러 학자에 의해 회자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백워드 설계로 불리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 설계 방법을 제안한 Wiggins와 McTighe(2008)와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 방법을 제안한 H. L. Erickson, Lanning, 그리고 French(2017) 등이 있다.

먼저, Wiggins와 McTighe(2008: 58-72)는 Bruner가 제시한 지식의 구조에서 전이 가능성을 승계하되 '지식(knowledge)'을 '이해(understanding)'로 확장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해'는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Wiggins & McTighe, 2008: 2011-2016)(표 II-3-5 참고).⁶⁾ 즉, 깊이 있는 이해란, 학생

6) 교육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정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물은 Bloom 등(1956)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즉, Bloom 등(1956)은 교육 목표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후 D. R. Kratwohl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를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단계로, A. J. Harrow는 심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

들이 교육 내용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의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표 II-3-5〉 이해의 6가지 측면

이해의 측면	설명
설명(explanation)	자신의 언어로 '핵심적 아이디어'를 말하고, 핵심적 아이디어 간에 관련성을 탐색하고,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의미함.
해석(interpretation)	이야기, 예술작품, 자료, 상황, 주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의미함.
적용(application)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관점(perspective)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명료화하며, 큰 그림을 보고, 기본 가정을 인식하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능력을 의미함.
공감(empathy)	사고와 감정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함.
자기 지식(self-knowledge)	자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목표 도달도를 통찰하는 메타 인지를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함.

출처: Wiggins, G., & McTighe, J. (2008). *Understanding by Design*.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pp. 21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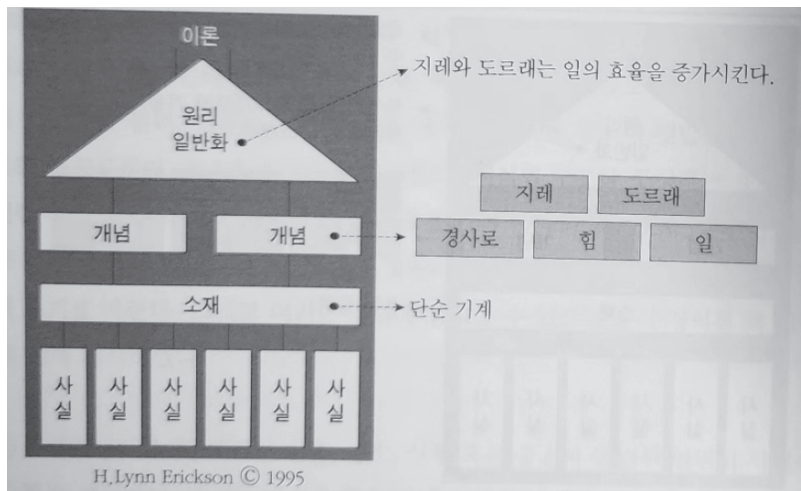
Wiggins와 McTighe(2008)가 제시하는 '이해'는 Erickson 등(2017)의 개념기반학습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Wiggins와 McTighe(2008)는 전이성을 포함하여 학생이 도달해야 할 지식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Erickson 등(2017)은 사실과 주제를 연결시킨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즉, Erickson 등(2017: 56-57)은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학습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개념들을 결합한 원리 또는 일반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원리 또는 일반론은 교사 또는 기존의 교재 등에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사실을 탐구하여 개념을 도출해내고 개념들을 결합하는 귀납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 또는 발견하는 것이다(그림 II-3-3 참고).

따라서 Erickson이 제시하는 '개념'과 개념들을 결합한 '원리 또는 일반론'은 Bruner가 탐구 학습을 통해, Wiggins와 McTighe가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교육의 지향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Bruner의 지식, Wiggins와 McTighe의 이해, Erickson의 '개념'과 개념들을 결합한 '원리 또는 일반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를 반사운동, 기초운동, 운동지각능력, 신체기능, 숙련 기능, 동작적 의사소통의 단계로 구분하였다(Hauenstein, 2004). 이 연장선에서 Wiggins와 McTighe가 제시한 6가지의 측면을 포괄하는 이해와 앞으로 제시할 Erickson의 개념, 원리, 일반화 등은 협소한 의미로서의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로서의 지식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루는 교육 내용이 궁극적으로 단편적인 암기 중심의 지식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결합되어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이후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위 수준의 앎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은 최소한의 학습량으로 주어지는 교육 내용을 깊이있게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 전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II-3-3] Erickson의 지식의 구조(과학과의 사례)



출처: Erickson, H. L., et al. (2017). *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the Thinking Classroom*.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p. 57.

이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성의 추구라는 핵심역량이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결국 현행하는 교육이 ‘지식’, ‘이해’, ‘개념’과 개념들을 결합한 ‘원리 또는 일반론’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보다는 지식의 본래 의미와 지식 교육의 본래 역할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 F. D. Young은 핵심역량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 중심 역량 기반 접근 방식(test-driven competency-based approaches)으로 표현하는 한편(Young, 2008: xi), 이를 도입한 2007년 개정된 영국 교육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교육과정을 도구로 취급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Young, 2008: 224). 다시 말해서 지식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핵심역량 등) 외부적인 기재에 의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그 외부적인 기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예를 들어 핵심역량의 경우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휘둘러 교육이 교육으로서 추구해야 할 본래의 방향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Young(2013)은 교육과정에서 ‘강력한 지식(powerful knowledge)’이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2014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핵심역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 자유교육과 핵심역량

본 장의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요구되는 미래 핵심역량의 범주 세 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에서는 변혁적 역량이라는 방향성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학습자상, 학생이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의 범주와 학습 과정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결과에서는 각 프로젝트가 상정한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나, 선정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 및 교육 내용에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 조직 방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관련하여 교육에서 핵심역량의 도입이 행동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는 비판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인문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관련하여 소경희(2009: 8-9)는 Dewey([1915], 1966)가 주장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설계는 특정한 직업인의 육성이나 직업을 위한 훈련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의 적응 및 직업에서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수준의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Bobbitt(1924) 등 행동주의적 접근의 주장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OECD가 제시하는 핵심역량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되, 특정 직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역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소경희(2009: 9-11)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에 대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영향력을 분석한 Ewens(1979)의 연구를 인용하여, 7자유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본래 “지식이 무지, 편견, 이상, 실용적 관심 등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대의 담론을 포괄한 핵심역량이야말로 7자유과가 지향하였던 교육의 결과 획득되는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하여 21세기에 들어 핵심역량의 선정을 통해서 자유교육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Nussbaum(2011: 57-59)은 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발 경제학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현대와 미래 사회에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되어야 할 핵심역량의 영역으로 ‘생명(life)’, ‘신체적 건강(bodily health)’, ‘신체적 온전성(integrity)’, ‘감각, 상상, 사고(sense, imagination,

and thought), '감정(emotions)',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 '소속(affiliation)', '다른 종(種)(other species)', '유희(play)', '환경의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등의 열 가지를 제안하였다. 즉,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 핵심역량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수행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이나 상태를 의미한다(Short, 1984, 1985: 소경희, 2009: 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핵심역량은 과거 7자유과에서 제시한 지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함몰되거나 특정 행동 또는 수행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 “학생들이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wens, 1979: 174-175; 소경희, 2009: 12에서 재인용). 즉, 핵심역량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제적 지식도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한편, 지식의 효과적 활용을 강조한다(소경희, 2009: 13). 이와 같이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교육받은 사람(educated person)에 대한 기대를 핵심역량으로 표현하고, 교육의 결과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바로 이 관점에서 O'Connell과 Moomaw(1975: 1: 1; 소경희, 2009: 11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역량에 대한 명료한 진술’, ‘역량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역량의 획득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학습 경험’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은 행동주의적 접근으로서의 핵심역량이 비판되어 왔던 관찰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업 목표, 교수·학습, 평가의 추구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행동주의적 접근에 비하여 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이 아닌 일반 역량에 해당한다는 점이 더 명료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개념이 발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의 의미를 받아들여져 왔던 자유교육의 방향성을 지속하는 한편,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추구되어 왔던 온전한 의미의 지식 교육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역량 도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의 확립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은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구분되는 현대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해 온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

첫째, 이미 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의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 교육과정에 함몰되지 않으며 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이나 상태를 일반 교육 목표로 제시하여 왔다. 따라서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 교육 목표와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교육 목표가 교과 교육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는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는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괴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소경희, 2009). 이러한 점에서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이 도입되는 경우, 선정될 핵심역량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괴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절에서 탐색한 핵심역량의 정체성을 행동주의적 접근과 자유교육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II-3-6>과 같다.

<표 II-3-6> 핵심역량의 정체성 탐구(정리)

	행동주의적 접근으로서의 핵심역량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선정의 목적	• 미래의 삶 준비	• (상동)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 전통적 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 전통적 교육: 실제적인 삶과는 무관한 명제적 지식의 교육에 경도	•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요구 실현(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 자체가 아닌 일반 역량을 의미)
핵심역량의 개념	• 구체적인 행동이나 수행 능력(명제적 지식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적 지식)	•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이나 상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선정된 핵심역량을 관찰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수업 목표로 구체화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	• 선정된 핵심역량의 의미를 명료히 진술하고 진술된 핵심역량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학생의 역량의 성취 여부를 평가(이때 핵심역량이 관찰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측면에 국한되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님)
해당 접근에 대한 비판	• 전통적인 지식 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 (관점 1) 명제적 지식은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지도 방법의 문제를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 자체의 문제로 오인한 것임. ☞ (관점 2) 지식은 본래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결합된 형태로만 존재함. 따라서 핵심역량이 제시하고자 하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결합한 교육 내용은 본래적인 지식의 의미 그 자체에 해당함.	•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은 기존의 일반 교육 목표와의 차별성이 부족함. • 핵심역량과 교과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핵심역량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접근에서 정체성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적 접근만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란, 행동주의적 접근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인문주의적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선정된 핵심역량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수행 능력 중심으로 관찰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업 목표로 구체화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핵심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접근에서 그 정체성을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핵심역량의 개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논의한 행동주의적 접근으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유교육적 성격으로서의 핵심역량은 핵심역량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가운데 서로 정반대에 있는 두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두 접근 방식 가운데 어느 한 방식에 가깝지만 어느 한 방식에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일부 수용하는 등의 융합형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핵심역량의 개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특정 접근 방식에 국한되지는 않은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보다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 개발 문서에서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범사회적 전문가, 전국 시도감협의회 등을 모두 포괄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교육부, 2021: 3-4). 이 과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특정 이론이나 특정 학자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전반을 포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 간에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정체성 탐색은 핵심역량과 관련된 특정 접근이 다른 접근에 비하여 더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려 함이 아니며, 핵심역량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에서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이 절에서 탐색한 핵심역량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설계 방안 및 그와 관련된 이론적, 실제적인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교육과정 설계 방안과 관련 쟁점을 탐색하기 전에 먼저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 다른 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1)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관계

초·중등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며, 각론은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즉,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총론과 각론 각각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일관된 정체성을 적절히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교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안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교과 교육과정의 제1 목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즉,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는 한 인간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총체성에 중점을 둔다면, 각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는 각 교과의 가치와 중요성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인적으로 학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체성에 중점을 둔 관점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진로와 직업을 고려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가치와 중요성에 중점을 둔 관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은 때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 균형을 맞추어 가기 위해 협업한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 간에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총론과 각론 각각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제시할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의 영역 구분’에서 상세히 제시하겠지만, 교과별로 그리고 교과 내 영역별로 서로 다른 내용 분야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인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 분야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문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는 다른 교과와 동일한 문서 체제를 따르기보다는 해당 교과 고유의 내용 분야와 접근 방식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서 체제를 적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체제는 목차와 항목의 구성 및 진술 방식뿐 아니라 진술 분량 등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영역 구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는 과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은 ‘교과’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기하, 삼각함수 등은 과목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과목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활용된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영역은 해당 교과의 과목의 구분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초·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영역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과학’, ‘과학과 사회’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 이 중에서 앞의 네 영역은 고등학교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해당한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영역은 교육과정 총론 또는 교과 교육과정의 요구에 의해 해당 교과의 과목의 구분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한 과학과에서 ‘과학과 사회’라는 영역은 2022 개정에서 교과 간 융합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요구와 과학과 내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교과에 따라서는 영역을 과목의 구분 방식을 따르되 하나의 과목에 해당하는 영역을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체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영역이 과목의 구분을 따른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각 영역의 성격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 교육과정에서 ‘운동과 에너지’와 ‘생명’은 과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로 묶인다. 그러나 이는 과목의 측면에서 ‘물리’와 ‘생명과학’은 연구 분야와 연구 방법 등에서 상호 구분된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역사일반’, ‘지역사’, ‘한국사’ 등 총 11개이다. 이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라는 각각의 과목을 영역으로 구분한 방식이다. 이 중에서 일반 사회는 ‘정치’, ‘법’, ‘경제’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영역 또한 서로 다른 연구 분야와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구분된다.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과’만 제시하고 ‘과목’으로 세분되지는 않지만, 각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 내에서 각 영역의 교육 내용의 중요성, 비중, 상호 관계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관련하여 각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된다.

참고로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은 각 교과와 관련된 초·중등 전공자가 주로 참여하여 개발한다. 개발자 중에는 해당 교과를 전공한 초·중등 교사도 포함한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각 교과목을 지도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담임 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지도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대체로 교과 간에 중복이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통합 교과를 선호하거나, 교과 내에서 영역 구분이 적은 것은 선

호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는 지도해야 할 과목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 일부 포함되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을 선호하기 어렵다.

3)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성취기준)의 진술 방식과 역할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은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만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 출발점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져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는 체제를 갖추어 왔다. 즉, 교과서 중심 체제에서는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고, 학교 또는 교사가 참고하도록 배포된 규정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세계화 및 지역화의 흐름에 기반하여 1992년 제6차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역할을 국가-지역-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도입되면서 교육과정 중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실질적인 필요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개발에 기반한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 움직임인 'standards 운동'과 그 맥락이 닿아있다. 그리고 standards 운동의 결과 도출된 성취기준은 공교육의 결과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명료화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도달한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백남진, 2007; 허경철,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외, 2005: 271; 성열관, 2005; 김진숙, 1999; 김종윤, 이승미, 박선화, 임윤진, 배화순, 2018: 9-10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암기 위주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취기준이 내용기준(content standards)과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s)의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허경철 외, 2005: 272).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에서 전통적으로 제시해 온 교육 내용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 교육 내용을 어떠한 수행을 통해 실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의 성취기준 진술 방식이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 즉, 외형적 특성을 이승미, 박순경(2014: 60-62)의 연구에 기반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성취기준에는 배워야 할 내용을 명사형 어구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이것은 내용기준에 해당한다.
- 성취기준에는 배워야 할 내용을 명사형 어구와 결합된 동사로 제시한다. 이때 동사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첫째, 학생들이 교육 내용의 이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때 동사는 수행기준에 해당한다.
- 둘째,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나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동사는 평가준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이승미와 박순경(2014: 60-61)에서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 가운데 “생산 활동의 종류를 찾아보고, 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성취기준에서 내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생산 활동의 종”와 “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이라 할 수 있고, 수행기준에 해당되는 문구는 “(생산 활동의 종류를) 찾아본다”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준거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A를 B하고 C를 D한다”는 진술 방식으로 한 줄 정도로 진술되는 짧은 성취기준 문장 안에는 내용기준과 수행기준, 그리고 평가준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는 간결하게 작성된 성취기준을 제공하여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실현하는 한편,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승미, 박순경, 2014: 61-62).

첫째, 성취기준에서 명사형 어구(“A를 B하고 C를 D한다”는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서 주로 A와 C에 해당)는 내용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서 명사형 어구의 의미와 범위 등을 대강화하여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 또는 교사 수준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한 성취기준에 생산활동의 종류나 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으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사 수준에서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보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교과서를 더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취기준에서 동사(“A를 B하고 C를 D한다”는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서 주로 B와 D에 해당)는 내용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기준(예: 생산활동 종류)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기준이 성취기준에 제시된 동사(예: 찾아본다)로 한정되어야 할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즉, 생산활동의 종류를 찾아보는 것 외에 제시된 생산활동의 종류를 체험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수행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용기준에 해당하는 명사형 어구와 수행기준에 해당하는 동사의 결합은 어느 정도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 결합의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할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성취기준에서 동사(“A를 B하고 C를 D한다”는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서 주로 B와 D에 해당)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이해의 정도 또는 성취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 할 수 있다”는 어구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이 어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기준을 포괄하여 Bloom의 목표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구별한다’, ‘비교한다’, ‘적용한다’ 등의 다양한 동사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동사를 제시하여 그 동사가 내포하는 학생들이 도달하는 목표 도달도가 달라지도록 성취기준을 진술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동사를 제시하는 것은 성취의 정도를 명료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행기준으로서 동사를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즉, 성취기준 진술문에서는 성취기준의 동사를 통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이해의 정도 또는 성취의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내용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기준이 도달해야 할 성취의 정도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내용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기준은 수업의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자 수업의 결과 유사한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평가준거는 수업의 결과로써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이해의 정도 또는 성취의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행기준과는 구분된다.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한 후에 후속 작업으로 교과 교육과정별로 평가기준 문서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개발된 성취기준을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명명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평가준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평가준거 성취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평가준거 성취기준에 대하여 학생들이 도달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제시한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참고로 이 방식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연 외, 2016: 19-24).

4) 교육 내용(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추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기준, 수행기준, 평가준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수행기준과 평가준거로서의 역할은 특히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의 실재가 평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더불어 그에 따라 교육 내용 그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이 그 교육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교수·학습의 개선에 소홀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표 II-3-7>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제시하였다.

〈표 II-3-7〉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성취기준-교수·학습-평가 활동 간 일관성 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p>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p> <p>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p> <p>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p> <p>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p>	<p>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p> <p>1)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여,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한다.</p> <p>2)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3)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반영한다.</p> <p>4)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p>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p. 33;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p. 12.

밑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관련 규정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함.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두 성취기준-교수·학습-평가 활동 간 일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고,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확인과 환류를 포함하며,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 및 학습의 과정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던 것에 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 및 학습의 과정에 대하여 “확인환류”를 실시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인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에 대한 지원 제공보다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강조되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학생의 자기 평가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메타인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24: 61).

이상에서 제시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을 바탕으로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도입 방안을 탐색한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한 쟁점을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II-3-8〉과 같다.

〈표 II-3-8〉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비고(초·중등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과의 관련성)
교육과정 총론	1) 핵심역량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2) 핵심역량의 위상은 무엇인가?	-
교과 교육과정	1) 각 교과는 핵심역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2) 핵심역량의 도입에 따라 교육 내용과 그 제시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3) 교육 내용과 그 제시 방식의 변화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관계 ☞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영역 구분 ☞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진술 방식과 역할 ☞ 교육 내용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추구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반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교육부의 수탁과제로 이루어진 연구와 그 결과 도출된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방안과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연구를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한편,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각론 조정 연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즉, 각론 조정 연구는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발생해 온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진들 간에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간의 전체적 연계성(articulation), 전체적 균형성(balance), 전체적 통일성(coherence)⁷⁾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홍후조, 2017: 3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와 각론 조정 연구와 그 결과 개발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반영 방안을 분석하였음을 밝힌다(표 III-4-2 참고).

7) 홍후조(2017: 337-338)는 교육과정 조직의 양호도 기준으로 횡적 영역, 종적 계열, 종적 계속성, 전체적 연계성, 전체적 균형성, 전체적 통일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전체적 연계성은 “학제나 교과 편제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결절부를 중복, 비약, 후퇴, 누락 등이 없도록 부드럽게 조절하여 이어주는 일”을, 전체적 균형성은 여러 결절부 간에 “횡적 구성 및 종적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을, 전체적 통일성은 “조직된 교육과정 내용을 종적·횡적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하게 유기체적 체계성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일”을 의미한다.

〈표 II-3-9〉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반영 방안 개발 관련 교육부 수탁과제 목록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교육과정 총론 관련 연구	교과 교육과정(각론 조정) 관련 연구
2015 개정 교육 과정	기초 연구	•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시안 개발 연구	• 김경자 외(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 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2022 개정 교육 과정	기초 연구	• 이승미 외(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및 기능 체계화 연구	• 한혜정 외(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 온정덕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 이수정 외(2021).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시안 개발 연구	• 황규호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 한혜정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I) • 민용성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II)(교수·학습 및 평가)

- 출처: 1)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김경자, 강태중, 강현석, 구정희, 김대현, 김두정 외(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3) 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이근호, 이주연, 이미숙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백경선, 온정덕, 소경희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이승미, 이경남, 신호재, 배화순, 박주현, 변희현 외(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및 기능 체계화 연구
 6) 한혜정, 이승미, 민용성, 이주연, 이수정, 노은희 외(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 온정덕, 김병연, 박상준, 방길환, 백남진, 이승미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세종: 교육부.
 8) 이수정, 이승미, 최정순, 유금복, 김선희, 조현영 외(2021).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 황규호, 소경희, 강현석, 온정덕, 백남진, 최종선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10) 한혜정, 이광우, 민용성, 이주연, 전호재, 온정덕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민용성, 이광우, 이주연, 이승미, 전호재, 온정덕 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교수·학습 및 평가)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핵심역량의 의미와 요소,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에의 반영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으며, 연이어 이루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김경자 외, 2015)를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 핵심역량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승미, 이경남, 신호재, 배화순, 박주현, 변희현 외(2019)의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교육 전문가의 요구에 기반하여 핵심역량의 구성과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방안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황규호 외, 2022)를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위상 및 역할을 소폭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역량의 의미 규정과 그에 따른 핵심역량의 도입 목적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핵심역량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핵심역량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 개발 연구의 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을 표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포함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다음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 개발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이 더 부각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연구로 수행된 박순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 그 이전에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핵심역량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핵심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출처: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111.

이 규정에서는 핵심역량의 필요성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으며, 핵심역량은 교육 내용 중에 지식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기능이나 태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규정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특수 역량이 아니라 일반 역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이 연구(박순경 외, 2014: 114-115)에서는 핵심역량의 요소로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의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시안 개발 연구로 수행된 김경자 외(2015: 59-69)의 연구에서는 이 규정 가운데 특히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현존하는 핵심역량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맥락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핵심역량 도입과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관점과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이 중에서 박순경 외(2014: 111)에서 제시된 관점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핵심역량을 도입한 국내외 사례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단순 축적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그것을 의미 있게 활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과정 사조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의 도입의 목적에 경제적인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 핵심역량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공교육에서 강조해 온 교과 지식의 중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 김경자 외(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pp. 59-69를 요약하여 제시

2) 핵심역량의 도입 목적에 따른 핵심역량의 위상 정립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핵심역량의 의미를 규정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 120)은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핵심역량의 반영 방식으로 ①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목표’에 핵심역량을 명시하거나, ② 핵심역량을 지침의 형태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③ 핵심역량의 중요성, 요소, 의미,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방안,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을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의 방안은 전체 교육의 방향으로서 핵심역량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두 번째는

핵심역량의 실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 번째는 구체적인 핵심역량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핵심역량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의 폭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박순경 외, 2014: 120). 이와 같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어디에 어떻게 제시하느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핵심역량의 위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경자 외(2015: 113, 118)의 연구에서는 (일반 역량으로서 핵심역량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핵심역량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위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된 현재의 관점과 도입 맥락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존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유지하되 핵심역량의 위상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는 ‘도구’로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김경자 외, 2015: 18)에서는 박순경 외(2014: 114-115)의 연구에서 제안한 7가지 핵심역량을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공동체 의식’,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 ‘심미적 감성역량’의 여섯 가지로 정련하여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핵심역량’으로 명시된 규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한 다음과 같이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p. 2.

밑줄: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표시함.

둘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p. 3.
 밑줄: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표시함.

즉,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핵심 개정 방향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교육의 방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의 위상에 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로 수행된 이승미 외(2019: 326)와 이수정 외(2021: 104-125) 등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4가지 항목인 것에 비하여 핵심역량은 6가지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의 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반영 방안이 교과 교육과정마다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두 연구에서는 그 해소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던 핵심역량을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3가지 범주와 7가지 요소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3가지 핵심역량의 범주를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같음하되, 3가지 범주의 의미를 7가지 요소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수정 외(2021: 106)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초·중등 교사, 장학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의 6가지를 대체로 유지하되 그 의미

와 구현 방식을 미래 방향에 맞게 개선한다는 의견이 77.9%로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시안 개발 연구(황규호 외, 2022: 80)에서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제 막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 핵심역량의 위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해당 부분의 목차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었던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핵심역량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여섯 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의사소통 역량’이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배려와 협력 등을 충분히 강조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제시하는 것 외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명칭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였다(황규호 외, 2022: 8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핵심역량의 위상을 도식으로 제시하면 [그림 II-3-4]와 같다.

[그림 II-3-4]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의 위상(2015/2022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 (구체화)	•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 (구체화)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교양있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구체화)	• 주도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교양있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구체화)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협력적 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pp. 1-3;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pp. 4-6.

밑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을 본 연구에서 표시함.

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설계 및 쟁점

1) 교과 역량의 등장 필요성과 난점

OECD DeSeCo 프로젝트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특정 직업인의 육성을 위한 직업 역량 또는 특수 역량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즉, 일반 시민의 양성과 관련되는 일반 역량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총론의 측면에서 일반 역량으로서의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교과 또는 교과 내 과목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각 교과에 동일 명칭이나 동일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 지향하는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지향하는 도덕적 사고 및 정서와 동일하게 명칭을 통일하거나 그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거나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도덕적 사고 및 정서를 수학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의 제시 방법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난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표 II-3-10>과 같이 세 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박순경 외, 2014: 124-128).

<표 II-3-10>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구분	전제 조건	장점	단점
• 방안1: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요소들을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총론에서 모든 교과들이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핵심역량 설정	핵심역량과 교과 교육의 일관성 확보, 교과 교육과정 간의 통일성 확보	교과 간의 특수성이나 고유성 간과
• 방안2: 교과별로 총론에서 제시된 역량 중에서 일부 해당 교과에 적합한 역량을 교과 대표 역량으로 설정하는 방안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요소들을 공통의 기반으로 교과 역량 설정	교과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화	각 교과별 핵심역량의 해석과 선택이 총론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이상과 목표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방안3: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하되 교과의 독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핵심역량의 대체나 변경까지 허용하는 방안			

자료: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pp. 124-128의 주요 내용 발췌 제시

이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김경자 외, 2015: 129)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진에서 먼저 “교과 교육과정을 총론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의 지적 엄격성을 강조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는 관점의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기초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세 번째 방안을 제안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이 방식을 교과 특수적 역량의 개발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교과 특수적 역량을 “교과의 핵심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천 능력”으로 규정하고, “교과와 관련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써 교과 기능의 습득과 그 능력을 적용하는 것(실천)을 강조하고, 교과의 논리에 기반해야 하므로 교과 교육 전문가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1. 각 교과는 교과의 '성격'에서 교과 특수적인 역량을 목표와 함께 제시하여, 교과목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교과 특수적 역량의 요소들이 교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다루어져야 함을 명시한다.
2. 각 교과는 필요한 경우 및 가능한 경우 '목표'를 진술할 때 총론의 일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진술할 수 있다.

출처: 김경자 외(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pp. 129-130.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조정 연구(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외, 2015;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 2015)에서는 교과 특수적 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명명하고 교과 역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역량에 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로 수행된 이승미 외(2019), 한혜정 외(2020), 온정덕 외(2021) 등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역량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승미 외(2019: 113)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이 다양한 교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① “교과 역량이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에 내재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교과별로 선정하여 제시한 교과 역량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며, ③ 교과별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역량의 경우에도 명칭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교과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역량임에도 명칭이 같게 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한혜정 외(2020: 220)의 연구에서는 교과 역량의 제시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이 제시됨에 따라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의 관련성이 명료하지 않고 일부 교과에서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과 역량을 제시하지 않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온정덕 외(2021: 61-62)에서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부분에서 교과 역량의 요소가 선언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안으로 차기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의 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기보다는 교과의 '목표'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드러내어야 할 능력 특성을 반영하여 진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교과 역량을 제시하는 방안은 교과 역량에 기반하여 교과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별 지도 교사 중심의 중·고등학교급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교과 역량을 폐지하는 방안은 핵심역량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는 단계(핵심역량→교과 목표→내용 체계→성취기준)가 단순화된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의 구성 이해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담임 교사가 여러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학교급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3-11>과 같다.

<표 II-3-11> 교과 역량의 개선 방안(유지 또는 폐지)(2022 개정 기초 연구의 안)

	문제 인식	제시 방식	특징	단점
• 방안1: 교과 역량의 유지	- 핵심역량의 실현 방안을 교과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과 역량을 '성격'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내용 체계의 '기능'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 교과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개발할 수 있음. - 교과별 지도 교사 중심의 중·고등학교급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함.	- 핵심역량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는 단계(핵심역량→교과역량→교과 목표→내용 체계→성취기준)가 복잡함.
• 방안2: 교과 역량의 폐지	-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의 관련성이 명료하지 않음. - 일부 교과에서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교과 역량의 요소가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현되지 못함.	- 교과 역량을 교육 목표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이를 내용 체계(지식, 기능, 가치·태도)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핵심역량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는 단계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음(핵심역량→교과 목표→내용 체계→성취기준). - 담임 교사가 여러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학교급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함.	- 교과별 특수성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자료: 한혜정 외(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220과 온정덕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세종: 교육부. pp. 61-62의 주요 내용 발췌 및 보완하여 표로 제시

이상의 논의 결과에 근거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I에서는 "교과 역량을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지 않고, 목표에 통합 반영하여 진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한혜정 외, 2022: 53). 그러나 교과 역량의 요소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핵심역량 교육과정 설계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II(민용성 외, 2022: 88-111)에서는 총 7차로 진행된 교과 교육과정 각론 시안 검토 가운데 4차부터 교과 역량의 요소를(‘성격’이 아니라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목차에서 처음 생성된) ‘교육과정 개요’에 포함하여 소개하되 그에 대한 각 요소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내용을 교과 목표에 녹여서 진술하도록 제시하였다.

2) 교과 역량에 따른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일반 역량으로서의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교과 역량의 요소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과 역량은 교과만의 교육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 129-135)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⁸⁾을 제안하였다.

〈표 II-3-12〉 교과 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제시 방식	특징
• 방안1: 교육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음(교수·학습방법과 평가의 개선 도모)	- 역량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제시	- 역량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실천 사항들을 안내
• 방안2: 교과 내용 체계에 반영	- 내용 체계에 고유한 교육 내용과 더불어 그 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여 활용, 분석, 평가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과 역량 관련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시	- 교과 고유의 내용 체계를 유지하되, 교과 역량의 반영을 추가

자료: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129-135의 주요 내용 발췌 및 재구성하여 표로 제시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김경자 외, 2015: 130)에서는 다음의 지침을 제안하였다.

2. 각 교과는 교과만의 논리적 구조나 기본 계열은 존중하되 ‘내용체계’에 관련된 핵심역량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한다.

출처: 김경자 외(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p. 1230.

8) 박순경 외(2014: 129-135)에서는 본래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나,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반영하는 방안”의 경우, 첫 번째 방안인 “교육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음”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방식에 해당되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였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각론 조정 연구에서는 교과 역량을 내용 체계에서 반영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내용 체계에 ‘기능’을 명시하여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수행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기대되는 능력”으로 제시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 2015: 22).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역량은 교과 지식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능(skills, competency)”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기능은 “해당 교과 및 영역 고유의 탐구기능 및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은 가능한 영역별로 도출하되 개발된 기능의 분량에 따라서는 교과 수준에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 2015: 22-23).

둘째, 성취기준은 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내용+행동’으로 진술되어 왔는데, 이때, ‘행동’이 특히 단순히 교수·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내용과 행동의 결합에 대한 임의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것을 평가 준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승미, 박순경, 2014: 61-62).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동’ 대신에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능력(competency)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의 기능을 제시한다. 즉, 성취기준은 ‘지식+기능’의 형태로 진술한다(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 2015: 23-25).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에서 ‘기능’의 신설과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서 ‘활동’을 ‘기능’으로 대체한 것만이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의 도입에 따른 변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의 성취를 위해서는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서 ‘기능’과 더불어 그 앞에 제시되는 ‘지식’의 성격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실제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비판되어 왔던 단순한 암기 중심의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암기 중심의 지식 습득은 과도한 학습량과 피상적인 학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량 적정화가 필요하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지식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6: 29-30).

이상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에 따른 직접적인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 교과 역량을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기능’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교과 역량에 따른 간접적인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량의 도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지식’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학습량을 적정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로 진행되었던 이승미 외(2019)의 연구에서는 특히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핵심역량/교과 역량이 궁극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능만을 제시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이승미 외, 2019: 330).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내용 체계에서 영역에 따라 제시됨에 따라 교과 역량과의 관련성이 미약해졌다는 것이다. 즉, ‘기능’은 교과 역량별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의 구체적인 탐구기능 및 사고 방식에 해당한다. 이를 영역별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 역량에 따라 기능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능을 영역에 적합하게 배치”하는 두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1년 남짓의 짧은 개정 연구 기간에 이 두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제 개발된 ‘기능’은 교과 역량에 따른 기능으로서도 교과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능으로서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승미 외, 2019: 113).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양한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한 의미가 명료하게 도출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과에는 전통적으로 기능 교과로 분류되는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의 교과군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주지 교과로 분류되는 수학, 사회, 과학 등과는 달리 본래 기능이 중심이 되는 교과라는 점에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다거나 기존에 미비하게 다루어져 왔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승미 외, 2019: 113).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에는 교과의 지식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급별, 학년군별 발달 사항이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지만, 기능은 학교급별 학년군별 구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핵심역량/교과 역량이 학교급과 학년군의 발달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승미 외, 2019: 333-334).

관련하여 이어서 진행된 이수정 외(2021: 95)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수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구성 요소를 지식과 기능으로 제시한 방식을 유지하되, ‘기능’이라는 명칭 대신에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라는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는 내용 체계는 교과의 교육 내용과는 별도의 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혜정 외(2020: 236-237)의 연구에서도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는 내용 체계를 교과의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 체계와는 별도의 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

는 한편, 기능을 “학교급 또는 학년(군)에 따라 구체화하여 제시하여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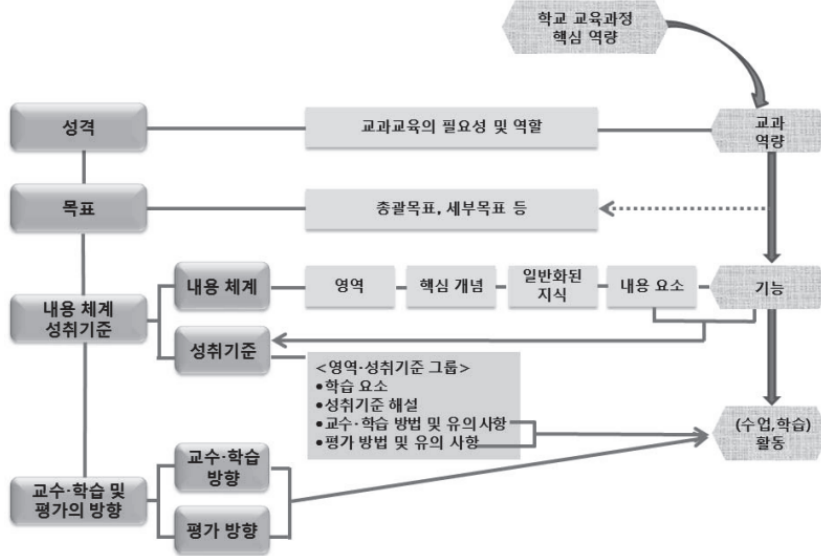
그런데 온정덕 외(2021: 64-71)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승미 외(2019)에서 제기한 기능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해소 방안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진술 방식을 지식과 기능으로 구분하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방식을 유지하되 기능의 명칭이나 제시 방식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던 이수정 외(2021) 및 한혜정 외(2020)와는 달리, 내용 체계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고 성취기준을 이 세 요소 각각 또는 2개 이상의 결합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은 교과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역량 교육을 진보주의가 아닌 지식 교육의 관점 및 자유교육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한편(온정덕 외, 2021: 16-18), OECD 학습 나침반에서 변혁적 역량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한 점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온정덕 외, 2021: 64-71).

이에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조정 연구(한혜정 외, 2022: 53-54)에서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제시되어 이후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모두 적용되었다. 이 외에 내용 체계와 관련된 규정 및 설명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총론 해설서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교육 내용-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 추구

‘교육목표’-‘학습 경험 선정’-‘학습 경험 조직’-‘평가’의 순환적인 구조로 구성된 Tyler(1949)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발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 내용-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은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기초 연구 및 시안 개발 연구에서 해당 내용이 특별히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2015 개정 각론 조정 연구(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 2015: 17)에서 핵심역량이 교과 역량 및 기능을 거쳐 교수·학습의 방향과 평가 방향과 관련된다는 점을 [그림 III-4-2]와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림 II-3-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조정 구도



출처: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17.

이와 같이 교육 내용-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이 핵심역량의 실현과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는 문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서 핵심역량의 실현을 위하여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및 적정화한 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6: 30). 이에 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핵심역량과 관련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이수정 외, 2021: 148)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핵심역량이 도입되었던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도입되면서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의 의도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는 핵심역량 도입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성취기준)-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 관련 규정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구안”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교과 평가 준거로 역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통해 교육 내용(성취기준)-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온정덕 외(2021: 80)의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중점 중에 하나로 교과 목표, 내용 체계-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의 강화를 제안하였으나 해당 내용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황규호 외, 2022: 105-107)에서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과 관련된 환류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으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었으나 교육과정 총론 문서 및 해설서에 관련 규정과 핵심역량의 관련성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5. 시사점

본 장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도입 흐름과 그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에서의 핵심역량은 OECD의 교육 정책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 과정에 도입되기 이전에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근거하여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먼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 수준에서 암기 중심의 단편적 지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핵심역량의 정체성, 핵심역량의 선정 및 역할,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구체화 방안 등의 탐색 및 숙의의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핵심역량이 도입되었다.

둘째,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설계 과정에서 핵심역량의 도입 목적과 위상,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수용 방식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식에의 영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과 자유교육적 성격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거쳐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은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교과 교육 과정에서 교과 역량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과 역량은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와 성취기준에 반영되어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초·중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핵심역량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부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핵심역량 도입이 먼저 수용된 것은, 국제적으로 개발된 핵심역량의 이론적 타당성이 교육 현장에서 해소하고 싶어하던 암기 중심의 단편적 지식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정책이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수용은 초·중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과 관련된 한계 또는 문제의 개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핵심역량의 도입이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교육 현장에서 이론적,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의 정체성 확립]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과 자유교육적 성격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과 조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논의는 여전히 이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존재한다.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따라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핵심역량의 개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의 도입 여부 및 그 실현 체제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함께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의 정체성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핵심역량의 도입에 따른 문서 체제의 실현 방안 탐색]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핵심역량은 교과 역량으로, 교과 역량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으로 반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선을 지향하였다. 즉, 문서 체제의 실현 방안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던 암기 중심의 단편적 지식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핵심역량의 초·중등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서의 반영 방법은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핵심역량 도입 의도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그 탐색 결과가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총론뿐 아니라 영역별 교육과정(내용 체계 및 세부 내용)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와 더불어, 영역별 교육과정의 특수성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도입과 관련된 세 가지 시사점은 순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사항이 동시 다발적으로 논의되면서 함께 탐색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따라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이 교육과정의 어떤 측면에서의 개선 또는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像, image)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절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핀란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역량을 6개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은 3가지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제시하고 핵심역량 아래의 하위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5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며 핵심역량이 영유아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유아의 미래 사회 준비 강조,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으로 구분, 학습 목적 설정 등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을 보여준다.

1. 핀란드⁹⁾

가. 역량에 대한 접근

핀란드는 영유아 역량을 교육과정 문서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유아 교육과정인 국가핵심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and care)에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의 목적을 다루는 부분에서 유아의 역량을 기술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은 유아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횡단적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의지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체(entity)로 인식된다. 보통 역량이 주로 기술적(skillful)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의 성격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의지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먼저 보여준다. 또한 역량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실행해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가 받아들이는 가치나 태도에

9)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and care 내용 중 2.7 Transversal competences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의해 영향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역량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를 보면 핀란드에서는 역량을 단순히 기술이나 가시적인 행동으로만 규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또한 역량을 다양한 지식과 기술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개인적 성장, 학습, 과업, 시민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횡단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역량의 개발은 영유아기부터 이 후의 삶에서 계속된다. 횡단적 역량이 가지는 목적은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부터 취학 전 교육과정, 초등 교육과정까지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횡단적 역량은 교육과정 문서를 준비하고 이 교육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실행하는 데 고려되고 있다. 영유아의 역량을 단지 이념이나 광범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문서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양질의 교육적 활동은 영유아의 횡단적 역량을 강화한다. 횡단적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접근 방법, 학습 환경을 활용하는 방식, 영유아의 학습과 웰빙을 지원하는 방식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횡단적 역량의 목적은 문화와 학습 환경을 구성할 때뿐만 아니라 교육, 수업, 돌봄에서도 고려된다.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영역(Learning areas: 언어가 풍부한 세상, 다양한 표현 형태, 나와 우리 지역사회, 환경 탐색과 상호작용, 성장하고, 움직이고, 발달하는 나)의 목적은 영유아의 횡단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나. 역량의 구성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횡단적인 6개의 역량을 교육과정에 기술하고 있다. 이 역량에는 사고와 학습,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과 자기표현, 자신 돌봄과 일상 관리, 다중 문해력(Multiliteracy), 디지털 역량, 참여와 함께하기가 있다. 이전 교육과정 문서에서 역량은 사고와 학습,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과 자신 표현, 자신 돌봄과 일상 관리, 정보통신기술에서 멀티리터러시와 역량으로 나누어졌으나 2022년 개정본에서는 다중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이 분리되었으며 참여와 함께하기가 새로 도입되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표 II-4-1〉 핀란드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

구분	설명
사고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및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달되며 다른 역량의 발달과 평생 학습의 기초를 형성함 정보를 획득하기/구조화하기,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기는 유아기에 토대를 두는 창의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함.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자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는 문화적, 언어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 문화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식별하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성찰하는 능력을 포함함. 상호작용 기술,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개인의 정체성,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 웰빙에 중요함.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과 다른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에 대한 친숙함과 존중을 필요로 함. ECEC는 영유아의 문화적 역량은 물론 상호작용,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음.
자신 돌봄과 일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 돌보기,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기술은 모두에게 중요함. 웰빙과 안전에 관련된 영유아의 기술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도함 미래에 대한 영유아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원함.
다중 문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 문해력은 사회 안에서 영유아, 가족, 상호작용, 참여하는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함. 교육에서 영유아의 평등을 증진시킴. ECEC의 역할은 영유아의 멀티리터러시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임.
디지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화(digitalisation)는 영유아가 성장하는 사회의 한 부분임. 디지털 역량은 사람 간 상호작용, 사회 참여, 학습에서 필요한 역량임. 디지털 역량 강화는 영유아의 교육적 평등을 증진시킴. ECEC의 역할은 가정과 함께 디지털화에 관한 유아의 이해를 지원하는 것임.
참여와 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함께하기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는 개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기술과 동기를 필요로 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참여하는 것은 영유아의 권리에 명시된 것임. ECEC는 민주주의 구현에 핵심적인 이러한 원칙을 존중함. ECEC의 역할은 참여와 함께하기를 위한 아동의 점진적인 능력의 발전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주도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임.

자료: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중 pp. 21-24 내용을 재구성함.

사고와 학습 측면에서 영유아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학습력을 발달시킨다. 이때 궁금함, 통찰력, 배움의 기쁨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놀이는 유아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함께 시도하고, 세상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합니다. 영유아가 주변의 요소를 분석하고, 명명하고, 설명하는 능력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지원된다. 영유아는 또한 질문하고 질문하도록 권장된다. 영유아의 성공은 함께 축하받고 서로 격려하도록 한다. 또한 영유아는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받는다. 그들은 주의력을 이끌고 유지하도록 안내받는다. 매일 충분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영유아의 사고와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학적 문서와 활동에 대한 성찰은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을 추적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자신 표현 측면에서 영유아는 다른 사람, 언어, 문화를 알아가도록 권장된다. 교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언어, 문화, 세계관의 다양성과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나는 모델을 제공한다. 영유아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받는다.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자기 표현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두고,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안내받는다. 이는 영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강화시킨다.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지원받는다. ECEC에서 습득한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 지식, 기술은 어린이가 문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놀이, 식사 시간, 축제는 다양한 전통과 관습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유아는 다양한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받는다.

자신 돌봄과 일상 관리 측면에서 영유아의 독립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한다. 영유아는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장된다. 옷 입기, 식사하기, 개인위생 및 소지품 관리하기 등 다양한 기술을 함께 연습한다. 영유아는 가까이 있는 자연이나 교통을 포함한 ECEC 학습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지도된다. 휴식, 영양, 신체 활동, 정신적 웰빙의 중요성과 같은 영유아의 웰빙을 증진하는 이슈는 영유아와 함께 논의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명명하는 연습을 하면서 감정 기술을 향상시킨다. 영유아는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지도된다.

다중 문해력 측면에서 다중 문해력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메시지와 주변 세계를 상호 작용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핵심역량이다. 다중 문해력은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중 문해력은 다양한 텍스트가 서면, 음성, 시청각 또는 디지털일 수 있는 광범위한 텍스트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다중 문해력은 시각적 문해력, 숫자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기본 문해력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해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사고 및 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유아는 사물과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개념을 배운다.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메시지를 탐색하고, 사용하고, 생성하도록 권장된다. 이들의 다중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의 예시와 풍부한 텍스트 환경, 영유아가 생산하는 문화, 영유아에게 적합한 문화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디지털 역량 측면에서 영유아는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화의 역할을 탐색하고 관찰한다. 디지털 도구,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은 문서화, 놀이, 상호작용, 게임, 탐험, 신체 활동, 예술적 경험 및 제

작에 사용된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연습하고, 실험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는 영유아의 창의적 사고, 팀워크 기술 및 다중 문해력을 촉진한다. 교직원들은 영유아가 디지털 환경을 다양하고 책임감 있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유아를 인정하면서 만나고, 그들의 관점을 듣고, 그들의 계획에 반응하는 것은 영유아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영유아는 교직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 기술뿐만 아니라 공유된 규칙, 합의, 신뢰의 중요성을 배운다. 교직원은 각 영유아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기회를 연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참여와 함께하기를 통해 자아상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형성한다.

2. 캐나다¹⁰⁾

가. 역량에 대한 접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BC's curriculum)은 세 가지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제시한다. 세 가지 핵심역량은 소통, 사고, 개인적/사회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각 역량은 6개의 프로파일 수준을 지니고 있다. 핵심역량은 모든 학생이 심층적인 평생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다. 문해력 및 수리 능력 기초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K-12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며 학습자가 교육받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II-4-1]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



출처: British Columbia(2024).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communication>에서 2023. 11. 20 발췌함.

10) British Columbia(2024). Core Competencies.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학습자는 학습 영역 내에서 교육과정 역량을 ‘수행(Doing)’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핵심역량은 학습의 각 영역에서 고유하게 나타나지만, 핵심역량은 자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핵심역량 개발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에 있다. 학습자들은 공식 및 비공식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접한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더 많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역량을 입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역량 개발은 학교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직장 환경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보호자는 핵심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집단마다 고유한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표 11-4-2〉 집단별 핵심역량에 대한 고려 사항

구분	설명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교사 및 가족과 함께 핵심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학습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개인적 강점을 식별하고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추가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역량 예시(Illustration)를 검토하는 것은 학습자가 핵심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형태 및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예시는 핵심역량을 학습자의 교실 경험과 연결하고 프로파일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학습자는 핵심역량 측면에서 자신의 성장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각 하위 역량과 연결된 프로파일은 자기 평가에서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하위 역량 프로파일과 예시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교육받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학습자에게 핵심역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와 활동을 제공하면 의사소통, 사고, 개인 및 사회 분야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 각 하위 역량에 대한 그림은 풍부한 작업, 활동 및 피드백의 예를 제공한다. •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각 학습 영역에서 빅 아이디어 및 교육과정 역량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지원된다. • 빅 아이디어와 명시적인 연결의 예는 각 하위 역량에 대한 “연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핵심역량에서 자신의 성장을 평가하도록 지원한다.
부모/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개발하므로, 핵심역량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이해 및 개발 성장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 학부모/보호자는 이미 학생의 의사소통, 사고, 개인적 및 사회적 발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 공식적인 학교 과제와 활동은 학생들이 집에서 참여하는 비공식적 과제와 종종 다르게 보일 수 있다. • 두 상황 모두 가치가 있지만,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핵심역량 활용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 예시는 다양한 맥락의 예를 제공하며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교육받은 시민으로서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British Columbia(2024). Core Competencies.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에서 2024, 2. 21 번역함.

나. 역량의 구성

세 가지 핵심역량은 소통, 사고, 개인적/사회적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지식, 기술, 과정 및 성향을 포함한다. 소통을 통해 학습자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획득, 개발 및 변형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성을 표현하며 학습을 심화하고 과업을 완료한다. 의사소통 역량은 만족과 목적, 즐거움을 찾기 위한 기본 전제다.

사고 역량은 지적 발달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과정을 포함한다. 학습자가 사고하는 자로서 교과와 관련된 개념과 내용을 배우고 이를 새로운 이해로 변화시키는 역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고 역량에는 사고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습관, 메타인지 인식도 포함된다. 이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구체화된 인지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에서 학습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련의 능력이다.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은 학생들이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며,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고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포함한다.

소통 역량의 하위에는 소통하기, 협력하기가 있으며 사고 역량 하위에는 창의적 사고하기, 비판적 및 반성적 사고하기,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에는 개인적 인식과 책임감, 긍정적인 인성과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지각 및 책임감이 있다([그림 II-4-2] 참조).

하위 역량은 핵심역량 안에 들어가는 더 작은 역량이다. 핵심역량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이며 각 하위 역량은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하위 역량과 얽혀 있다. 이러한 연결은 각 하위 역량에 포함된 핵심역량 간의 연결(Connections) 부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학습자가 하나의 하위 역량의 프로파일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그들의 성장은 다른 하위 역량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II-4-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과정 내 핵심, 하위 역량

BRITISH COLUMBIA BC's Curriculum		English	Français
Home	Curriculum	Competencies	Reporting
Provincial assessments	Learning Pathways		
Introduction	Communication	Thinking	Personal and Social
Illustrations	Communicating	Creative Thinking	Person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Resources	Collaboration	Critical and Reflective Thinking	Positive Personal and Cultural Identity
			Soci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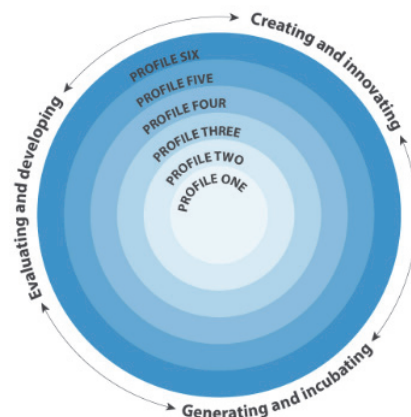
출처: British Columbia(2024). Core Competencies.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에서 2024, 2. 21 발췌함.

하위 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측면(Facets), 프로파일(Profiles), 예시(Illustrations)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각 하위 역량에는 3~4개의 측면이 포함된다. 측면은 하위 역량의 고유하고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이다. 학습자는 과제와 행동을 완료할 때 하위 역량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각 하위 역량에는 6개의 프로파일 체계가 있다. 프로파일은 학생의 하위 역량 개발에 대한 설명이며 각 하위 역량의 상호 연관된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진보적이고 부가적이며 확장과 성장의 개념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프로파일을 통해 이동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전 프로파일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학습자는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프로파일 측면을 반영할 수도 있다. 프로파일은 특정 학년 수준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생의 발달을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다양한 배경과 지역사회 출신의 학습자가 자신의 발전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실제 예다. 이러한 예는 다양하며 활동 샘플, 학습자 및 교사의 성찰, 인터뷰, 교사 관찰, 학습 스토리 및/또는 사진 및 비디오가 포함될 수 있다.

핵심역량인 사고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를 예로 들어보면, 창의적 사고에는 3개의 측면이 있어 창조하기와 혁신하기, 생성하기와 배양시키기, 평가하기와 개발하기가 있다. 여기에는 6가지 프로파일이 있어 각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연결은 핵심역량 간의 연결을 말한다. 창의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및 성찰적 사고와 겹치고,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인 의사소통과 협력과도 겹치며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의 하위 역량과도 겹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개념 기반,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으며 창의적 사고의 하위 역량은 예술 교육의 빅 아이디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II-4-3] 하위 역량: 창의적 사고



출처: British Columbia(2024).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thinking/creative-thinking>에서 2024, 2. 21 발췌함.

〈표 II-4-3〉 창의적 사고 내 프로파일

구분	설명
프로파일 1	나는 놀 때 아이디어를 얻어.
프로파일 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거나 결합하여 형태, 문제, 재료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프로파일 3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쌓을 수 있어.
프로파일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해.
프로파일 5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outside the box)” 생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프로파일 6	나는 관심이나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련의 창의적인 작업을 개발할 수 있어.

출처: British Columbia(2024).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thinking/creative-thinking>에서 2024, 2. 21 인출·번역함.

예시를 보면 개인 인식을 위한 수단으로 시를 활용하는 주제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를 쓴다. 이 때 연결되는 하위 역량은 자기 인식과 책임감, 의사소통하기, 창의적 사고를 들 수 있다.

3. 뉴질랜드

가. 역량에 대한 접근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 5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있다. 5개 핵심역량은 사고하기, 언어, 상징 및 텍스트 활용하기, 자신 관리하기,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하고 기여하기로 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5개의 역량을 보여주는 문서상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5-12세)과 중등교육과정(13-19세)이지만 5개의 핵심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0-6세)과 직업교육과정(16세 이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a).

학습자가 달라진 세상에서 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우는 방법,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평생 동안 계속 학습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세상에서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핵심역량은 학습자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에 통합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a).

핵심역량은 목적이자 수단이다. 이 역량들은 학습의 초점이 되며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 역량들은 학습자가 성장하고, 일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에 참여할 때 필요한 능력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학습 영역에 걸쳐 이러한 역량들을 활용해보도록 도전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핵심역량은 연결되어 활용된다. 예를 들면 흥미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학습자는 개별적 목적을 세우고 모니터링 하고, 시간표를 관리하고, 그들이 마주치는 아이디어를 반추해보고 응답해야 하며(자신 관리하기);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상해야 하고(타인과 관계 맺기); 행동을 위해서 정보와 정보의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에 요청하기(참여하고 기여하기) 등으로 연결이 된다.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추가 목적을 더 설정할 수도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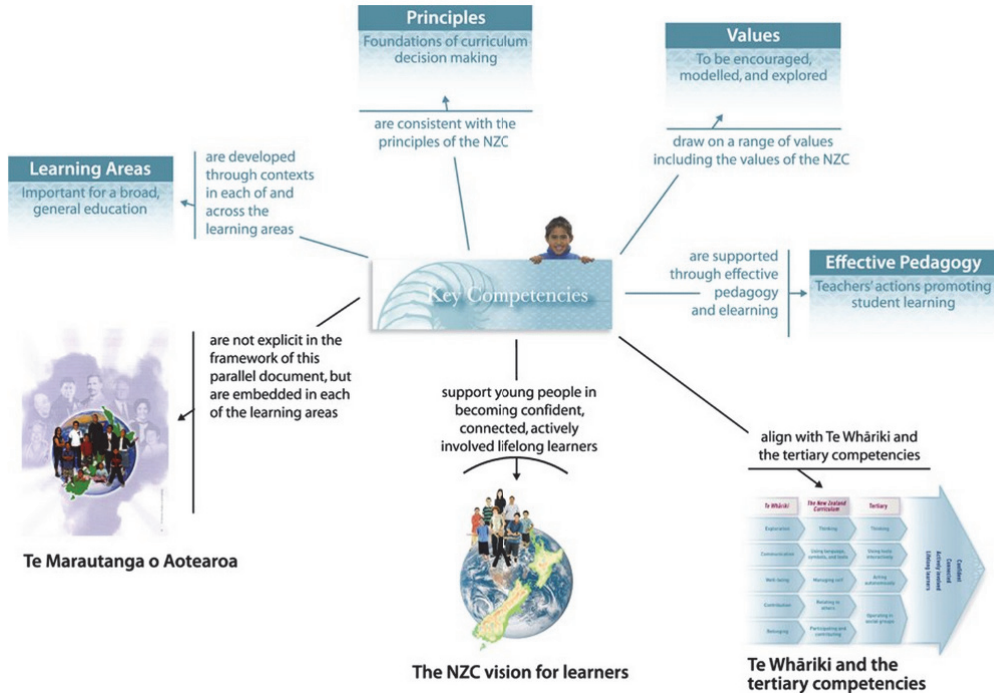
이 역량들은 단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평생을 위한 것이다. 핵심역량을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가 가정, 스포츠, 종교기관, 문화 행사, 직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핵심역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접근을 보면 역량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a).

교육부는 핵심역량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 핵심역량은 학교의 지역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핵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포함한다.
- 핵심역량은 함께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핵심역량은 성과를 통해 입증되며, 이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 핵심역량은 복잡하고 변화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핵심역량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며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Values)는 장려되고, 모델이 되고, 탐구되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원칙(Principles)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기초 역할을 하는데 핵심역량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원칙과 일치한다. 효과적인 교수법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교수법과 e러닝을 통해 핵심역량이 지원된다. 핵심역량은 학습 영역 각각의 맥락을 통해 개발된다.

[그림 II-4-4] 교육과정의 다른 측면과 연관된 핵심역량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24). Key competencies. <https://nzcurriculum.tki.org.nz/Key-competencies/About#collapsible1>에서 2024. 2. 27 인출·발췌함.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학습자에 대한 비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감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지원한다. 핵심역량은 마오리 교육과정(Te Marautanga o Aotearoa)의 체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학습 영역에 내장되어 있다. 핵심역량은 영유아 교육과정(Te Whāriki) 및 직업 교육과정 역량과 연계되어 있다.

나. 역량 구성

5개 핵심역량은 사고하기, 언어, 상징 및 텍스트 활용하기, 자신 관리하기,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하고 기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표 II-4-4〉 뉴질랜드 5개 핵심역량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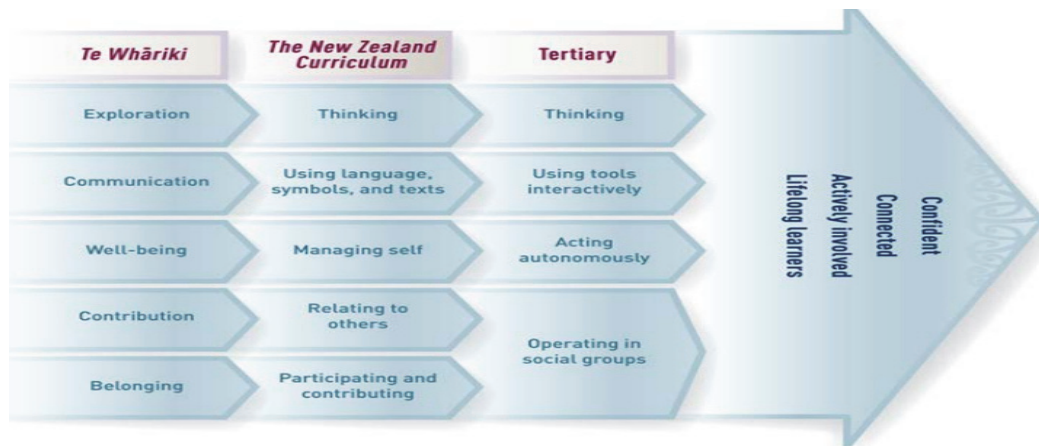
구분	설명
사고하기	<p>- 사고하기는 정보, 경험 및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해 증진, 의사 결정, 행동 형성 또는 지식 구성과 같은 목적에 적용될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은 이 역량의 핵심이다.</p> <p>- 유능한 사고자이자 문제 해결자인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지식을 찾고, 사용하고, 창조한다. 그들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고, 개인적인 지식과 직관을 활용하고, 질문을 하고, 가정과 인식의 기초에 도전한다.</p>
언어, 상징 및 텍스트 활용하기	<p>- 언어, 기호,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지식이 표현되는 코드를 다루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언어와 기호는 정보, 경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언어와 기호를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구두/청각 및 시각 • 유익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 비공식 및 공식 • 수학적, 과학적 및 기술적 <p>- 언어, 기호 및 텍스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단어, 숫자, 이미지, 움직임, 은유 및 기술을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언어, 기호 또는 텍스트의 선택이 사람들의 이해와 의사소통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한다. 그들은 정보에 접근하고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자신있게 ICT(해당하는 경우 보조 기술 포함)를 사용한다.</p>
자신 관리하기	<p>- 이 역량은 자기 동기 부여, 할 수 있다는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을 유능한 학습자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기 평가에 필수적이다.</p> <p>- 스스로를 관리하는 학습자는 진취적이고, 수완이 풍부하며,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언제 이끄고, 언제 따라야 하며, 언제 어떻게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p>
타인과 관계 맺기	<p>-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이 역량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협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능력이 포함된다.</p> <p>-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학생은 새로운 학습에 개방적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언제 경쟁하는 것이 적절한지, 언제 협력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있다.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 아이디어 및 사고 방식을 생각해 낼 수 있다.</p>
참여하고 기여하기	<p>- 이 역량은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공동체에는 가족, 확대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 관심사나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포함된다. 학습자는 학습, 일, 축하 또는 오락과 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일 수도 있고, 국가적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수도 있다. 이 역량에는 그룹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그룹 내 다른 사람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포함된다.</p> <p>-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속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들은 권리, 역할,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p>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2023b). The New Zealand Curriculum.

<https://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collapsible7> 일부 내용을 번역함.

초등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핵심역량이 이전의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는 탐색, 소통, 웰빙, 기여, 소속으로 연결되었다가 이후 직업교육과정에서는 사고하기,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사회적 그룹 안에서 활동하기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감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학습자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림 II-4-5] 교육과정 간 연계



출처: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2018). How the key competencies were developed: The evidence base. p. 11에서 발췌함.

영유아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나타나는 곳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엮는(weaving) 역할을 한다. 지역수준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영유아와 학습자가 학습 경험에 참여할 때 원리와 가닥(영유아교육과정), 가치, 핵심역량 및 학습 영역(초등교육과정)을 엮어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초등교육과정이 영유아교육과정의 가닥인 웰빙으로 연결되는 예시를 보여준다. 아래 오른쪽에 초등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자기 관리하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결이 보여주는 것은 핵심역량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초등-중고등-직업교육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4-6]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LINKS TO THE NEW ZEALAND CURRICULUM
AND TE MARAUTANGA O AOTEAROA

Strand 1: Wellbeing | Mana atua

LEARNING OUTCOMES	THE WEAVING	EXAMPLES OF NEW ZEALAND CURRICULUM LINKS TO WELLBEING MANA ATUA
<p><i>Over time and with guidance and encouragement, children become increasingly capable of:</i></p> <p>Keeping themselves healthy and caring for themselves te oranga nui</p> <p>Managing themselves and expressing their feelings and needs te whakahua whakaaro</p> <p>Keeping themselves and others safe from harm te noho haumaru</p>	<p>Local curriculum design involves a complex weaving of principles and strands (<i>Te Whāriki</i>), values, key competencies and learning areas (<i>The New Zealand Curriculum</i>) as children and young people engage in learning experiences.</p>	<p>Key competency: <i>Managing self</i></p> <p>For example, students have a 'can do' attitude and see themselves as capable learners. They are enterprising, reliable and resilient, set personal goals and have strategies for meeting challenges.</p> <p>Learning area: <i>Health and physical education</i></p> <p>Students learn about their own wellbeing, and that of others and society, in health-related movement contexts.</p> <p>Learning area: <i>Social sciences</i></p> <p>Students explore how societies work and how they can participate and take action as critical, informed and responsible citizens.</p>

자료: Ministry of Education(2017). *Te Whāriki*, p. 55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4. 싱가포르¹¹⁾

가. 역량에 대한 접근

싱가포르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체제인 '유아 학습자 육성'(Nurturing Early Learners: A Curriculum Framework for Pre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NEL Framework)은 유아에게 질 높은 교수와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2년 업데이트된 교육과정체제에서는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학습 성향에 대한 강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싱가포르 유아 4세-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NEL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교육부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 체제는 유치원에서 4세-6세 어린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후 2012년에는 당시의 연구와 실행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2022년 개정에서는 유아를 평생학습자로 보면서 유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주변 세계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치, 성향, 지식 및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2 개정 주요 사항을 보면 1) 싱가포르의 구체적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에서 유아가 누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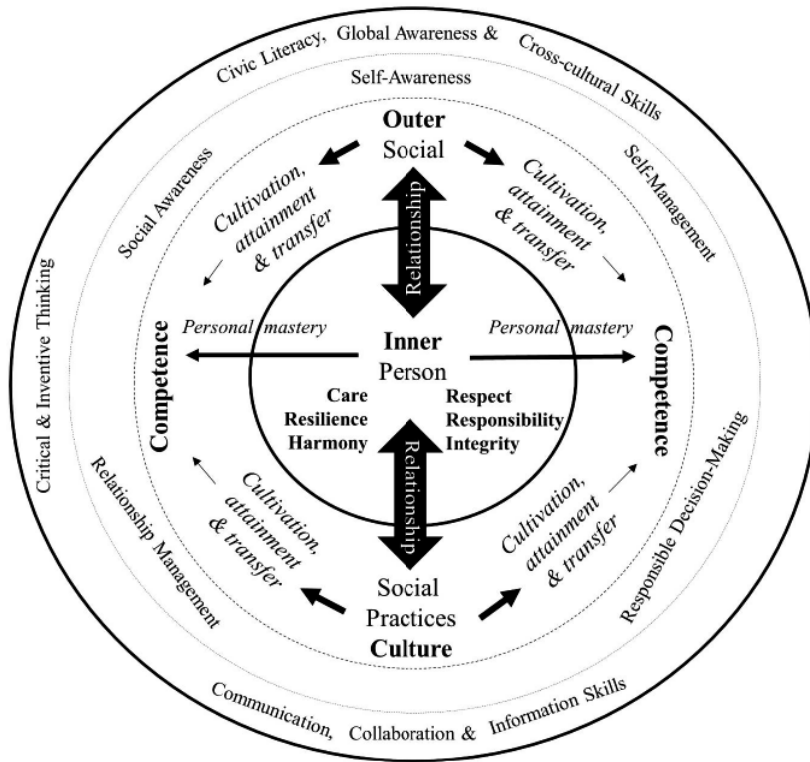
11) Ministry of Education(2022). *Nurturing early learners*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동 신념을 새롭게 함, 2) 가치(values),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그리고 학습 성향(learning dispositions)을 강조하여 인격 형성과 평생 학습을 강화함. 3) 질 높은 교수와 학습을 위한 iTeach 원칙을 더욱 상세히 설명함, 4) 미적 및 창의적 표현, 세계 탐구, 건강, 안전 및 운동능력, 영어 및 모국어 문해력, 그리고 수리를 포함한 다섯 가지 학습 영역에서 유아교육이 마무리될 때 유아가 배워야 하고(what children should learn), 할 수 있어야 하는(what children should be able to do) 것을 담고 있는 학습 목적(learning goals)과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기대를 업데이트함, 5) 유아의 이중언어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모국어의 교수와 학습을 더욱 연결하여 통합함이다. 이 중 두 번째 사항에서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아 주요 단계 성과(Key stage outcomes)와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u와 Tan (2021)은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의 주요 단계 성과(Key stage outcomes)와 21세기 역량 체제(21st Century Competencies Framework) 아래 주요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부각되는 21세기 역량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아래 그림 II-4-7 참조). [그림 II-4-7]에서 가장 안 쪽 부분이 주요 가치이며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실천 안에서 육성, 성취, 전이를 통해 역량이 고양된다. 다음 바깥쪽 원에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이 있고, 가장 바깥에 부각되는 21세기 역량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면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21세기 역량 체제 안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2022 개정과 비교하면 주요 가치에서 존중, 책임, 진실, 배려, 탄력성, 조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진실성, 탄력성, 조화가 빠지고 정직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를 보면 2022 개정 전에서 교육과정의 개념들이 보다 역량 체제 안에 있었으나 2022 개정에서는 이러한 체제 없이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학습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가되는 21세기 역량 대신 학습 성향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림 11-4-7] 싱가포르의 역량에 대한 총체적 모델 및 21세기 역량 체제
 Diagram 1.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and the 21st Century Competencies Framework



출처: Wu & Tan(2021).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Curriculum reforms for pre-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p. 17에서 발췌함.

NEL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역량에 대한 접근을 보면, 이 전에 비해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들이 역량 체제 안에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에만 역량이란 단어를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성격은 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언급되고 개발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배경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역량이란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OECD의 인간 자본(human capital) 관점에서 미래 사회에서 실제 필요하거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개정 이후 NEL 체제가 역량 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목적이거나 주요 개념을 미래 사회 준비와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EL 체제에서 역량은 OECD의 제안과 같은 서구적 전통만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량의 맥락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Jones & Moore(1995)는 문화가 역량의 본질적, 역사적 저장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역량에 대한 접근 자체가 서구적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비-서구적인 전통, 여기에서는 유교적 개념(Confucian notion)을 가져오고 있다. 역량에 대해서 연구되지 못한 부분을 역량을 비-서구적 전통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교적 개념과 역량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유교적 개념인 인간됨(person-making)이나 중용(Zhongyong)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역량을 통합적(holistic)으로 보고자 하였다. 역량 하나하나가 중요함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역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Wu & Tan, 2021).

2022년 업데이트된 싱가포르의 NEL 체제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NEL 체제의 배경이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21세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념이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도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역량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 준비와 함께 구체적인 학습목적을 규정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나. 역량 구성

싱가포르 NEL 체제에서 역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에 한정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NEL 체제의 구성 배경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었고 2022년 개정 전까지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을 21세기 역량에 맞추어 설명한 바 있어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만을 보지 않고, 유아교육에서의 주요 단계 성과(Key stage outcomes), 유아에 대한 신념,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학습 성향을 모두 포함해 살펴보면서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NEL 체제에서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여 역량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요 단계 성과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으로 나누어져 따로 제시되어 있으며 상호 연계되어 있다. 주요 단계 성과는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이 각 학습자에게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한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유아교육 기간에 자신감과 사회적 기술을 쌓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평생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육부터 일반적으로 교육받았을 때 기대하는 성과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의 목표와 유사한 수준이며 마지막 단계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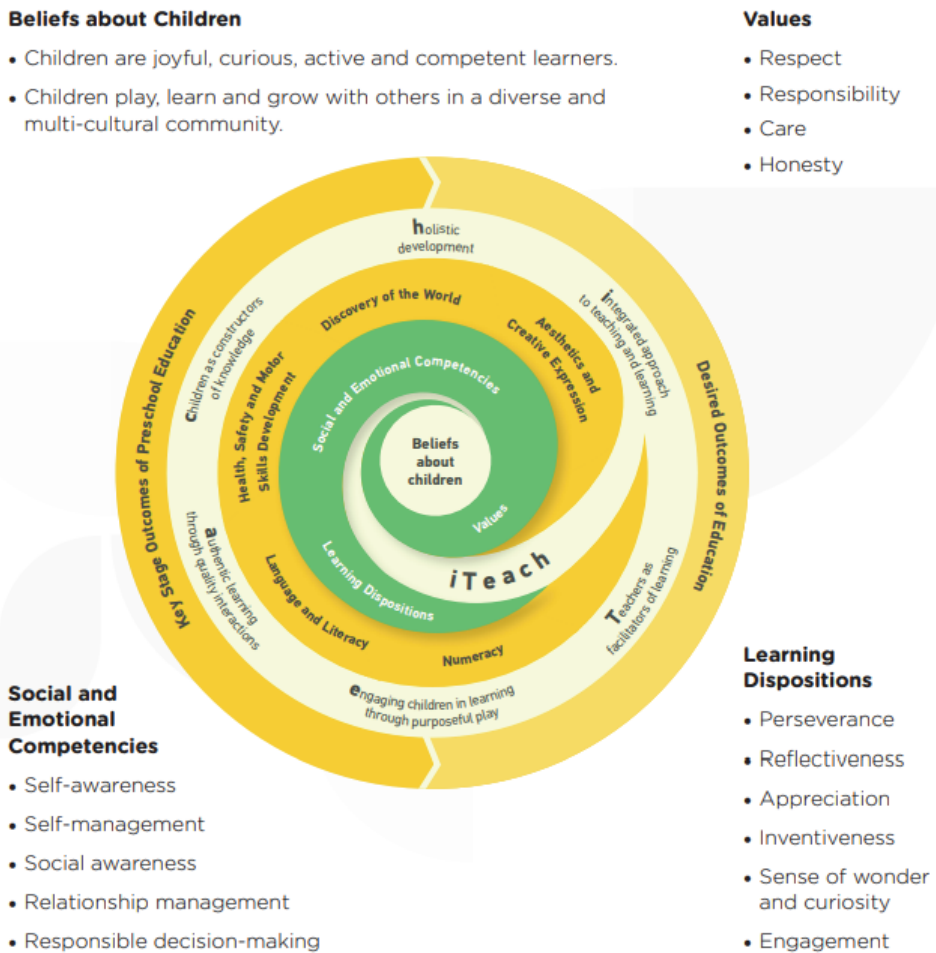
〈표 II-4-5〉 싱가포르 주요 단계 성과

단계	성과 내용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고 그름을 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놀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 • 자신에게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 신체적 협응력과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즐긴다. • 가족, 친구, 교사 및 지역사회 사람들을 사랑한다.
↓	
초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 • 자신의 강점과 성장 영역을 안다. •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나누며, 배려할 수 있다. • 주변 환경에 대해 활발한 호기심을 가진다. •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 •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예술을 인식한다. • 싱가포르를 알고 사랑한다.
↓	
중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정직성을 가진다. • 자신의 능력을 믿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 팀에서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보여줄 수 있다. • 창의적이고 탐구하는 마음을 가진다. •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다. • 신체 활동을 즐기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 싱가포르를 믿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다.
↓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은 일을 위해 도덕적 용기를 유지한다. • 역경을 만날 때 탄력성을 발휘한다. • 문화 간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질 수 있다. • 혁신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다. • 비판적 사고를 하고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훌륭함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을 가진다. • 건강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고 미적 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 • 싱가포르인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세계와 연결하여 싱가포르를 이해한다.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있는 사람 •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 적극적인 기여자 • 책임감 있는 시민

자료: Ministry of Education(2022). Nurturing early learners. pp. 18-19를 번역하여 재구성함.

NEL 체제의 주요 개념은 아래 [그림 II-4-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유아에 대한 신념을 보면, 유아는 즐거우며 호기심이 있고, 활발하며 자신감을 가진 학습자이고, 유아는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며 배우고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학습 성향은 유아의 지식, 기술 및 성향 발달을 위한 학습 경험을 향상시킨다.

[그림 II-4-8] 싱가포르 NEL 주요 개념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22). Nurturing early learners. p. 23에서 발췌함

먼저 가치는 유아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표준과 규범을 설정합니다. 가치는 유아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유아들이 행동해야 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 행동하는 데 영향을 준다. 가치의 하위 요인에는 존중, 책임, 배려, 정직이 있다.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은 가치관을 보완하여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성향을 제공한다. 유아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상호작용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을 탐험하도록 해준다. 또한,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은 유아가 자신을 이해하고 친구들, 가족,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발을 돕는다. 이러한 역량들은 유아의 행동, 태도, 동기 부여 및 학습 성과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II-4-6〉 싱가포르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하위요인

하위요인	설명 및 교사 지원	
자기 인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인식은 유아가 자신의 생각, 가치관, 개인적 목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자신감을 쌓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개인적 정체성을 발달시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긍정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식별한다. •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 사회문화적 그룹에 속해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자기 관리 및 규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는 유아가 감정, 생각 및 행동을 인식하고 자기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웰빙을 달성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며, 최선의 자신이 되도록 선택하도록 한다.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한다. •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적절하게 표현하고 반응하도록 한다.
사회적 인지와 다양성 존중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인지는 유아가 인지적 및 감정적 공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며, 사회적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이 배경, 능력, 필요 및/또는 의견에 대하여 특별함을 인식하도록 성장시킨다. • 다양한 배경과 다른 능력, 필요성 및/또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성장시킨다. •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적절한 행동 및/또는 말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반응하도록 한다. •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고, 놀고, 일할 수 있도록 규칙과 일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가족, 친구, 주요성인과 관계 형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관리는 유아가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이해하며 공감 능력을 발전시킨다.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배려를 표현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성장시킨다. •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와 우정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인식하도록 성장시키고 활용하도록 한다. • 의견 차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인식하도록 성장시키고 활용하도록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는 유아가 자신의 선택에서 도덕적 추론과 건강한 가치 판단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선택을 혼자 또는 지원받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성장시킨다.

자료: Ministry of Education(2022). Nurturing early learners. pp. 30-32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긍정적인 학습 성향은 유아가 평생 학습을 포용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한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유아는 생애 내내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위 요인에는 인내, 반성, 감사, 혁신, 궁금증과 호기심, 참여가 있다.

5. 소결

첫째,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 담긴 역량 개념을 보면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총체적 측면을 담고 있다. 역량이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계나 우려가 있으나 해외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이해하는 접근을 보면 역량은 기술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량은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술과 달리 역량은 동기나 가치지향과 같은 내부의 정신적 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Wu & Tan, 2021).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설명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국가 모두에서 역량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실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역량을 목적이자 수단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함께 교육과정 내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서구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유교적 개념과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역량이란 개념이 총체적인 측면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래 교육과정의 체제에서 역량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4-7〉 국가별 역량 설명 비교

	역량 설명
핀란드	- 유아교육보육은 유아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에 기초 - 역량의 성격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의지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실행해보는 능력까지 포함 - 현재와 미래의 개인적 성장, 학습, 과업, 시민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
캐나다	- 모든 학생이 심층적인 평생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 문해력 및 수리 능력 기초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K-12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의 중심 - 학습자가 교육받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역할
뉴질랜드	- 핵심역량은 목적이자 수단 - 핵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포함 - 학습자가 성장하고, 일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에 참여할 때 필요한 능력 - 5개의 핵심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0-6세)과 직업교육과정(16세 이상)과 연계
싱가포르	- 서구적 전통만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량의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교적 개념을 포함 주요 단계 성과를 규정 -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가치관을 보완하여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성향

둘째, 역량의 내용을 찾는 작업은 학습자가 지식, 기술 및 태도 측면에서 획득해야만 하는 특정한 역량을 규정하는 것으로(Gervais, 2016)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역량이 학습 영역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인가? 혹은 특정 영역에서 구체화(domain-specific) 할 수 있는 역량인가? 이다(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예를 들면, 핀란드는 영역을 가로질러 역량을 규정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등이 해당된다. 누리과정 영역별 목표를 역량과 연결시킨다면 이는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국외 사례에서 살펴본 역량은 학습영역별로 나타난 역량이 아니라 학습영역을 가로지르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미래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역량 내용을 규정하기 전에 역량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각 국가의 역량 내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영유아 수준에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초중등교육과정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역량의 하위 요소가 존재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영유아교육과정 내용을 설명할 때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역량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아에 대한 신념, 가치, 학습성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만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참여와 함께하기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 2022 개정 통합교육과정에서도 함께 강조하는 부분으로 시대적으로 영유아가 사회에 참여하고 타인과 함께 협력하고 문제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중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이 분리된 것도 두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표 II-4-8〉 국가별 역량 내용 비교

	역량 내용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와 학습 - 문화적 역량 - 상호작용과 자기표현 - 자신 돌봄과 일상 관리 - 다중 문해력 - 디지털 역량 - 참여와 함께하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소통하기, 협력하기) - 사고(창의적 사고하기, 비판적 및 반성적 사고하기) - 개인적/사회적 역량(자신 인식과 책임감, 긍정적인 인성과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지각 및 책임감)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하기 - 언어, 상징 및 텍스트 활용하기 - 자신 관리하기 - 타인과 관계 맺기 - 참여하고 기여하기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넷째, 영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은 교육과정의 학습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 교육적 활동,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에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역량이 교육과정의 내용, 흔히 부르는 학습 영역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성과 기반 교육(outcome-based education)과 연결되어 있는 바(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평가의 성격 및 내용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요 단계별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성과 기반 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러 국가가 교육과정에서 학습 성과나 학습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나 기준을 인식할 때 이를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 혹은 평균인가?, 학습의 방향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역량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 부분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교육과정 내 역량을 구성하는 작업은 각국의 배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과정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핵심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에서 확인한 핵심역량을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연계하고 있다. 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유아 교육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영유아교육보육과 학교급별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역량이 가치적인 측면과 떨어질 수 없기에 같은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의 측면에서 역량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많은 지식만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작업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았으나 미래 사회의 준비를 위한 역량은 자칫 글로벌 사회나 자본의 필요에 의한 역량을 구성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관심과 강점이 나타나야 하며 국가의 지역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언급되었던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덜 강조될 수 있으며 우리 문화 안에서 강조해야 하는 역량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글로벌 사회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 내에서 역량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역량은 상호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될 수 없다. 역량 간의 개념이 겹치는 문제는 역량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며 오히려 역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역량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덟째,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나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2022년 개정본에서 멀티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이 분리되었는데 두 역량의 배경에는 영유아의 교육적 평등이 있다. 현재 혹은 미래의 사회에서 이러한 역량은 교육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soumi와 Bourbour (2024)는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이나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 이상임을 주장하며 7가지의 디지털 역량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기, 디지털 기술을 시험 삼아 해보기, 디지털 기술 사용하기, 디지털 기술에 비판적으로 다가가기, 책임감을 가진 윤리적 미디어 역량 가지기, 문제해결 능력 가지기, 단순한 디지털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 보기를 유아 디지털 역량으로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교사나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특히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여 교사가 교수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역량은 교사의 자연스러운 교육적 역량으로 교육과정 실행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Hardersen, 2012). 그러나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한 결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수준이며 이에 대한 지식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Martín, Gonzalez & Penalvo, 2020).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사회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교육 경험은 매우 적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김교령, 2022). 모든 유아의 역량이 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유아의 디지털 역량을 위해서도 기술 인프라나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량 자체로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개별 속도에 맞추는 학습, 실시간 피드백 제공,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제시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역량에 접근할 때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가치 등 사회가 가져야 할 집단 역량에 대한 이해도 함께 기술되기를 제안한다.

III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분석 및 미래 역량 탐색



제1절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이 절에서는 국가수준 보육과정에서 미래 역량 관점을 영아 보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과 의미를 고찰한 후 영아기 미래 역량의 반영이 가지는 시사점과 적용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근 국내·외 교육과정 담론 고찰을 통해 국가수준 보육과정에서 역량개념을 반영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도출된 역량 개념 반영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제4차 표준보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적과 목표에 반영된 영아 미래역량 요소를 고찰하였다. 또한 2022 초·중등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영아 미래역량 요소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에 해당하는 0~1세, 2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과 연계하여 부합성과 고려사항을 고찰하였다.

1.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영아 역량 반영의 필요성

가. 보육 및 교육의 관점에서 역량 개념 수용의 필요성

초·중등 교육과정은 2015 개정 시 추구하는 인간상 부분에 6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2022 개정 시 이전 핵심역량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이처럼 초·중등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정은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역량 개념을 보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특성, 역량 개념의 관점과 사용자의 이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및 훈련 분야에서는 맡은 역할 또는 업무에 대한 성공적 수행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의미한다(HRD 용어사전, 2010. 9. 6.). 여기서 역량의 개념은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아동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영유아 관련 기관 등을 비롯한 학교는 개개인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직업계와는 달리 학생의 역량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역량의 정의와 구성요소, 이와 연계되는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에 있어 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역량의 개념은 과거 직업이나 훈련 분야에서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성취의 개념을 넘어,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서 개인에게 필요한 전생애적 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 2017). 이와 함께 OECD-DeSeCo 프로젝트 통해서 역량의 정의와 관점에 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역량의 개념에서 중요한 논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의 핵심역량에서도 역량을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생애 역량’이며 모두가 갖추어야 할 ‘보편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역량 개념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습자가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학습 프레임워크(Learning Compass)를 제시한 바 있다(OECD, 2018).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하며 개인이 함양해야 할 기본적 역량과 사회의 변혁을 이끌 변혁적 역량,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변혁적 역량을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 등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즉,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웰빙과 변화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량 개념의 관점은 국내·외 보육 및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역량 개념의 관점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간 교육계에서의 역량 개념은 기존의 교육이 지식 위주의 수업으로 내용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데 치중해왔으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역량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으로 보고, 전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의 적용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

역량 개념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적용에 관해서는 국외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서 아동과 교수학습방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하며 어린이의 행위주체성에 관한 설명을 문서체계 내에 담아내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어린이를 유능한 학습자이며 행위주체적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국외의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는 연령이 어린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며, 역량의 개념을 단순히 발달적 지표나 지식의 산출물과 성취 정도로 정의하는 대신 초기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태도와 가치, 성향 등의 용어로 문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다(이연선, 2023. 9. 9.).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개정된 초등 통합교과에서도 통합교과 역량을 ‘지금-여기-우리 삶’으로 설정하고, 지향점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포괄적 역량으로 ‘지금-여기-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설정한 바 있다. 즉, 개정 2022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지향

해야 할 미래역량이란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선언하고, 그 속에 담긴 시간성과 공간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통합교과 과정에서 추구하는 배움은 삶의 맥락과 단절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문제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즐기며 실천하는 경험을 뜻하는 것(조상연, 2023. 9. 9.)이다. 따라서 국외 영유아 및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 문서체계에서의 역량 개념의 적용 여부와 관점을 살펴본 결과, 역량의 개념이 성취기준보다 전생애적 능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유아 보육과정에서의 영아 미래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에게 적용할 미래역량 개념과 문서체계 내에서의 표현 방식 및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나.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영아와 배움, 행위주체성

국의 교육과정 및 최근 개정된 2022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역량 뿐 아니라 행위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역량과 이를 기초로 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등을 연계·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유아 보육과정 문서 체계에서 역량 개념과 함께 행위주체성을 사용하지 않음에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보육과정 운영 시 현장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도 유사하며,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교사를 교육의 협력적 행위주체자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서는 영유아의 행위주체성에 관해서는 문서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행위주체자 및 협력적 행위주체자로서의 개념이 이미 제4차 표준보육과정 구성 방향에 전제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다. 소결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영아 역량 반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의 관점에서 역량 개념 수용의 필요성을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영아와 배움, 행위주체성에 관해 탐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의 개념은 직업 및 훈련에서의 성취와 목표 달성의 개념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하며 개인이 함양해야 할 역량,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국외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된 바 있다. 따라서 역량을 성취기준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이며, 전생애적 관점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접근할 경우 영유아 보육에의 적용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적용 이전에 문서체계 분석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에 역량 반영을 위한 다면적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국외 교육과정 및 2022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역량 뿐 아니라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며 문서체계에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 및 성격 등에 영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됨을 강조하며 영유아를 배움의 행위주체자로,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행위주체자로서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4차 표준보육과정 총론의 영아 역량 반영 요소

가.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현행 우리나라 국가수준 보육과정의 문서인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총론 및 각론에 해당하는 0~1세, 2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국가수준 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소개하는 총괄적인 부분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구성방향, 운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 상 총론은 각론의 ‘전체성(totality)’, ‘균형성(balance)’, ‘유기적 통일성(coherence)’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홍후조, 2012). 즉 표준보육과정 총론은 이어지는 각론에 해당하는 0~1세,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전체성, 균형성, 유기적 통일성을 담보하는 기반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은 우리나라 공교육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가 있으므로(이승미, 2014), 표준보육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과정의 전반적 방향에서 영아 역량 요소 반영 여부 및 가능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접근이 된다. 교육과정 문서체계는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총론 중 보육과정 구성 및 운영 전체 방향을 담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아 역량 반영 요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총론의 표준보육과정 구성방향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며, 미래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최초 고시부터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 간 표준보육과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추구하는 인간상의 변화는 [표 III-3-1]과 같다. 표준보육과정이 처음 고시된 2006년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

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시되었다.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2019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하여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그 간의 개정 과정에서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나라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해 온 인간상을 바탕으로 삼아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보육과정 운영의 비전은 변화해왔으나, 보육 이념의 실천적 방향으로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육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추구하는 인간상의 변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 (2006.11.10.개정)	제2차 표준보육과정 (2012.2.29.고시)	제3차 표준보육과정 (2013.1.21.고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4.9. 고시)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라.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마.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자료: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5.11.10.개정) [별표8의2] 표준보육과정(30조 관련)
 2) 보건복지부(2012).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3)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4)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

제4차 표준보육과정 문서에는 영아의 역량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역량 개념을 영아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근 교육에서 역량 개념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문제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경험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 보육과정에서도 영아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영아기 미래역량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에 따른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그에 따른 대응 방향과 가치판단 시 관점차이에 따른 이견이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미래

역량 목록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역량들의 상호 중복 여부나 포괄성 여부, 또는 역량들의 위계 수준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Ewens, 1979). 이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문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영아 역량을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향후 영아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전이와 그 연속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 연계는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관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아기 역량 요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제시된 역량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고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며 이를 핵심역량과 연계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추구하는 인간상의 각 내용을 영아에 적용해 본다면 건강한 영아, 자주적인 영아, 창의적인 영아, 감성이 풍부한 영아, 더불어 사는 영아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다. 이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기술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자주적인 영아를 자기주도적인 영아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영아기 특성과 적절한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성이 풍부한 기술내용에 대해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용어 변경을 추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행 영아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 문서상 추구하는 인간상의 연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발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성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 및 유아와 초등 교육과정 연계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II-1-2〉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제4차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20.4.9. 고시)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22.12.22. 고시)	영아 경험에의 적용
건강한 사람 :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건강한 영아
자주적인 사람 :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고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주적인 영아*

제4차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20.4.9. 고시)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22.12.22. 고시)	영아 경험에의 적용
창의적인 사람 : 주변 세계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영아
감성이 풍부한 사람 :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감성이 풍부한 영아*
더불어 사는 사람 :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한다.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영아

* 2022 교육과정 변화(자주적인 사람 → 자기주도적인 사람)와 연계하여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고려가능. 단, '자기주도' 용어가 영아에게 적합한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차 연구에서 용어 적절성이 낮아 개정 요구가 있었으므로 용어 변경 고려가 필요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

2)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나.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이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적 비전에 해당한다면, 목적은 각 학교급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표준보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영아 보육과정 목적 및 목표는 <표 III-1-3>과 같이 변화해왔다. 표준보육과정 총론 문서에 진술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 관련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각 요소의 관계이다. 최초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제2차 및 제3차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고려하여 각론에 해당하는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능력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6가지의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결되지 않고, 각론에 제시되는 6개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방향과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표 III-1-3〉 표준보육과정의 영아 보육과정 목적 및 목표 변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 (2006.11.10.개정)	제2차 표준보육과정 (2012.2.29.고시)	제3차 표준보육과정 (2013.1.21.고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4.9. 고시)
<p>목적과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p>	<p>1. 보육 과정의 목적 보육 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며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어린이 집의 보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p> <p>2. 보육 과정의 목표 보육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지식기술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 또래, 공동체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며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습득한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른다. 마. 탐구 능력을 토대로 수학적,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기른다. 바. 주변의 친근한 환경과 일상 생활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적 요소를 즐기므로써 감성과 창의성을 기른다.</p>	<p>1. 목적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목표 가. 0-1세 보육과정 (1)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3)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4)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5)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6)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p> <p>나. 2세 보육과정 (1)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 (2)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3)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4)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5)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6)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p>	<p>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p> <p>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0~2세 보육과정 목표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기른다.</p>

자료: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5.11.10.개정) [별표8의2] 표준보육과정(30조 관련)
 2) 보건복지부(2012).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3)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
 4)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

이와 달리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하여 일반적인 능력 수준에서 진술한 차이가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아래 제시된 목표는 영아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되어 영아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을 영역별 접근이 아닌 전체 보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이 기존 영역별 보육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각론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것임을 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2a). 또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여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 목표 기술 방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교과별 접근을 넘어서 전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접근과 동일하다. 즉,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역별 접근을 넘어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총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기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III-1-4〉 제4차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과 목표 비교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4.9. 고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4.9. 고시)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0~2세 보육과정 목표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과 연계하여 살펴본 영아기 역량

국가수준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과 영아 역량을 연계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2015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유사하며,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은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 배려, 협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이때 역량 개념 도입은 변혁적 역량으로의 전환,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으로서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확장 필요성, 학습자로서 영아의 주체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하므로 현행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영아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a).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진로 설계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된다(교육부, 2022b). 자기관리 역량 정의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적응한다는 점은 영아에게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기관리 역량개념을 전생애적 관점으로 넓혀본다면 이는 영아가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고 일상경험에 참여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영아 역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의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둘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a).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교육부, 2022b). 영아는 탐색, 모방, 반복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며 해결해간다. 이러한 점에서 영아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세상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영아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보인다. 이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인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셋째,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a).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22b).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융합적 사고도 창의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영아기 특성 중 놀이에서 나타나는 융통성, 우연, 전략의 사용, 도전, 위험감수와 같은 특성은 영아기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유연하며 독창적인 사고와 관련된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영아에게 나타나며 기대할 수 있는 성향으로 보인다. 이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인 사람과 관련된다. 다만 지식정보처리 역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a).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22b). 영아는 주변세계에 대해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놀이와 일상에서 재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과 교감하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영아의 경험은 심미적 감성역량과 관련되며, 이는 추구하는 인간상 중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다섯째, 협력적 소통 역량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여러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교육부, 2022a).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으로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22b). 영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애초기에 해당하는 영아도 기초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통능력이 점차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가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은 협력적 소통 역량과 관련된 기초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소통능력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미래역량과 관련된 OECD-DeSeCo, OECD 교육 2030 등에서 소통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추후 별도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a). 여기에는 시민 의식, 준법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22b). 영아의 공동체 역량은 이에 제시된 내용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영아의 경험과 역할을 재정의 한다면 영아의 공동체 역량은 강도가 약하지만 전혀 없는 요소 즉, 0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공동체 역량은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영아들의 애착과 안전기지는 향후 공동체 역량과 관련되며, 가족, 어린이집 등에서의 영아 경험은 생애초기 공동체 역량 형성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아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기 공동체 역량을 형성해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5〉 2022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영아기 반영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영아기 특성과 연계	영아 경험에의 적용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기주도]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와 일상경험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숙달	주도하는 영아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개념이해-적용] 탐색, 모방, 반복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기 문제를 해결하기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놀이(융통성-우연-전략, 도전, 위험 감수 등) 호기심, 상상력, 독창적 사고, 유연성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영아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주변세계에 대한 경이감, 아름다움 문화적 감수성, 교감 놀이와 일상에서 재미와 아름다움을 발견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교감하는 영아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기초 소통] 의사표현 또래 간 소통	소통하는 영아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상호관계] - 애착, 안전기지는 영아가 경험하는 초기 공동체 역량과 관련 - 소속감(가족, 교실 내 영아와 교사), 가족 문화(명절, 생일, 특별한 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경험(선거, 올림픽 등)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이상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고려하여 영아기 역량을 논의하였다. 영아기 역량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역량을 국가수준 보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아 보육과정에 역량이 새로 도입되기 위해서 즉, 역량 중심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론에서 역량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론의 방향 설정은 역량 중심 보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된다.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역량을 도입할 경우 총론과 보육과정 운영 상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역량교육은 지식교육의 무기력 문제와 관련되어 삶에서의 유용성, 일상생활에의 적용의 관점에서 쟁점화 되었지만, 영아 보육과정에서 역량 개념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영아보육의 관점에서 더 깊이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제4차 표준보육과정 총론의 영아 역량 반영 요소를 살펴보고, 영아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을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및 영아기 특성에 토대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육의 가치와 전통,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되어 왔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가 확보되어 있다.

둘째,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보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어 총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역량기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셋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연계를 고려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총론을 토대로 영아 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성이 높으며, 영아기 특성을 고려한 영아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영아기 역량 요소 분석

가. 0~1세

1)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른 영역별 내용

0~1세 영아 역량을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내용을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이다.

가) 기본생활영역

0~1세 기본생활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의 내용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범주의 내용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와 ‘안전하게 생활하기’ 범주의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의 내용이 ‘건강한 사람’ 역량에 해당하였다.

〈표 III-1-6〉 0~1세 기본생활영역 인간상 반영

기본생활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				

나) 신체운동영역

0~1세 신체운동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와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범주의 내용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 역량에 해당하였다. 즉 ‘감각과 신체인

식하기' 내용범주의 내용인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와 '신체 활동 즐기기' 내용범주의 내용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는 모두 '건강한 사람' 역량에 해당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 범주에 있는 내용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긴다'의 경우는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표 III-1-7〉 0~1세 신체운동영역 인간상 반영

신체운동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0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0				
	신체를 탐색한다.	0				
신체 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0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0		0		

다) 의사소통영역

0~1세 의사소통 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내용범주 별로 해당하는 역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은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였다. 즉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내용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 역량에 해당하였다. 여기에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의 내용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자주적인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내용범주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이다. 이 중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은 '자주적인 사람'에,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는 '더불어 사는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또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의 내용인 '책에 관심을 가진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모두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표 III-1-8〉 0~1세 의사소통영역 인간상 반영

의사소통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0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0			0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0	0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0		0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0	0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0	0

라) 사회관계영역

0~1세 사회관계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범주와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해당하는 인간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이 ‘자주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를 인식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는 모두 ‘자주적인 사람’에 속하였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 중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는 ‘건강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도 해당되었다.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내용 특성상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였다. 이 중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와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내용은 ‘건강한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표 III-1-9〉 0~1세 사회관계영역 인간상 반영

사회관계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인식한다.		0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0	0			0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0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0				0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0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0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0				0

마) 예술경험영역

0~1세 예술경험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되었다. ‘창의적 표현하기’는 내용범주의 특성상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가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이 중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와 같이 영아가 표현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표 III-1-10〉 0~1세 예술경험영역 인간상 반영

예술경험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0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0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0	0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0	0	
	모방 행동을 즐긴다.			0		

바) 자연탐구영역

0~1세 자연탐구영역의 ‘탐구과정 즐기기’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범주는 ‘창의적인 사람’에 모든 내용이 공통으로 해당하였다. 또 일부 내용은 ‘자주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탐구과정 즐기기’의 모든 내용인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고, 이 중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는 ‘자주적인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또한, 내용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는 모두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고 이 중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는 자주적인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한편 ‘자연과 더불어 살기’ 내용범주의 내용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모두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였다.

〈표 III-1-11〉 0~1세 자연탐구영역 인간상 반영

자연탐구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탐구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0	0		
과정 즐기기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0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0	0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0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0		
	규칙성을 경험한다.			0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0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0	

2) 영아기 역량에 따른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

0~1세 영아의 역량은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세부내용을 영아 역량 요소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가) 기본생활영역

0~1세 기본생활영역을 영아 역량에 따라 분석한 결과,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들을 주로 ‘주도하는 영아’와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역량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2〉 0~1세 기본생활영역 역량 반영

기본생활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0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0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0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0					

기본생활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0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0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0				

나) 신체운동영역

0~1세 신체운동영역을 영아 역량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와 ‘신체활동 즐기기’ 두 가지 내용범주의 분석내용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의 내용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3〉 0~1세 신체운동영역 역량 반영

신체운동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0	0		0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0	0		0	
	신체를 탐색한다.	0	0		0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0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0				

다) 의사소통영역

0~1세 의사소통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세 가지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이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에 관심을 가진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가 영아 역량 중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4〉 0~1세 의사소통영역 역량 반영

의사소통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0			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0			0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0			0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0			0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0			0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0			0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0			0	

라) 사회관계영역

0~1세 사회관계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영아 역량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인 ‘나를 인식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도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주도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5〉 0~1세 사회관계영역 역량 반영

사회관계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인식한다.	0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0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0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0				0	0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0				0	0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0				0	0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0					0

마) 예술경험영역

0~1세 예술경험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영아 역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창의적 표현하기’는 내용범주의 특성상 영아의 자기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통하는 영아’ 특성이 나타났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내용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내용인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6〉 0~1세 예술경험영역 역량 반영

예술경험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0	0		0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0	0		0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0	0		0	0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0	0		0	0	
	모방 행동을 즐긴다.	0	0		0	0	

바) 자연탐구영역

0~1세 자연탐구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내용범주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탐구과정 즐기기’의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또한, 내용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17〉 0~1세 자연탐구영역 역량 반영

자연탐구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0	0	0	0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0	0	0	0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0	0	0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0	0	0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0	0	0			
	규칙성을 경험한다.	0	0	0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0	0		0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0	0		0		

나. 2세

1)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른 영역별 내용

가) 기본생활영역

2세 기본생활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내용범주 ‘건강하게 즐기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공통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본다’,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와 내용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본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의 모든 내용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에 공통으로 해당하였다.

〈표 III-1-18〉 2세 기본생활영역 인간상 반영

기본생활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0	0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0	0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0	0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	0	0			

기본생활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0	0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0	0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0	0			

나) 신체운동영역

2세 신체운동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와 ‘신체활동 즐기기’ 두 가지 내용범주 모두 ‘건강한 사람’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의 내용 ‘감각능력을 활용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와 내용범주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이다. 이 중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는 내용은 ‘창의적인 사람’으로도 구분되었다.

〈표 III-1-19〉 2세 신체운동영역 인간상 반영

신체운동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0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0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				
	기본 운동을 즐긴다.	0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0		0		

다) 의사소통영역

2세 의사소통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의 모든 내용은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가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내용이 특징상 ‘자주적인 사람’으로도 분류되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는 공통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표 III-1-20〉 2세 의사소통영역 인간상 반영

의사소통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관심을 갖고 듣는다.					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0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0			0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0			0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0	0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0		0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0	0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0	0	

라) 사회관계영역

2세 사회관계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인간상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내용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인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자주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이 중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건강한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인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는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는 ‘자주적인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표 III-1-21〉 2세 사회관계영역 인간상 반영

사회관계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0			0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0	0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0	0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0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0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0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0			0

마) 예술경험영역

2세 예술경험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인간상이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내용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고,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는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내용범주의 내용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미술재료와 도구로 표현해본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는 그 내용의 특성상 모두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표 III-1-22〉 2세 예술경험영역 인간상 반영

예술경험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0	0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0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0	0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0	0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0	0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0	0	

바) 자연탐구영역

2세 자연탐구영역을 추구하는 인간상 다섯 가지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탐구과정 즐기기’의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창의적인 사람’에 공통적으로 해당하였고, ‘자주적인 사람’에도 해당하였다. 또한, 내용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모두 ‘창의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내용범주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는 공통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였으며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은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도 분류되었다.

〈표 III-1-23〉 2세 자연탐구영역 인간상 반영

자연탐구영역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	○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자연과 더불어 살기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	

2) 영아기 역량에 따른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

가) 기본생활영역

2세기본생활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내용범주 ‘건강하게 즐기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주로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본다’,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내용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본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24〉 2세 기본생활영역 역량 반영

기본생활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	○					

기본생활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0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0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0				

나) 신체운동영역

2세신체운동영역을 영아 역량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와 '신체활동 즐기기' 두 가지 내용범주의 분석내용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감각과 신체인식하기'의 내용 '감각능력을 활용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25〉 2세 신체운동영역 역량 반영

신체운동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0	0			0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0	0			0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					
	기본 운동을 즐긴다.	0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0					

다) 의사소통영역

2세의사소통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두 가지 내용범주의 내용은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26〉 2세 의사소통영역 역량 반영

의사소통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0			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0			0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0			0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0			0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0			0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0			0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0	0	0	0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0	0	0	0	

라) 사회관계영역

2세사회관계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영아 역량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내용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인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주도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인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는 ‘주도하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27〉 2세 사회관계영역 역량 반영

사회관계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0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0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0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0				0	0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0				0	0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0				0	0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0				0	0

마) 예술경험영역

2세 예술경험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두 가지 내용범주가 해당되는 영아 역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창의적 표현하기’는 내용범주의 특성상 영아의 자기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0~1세와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영아’ 특성이 추가로 나타났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내용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내용인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미술재료와 도구로 표현해본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는 모든 영아 역량에 해당하였다.

〈표 III-1-28〉 2세 예술경험영역 역량 반영

예술경험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0	0	0	0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0	0	0	0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0	0	0	0	0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0	0	0	0	0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0	0	0	0	0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0	0	0	0	0	0

바) 자연탐구영역

2세 자연탐구영역을 영아 역량으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내용범주 ‘탐구과정 즐기기’의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또한, 내용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한편, 내용범주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

용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에 해당하였다.

〈표 III-1-29〉 2세 자연탐구영역 역량 반영

자연탐구영역		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0	0	0	0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0	0	0	0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0	0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0	0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0	0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0	0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0	0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0	0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0		0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0		0		

다.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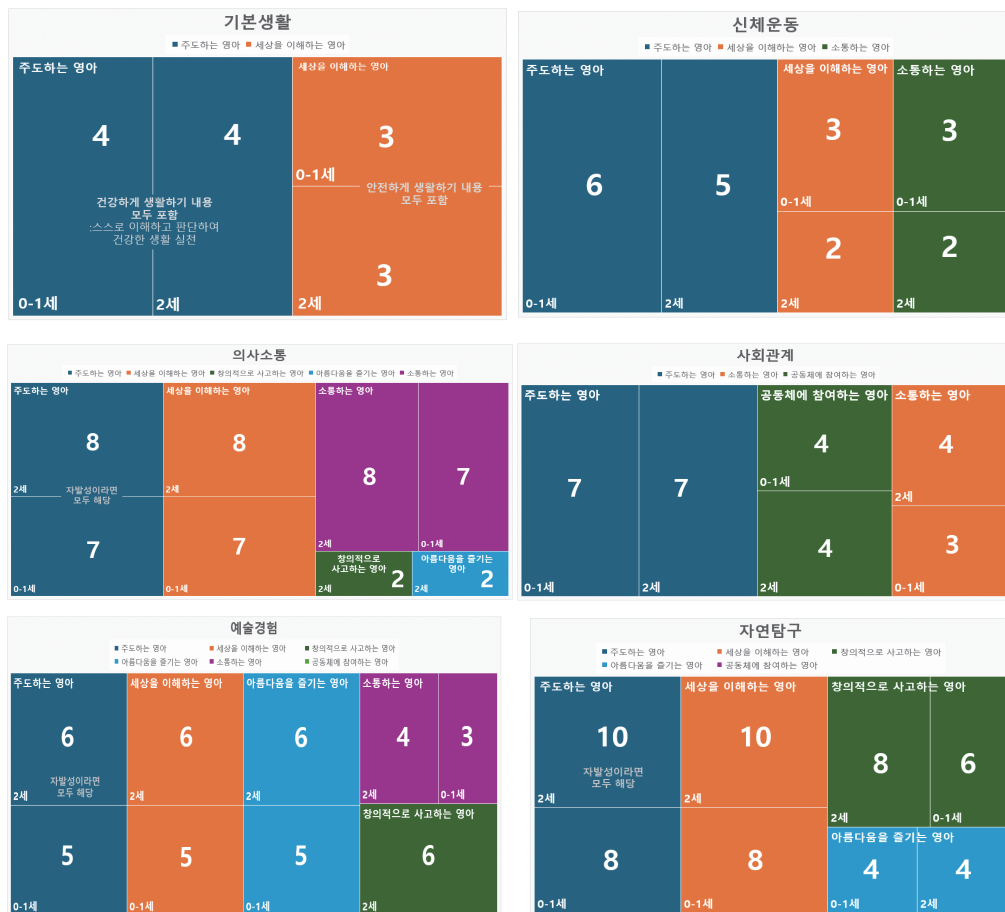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제 4차 표준보육과정에 반영된 영아기 역량 요소를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가 확보된 기존의 추구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영아기 특성과 연계하여 도출한 영아기 역량(주도하는 영아,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영아, 아름다움을 즐기는 영아, 소통하는 영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영아기 역량이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즉, 영아의 주요 경험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내용을 [그림 III-1-1]의 트리맵을 통해 시각화하여 역량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 등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생활의 경우 0-1세, 2세 보육과정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범주는 주도하는 영아로, 안전하게 생활하기 범주는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로 분석되었다. 0-1세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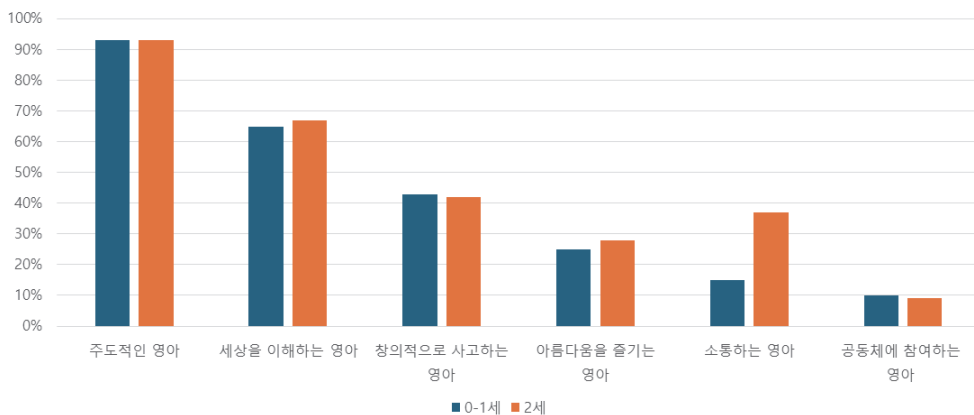
에 있어서 영아의 주도성 및 자발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체운동 영역의 경우, 신체 및 감각 탐색 내용의 경우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으로 대소근육 운동 관련 내용의 경우 주도하는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영아의 신체운동, 대소근육 운동 경험을 대표하는 역량 요소가 '주도성'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0-1세, 2세 보육과정 모두 주도, 소통, 세상 이해가 고루 나타났으나 창의적 사고 및 아름다움 즐기기 요소는 2세 이상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주도, 소통 및 공동체 참여의 세 가지 역량 요소가 고루 경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주도, 소통, 아름다움 즐기기, 세상에 대한 이해가 고루 나타났으며, 창의적 표현하기 요소는 2세 이상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주도, 세상에 대한 이해, 창의적 표현, 아름다움 즐기기 고루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1-1] 4차 표준보육과정 0-1세 및 2세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나타나는 영아의 역량



0-1세와 2세의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서 각 역량요소가 포함된 비율은 [그림 III-1-2]와 같다. 영아의 경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역량요소는 주도성과 세상에 대한 이해이며,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역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거의 모든 경험에서 주도적 역량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영아기 주도적 역량의 개념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보는 ‘자발성’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역량 요소는 유아기 이후의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능력이 아닌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과 조작으로 이해하고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통과 공동체 참여 관련 역량은 제한적으로 경험되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발달적인 목표인 시기와 소통, 공동체 참여에 대한 역량의 영아기 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I-1-2] 보육과정에서 각 역량 요소가 포함된 비율



이상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제 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하여 도출한 영아기 역량 6요소는 영아의 발달특성상 특정 역량의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량의 요소들이 균등하게 영아의 삶과 놀이에서 경험될 필요는 없지만, 경험의 경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역량 요소가 영아에게 적절한지, 교육과정에서 부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2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역량 반영 요소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8). 이와 관련하여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관련 해외 사례 중 OECD의 학습 개념틀(OECD, 2019)에 의하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가 내재된 역량을 수단으로 배우고 학습자인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움을 이끌어 가는 것을 주위에서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국제 동향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이외 호주, 핀란드, 독일, 캐나다 등 해외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관련 문서상에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제시한 개념이나 용어는 다르나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최은영 외, 2023: 72-90). 각각의 교육과정 등에서 제시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가. OECD 'Future Education2030' 학습나침반 : 변혁적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갖기 제시, 이를 기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 나. 호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문식성, 수리력, ICT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역량, 윤리적 이해, 다른 문화간 이해
- 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transversal competence(횡단역량) : 배우기 위해 생각하고 배우기, 문화적 능력·상호작용 및 자기 표현, 자신을 돌보고 일상 관리, 다중 문해력, ICT 역량, 일하는 삶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 참여·관여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 라. 독일 헤센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역량, 언어구사역량
- 마. 캐나다 B, C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사고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전 과정에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

불어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a; 5).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증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6).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이 나와 나,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소통 역량(교육부, 2022a)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 | |
|---|
| <p>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p> <p>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p> <p>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p> <p>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p> <p>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p> <p>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p> |
|---|

문서상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교과 핵심역량은 기존의 내용 체계에서 기능으로 재해석된 후, 교실에서 활동으로 수행되고 동사형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던 점이 교실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하였다(이승미 외, 2019: 5-7).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교과별 핵심역량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간상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만 총론에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핵심역량 이외에 빅아이디어 중심 내용 선정 및 조직-핵심개념(교과의 기초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된 지식(해당 영역의 보편적 지식), 내용 요소(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를 교과별로 제시하고, 교육과정의 문서는 내용체계(핵심 아이디어와 이에 따른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와 성취기준(지식(내용 요소)을 기능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핵심역량은 총론 문서에 제시된 것 이외에 이를 기르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에 대한 내용이 교과 단위에서 제시하여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을 연계시키고 있다(교육부, 2022b).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육내용에 따라,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고려하여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초등교육과 연계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16).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핵심역량의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제시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문서체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한다.

1. 총론 문서상의 핵심역량 반영 실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중 인간상과 목표, 구성의 중점에서 핵심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음을 해설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 외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핵심역량 반영으로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가.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과 목표는 핵심역량이 반영된 초등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며,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사람’이 추가되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8).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는 추상적일 수 있으나 유아가 현재 경험하는 내용을 제시한 5개 영역의 내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4)을 해설서에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과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2-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역량, 목표의 관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핵심역량	인간상	목표
자기 주도적 사람	자기관리 역량	건강한 사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교양있는 사람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인 사람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심미적 감성 역량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협력적 소통 역량	더불어 사는 사람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역량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중 건강한 사람은 신체와 관련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9)이며,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감을 토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9)으로, 이는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자기관리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구하며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9)으로,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폭넓은 영역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심미감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0)으로, 이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고 향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며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0)으로, 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전 지구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와 태도를 인류 발전에 책임감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구성의 중점 중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에 대해 ‘OECD 교육 2030’을 통해 미래 사회역량과 연계하여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인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유아의 놀이와 배우는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6)고 밝혔다.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통한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누리과정을 구성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의 내용을 반영시켰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나. 누리과정의 운영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관련 핵심역량의 반영이나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구성의 중점 중 ‘나’와 관련하여 유아는 놀이를 통해 인간상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지원할 필요성(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8)을 제시하면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는 놀이하고 배우는 경험을 통해 형성하고 인간상을 향해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6)고 제시한 점을 토대로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운영 중 편성·운영의 여덟 가지 항목 중 라, 교수·학습 일곱 가지 항목 중 나, 다, 라, 마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총론 문서에서 인간상 등에 반영된 핵심역량을 운영 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은 교육과정 문해와 실천에서 어떤 지향점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1. 편성·운영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교수·학습에서 ‘가’는 유아가 자신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주도하는 놀이를 교사는 지원해야 함을 제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44-45)하였는데 이는 핵심역량 중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나, 다, 마’는 유아의 배움은 5개 영역에 걸쳐 통합적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놀이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과 자료를 통해 유아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44-48)하였는데 이는 핵심역량 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폭넓은 영역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고 향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라’는 유아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 배움을 지원해야 함을 제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49-50)하였는데 이는 핵심역량 중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전 지구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와 태도를 인류 발전에 책임감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2. 교수·학습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표 III-2-1> 2019 개정 누리과정 - 총론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핵심역량					
		자기 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1. 인간상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
2. 목적, 목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
3. 편성, 운영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	○	○	○	○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4. 교수 학습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	○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	○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	○		
5. 평가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영역별 내용 문서상의 핵심역량 반영 실태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는 5개 영역별 내용과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닌 전 영역의 내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34)고 해설서에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영역의 내용과 핵심역량을 대응 관계로 살펴보기보다는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각 영역별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핵심역량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유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건강과 안전에 대해 유아기 배우고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문서에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중 건강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 신체 발달을 위한 기초운동능력 등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지식, 태도와 가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I-2-2〉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인간상					핵심역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신체 운동 · 건강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				○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				○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				○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				○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				○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				○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				○	○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				○	○					

나. 의사소통 영역과 핵심역량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의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에 대한 기초를 습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다양한 책과 이야기를 통해 상상과 말과 글의 예술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총론 문서에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핵심역량 중 협력적 소통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유아의 삶에서 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면서 소통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지식, 태도와 가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I-2-3〉 2019 개정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인간상					핵심역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의사 소통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	
	고운 말을 사용한다.				○					○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					○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		○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	○			○	○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				○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				○		

다. 사회관계 영역과 핵심역량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의 유아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와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유아가 속한 지역, 우리나라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총론 문서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유아가 사회 구성원 함께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능력, 태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I-2-4〉 2019 개정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인간상					핵심역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사회 관계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			○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					○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				○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					○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				○	○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			○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							○

라. 예술경험 영역과 핵심역량

예술경험은 유아가 자연, 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느끼며,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표현해 보고,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경험과 관련한 내용이다. 총론 문서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핵심역량 중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유아의 예술 경험을 통해 감수성을 기르고, 상상력 증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I-2-5〉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인간상					핵심역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예술 경험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					○		
	노래를 즐겨 부른다.		○						○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본다.		○					○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			
	다양한 미술 자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					○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					○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					○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						○	

마. 자연탐구 영역과 핵심역량

자연탐구 영역은 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며,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해보면서 생명과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문서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세계를 탐색하고 도전하고,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 교육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기능, 지식, 가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I-2-6〉 2019 개정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별 내용 문서의 핵심역량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인간상					핵심역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자연 탐구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참여한다.	○	○			○			○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				○		○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			○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			○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			○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			○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		○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	○		○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					

3. 소결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추가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범위를 확장한다.

초등교육과정은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 특히 ‘OECD 교육 2030’을 반영하여, 핵심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움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유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관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각 영역별 구성, 즉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은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유아들이 다면적인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은 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이 포괄적인 세계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역마다 포함되어 있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은 상이하며 영역마다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국제적 트렌드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보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영역마다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에 대한 보완과 보다 명확한 설계가 요구된다.

제3절

선행연구 및 언론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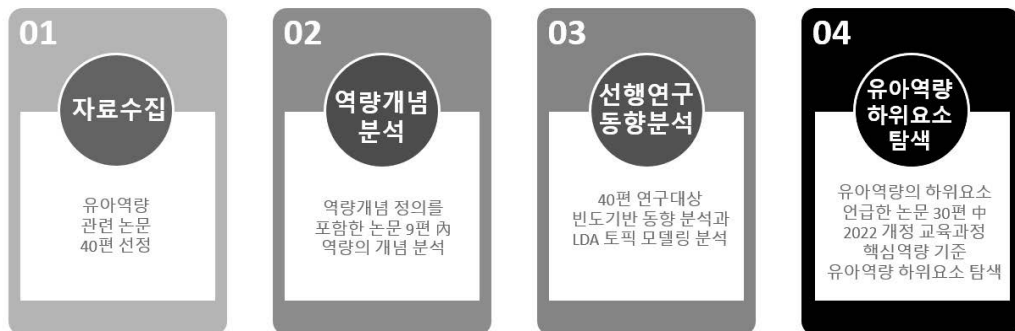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유아 역량에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유아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 역량’ 제목을 포함한 40편의 논문을 1차 수집한 다음, 1) 역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언급한 9편의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역량의 정의를 비교해 보고, 2) 1차 수집된 40편 선행연구의 동향을 빈도별 분석과 주제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3) 유아 역량의 하위요소를 다룬 30편의 논문에서 세부적으로 제시된 역량요소를 2022 개정 핵심역량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그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1. 유아 역량 관련 국내 학술연구 동향분석

가. 연구절차

유아의 역량을 다룬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 진행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III-3-1] 과 같다.

[그림 III-3-1] 분석대상 논문 선정 및 분석 절차 요약



나. 연구 결과

1) 역량 개념 분석

‘유아역량’ 제목을 포함한 40편의 연구대상 논문에서 ‘역량’의 정의를 제시한 논문은 9편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논문에서 언급된 ‘역량’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3-1〉 ‘역량’ 개념의 정의(본문 내 인용)

연구자 (연도)	연구 방법	‘역량’ 개념의 정의 (각 논문에서 인용된 내용과 해당 페이지 표기)
최양미 (2010)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2008) 보고서에 의하면 역량이란 단지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기술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 (p. 12)
김경희, 정은희 (2012)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란 ...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doings), 될 수 있는 것(beings) (pp. 4-5) • 역량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데,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와 삶의 기능(functionings)임 (p. 5) • 역량은 사람들에게 성취 가능한 대안적 기능들의 결합체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실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에 대한 것 (p. 13)
유은정 (2016)	문헌분석 & 델파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란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역량은 특정 상황에서 기술과 태도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복잡한 상황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기능(p. 43) • McClland에 의해 소개된 역량의 개념은 1997년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e)프로젝트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을 위한 광범위한 역량에 초점을 둬 (p. 43)
김영래 (2017)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들에 따라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OECD가 1997년부터 수행한 이른바 DeC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따르면 역량이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며,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동기적, 윤리적, 의지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 (p. 34) • 역량이란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정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말하는데, 특정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 가지 요소, 즉 ‘동기’, ‘행위’, ‘결과’가 적절하게 결합되었음을 의미 (p. 34) • 따라서 역량이란 특정 과업의 수행하기 위한 지적,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적, 사회적, 행동적, 방법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p. 34)
이화도 (2017)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eaning of competence is an abilities which enables person to deliver superior performance in a given job or situation. It includes not only a knowledge and technical aspect but also motivation, personality and self-concept (p. 50) ※ 연구자의 번역: 역량이란 주어진 직무나 상황에서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함. 여기에는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동기, 성격, 자기 개념도 포함됨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 (2019b)	설문조사 &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은 최근 국내외 교육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pp. 108-109) • 90gbu(1981)는 역량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특정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White(1959)는 유기체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연구자 (연도)	연구 방법	‘역량’ 개념의 정의 (각 논문에서 인용된 내용과 해당 페이지 표기)
		<p>위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역량이란 선천성보다는 학습될 수 있는 지적 인 능력과 인성,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공적인 미래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 (p. 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능력 (p. 109)
김은주 (2020)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p. 556)
안나영 (2021)	실험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란 효과적 또는 최고의 수행 기준 척도에 관련된 개인적인 잠재적 특성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p. 352)
김경철, 이민영 (2023)	저널 수집 &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라는 능력은 기술이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동기, 태도, 판단, 의지와 같은 다양한 인간 특성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능력(총체성), 실제 수행상황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인간 능력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가동시킬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수행성/가동성), 특정 맥락의 구체적인 요구와 관련된 수행 능력(맥락성),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측면보다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학습가능성)을 의미 (p. 225) •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식·기술·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를 가동하는 것을 포함 (p. 225) • 역량은 수행과 관련된 능력의 개념에서 나아가, 개인의 총체적인 내재적 특성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단순히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는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능력의 집합체 (p. 226)

- 자료: 1) 최양미(2010).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9(4), 1-21.
 2) 김경희, 정은희(2012). 평생교육과 아동복지의 만남: 섹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평생학습역량. 평생교육연구, 18(4), 297-317.
 3) 유은정(2016).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평화문화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한국보훈논총, 15(4), 39-65.
 4) 김영래(2017).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SEL).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2), 31-53.
 5) 이화도(2017). A Case of study Key Competencies-bas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France. 비교교육연구, 27(5), 45-66.
 6)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2019b).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역량 차이. 한국스포츠학회지, 17(3), 107-119.
 7) 김은주(2020). 유아의 창의적 인재 역량 척도 개발에 대한 예비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4), 553-579.
 8) 안나영(2021). 가정연계 신체활동이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9(3), 351-361.
 9) 김경철, 이민영(2023). 유아의 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쓰기 특성 분석. 교원교육, 39(4), 203-229.

위의 <표 III-3-1>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역량 개념을 정리해 보면, 역량은 직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김영래, 2017), 일을 해내는 힘(김은주, 2020),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천 능력, 수행 기준 척도에 관련된 개인적인 잠재적 특성(안나영, 2021), 상황과 요구에 대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유은정, 2016)을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취 가능한 대안적 기능들의 결합체(김경희, 정은희, 2012)이자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역량을 정의하였다(이화도, 2017).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역량을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능력이자 특정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White, 1959; Ogbu,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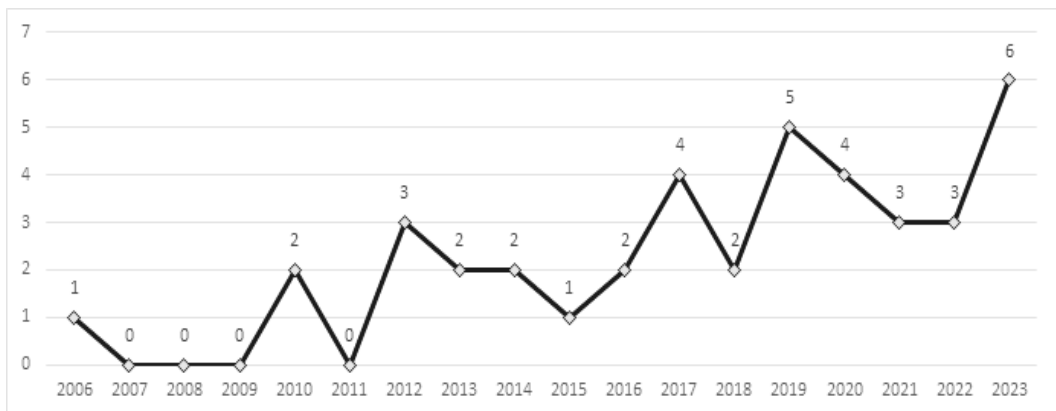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 2019b, 재인용)적 개념으로 제시해 왔으며, 선천성보다는 학습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해 왔다. 최근 들어서 역량의 정의는 지적, 기술적, 정의적, 사회적, 행동적, 방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김영래, 2017; 김경철, 이민영, 2023)하고 있는데, 이는 역량 개념이 교육 분야로 확장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능력의 집합체로서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빈도 분석

가) 연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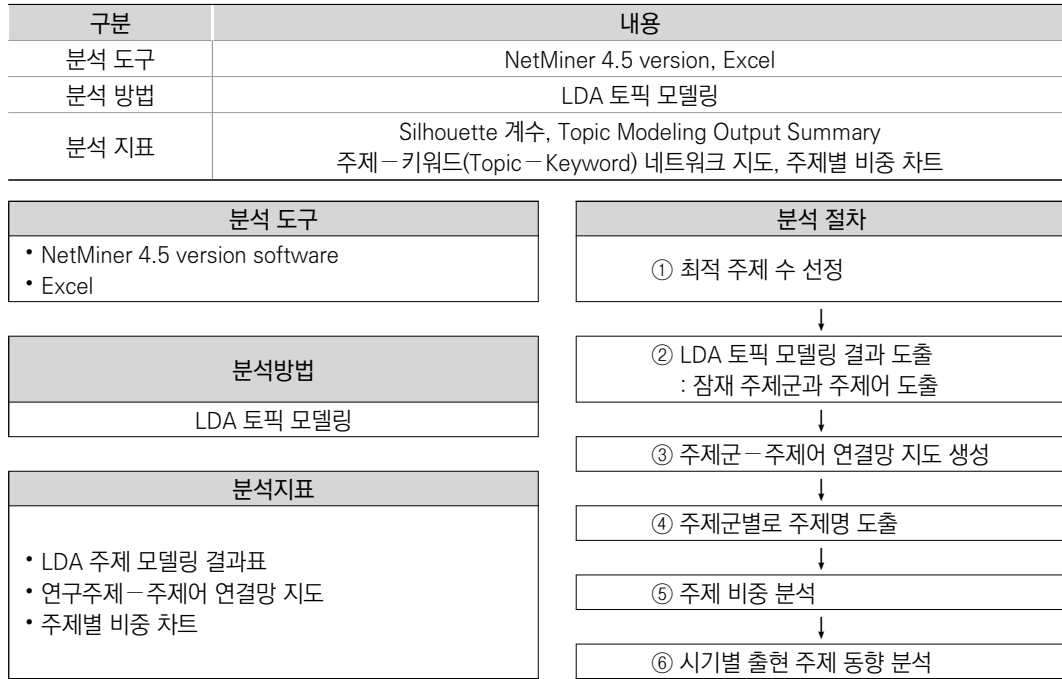
전체연도별로 게재된 논문 편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I-3-2]와 같다.

[그림 III-3-2] 연도별 빈도 분석



논문이 발견된 전체기간인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18년 동안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유아역량에 관련된 연구는 총 40편으로 연간 평균 약 2.2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1편(2.5%)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2009년에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0년 2편(5.0%)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2011년에는 게재 논문이 없었으나, 2012년 3편(7.5%)을 시작으로 1편~4편 사이로 관련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2019년에는 5편(12.5%)의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이후 약간 감소 추세로 2020년에는 4편(10.0%), 2021년부터는 연간 3편(7.5%)의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에는 연구 편수가 증가하여 총 6편(15.0%)의 연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기간 중 가장 많은 연구 수가 게재된 연도임을 의미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의 시기와도 일치한다.

〈표 III-3-2〉 연구주제 분석 절차



나) 최적 주제 수 선정 및 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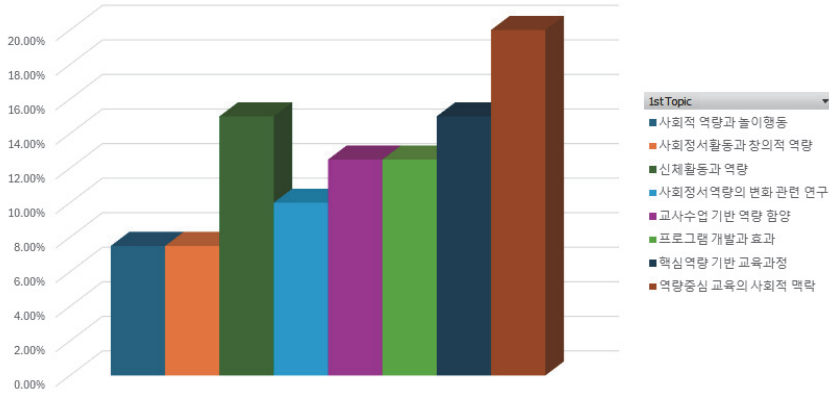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위하여 최적의 토픽 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Topic Coherence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주제군을 최적 토픽 수로 결정하였으며 $\alpha = 0.1$ 과 $\beta=0.02$ 를 가장 적합한 입력값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도출된 8개 주제군과 각 주제군별로 도출된 주제어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표 III-3-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3〉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요약

	논문수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Topic-1	3	놀이성	행동	역량지각	놀이	사회
Topic-2	3	사회정서	창의적 역량	활동	문제해결	학습
Topic-3	6	신체활동	신체활동역량	검증	태도	기술
Topic-4	4	사회정서역량	하위	조사	인공지능	문항
Topic-5	5	교사	메이커 교육	수업	교육	참여
Topic-6	5	집단	프로그램	기반	효과	실험
Topic-7	6	교육	과정	영유아교육·보육 과정	영역	핵심역량
Topic-8	8	교육	사회	유아교육	중심	발달

도출된 8개 주제군의 명칭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 주제별로 할당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주제명을 정해 보았다. Topic-1은 ‘놀이성’, ‘행동’, ‘역량지각’, 주제어와 함께 ‘사회’ 주제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할당된 논문들은 국내 장애유아통합교육의 실시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한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놀이행동과 사회적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Topic-2에서는 ‘사회정서’, ‘활동’, ‘문제해결’ 등의 키워드가 ‘창의적 역량’ 주제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해당 주제군에 할당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정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유아의 창의적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연구주제명을 <사회정서활동과 창의적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Topic-3에서는 ‘신체활동’, ‘신체활동역량’ 주제어가 최상위 주제어로 등장하였으며 이어서 ‘검증’, ‘태도’, ‘기술’ 등의 주제어가 확인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한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강화에 관한 논문이 등장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참여를 한 기술과 태도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주제군의 명칭을 <신체활동과 신체역량>으로 명명하였다. Topic-4는 ‘사회정서역량’ 주제어와 함께 ‘하위’, ‘조사’, ‘인공지능’, ‘문화’이 등장하였으며, 해당 주제군에 할당된 논문들 역시 실험 및 조사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정서 역량의 변화 비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구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회정서역량 증대연구> 주제군으로 명명하였다. Topic-5는 ‘교사’, ‘수업’과 함께 ‘메이커교육’, ‘교육’, ‘참여’ 등의 주제어가 눈에 띄며 특히, 교사의 수업을 통한 유아의 역량향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 해당 주제군에 할당되어 있어 주제군 명칭을 <수업기반 유아역량 함양>으로 설정하였다. Topic-6에서는 ‘집단’과 ‘프로그램’ 키워드가 확인되며 ‘기반’, ‘효과’, ‘실험’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할당된 논문 역시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간의 효과 차이 등에 관한 실험연구를 다룬 연구가 확인되어 주제명을 <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로 명명하였다. Topic-7는 ‘교육’ 주제어와 함께 ‘영유아교육·보육과정’ 등의 주제어가 등장하였으며, ‘핵심역량’ 주제어의 출현도 눈에 띈다. 해당 주제군에 할당된 논문은 교육분야에서 핵심역량의 대두되면서 불고 있는 변화와 함께, 영유아교육과 보육과정에서 이러한 핵심역량의 적용 및 영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구가 출현하여 해당 주제군을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Topic-8에서는 Topic-7과 함께 ‘교육’ 주제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사회’ 키워드를 Topic-1과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할당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 시대의 인재상을 반영한 역량교육, 유아의 역량 개발에 관한 국가 관점 및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역량중심교육의 사회적 맥락>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도출된 잠재 주제군 8개와 그 출현 비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막대차트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III-3-4 참고).

[그림 III-3-4] 연구주제별 출현 동향



가로축의 왼쪽부터 시작되는 색깔별 막대의 등장순서는 Topic-1에서 Topic-8까지 LDA 모델링이 할당된 토픽 번호의 오름차순에 따른 배열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III-3-4>는 상술된 순서에 따라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주제군이 출현한 비중도 함께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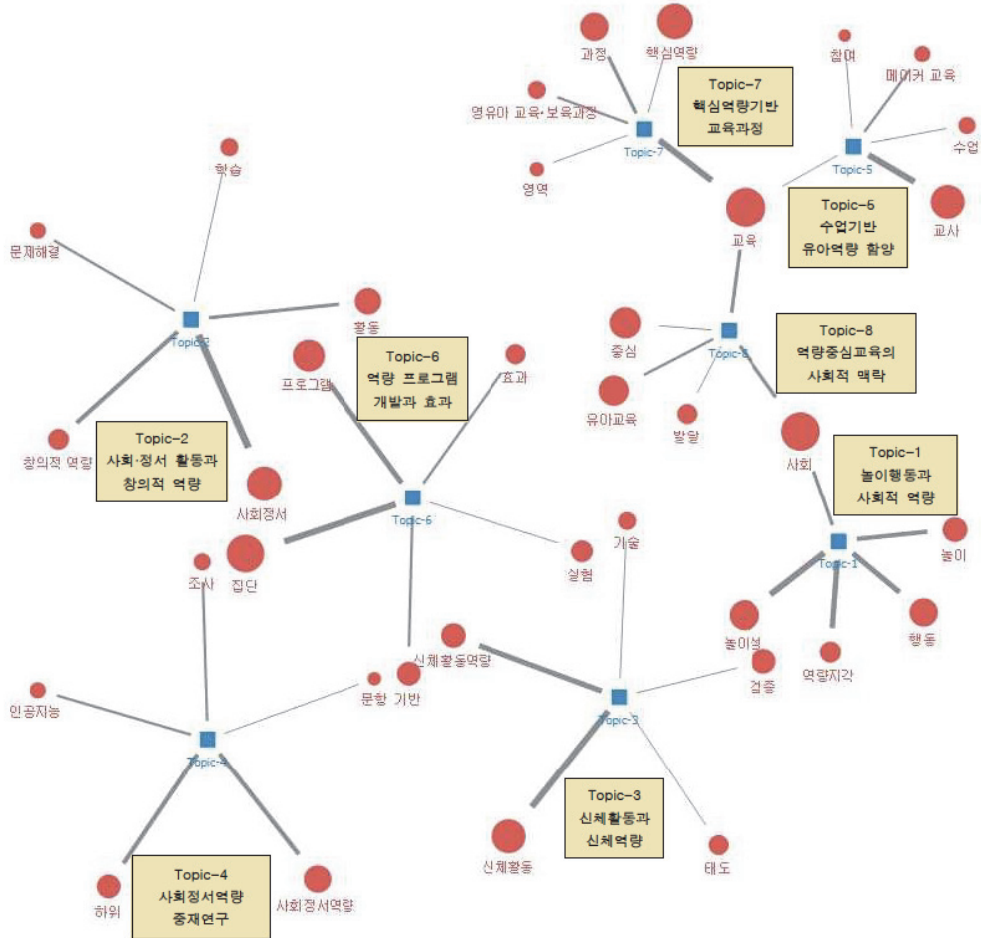
<표 III-3-4> 주제명 설정 및 주제군별 출현 비중

주제군	최종 주제명	출현 비중 (%)
Topic-1	놀이행동과 사회적 역량	7.5
Topic-2	사회정서활동과 창의적 역량	7.5
Topic-3	신체활동과 신체역량	15
Topic-4	사회정서역량 중재연구	10
Topic-5	수업기반 유아역량 함양	12.5
Topic-6	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12.5
Topic-7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15
Topic-8	역량중심교육의 사회적 맥락	20
합계: 100%		

다) 연구주제-주제어 연결망 지도

본 절의 연구대상인 40편의 유아 역량에 관한 논문에서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제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8개의 잠재 주제군과 출현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정석 분석을 거쳐 각 주제명의 설정을 완료한 후, 주제군별로 5개의 상위 출현 주제어의 연결망을 시각화한 네트워크 지도 위에 확정된 주제명을 삽입한 시각화 작업의 결과는 다음 [그림 III-3-5]와 같다.

[그림 III-3-5] 연구주제-주제어 연결망 지도



라) 연구주제 출현의 동향 분석

전체연도 기준, 도출된 주제군의 출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역량 개념에 기반한 교육의 거시적 차원(20%)의 내용을 다룬 연구주제의 출현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두 번째로 출현 비중이 높은 연구주제는 유아의 신체 활동과 신체역량(15%)에 관한 주제였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비중이 높은 연구주제군은 교사의 수업 (12.5%)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12.5%)를 통해 유아의 역량 변화를 탐색한 연구가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들 4개의 연구주제가 전체 출현 연구주제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 출현 주제 간의 상관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공통점이 있는 하위주제를 묶어보면 다음의 <표 III-3-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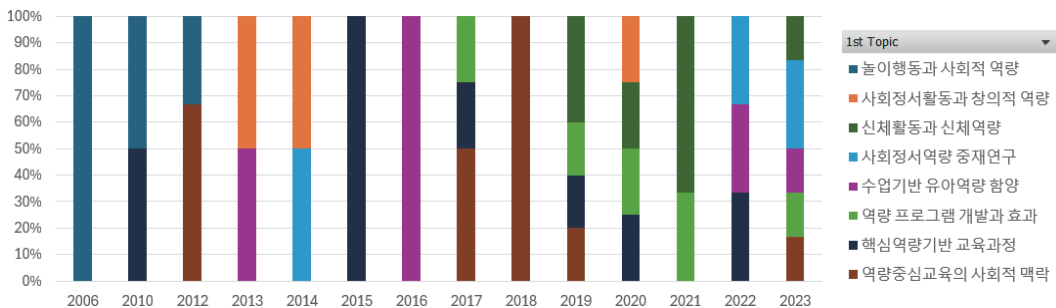
〈표 III-3-5〉 유아역량과 관련된 연구주제군 및 대주제 범주

역량	관련 연구주제군	대주제 범주
• 신체역량	신체활동과 신체역량	유아의 활동과 관련된 역량
• 사회·정서역량 • 창의적 역량	놀이행동과 사회적 역량	
	사회정서활동과 창의적 역량	
• 일반 역량	사회정서역량 중재연구	중재·실험 및 실행연구
	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수업기반 유아역량 함양	역량교육의 거시적 차원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중심교육의 사회적 맥락	

마) 게재 연도별 연구주제의 출현 동향 분석

아래의 [그림 III-3-6]은 게재 연도별로 출현한 연구주제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막대차트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유아역량 연구가 출현한 첫 3개년도(2006년, 2010년, 2012년) 동안은 유아의 놀이 행동 속에서 유아의 사회적 역량을 읽어내는 연구가 출현하다가, 2013년부터 유아의 사회·정서 역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에 출현한 논문의 연구주제는 유아의 사회적 활동 또는 정서 관련 활동에 기반하여 유아의 사회(정서)역량 또는 창의적 역량을 탐색한 논문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다음 해인 2015년에는 핵심역량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주제군만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2015년에 개정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역량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역량교육에 관한 학계의 관심 또한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III-3-6] 게재 연도별 연구주제의 출현 비중



그다음 해인 2016년에는 유아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의 수업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들만이 출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역량 개념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이후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실 현장에서도 수업을 통해 유아의 역량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역량 개념에 기반한 유아교육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를 다룬 연구주제들이 3개년도에 걸쳐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2021년에 이르는 3개년도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신체활동과 신체역량에 관한 주제군의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출현 이후의 기간으로 유아의 신체 활동 기회 감소로 인한 유아발달의 우려로 인해 관련 역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역량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이 공표된 다음 해인 2023년 한 해는 유아역량에 관련된 연구가 6편(15%) 확인되어 게재된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은 해이면서 동시에 가장 다양한 연구주제군(전체 8개의 주제군 중에서 5개의 주제군)이 출현한 해로 확인되었다.

바) 시기별 연구주제의 출현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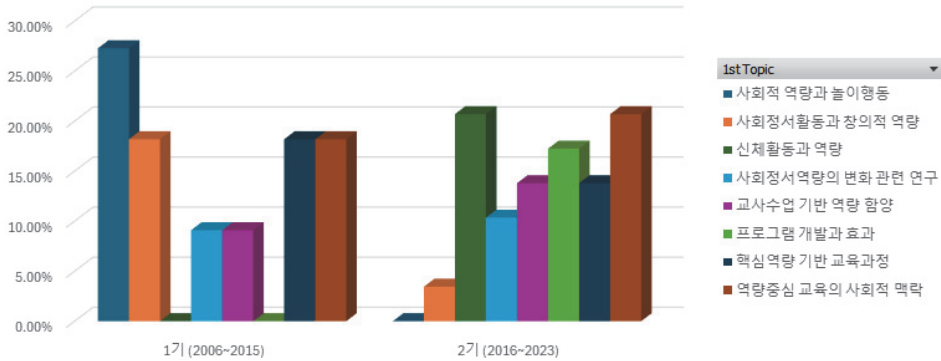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유아역량에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출현한 연구주제군을 살펴보고, 해당 주제들의 유의미한 동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기별 연구주제군의 출현 동향 분석을 추가로 시행해 보았다. 분석을 위한 시기는 연구대상인 40편 논문이 발행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논문들이 게재된 전체연도인 2006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총 18년의 시기를 10년 단위로 분류한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연구주제의 동향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III-3-6 참고). 예외적으로 2기 시기의 경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진행되던 24년 1월 기준으로 진행형의 시기이기에 가장 최근의 학술지 발행 일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10개 연도가 아닌 8개 연도가 분석에 활용되었음을 밝혀 둔다.

〈표 III-3-6〉 주제명 설정 및 주제군별 출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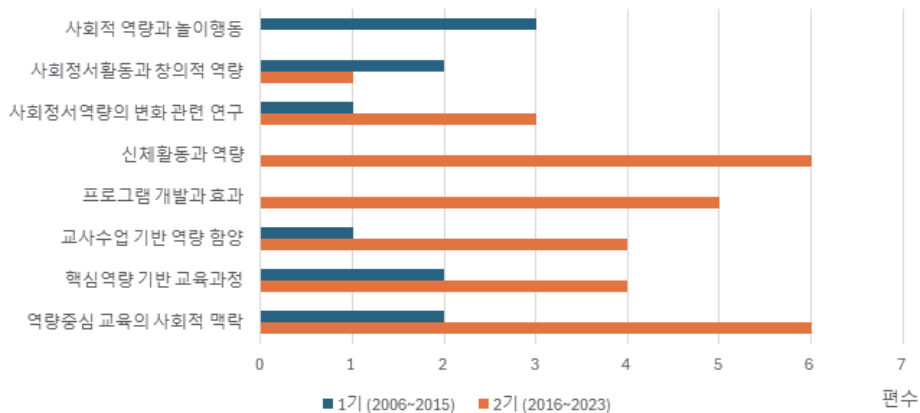
시기	기간	연도 수	논문 편수
1기	2006년 - 2015년	10개년도	11
2기	2016년 - 2023년 12월 31일까지	8개년도	29

다음의 [그림 III-3-7]은 시기별 출현 주제군의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이며, [그림 III-3-8]은 8개의 주제군이 출현한 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논문 수 기준으로 누적한 결과를 시각화한 차트이다. 이를 종합하며 살펴보면, 두 개의 시기별로 출현한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II-3-7] 시기별 출현 주제의 비중



[그림 III-3-8] 연구주제별 출현 시기 빈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기별 출현 연구주제의 비중 변화 분석에서 유념할 사항은 2기 시기는 1기와 달리 현재 진행형인 시기(24년 1월 기준)로 만 8년간의 데이터만 수집된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III-3-7]과 [그림 III-3-8]을 참조해 볼 때, 2016년 이후의 2기 시기에 게재된 논문 수(29편)가 이전 시기인 1기에 게재된 논문 수(11편)의 약 2.6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역량’ 개념이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유아역량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되고 관련된 연구의 출현 또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변혁적 역량 개념을 강조한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2019)의 등장 이후 시기인 2019년 이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이후에 전체 유아역량 관련 연구대상 논문의 50%가 넘는 21편이 게재되었다(그림 III-3-7 참조)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역량 개념을 둘러싼 유아교육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II-3-8]에서 드러난 1기(2006-2015) 시기를 주목해서 살펴보면, <사회적 역량과 놀이

행동>에 관한 주제군이 가장 높은 출현 비중과 빈도를 보였으나, 해당 주제는 2시기(2015-2023)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2기(2015-2023) 시기에는 <신체활동과 역량> 주제군이 출현 비중과 빈도에서 공동 1순위를 차지한 주제군인면서, 해당 주제는 1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연구주제군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주제군 역시 2기에서 처음 등장한 주제군이며 출현 3순위를 차지한 주제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가수준 문서에서 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에 명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이전 시기인 1기에는 유아의 놀이 행동이나 사회·정서 활동에 주목하여 유아의 역량을 분석한 논문이 주로 출현하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인 2기에는 유아의 신체역량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국가수준 그리고 교실 수준에서 역량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연구의 출현 비중 증가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기이다. 특히, 2기에는 역량교육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에 주목하는 논문의 증가도 눈에 띈다.

4) 유아역량 하위요소 분석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 역량 개념의 도입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핵심역량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불확실성과 변동성, 그리고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의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교육부, 2022a; 경상남도교육청, 2023).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면서, 미래에 적합한 인간상과 핵심역량, 그리고 교육목표의 설정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나아갈 지향점과 교과교육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핵심역량 개념의 교과별 체계화를 시도하고, 기초소양(예: 언어, 수리, 디지털)의 강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에 반영(교육부, 2022a)되었으며, 특히 학습자의 주도성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상호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및 AI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평가 체제를 구축(교육부, 2022a)하려는 의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역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국립국어원, 2023) 또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HRD 용어사전, 2023)로 소개되고 있으며, 핵심역량은 “다양한 기능, 기술과 지식의 흐름의 집합으로써 한 기업만이 가지는 독특한 것이며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미시간대학의 C.K. 프라하드

교수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경제신문용어사전, 2023)고 소개된다. 이렇듯 주로 직업교육의 혁신 및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시작된 역량 개념의 논의는 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으나, 국내·외 교육 분야에까지 그 적용이 확장(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09;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되면서 2015년에 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2015)과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의 학습나침반 2030(Learning Compass 2030)에서도 역량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별 특징

2015년과 2022년에 각각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도입하였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6가지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핵심역량을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지향하는 인간상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 교육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교수-학습-평가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구조를 혁신하고,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수준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핵심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을 제안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상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의사소통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협력적 역량이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이기에, 학교 교육 안에서 공동체 가치를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교수-학습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 교육과정의 한계로 지적된 교실 현장실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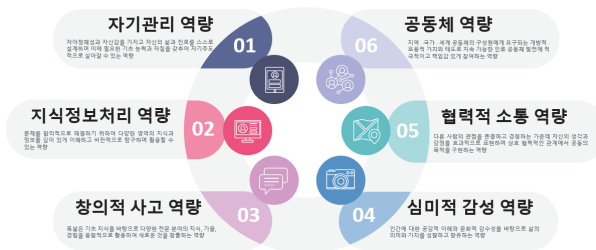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해설서(교육부, 2022b)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6가지 핵심역량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3-7과 그림 III-3-9 참고).

〈표 III-3-7〉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내용

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그림 III-3-9]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도식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다) 유아 역량의 하위 요소 분석

앞서 수집된 40편의 연구대상 논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를 언급한 논문으로 30편이 수집되었다. 해당 논문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안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적용해 보고자 아래의 〈표 III-3-8〉의 절차에 따라 관련 요소를 탐색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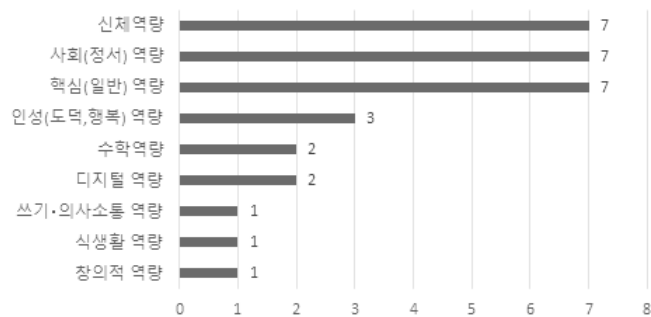
〈표 III-3-8〉 유아역량 하위요소 탐색 절차

구분	내용
분석 대상	유아역량의 하위요소를 언급한 30편의 논문
분석 기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분석 절차	각 논문에서 제시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들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에 따라 분류하여 관련 요소를 탐색

유아의 역량을 다룬 30편 논문에서 언급된 하위요소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안하고 있는 핵심역량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련성을 살펴본 세부내용은 부록1에 실었다(부록 표 III-3-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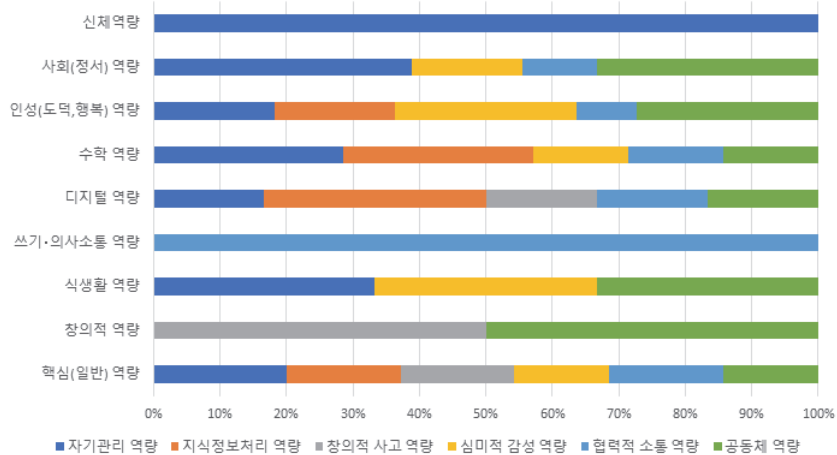
유아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유아 역량’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역량 개념이 ‘능력’과 유사어처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역량별로 확인된 출현 유형은 9가지이며, 신체역량, 사회(정서)역량이 공통으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유아 역량의 유형과 출현 빈도는 다음 [그림 III-3-10]과 같다.

[그림 III-3-10] 유아역량별 논문 편수



유아역량에 관련한 연구에 있어 신체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이 가장 높게 출현한 이유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상 교과가 아닌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의 개념 특성상 실천적이며 성취적인 결과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유아의 신체나 사회성과 같이 외현적으로 드러나기 쉬운 역량의 측면을 탐구한 연구가 유아교육분야에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유아역량 연구의 내용으로는 유아의 놀이 행동 및 또래 관계에서 드러난 사회성 및 사회역량을, 유아 신체 활동에서 신체역량을 탐색하는 연구의 출현 비중이 높았다. 아래의 [그림 III-3-11]은 30편의 연구가 제시한 유아역량의 하위 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이다.

[그림 III-3-11] 유아역량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 탐색



세로축은 유아 역량의 하위요소를 다룬 논문 30편에서 언급된 유아 역량의 유형을 의미한다. 유아의 신체역량에 관한 연구가 제시한 유아 역량의 하위요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의 사회(정서)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과의 관련성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동체 역량은 33.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심미적 감성 역량 16.7%, 협력적 소통 역량은 11.1%의 관련성을 보였다. 유아의 인성(도덕, 행복) 역량에 관한 연구가 제시한 하위요소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의 관련성이 각 27.3%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18.2%로 집계되었고, 협력적 소통 역량은 9.1%의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학 역량에 관한 연구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28.6%로 가장 많은 관련이 있었고, 심미적 감성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각 14.3%로 그 뒤를 이었다. 유아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지식정보처리 역량과의 관련성이 33.3%로 나타나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각 16.7%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유아의 쓰기·의사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가 제안한 하위요소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협력적 소통 역량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식생활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과 각 33.3%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창의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의 관련성이 각 50%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핵심(일반)역량을 다룬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역량이 모두 나타났는데, 그

중 자기관리 역량이 20.0%로 나타나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 각 17.1%로 두 번째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각 14.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 소결

실행과 성취의 측면을 강조하는 역량 개념은 직무역량과 직업 교육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OECD에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활용되면서 교육 분야로 그 적용이 확장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특히, 역량기반 교육은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제안되면서 그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역량교육의 직업교육적 기원에 의한 행동주의적 특성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역량 담론의 옹호자들은 역량의 재개념화를 통해 인문주의적 성격을 역량교육에 접목한 ‘역량기반 자유교육’ 또는 일반역량 중심의 ‘일반역량 교육’을 제안하였다. 결과와 성취에 기반한 역량의 한계를 인문주의와의 융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역량교육을 둘러싼 모순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량교육이 직면한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역량 담론을 교육과정에 수용하면서 엄밀한 개념의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박은주, 2022; 황규호, 2017)라는 비판에도 분명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측면에서 역량교육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 크다.

본 절의 분석결과, 유아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유아 역량’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그동안 역량 개념이 유아교육 분야에 수용되는 과정과 절차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핵심역량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교과와의 연계 부재가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에서 역량 개념의 수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핵심역량의 하위개념과 핵심역량 내용에 따른 유아교육 연구경향 탐색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은 일반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필요하거나 혹은 영역 간 전이가 가능한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혹은 범교과적 역량으로 생각되고 있다(이정우, 2017). 초·중등 교육에서 범교과적 핵심역량은 교육과정 설계과정에서 개별 교과에 적용 가능한 의미와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정옥희, 2023).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2015~2022)를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6대 핵심역량의 주요 개념을 기초로 하위요소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6대 핵심역량의 개념이 어떤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개념 탐색

아래 표에서는 최근 문헌을 기초로 핵심역량의 개념과 주요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III-3-9〉 6대 핵심역량의 개념 및 세부 역량 범주

6대 핵심역량	개념	주요 범주	세부 역량 범주
가.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교육부, 2022b; 임영은, 박소영, 2021)	긍정적 자아인식	자기이해
			자아정체감
		자기주도성	성취동기
			자기관리
		진로설계능력	자기확신
			계획성
나.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양한 정보와 자료,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22b)	정보처리	독립성
			자료수집
			행동
			분석
		문제해결	평가
			선택
다. 창의적 사고 역량	깊이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22)	인지적 측면	문제인식
			문제해결 방안 탐색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정의적 측면	유창성
			유추성
민감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과제집착력	민감성		
	독립성		
	개방성		
자발성	독립성		
	자발성		

6대 핵심역량	개념	주요 범주	세부 역량 범주		
라. 심미적 감성 역량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며 실천하는 역량(교육부, 2015; 2022b; 김란주, 2019; 이정연, 류재만, 2020; 정옥희, 2023).	공감적 이해	개방적 태도 반성적 성찰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소양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 향유	정서적 안정감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마.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과 심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인류 공동체로서 상호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공존하며, 공유 가치와 지식을 창조하고 협력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김미호, 2023)	도구적 소통	언어 문해 정보 문해 기술 문해
세계시민적 소통	타자 이해와 공감 갈등 조정과 숙의				
혁신적 소통	융합적 소통 협력적 소통				
바.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정우, 2017)			지역 및 세계 시민성	정체성과 소속감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지식과 탐구
				참여와 책임 의식	공정성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문제해결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협동과 협업	관계 형성 의사소통 갈등해결 리더십		

자료: 1) 교육부(2022b).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교육부.
 2) 임영은, 박소영(2021). 심미적 감성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탐구. *교원교육*, 38(2), 371-397.
 3)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4) 김란주(2019). '심미적 감성 역량'의 개념 탐색. *교육과정연구*, 37(3), 1-28.
 5) 이정연, 류재만 (2020). 국내외 교육과정에 반영된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의 심미적 감성역량. *한국초등교육*, 31(4), 99-118.
 6) 정옥희(2023). '심미적 감성 역량'의 페다고지론적 의미 성찰. *미술교육연구논총*, 74, 157-186.
 7) 김미호(2023). 미래 핵심역량으로서 소통역량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문화연구*, 29(6), 151-177.
 8) 이정우(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공동체 역량 의미와 하위요소 탐색. *시민교육연구*, 49(4), 149-170.

표의 내용에 정리된 각 역량에 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에서 진로설계의 하위범주는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임영은,

박소영, 2021). 이는 진로설계 역량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유·초등 보다는 중고등 이상의 교육과정 단계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개념인 도구적 소통은 정보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중복된 개념이다. 셋째, 창의적 사고 역량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교육과정 핵심 역량으로서 개념화되어 연구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본 표에 정리된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제시된 하위범주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주로 예술 교과에 관련된 협의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으며, 하위요소 간의 구분과 연결이 불명확하였다(김란주, 2019; 박은진, 최영인, 2020; 정옥희, 2023). 심미적 감성 역량은 예술 교과의 영역을 넘어서 범교과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찰 능력 및 인간의 총체적인 실천적 감성 역량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김란주, 2019; 정옥희, 2023). 다섯째, 의사소통역량의 개념은 김미호(2023)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되어 있었다. 주목할 점은, 현대사회에서의 문해력은 문자, 수리, 기호 등의 언어 표상을 사용한 전통적인 문해력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간 혹은 사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에서 공동체의 범위는 지역, 국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급, 직장 등 다양한 차원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이정우, 2017). 위 표에서 공동체 역량의 하위요소는 이정우(2017)의 분석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나. 핵심역량 내용에 따른 유아교육연구 경향(2014~2024년 KCI등재지를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유아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 가운데 약 844편의 논문은 핵심역량의 하위범주의 내용을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었다. 핵심역량 주제와 관련된 연구 비율은 아래 <표 III-3-10>에 제시하였다.

<표 III-3-10> 핵심역량 하위 요소와 관련된 유아교육 논문 수(n)

구분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논문 수 (%)
	긍정적 자아 의식	자기 주도성	진로 설계 능력	정보 처리	문제 해결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	행복 향유	도구적 소통	세계 시민적 소통	혁신적 소통	지역 및 세계 시민성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n	228	30	8	14	52	73	103	35	153	37	2	11	31	3	64	844	
계	266(31.5%)			66(7.8%)		73(9.8%)		291(34.5%)			50(5.9%)			98(11.6%)			100%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높은 비율(31.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공동체 역량(11.6%), 창의적 사고(9.8%), 지식정보처리(7.8%), 의사소통 역량(5.9%)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844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자기관리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자아’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226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단계에서는 226편 연구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관련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3-11〉 유아의 자기관리 개념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긍정적 자아의식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105
	자아존중감(self-esteem)	67
	자아개념(self-concept)	42
	신체적 자아개념	14
	음악(예술)적 자아개념	3
	자아지각(self-perception)	4
	자기조절력	13
	자기결정력	2
	자아효능감	6
		소계
자기 주도성	주도성	7
	놀이주도성	6
	유아주도	9
	자기주도학습	2
	또래주도성	3
	소계	27
진로설계능력	진로인식	5
	진로준비	3
	진로준비 행동	1
	소계	9
	전체	292

가) 긍정적 자아의식

분석결과, ‘자아’의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안정된 심리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의미한다(이수기, 2016; 최민자, 김진경, 2023).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self-concept) 및 어떤 일을 얼마나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신감(self-confidence) 등의 개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자신에 대한 평가적 요소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서소정 외, 2018).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은 비율로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음악적 자아개념을 구분하고 있었다.

나) 자기 주도성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주도성(initiative)’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30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도성과 관련하여 사용된 주요 용어들은 표에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연구분야에서는 주도성의 개념보다 ‘자율성(autonomy)’의 개념이 보다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유아의 자기관리역량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 진로 설계 능력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진로’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8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 설계와 관련하여 사용된 주요 용어는 ‘진로인식’과 ‘진로준비’였으며, 진로준비 행동도 1회 사용되고 있었다.

2) 지식정보처리

지식정보처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66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단계에서는 66편 연구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관련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3-12〉 지식정보처리와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정보처리	정보처리유형	6
	사회정보처리과정	3
	정보처리	1
	정보처리 능력	1
	동시적 정보처리	2
	순차적 정보처리	1
	계	14
문제해결	대인간문제해결	13
	창의적문제해결	11
	문제해결력	10
	문제해결전략	2
	문제해결	3
	협력적 문제해결	3
	수학적 문제해결	7
	과학적 문제해결	2
	경험·귀납적 방법	1
	사회적 문제해결	1
	안전문제해결	1
	긍정적 해결방안	1
	계	55
전체	69	

가) 정보처리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정보’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된 연구는 14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의 발달적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문제해결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문제해결’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된 연구는 52편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김무련, 김수향, 2017; 김자영, 최미숙, 2020; 백승선, 조형숙, 2018). 이 경우 창의적 사고 역량의 개념과 중복되는 역량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3) 창의적 사고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창의적 사고’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된 연구는 73편으로 나타났다.

〈표 III-3-13〉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창의적 사고	창의성	13
	창의적 사고	10
	창의적 인성	4
	창의적 성격(성향)	3
	창의적 능력(역량)	3
	창의적 문제해결	2
	창의적 (그림)표현	4
	창의적 행동 특성	1
	계	40

4) 심미적 감성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공감’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된 연구는 103편이었다.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다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적 감수성’, ‘감수성’의 용어로 검색을 확장한 결과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아래 〈표 III-3-1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 ‘행복 향유’의 범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III-3-14〉 유아의 심미적 감성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공감적 이해	공감능력	57
	공감	17
	정서적 공감	4
	인지적 공감	3
	공감적 이해	2
	계	83
문화적 감수성	환경감수성	11
	생태감수성	4
	자연환경 감수성	4
	경이감	1
	생명존중인식	4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심미적 감수성	1
	심미적 감성역량	1
	다문화감수성	4
	문화다양성	2
	다문화이해	1
	다문화인식	1
	성인지 감수성	1
	성역할 고정관념	1
	평화통일 감수성	1
	계	37
행복 향유	행복감(sense of happiness)	84
	행복	58
	행복플로리시(happiness flourish)	6
	주관적 행복	1
	행복권	1
	계	150
	전체	270

5) 의사소통

의사소통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50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단계에서는 50편의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3-15〉 유아의 소통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도구적 소통	소통	9
	상호작용	3
	대화	4
	이야기나누기	2
	의사소통	2
	토의	1
	담화	1
	아기울음	1
	소계	23
세계 시민적 소통	다문화가정	1
	다문화	1
	문화	1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계	3
혁신적 소통	첨단매체(예, 알파미니, AI로봇, 아바타 등)	15
	첨단기술(예, 대화형, 인터페이스, 솔루션 등)	7
	인간로봇상호작용	1
	소통	2
	계	25
	전체	51

가) 도구적 소통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소통’의 키워드를 활용하였을 때, 도구적 소통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물들이 검색되었다. 유아의 소통과 관련하여 그림책의 텍스트 이해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김혜경, 박정미, 어윤경, 2023; 심향분, 성소영, 2014), COVID 팬데믹 기간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과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이혼연, 홍필태, 2021; 임부영, Lake, 2022; 윤현숙, 2023) AI로봇, YouTube, 가상공간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연구가 높은 비율로 출현하고 있었다(예: 유구종, 윤여진, 2023; 김인애, 오아름, 2023). 유아-유아,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신체접촉, 소통으로서의 예술적 경험, 협력적 놀이기록, 공간과 매체 등을 통한 소통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었다(김경철, 이민영, 2022; 김영연, 함수경, 2017; 서민주, 임부연, 2014). 이 가운데는 아기 울음을 통해 영아와의 소통을 연구한 사례도 있었다(서민주, 정경수, 임수정, 임부연, 2016).

나) 세계시민적 소통

소통과 관련된 연구 50편 가운데 단 2편만이 세계시민적 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의 문화 읽기(심향분, 성소영, 2014)와 다문화 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황신해, 김민진, 2024).

다) 혁신적 소통

본 연구에서는 ‘소통’과 관련된 연구 50편 가운데 AI,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소통을 연구한 논문 11편을 혁신적 소통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6) 공동체

공동체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98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단계에서는 98편 연구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관련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3-16〉 유아의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유아교육연구 경향

범주	관련 용어	키워드 수(n)
지역 및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	22
	세계시민의식	7
	민주시민교육	2
	시민성	3
	세계시민성	2
	국제교류	1
	국제이해	1
	지속가능발전교육	1
	소계	39
참여와 책임의식	참여권	3
	권리	1
	존중	1
	민주적	1
	존중	1
	교실문화	1
	소계	8
협동과 협업	협동적 활동	50
	협동학습	5
	협동 놀이	1
	소계	56
	전체	103

가) 지역 및 세계시민성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시민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는 소수로 나타났다.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심예서, 김지은, 2017)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사의 인식연구(이연승, 최유정, 2023), 봉사학습을 통한 세계시민성 실천에 관한 연구(이경화, 김정숙, 2015; 유재경, 201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서현선, 전홍주, 이문옥, 2019), 디지털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최지혜, 이영선, 정소영, 2022)가 진행되었다.

나) 참여와 책임의식

‘참여와 책임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유아의 권리와 참여권, 민주적 교실문화에 관한 3편이 있었다(권미나, 배지현, 2019; 이성희, 이현정, 2023; 이유정, 정연아, 2020).

다) 협동과 협업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유아’와 ‘협동’의 키워드 포함하는 연구는 64편으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협업’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용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 소결

6대 핵심역량 가운데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른 역량과의 위계적 관계에서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소통 역량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소통 역량과 중복된 개념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은 핵심역량 가운데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핵심역량의 개념이 어떤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높은 비율(31.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공동체 역량(11.6%), 창의적 사고(9.8%), 지식정보처리(7.8%), 의사소통 역량(5.9%) 순이었다.

3. 영유아기 미래 역량 도출을 위한 언론 기사 분석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1) 수집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사회 변화, 역량, 인간상’ 관련한 키워드를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에서 수집하였다. 추출 도구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54개 언론사의 텍스트기사, 사진, PDF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기사DB이자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래 제시된 11개 키워드를 분석 조건(대상 및 기간) 기준으로 기사 전수를 수집하였다.

〈표 III-3-17〉 검색 키워드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2) 분석 채널 및 기간

빅데이터 분석의 분석 대상은 주요 일간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언론사 기사이다. 각 언론사 기사별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경우, 데이터 제공 가능한 기간이 2018년부터 제공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분석 절차

데이터 수집부터 클리닝 진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집 및 추출 → 분석 기준 확립 → 클리닝 → 그룹화 → 최종 분석 데이터 구축

각 프로세스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빅카인즈를 통해 해당 뉴스에서 추출된 모든 명사 키워드를 크롤링 진행하였다.
 - 둘째, 동일한 단어가 하나의 기사에 복수로 출현한 경우는 1회로만 카운트하도록 추출하였다.
 - 셋째, 각 키워드별 추출 데이터를 검토하여, 분석 활용을 위한 기사 카테고리 기준을 선정한다.
- 본 기사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외된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스포츠(축구, 골프, 야구, 월드컵, 메이저리그 등), 정치(청와대, 선거, 외교, 국회_정당, 등), 지역(충남, 대전, 경기, 경남, 제주, 울산 등), 국제(미국_북미, 중동_아프리카 등)
- * 빅카인즈에서는 기사유형을 사회(노동, 복지, 미디어, 사회갈등, 여성 등), 문화(전시, 공연, 영화, 미술 등), 경제(무역, 유통, 외환 등), 국제(미국, 중국, 유럽, 중남미 등), 정치(청와대, 국회, 외교 등), IT과학, 사고, 범죄, 재해, 스포츠 등으로 분류함

넷째, 키워드별 단어 빈도 확인 후, 키워드별 최소 빈도수를 선정하여 분석 기준(최소 빈도)을 확립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단어 기준	해당 검색어
빈도수 2 이상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빈도수 10 이상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빈도수 30 이상	미래사회 학교 변화 미래사회 학생 역량
빈도수 90 이상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역량

다섯째, 인물, 위치, 기관 관련 명사 및 무의미한 숫자가 포함된 명사, 접속사 또는 부사 포함 명사 등을 각 키워드별로 클리닝(정제)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전체 키워드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되는 단어, 키워드별 개별 포함 및 삭제해야 하는 단어를 구분하면서 최종 클리닝(정제)을 진행하였다.

여섯째, 키워드별 유사한(의미) 키워드를 하나의 대표 키워드로 그룹화하여 분석에 사용할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일곱째, 키워드별 유사어의 경우, 각 키워드별 가장 많이 언급된 30개 단어를 기준으로 Word2vec 모델을 활용하여 단어간의 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였다. 다만 이 방법은 Network상에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Network의 밀도가 높을수록 결과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복 제거하지 않은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추출한 뒤, 유사어로 나오는 상위 30개 단어는 최소 빈도 및 클리닝 기준을 충족하는 단어만 포함하도록 처리하였다.

나. 검색어별 문서 발현량

최근 10년간(2012~2023) 문서의 발현량, 화제어, 유사어를 분석한 결과, 미래사회 변화는 총 13,462건, 미래사회 교육 변화는 7,617건, 미래사회 학교 변화는 4,1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키워드인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는 67건, 미래사회 보육 변화는 365건,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는 277건,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는 262건이었다. 또한 미래사회 인간상은 52건, 미래사회 역량은 8,299건, 미래사회 학생 역량은 4,003건,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은 70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 III-3-18〉 검색어별 기사 발현량(연도별)

구분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계
계	13,462	7,617	4,189	67	365	277	262	52	8,299	4,003	70	38,663
2012	611	327	199	5	21	2	9	1	287	136	-	1,598
2013	614	324	201	4	18	17	18	1	323	138	4	1,662
2014	621	306	170	-	17	10	17	7	328	127	-	1,603
2015	883	481	283	5	34	22	17	6	467	241	2	2,441
2016	1,156	678	374	4	19	16	19	12	627	362	1	3,268
2017	1,208	755	439	4	31	31	19	2	791	420	5	3,705
2018	1,314	784	439	11	39	26	31	6	879	467	6	4,002
2019	1,422	844	466	2	31	38	35	1	915	501	13	4,268
2020	1,437	766	378	7	33	33	21	2	839	361	1	3,878
2021	1,606	888	472	4	15	30	18	6	1,017	455	3	4,515
2022	1,446	830	451	13	46	27	29	4	1,017	452	18	4,333
2023	1,144	634	317	8	61	25	29	4	809	343	17	3,391

다. 검색어별 화제어 분석

검색어별 화제어를 분석한 결과,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사회 교육 변화의 관련 화제어(Top10) 1순위는 세계로 나타났으며, 미래사회 학교변화 관련 화제어 1순위는 교육으로 나타났다. 2012~2023년간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관련 공통 화제어는 세계, 교육, 창의, 부모, 생각, 역량이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 관련 화제어로 세계, 교육, 창의의 빈도가 높아 세계화, 교육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사회 교육 변화 관련 화제어로 세계, 창의, 지원, 부모의 빈도가 높았는데, 교육에서 부모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미래사회 학교 변화 관련 화제어는 교육, 세계, 부모, 창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의 세계화, 부모 협력,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19〉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구분	미래사회 변화	계	미래사회 교육 변화	계	미래사회 학교 변화	계
1	세계	12,151	세계	7,295	교육	3,643
2	교육	7,617	창의	5,563	세계	3,621
3	창의	7,125	지원	4,373	부모	3,577
4	지원	6,299	부모	4,345	창의	3,367
5	부모	5,699	역량	3,777	지원	2,361
6	생각	5,481	운영	3,684	생각	2,201
7	시작	5,226	인재	3,394	운영	2,176
8	정책	5,159	생각	3,196	역량	2,131
9	환경	5,085	참여	3,179	참여	1,912
10	역량	4,992	평가	3,053	수업	1,872

〈그림 III-3-13〉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변화, 미래사회 교육 변화, 미래사회 학교 변화



한편,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관련 화제어(Top10) 1순위는 모두 부모로 나타났다. 2012~2023년간 공통 화제어는 부모, 세계, 지원이었다. 미래사회 유아교육과 보육 변화 관련 화제어는 공통적으로 부모, 세계로 나타났는데, 부모와의 협력과 세계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관련 화제어로 역량과 창의가 높은 빈도를 나타난 것에 비해 미래사회 보육 변화 관련 화제어는 지원과 정책의 빈도가 높아 차이를 보인다. 미래사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변화 관련 화제어는 공통적으로 부모가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20〉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구분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계	미래사회 보육변화	계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계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계
1	부모	65	부모	324	부모	432	부모	299
2	세계	55	세계	323	교육	236	세계	201
3	학교	46	지원	278	세계	203	지원	196
4	역량	44	정책	257	학교	185	교육	167
5	창의	42	교육	256	창의	177	정책	162
6	운영	42	국가	204	지원	170	계획	151
7	인재	39	계획	194	정책	155	시작	146
8	지원	38	해결	192	생각	147	문화	144
9	발전	34	확대	190	환경	140	사업	140
10	역할	33	문화	187	국가	133	운영	136

[그림 III-3-14]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미래사회 보육 변화,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관련 화제어 (Top10)를 살펴보면, 미래사회 인간상은 창의, 미래사회 역량과 미래사회 학생 역량은 세계,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은 부모로 나타났다. 2012~2023년간 공통 화제어(Top10)는 교육, 세계, 지원이었다.

〈표 III-3-21〉 검색어별 화제어 빈도(Top10):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구분	미래사회 인간상	계	미래사회 역량	계	미래사회 학생 역량	계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계
1	창의	54	세계	8035	세계	4008	부모	69
2	교육	49	교육	5957	창의	3771	교육	64
3	변화	36	창의	5677	교육	3707	지원	52
4	학교	36	지원	5182	지원	2766	변화	48
5	세계	32	변화	4992	변화	2548	운영	44
6	생각	28	강화	4178	운영	2521	환경	44
7	사람	28	운영	4170	인재	2498	강화	44
8	국가	27	인재	3765	학교	2497	세계	43
9	현장	27	참여	3582	부모	2455	계획	39
10	지원	25	계획	3452	강화	2163	정책	38

[그림 III-3-15] 검색어별 화제어 워드 클라우드(Top30): 미래사회 인간상, 미래사회 역량, 미래사회 학생 역량,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4. 소결

본 절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역량 반영 요소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들에 반영된 역량과 미래사회 관련 키워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육의 가치와 전통,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되어 왔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연계를 고려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총론을 토대로 영아 미래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및 영아기 특성을 고려한 영아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각 영역별 구성, 즉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은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유아들이 다면적인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은 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이 포괄적인 세계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역마다 포함되어 있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은 상이하며 영역마다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역량 요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역량 개념이 유아교육 분야에 수용되는 과정과 절차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핵심역량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교과와의 연계 부재가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에서 역량 개념의 수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핵심역량의 개념이 어떤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4절

영유아기 미래 인간상 및 역량에 대한 의견



1. 초점집단(FGI) 인터뷰 결과

가. 유아교육학계 의견

1)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 대한 평가, 추가가 필요한 역량, 영유아 시기의 반영 여부, 현행 교육과정의 미래형 인재상 반영정도, 영유아기 인간상의 강조 및 추가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나타난 주요 의견은 <표 III-4-1>과 같다.

<표 III-4-1>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2022 개정교육과정 인간상에 대한 의견	범위의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의 범주에 따라 포함 유무가 달라짐 제시된 인간상의 하위 내용 안에 세부내용으로 역량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혁신적 포용인재라는 용어가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이 됨. 또한 인간상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호함. • 혁신적 포용인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호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되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미래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다 포용하는가에 의문이 됨. 4가지 영역의 차별성보다는 서로 연계성이 있어보여서 조금 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추가가 필요한 인간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변화에 적응하려면 몸과 마음의 힘이 중요하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추가되어야 함. • 신체적 역량과 신체 건강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강조가 요구됨. •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의 기초가 신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하기에 추가가 필요해보임.
	협력 및 공동체 의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는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부각되어야 함. • 현재 포용적 가치관 실천에 협력이 들어가 있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시각에 공동체 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함께 연결되어 같은 분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질문	주요 의견	
	도덕성과 인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가 되어갈수록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과 인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따뜻한 인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도덕과 같은 절대 가치 측면이 추가되어야 함. 도덕, 윤리 등의 교육이 필요함.
	자기 이해 및 자기 조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의 내용과 더불어 자기 조절력의 포함 여부를 살피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본 생활습관, 사회성, 자기 조절력이 강조되어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함. • 안전에 대한 내용과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 내용의 추가가 필요함.
영유아 시기의 인간상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인재상이라도 추구하는 역량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연계하여 역량과 인재상이 함께 가야함. • 일관성 교육을 위해 각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연계가 필요함. • 유초연계, 이음교육의 관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야함. •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추구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가야함.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발달수준의 따라 타학교급과 차별성이 필요함.
	연계성과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성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연계성, 차별성 동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교육, 보육과정의 미래형 인재상 반영 유무	반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나, 서술적 측면에서 반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미래 인간상으로 본다면, 도덕성, 인간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임. • 창의적인 사람과 미래형 인재상과 연계되어 보임.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해설서에 따르면 유아기 일상에서 놀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은 잘 반영되지 않음. • 행정적 관점에서 유초중고 연계가 중요하게 느껴짐. 그러나 현재 제안하는 인재상은 미래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필요한 내용	사회·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민의식, 도덕과 윤리, 정신건강, 사회정서적인 부분들의 강조가 필요함. •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협력과 강조를 통해 더불어사는 사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미래형의 강조와 함께 윤리적인면, 도덕적인 면을 강조해야함. • 도덕성과 인성교육처럼 사람다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아이들이 건강하고 협력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디지털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은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혁신적 포용 인재라는 용어가

4가지 요소(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간상이 미래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미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추가가 필요한 역량으로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신체적 역량과 신체 건강 부분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으며, 협력과 공동체 의식, 디지털 리터러시, 도덕성 및 인성, 자기 조절력,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반영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미래 인간상으로 본다면, 도덕성, 인간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사람과 미래형 인재상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초중고 연계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정서적 역량, 세계 시민의식, 도덕과 윤리, 정신건강,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협력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협력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전문가가 인식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알아보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가 미래형 인재상의 핵심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추가 혹은 수정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미래형 인재상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중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역량과 그 이유, 누락된 내용, 영유아기에 강조가 필요한 역량 및 핵심역량과 잘 연결된 역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한 결과 나타난 주요 의견은 <표 III-4-2>와 같다.

〈표 III-4-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질문	주요 의견	
유아교육과정에서 추가가 필요한 역량	자기 이해 역량	•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 영역의 추가가 필요함.
	사고 역량	•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과 이의 강조가 필요함.
	전인적 건강 역량	• 몸과 마음의 건강한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신체적 발달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내면적인 건강함이 부족함.
	지식정보처리역량	•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 지식처리역량이 간과되고 있음,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완될 필요가 있음.
	사회 정서적 역량	• 유아들의 인지 발달상 협력적 공동체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더 보완하고 강조해야 함. •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이 필요함. 혼자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역량이 필수적임.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의 강조가 필요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의 역량의 연계성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연계성	• 전체적인 내용들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영유아기 강조점과 잘 연계되어 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된 역량을 모두 다루고 있음.
	영역별 연계성	•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자연탐구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 심리적 감성역량은 예술경험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 사회관계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 공동체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누락된 내용	• 도덕성, 인성, 윤리와 같은 절대가치의 역량이 사라짐. • 건강한 사람,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 •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다소 부족함. • 신체운동역량이 부족함. • 창의적 사고역량이 다소 부족하게 제시됨.
영유아기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사회적 역량이 중요함. • 신체 운동 역량, 창의적 역량의 강조가 필요함. • 공동체 의식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기조절 역량이 필요함. • 자기 조절 역량, 자기 관리역량, 자기주도적 역량이 필요함.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관점에서 협력적 소통이 중요함.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은 미래형 인재상의 핵심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추가 혹은 수정이 필요한 역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 영역의 추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내면적 건강도 중시하는 전인적 건강 역량,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식정보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능력, 공감적 이해 및 문화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사회 정서적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된 인간상은 미래형 인재상의 내용과 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자연탐구영역과, 심리적 감성역량은 예술경험영역과,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영역과, 공동체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되어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으로는 도덕성, 인성, 윤리와 같은 절대가치의 역량, 건강한 사람, 세계시민의식, 지식정보처리 역량, 신체운동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등이 다소 부족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 영유아기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으로는 정서 및 사회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신체 운동 역량 및 창의적 역량의 강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기조절 역량, 자기 조절 역량 및 자기 관리역량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관점에서 협력적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3)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점과 그 이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때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할 때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논의한 결과 나타난 주요 의견은 <표 III-4-3>과 같다.

<표 III-4-3>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에서 벗어나서 실제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과 교과기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유아교육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유치연계의 관점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을 찬성함.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음. 역량에 대한 정의와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혼용되고 있음. •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과연 통합적 적용의 역량이 맞는지 의문임. • 초등과 연계하여 가기에는 유아수준에 맞지 않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음. 역량에 대한 정의와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혼용되고 있음. • 실생활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다던지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	역량의 대한 명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잘 연결되어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간다면 타 학교급에 비해 연결성이 용이한 측면이 될 것 같음. 이는 역량에 대한 정의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질문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이 가진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행의 느낌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핵심역량 식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유아의 발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역량
설계시 고려사항	독자성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의 6가지 요소를 유아기에 적합한 것을 강조하느냐, 기본 4개를 연계성 있게 가고 2개 정도는 차별화된 유아의 독자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타학교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유아의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함. • 초등과 연계가 되면서 영유아 교육의 정체성 및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함. 초등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유아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일치할 필요 없음.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 선정과 적용이 필요함. • 현재유아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자연과의 공생, 더불어사는 것)이 현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괴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놀이와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이라는 큰 틀이 변하지 않도록 재구조화할 것. 현재 유아교육 표준보육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놀이중심교육가운데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핵심역량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선별, 핵심역량 식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인간상과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상과 역량의 모호함이 있음. 인재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역량을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함.
	실행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의 용어를 역량함양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길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결과보다는 과정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유아교육현장에서 역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역량과 인간상 간의 연결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재구조화시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고려사항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놀이에 기반한 학습을 고려하여 역량중심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 • 영유아의 학습과정과 경험을 중요시하며,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사들이 역량함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핵심역량에 대한 것으로 재구조화된다면,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장교사들과 합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관에서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이해 함양과 함께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탐구, 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요함. • 교육과정 재구조화전 현장 교사들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전문성 신장 • 교사의 역할 변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중심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연결에 대한 고민필요 • 현재 진행중인 교육과정과 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점과 그 이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때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핵심역량 기반으

로 재구조화할 때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첫째, 역량중심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지식기반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을 강조하고 교과기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유아교육에 적합하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유치연계 관점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인재상과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통합적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또한, 초등과의 연계가 유아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둘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사항으로는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역량중심 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행의 느낌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핵심역량을 신중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아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역량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 시 첫째, 핵심역량 6가지를 유아기에 적합하게 강조할지, 기본 4개를 연계성 있게 유지하고 2개는 유아의 독자성을 유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타 학교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유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초등과 연계되면서도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재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역량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역량중심 용어를 '역량함양'으로 바꾸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과보다는 과정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역량과 인간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때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놀이 기반 학습을 고려하여 역량중심 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관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이해 함양과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조화 전에 현장 교사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교사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기관은 현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역량중심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4) 시사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미래형 인재상(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교

육과정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래형 인재상의 핵심역량과의 연계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형 인재상과 연계된 핵심역량에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역량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역량의 도입: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 협력과 공동체 의식, 디지털 리터러시, 도덕성 및 인성, 자기 조절력, 안전 등의 역량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러한 역량들이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의되고,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비교 및 보완: 연구에 따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미래형 인재상의 일부가 반영되었으나, 도덕성, 인성, 윤리, 세계시민의식과 같은 절대 가치의 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강조되어야 할 역량: 전문가들은 정서 및 사회적 역량, 신체 운동 역량, 창의적 역량, 자기조절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이 영유아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량들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량들이 미래형 유아교육 구축에 어떻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구조화와 교사의 역할: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의 구조화와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놀이 중심의 학습 과정을 강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아동·보육학계 의견

1)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인재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대체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였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처럼 대비되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구체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함

미래의 인재가 되려면 영유아기 성장,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의 건강과 그 기초 형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참가자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중 '교양 있는 사람'은 혁신적 포용 인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의미가 모호하며, 교양 있는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책임감, 배려와 포용,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과 융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불명확합니다.(참가자 5)

□ 대체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4가지는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개인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학습자의 주도성과 책임감,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 등 지식 및 기술적인 측면의 내용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배려와 포용은 가치, 태도적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미래의 인재상과 역량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이 문화적 소양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인간상을 의미하고는 있으나,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단어인지 의문이 드네요.(참가자 6)

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 및 그 이유

급속도로 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상에 대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 심신이 건강한 인간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은 더욱 높아졌으나, 이로 인한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연령이 점차 어려워져 청소년과 초등학교 아동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참가자 8)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건강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건강, 신체발달과 지원이 교육과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3)

□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미래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5)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적응하고, 과학 기술의 변화 발전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므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선택적 수용을 추가하면 어떨까……(참가자 6)

□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나와 다름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7)

□ 기계와 협력하는 인간

AI와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에서 사람과 자연과의 협력 외에 ‘기계와 협력하는 인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협력,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와의 협력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가자 2)

다) 미래사회 인간상이 영유아 시기에도 동일하게(또는 차별되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서 제시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영유아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게 나타났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설정한 추구하는 인간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영유아 시기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감안하여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간 성장이 연속적임을 고려할 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방향성은 연계하

여야하지만 영유아의 고유한 발달에 맞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인간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목표와 중심어는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4)

영유아 시기에도 위와 같은 인간상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능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영아발달 및 유아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주도성과 책임감, 배려와 포용, 창의와 혁신, 문제 해결 및 융합 역량의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 영역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이러한 방향성을 생략하고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오히려 늦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참가자 5)

□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차별성을 두고 적용되어야 함

영유아 시기, 특히 영아기는 위의 인간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달특성상 영아기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포용,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 협력 등이 가능하지 않거나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최소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인재상은 차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4)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성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영유아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성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융합적 사고나 새로운 발상,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 상 적합하지 않습니다.(참가자 9)

□ 기본 방향과 인간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용어로 수정되어야 함.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영유아가 앞으로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할 모습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인간상을 반영하되, 영유아의 발달 특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성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진에서 제시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8)

영유아 시기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방향성은 연계되게 반영하되, 영유아기 발달에 맞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 포용, 자기주도적 학습, 융합적 사고 등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4)

라)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강조되거나 추가할 내용

□ 영유아기는 심신의 건강이 중요한 시기로 건강한 사람 추가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심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

하므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추가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심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영유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2)

영유아기 인간상으로는 특히 심신의 발달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장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성격 발달의 토대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른 모든 인간상에 우선하여 '건강한 사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6)

생애 1차 성장기인 0~5세가 교육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2019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10)

□ 영유아기 자체로 가치와 권리 존중과 행복 중요

영유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 영유아기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상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존중하고, 영유아기 현재의 행복이 중요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미래사회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의 어린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나중이 아닌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함이 명시되면 좋겠습니다.(참가자 5)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다양성 존중과 자연보호 등 지속가능 발전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기후와 자연보호 등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인간상의 추가도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존중하도록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하고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부분이 강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가자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7)

□ 영유아기 강조할 역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인간상은 역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유아기에 중시되어야 할 역량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간상의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인간상을 추가로 직접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인간상은 초등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의 연계 고려도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영유아기에 강조할 역량, 초등교육과 연결되는 역량 등 역량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3)

연구진이 도출한 영아적용(안)에 동의합니다.(참가자 8)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관한 FGI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 및 그 이유, 이러한 내용이 영유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간상과 이를 영유아기에 적용할 때에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점, 보완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대체로 반영하였다는 의견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의 건강과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들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4가지는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개인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견도 공존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추가하여야 하는 인간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신이 건강한 인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고, 미래 사회의 기후와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는 인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기계와 협력하는 인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설정할 때 인간의 성장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방향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 방향을 추구해야 하지만, 영유아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영유아 고유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인간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탐색, 영유아기 발달 특성과 연계되는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4〉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미래인재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기 성장,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의 건강과 기초형성이 중요하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혁신적 포용 인재와의 연결이 모호하며, 그 의미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음.
	대체로 필요한 역량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4가지는 미래사회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인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며, 학습자의 주도성과 책임감, 창의와 혁신, 문제 해결 및 융합 등은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과, 배려와 포용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더불어 사는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미래 인재상과 역량을 잘 반영하지 않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추가가 필요한 인간상	심신이 건강한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초등학생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요구됨.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건강과 신체발달 지원이 교육과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기치 못한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이 중요함.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선택적 수용 능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공존하므로, 혁신적 포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울리는 역량이 중요함.
	기계와 협력하는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기계의 협력 및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통합이 필요하므로, 기계와의 협력이 추가되어야 함.
영유아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목표와 중심어는 동일해야 함. 영유아 시기부터 주도성, 책임감, 배려, 포용, 창의,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 역량의 기초가 형성되므로, 이 시기에 미래사회 인간상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함.
	차별성을 두고 적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기는 발달특성상 배려, 포용, 문제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 협력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인재상은 차별화하여 제시해야 함.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자기 주도성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융합적 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어려우므로 차별성을 가져야 함.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용어로 수정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의 현재 놀이와 학습, 미래 성장 목표를 모두 반영하며, 발달 특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 중 '건강한 사람'을 고려해야 함. 영유아 시기도 교육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방향성을 반영하되, 영유아기 발달에 맞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적 포용, 자기주도적 학습, 융합적 사고 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질문	주요 의견	
강조되거나 추가할 내용	건강한 사람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영유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영유아기 인간상으로는 심신의 발달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장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권리 존중과 행복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미래사회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의 어린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자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기에 강조할 역량 논의가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은 초등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기에 강조할 역량과 초등교육과 연결되는 역량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진이 도출한 영아적용에 동의함.

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간 연결의 적절성

FGI 참여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연결의 적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나 일부 핵심역량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과 연결될 핵심역량이 현재 제시된 역량들로는 부족하여 배려와 나눔, 협력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부분이 핵심역량 내용에서의 연결과 강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참가자 9)

1)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역량

FGI 참여자들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제시될 역량

기본 운동능력이 갖춰지는 등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신체적 유능성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첫 번째가 건강한 사람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유능성은 아동기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참가자 1)

미래 사회의 변화 중 하나로 지금 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발적인 양의 정보에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기술로 무장하여 쏟아지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가자 5)

또한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생의 초기부터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기계화, 디지털화 되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연과 함께하고 교감하는 역량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역량이라, 자연과 교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1)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역량

아동기의 발달 특성상 자기관리역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이해 역량이라는 표현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를 살아갈 아동들이 급속도의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힘으로 자아 존중감, 주도성, 자기조절력, 회복탄력성 등의 내용이 포함, 강조될 것을 언급하였다.

복잡한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점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기관리 역량보다 자기이해 역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은 자기관리 역량의 내용에 이 부분이 추가 될 수도 있겠구요.(참가자 5)

불확실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아 존중감과 자기 조절력, 회복탄력성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기관리 역량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8)

자기 관리 역량의 내용에 자기 조절력을 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자질을 갖추고 그 내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조절력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참가자 9)

협력적 소통 역량보다 아동기 발달을 고려할 때, 사회정서 역량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빠르게 개인화되는 사회구조에서 미래에도 협력적 소통이 과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인지, 강조된다면 현재와 같은 내용일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협력적 소통이라는 역량보다는 상대방에 관심 갖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나를 적절히 표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정서 역량으로 기술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3)

심미적 감성 역량의 내용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동기의 역량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한편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것은 초중등과정의 핵심역량으로 보기에 너무 성숙한 것 같습니다.(참가자 4)

심미적 감성 역량에 대한 설명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 현재 표준보육과정에서처럼 추가된다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가자 7)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앞으로 더더욱 사람보다는 기계와 AI가 인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여겨지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는 하나, AI와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에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인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핵심역량 중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컴퓨터가 하는 일을 연상시키며, 미래인재가 필요한 역량, 인간이 로봇이나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른 역량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 5)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AI와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에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인지, 인간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합니다.(참가자 6)

나) 영유아기 보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 및 이유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인간상을 비롯하여 연계가 잘 되고 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상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이 도출되었으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간상을 제시하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도 자연스럽게 6가지 핵심역량이 다루어지고 있지요.(참가자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들이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주적인 사람에, 지식정보처리 및 창의적 사고 역량은 창의적인 사람 식으로요.(참가자 7)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다루는 역량은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이 동일한 용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영유아기의 특성이 고려되어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놀이 경험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영유아의 자기인식 및 자기주도적 탐색으로,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 역량은 영유아기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탐색 활동,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에서 두드러지게 경험되지요.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은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더 직접적으로 더 강조되어서 반영되고 있지요. 반면,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참가자 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모두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라는 식으로 영유아기에게 잘 접목되어 있습니다.(참가자 5)

사실 1차 표준보육과정부터 이미 자존감,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주도성, 협력 등을 계속 다루어 오고 있었어요.(참가자 1)

1)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

- 구체적 내용의 누락을 논하기엔, 역량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역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유아기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가 핵심역량 설정, 역량의 내용 구성에 주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역량을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역량의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담겨있을 뿐이지... 영유아기 역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한 것 아닐까요?(참가자 3)

-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강조가 필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고민과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개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역량으로는 웰빙,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공동체 가치 함양, 지식정보처리 및 협력적 소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일상 속에서 심리적 웰빙을 누리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요. 초·중·고 교육과정의 경우, 웰빙을 전체 과정의 다섯가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5)

ESG가 여기저기서 강조가 되고 있다보니 오히려 무뎠지는 것 같기도 한데...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력 아닐까요? 특히 영유아기의 교육을 통해 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참가자 4)

지속가능발전은 공동체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넘나드는 다양성의 가치를 경험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참가자 8)

또한, 영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역량이 초·중등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영유아교육보육과정에 누락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영유아교육보육과정의 건강한 사람과 관련되어 강조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건강성을 초·중등 교육과정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7)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놀이를 강조하기는 하나, 놀이가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는 영유아교육보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도전, 몰입 및 지속력, 개방적 사고 등에 대한 내용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초·중등교육과정이 이 부분을 재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참가자 1)

3) 생애초기 영유아기에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량 및 이유

□ 건강한 자기인식, 자아형성, 자기관리와 관련된 역량

영유아기의 발달과업의 가장 큰 축인 나, 'self'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조절 등의 역량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영아기의 핵심역량이란 결국 '애착'을 통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아기 자기 주도성·자아 존중감의 시발점이 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지게 해야겠지요.(참가자 6)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 규칙적인 신체활동,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경험 등을 통해 나의 욕구나 행동, 표현을 조절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자기조절은 자기관리 역량이 영유아기에 적용된 핵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참가자 8)

영유아기 교육보육에서 무엇을 더 해주려고 하기보다 개별차를 이해하고 고유성을 존중하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참가자 2)

□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북돋아 주는 창의적 사고 관련 역량

세상을 탐색하는 것이 일상이자 놀이인 영유아시기에 주도적인 탐색 및 창의적 사고 관련 역량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아의 인지적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에요. '아직 뭘 모르니까...'와 같아요. 그러나 생애초기 영아가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포착할 수 있는 것, 영아의 유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영유아기 교육보육에서 주도적인 지식 구성 역량, 탐구 역량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참가자 5)

초중등 시기에 비해 영유아기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역량이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자동차, 종이접기, 곤충 등 자발적인 호기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매일 즐겁게 반복하여 탐구하는 영아의 특성이 창의적 역량의 핵심인 민감성, 유창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몰입론적 사고가 강한 시기에 여느때보다 풍성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참가자 10)

□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 및 태도 관련 역량

영유아기는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사회화가 핵심역량으로 키워져야 하는 시기라는 의견이 있었다.

영아들도 영아 수준에서 서로 돕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또 기관에서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공동체 역량이 강조되고 경험됩니다.(참가자 10)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어울리는 역량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역량은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지요.(참여자 9)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에 관한 FGI에서는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제 4차 표준보육과정 및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기포함된 내용과 누락된 내용, 영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강조해야 할 역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육계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에 대해 영유아 및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의 적용에 중점을 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FGI 참여자 대다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영유아 수준에 적절한 역량을 반영하고 있음에 동의하였다.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교육 보육과정에 더 강조되어야 할 역량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놀이·일상의 경험과 관련된 건강한 자아, ‘나’와 관련된 자기인식, 자아형성, 자기관리, 자기조절, 자기주도, 자기유능감, 자기만족(행복감) 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의 기초적 자질이 되는 ‘자아’에 대한 역량을 영유아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더 주요하게 요구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또래-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즐거운 공동체 생활 경험부터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되며, 사람들과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영유아기에 보다 강조되길 기대하였다.

영유아기 교육보육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영유아가 탐색 및 놀이 과정에서 보이는 호기심, 도전, 몰입, 지속력, 개방적 사고, 주도성, 상상력의 가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역량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포괄할 뿐 아니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영유아의 인지적 역량이나 탐구 역량이 제한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 구분과 정의를 영유아의 경험과 가능성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영아기의 경우, 의사소통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 각각의 토대 마련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하여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이라는 초중등 수준의 정의가 너무 성숙하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에 적용될 때는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을 고려하여 재정의되고,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5〉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질문	주요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간 연결의 적절성	추가 제시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과정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건강한 사람’은 신체적 유능성이 아동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역량임을 시사함. 신기술로 무장한 다양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음. 급변하는 기계화, 디지털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자연과 교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량이 필요함.
	수정이 필요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기관리 역량을 자기이해 역량으로 수정하거나, 자기관리 역량에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자기 확신,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력,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므로, 자기관리 역량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질문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관리 역량에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성공을 위해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자기 조절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적 소통 역량보다는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나를 적절히 표현하는 사회정서 역량으로 기술하고, 의사소통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것은 초·중등과정의 핵심역량으로는 너무 성숙하다고 보여짐. • 심미적 감성 역량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됨. •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컴퓨터가 하는 일을 연상시키며, 인간이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다른 역량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AI,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서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지, 인간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
<p>보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p>	<p>전반적으로 다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이 도출되었으므로 보육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6가지 핵심역량이 다루어진다고 봄. • 자기관리 역량은 자주적인 사람, 지식정보처리 및 창의적 사고 역량은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
	<p>영유아기 특성이 고려되어 반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놀이경험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역량은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강조되지만,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봄. • 자기관리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접목되어 있음. • 1차 표준보육과정에서부터 자존감,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주도성, 협력 등을 다루어오고 있음.
	<p>누락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 • 영유아기 역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력을 영유아기 교육을 통해 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넘나드는 다양성의 가치를 경험하는 교육이 필요함. • 영유아교육보육과정의 건강한 사람을 초·중등교육과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교육보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도전, 몰입 및 지속력, 개방적 사고 등을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재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p>영유아기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p>	<p>나(self)에 관한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의 핵심역량은 애착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유아기의 자기 주도성과 자아 존중감,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및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져야 함. • 식습관 형성, 규칙적인 신체활동, 정서 이해 및 조절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을 배우는 것이 기본임. • 개별차를 이해하고 고유성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이 강조되어야 함.

질문	주요 의견	
	창의적 사고 관련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유능성을 신뢰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인정하며, 주도적인 지식 구성 및 탐구 역량을 더 강조해야 함. • 영유아기 교육은 자발적 호기심과 몰입론적 사고로 인해 창의적 사고 역량의 효과성이 높아, 민감성과 유창성을 발휘하는 시기임.
	공동체 의식 및 태도 관련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공동체 역량이 강조된다고 봄. •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고 자연과 더불어사는 역량을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

4)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가)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

FGI 참여자들은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의 당위성

참여자들은 최근 사회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때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흐름에 동의하였다. 영아기 역시 역량과 연계되는 기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과 역량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아기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 접근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상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교육이 초등 교육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역량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상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은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참가자 7)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뭐랄까 정말 대세 지금 세계가 다 향해가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 역량을 추구한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것이 아주 어린 영아지만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역량 중심으로 가는 거는 동의가 됩니다.(참가자 6)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 체계상 형식을 갖춘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아한테 역량 중심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려가 좀 있습니다.(참가자 2)

□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표준보육과정

참여자들은 현행 표준보육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실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저는 처음부터 표준보육과정은 역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표준보육과정 때 의사소통으로 제목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어랑 똑같으려면 초등이랑 유사 하려면 언어여야지 왜 의사소통이라고 하느냐 때문에... 제1차 표준보육과정 공개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우리가 탐구하고 하는 그 용어를 집어넣은 것도 과정적인 어떤 부분을 집어넣은 것도 전부 그 역량을 하기 위한... (참가자 1)

이전의 보육과정에서도 분명히 앞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고 그 인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적혀 있는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역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잘 바뀌면 그게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자 5)

역량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인간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참가자 7)

한편, 영아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접근할 때 초중등교육과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하기보다는 영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용어와 교사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본다면 분명히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고 조금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말이 영아한테 적용할 때는 주석에 많이 달려야 되는 부분과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참가자 2)

나)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개선사항과 이유

FGI 참여자들은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개인의 강점과 다양성 고려 부족

참여자들은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이 자칫 교육의 목적을 실용적 가치가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육각형 인재 양성에 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 때 개인의 다양성, 고유한 강점이 고려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

역량에 기반한 인재상이 자칫 교육의 목적을 쓸모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이 인간으로서 배워나가야 할 다양한 영역의 내용 중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회가 규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양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자 8)

모든 역량이 완벽하게 갖춰진 육각형 인간과 같은 인재 목표를 상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동의 고유한 강점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역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5)

특히 영아의 경우 개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정감 있게 개인 차이를 수용 받아서 발달의 수준과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인정됐을 때 얼마나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을 제대로 발휘만 해도, 안녕하게만 자랄 수 있어도 다행인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기 집 단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역량이라는 오해가 많은 단어까지 고려해서 보육과정을 하려면 여기에는 조금 섬세한 스케일이 들어가거나 조금 창의적인 포장이 들어가야하는데…(참가자 2)

초중등은 아무래도 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고 이게 교과 안에서 이게 발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교과로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의 발달 차나 연령에 따른 발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개념인가라는 것들도, 이게 물론 공통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영아들은 개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역량일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참가자 8)

□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의 속성상 교수자들이 어떤 교수활동이나 교수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연결하기 어려운 교수학습상 난점이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념의 혼재가 그 이유로 언급되었다. 역량에 대한 개념 규정이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되어 교육과정 실행 상의 문제가 나타남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자칫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초중등 교육도 교수자 입장에서는 역량이 제시됐을 때 이제 교수자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 지침하고 연결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참가자 3)

보육계 교직원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역량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는 직업 훈련 교육에서 제일 많이 써요. 피아노를 칠 때 거기서 애가 음악적인 경험을 하게 할 거냐 피아노 치는 기술만 배울 것이냐 인데 우리는 사실 역량 중심이 지향하는 거와 반대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노 기술을 가르치

는 쪽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참가자 2)

그냥 듣는 어휘 개념 그것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아이한테 줘야된다 영아에게 뭔가를 제공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참가자 5)

□ 핵심역량 규정의 불안정성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핵심역량도 바뀌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의 방향이 재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 너무 빠르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핵심역량이야라고 이제 정의했던 것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또 그것보다 이게 더 필요해라는 것으로 또 정의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길러줘야 할 역량은 뭐지라는 것으로 또 한 번 또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들이 또 오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참가자 8)

다)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기반 재구조화 시 고려할 사항과 그 이유

□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적용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우선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여 실제 운영 시 역량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그에 따른 재구조화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참가자 2)

영유아기의 핵심역량이 발달을 간과하거나 또 다른 결과·성취 중심 교육과정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보다도 영유아기는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개인차가 더욱 고려되고, 놀이를 통해 긴 시간 자연스럽게 경험이 반복되거나 확장되면서 다양한 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가자 6)

영유아기는 전인적 성장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단편적, 분절적 역량이 아닌 통합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량 및 발달차를 감안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참가자 8)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영아 적용이라는 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또 일부는 유아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영아한테 역량 중심 영아 개념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려가 좀 있어요.(참가자 2)

한편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에서 역량 개념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보육과정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함께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빙(being)이 되기 위해서, 즉, 인간이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달 과제를 얼마만큼 잘 넘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느냐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육과정에는 아이들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한번에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육과정에는 성향이 빠져 있어서, 성향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참가자 1)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추후 개정할 경우에는 보육과정에 기술되는 역량의 용어, 개념 등이 직관적이고 쉽게 기술되어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6개 영역이 기본은 생활을 통해서 신체는 운동을 통해서 의사는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용과 교수자의 행동을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참가자 3)

역량이라는 것을 뽑아내야 한다면 굉장히 발달에 적합하면서 무엇보다 쉬운 언어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참가자 3)

나중에 이게 기초가 돼서 자존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영아 버전의 핵심역량의 용어로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핵심역량이라는 말 자체를 바깥으로 저는 재구조화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참가자 1)

□ 영아기 특성,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고려한 보육과정 내용 보완 필요

현행 표준보육과정의 총론이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영아에 특화된 내용은 아니므로 영아기 특성을 감안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육과정이 5세 개편 3~5세 개편 그래서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완전히 2019 놀이 과정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총론이 95% 같아요.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하거나 제가 연수를 할 때 "이 총론은 어린이집 0~5세를 위한 겁니다"해요. 총론이 0~2세를 위한 건 없어요.(참가자 2)

추후 보육과정 개정 시 영유아의 도전, 적응, 탄력성, 기후변화 및 자연 이해 등을 보육과정 내용 보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험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개방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내가 좀 뛰어들었다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지속력 있게 간다든가 이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야 되는 능력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들어가 있거든요.(참가자 1)

웰빙이라는 것 안에 내 마음의 건강, 내 마음 근력 키우기 등과 함께 회복 탄력성, 즉 적응력 등은 팬데믹 등에서 경험하는 탄력성 그런 부분과도 잘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참가자 5)

미래형 보육과정이므로 조금 더 자연 보호 등에 대해 강점을 두고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참가자 4)

□ 현행자료를 보완하는 방향도 병행 가능

현행 표준보육과정은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으로 개정하면서 교수자 주도 대신 영유아의 주도와 선택을 격려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보육과정으로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역량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는 현재 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기반한 내용 보완이 적합할 것이라는 하였다.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으로의 개정으로 현장은 이미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교사는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잘 살리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참가자 5)

□ 보육과정 운영과 현장 적용을 위해 교사 역량 고려

보육과정 운영은 교사의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에 역량 기반 보육과정 설계 시 교사의 실행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실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자의 문해력에 맞는 역량 개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량이 커리큘럼의 제반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체계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참가자 3)

핵심역량이 추상적인 역량인만큼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꾀하는 전달교육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참가자 4)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유용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핵심역량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해 적절히 구체적인 수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참가자 5)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 되었을 때 교육내용,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며, 교사주도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단위활동 중심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실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합니다.(참가자 7)

라) 핵심역량 기반 재구조화 시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의 고려사항

□ 보육과정에서 영유아의 행위주체성 강조 필요

보육과정의 중심에 영유아가 있으며, 영유아의 특성과 놀이, 영유아의 주도와 선택 등의 중요성이 역량중심 보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여지가 더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가자 5)

영유아는 이미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선택권과 역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흥미로 놀이하고,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익혀 어린이집의 놀이와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즐겁고 의미 있다는 것을 영유아가 잘 알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가자 10)

□ 역량중심 보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사 지원방안 필요

역량중심 보육과정에서 역량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보육과정에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현장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상적인 개념을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간상만 제시한다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다양한 교사연수와 교육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 예시나 방향 등을 교사들에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가자 4)

계획된 내용이 지식과 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영유아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관찰과 유아 주도의 활동을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발달 지원자, 조력자의 교사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참가자 6)

□ 역량중심 보육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 지원 중요

역량중심 보육과정이 잘 안착되고, 영유아의 삶과 보다 잘 연계되어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 및 역량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인식 수준을 높이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부모들과 이 부분을 공유하고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가자 6)

또 한쪽 측면에서는 부모들은 역량 중심이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전의 놀이 중심하고 별 다를 바가 없고, 차별화가 너무 되지 않았을 경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이런 측면에서 부모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참가자 8)

상기한 의견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6〉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전환의 당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교육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 미래 지향적 인간상 연결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영유아기부터 역량 중심으로 가는 것에 동의함. • 영아에 대한 역량중심 교육은 우려스러우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체계형식을 갖춘다면 동의함.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표준보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표준보육과정은 역량 중심이었고, 이전부터 의사소통, 탐구 용어를 사용한 것도 역량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음. •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역량이라고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게 무엇인지는 담겨있었다고 생각함. • 인간상을 통해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함. • 영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용어와 교사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	개인의 강점과 다양성 고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기반 교육의 목적이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인재 양성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다양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듦. • 모든 역량을 완벽하게 갖춘 인재를 목표로 하여 아동의 고유한 강점과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개인 차이를 인정받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안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보육과정에는 섬세함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영유아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발달 차이가 큰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개념인지 고려해야 함.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 제시되었을 때 교수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 지침과 연결이 어려움. • 역량중심이 지향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쪽에 치중하는 실행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음.
	핵심역량 규정의 불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새로운 필요에 따라 재정의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길러줘야 할 역량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함.
재구조화 시 고려사항	적용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임. • 영유아기의 발달을 간과하거나 성취 중심 교육과정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고 놀이를 통해 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며, 발달차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영아에게 역량중심을 적용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음.

질문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발달 과제를 잘 넘고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며, 보육과정에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뿐만 아니라 성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내용과 교수자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어주는 발달에 적합하면서 쉬운 언어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임.
	영아기 특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한 내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특성을 감안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보완이 필요함. • 표준보육과정을 보완할 때, 영유아의 도전, 적응, 탄력성, 기후변화 및 자연 이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자료 보완과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사가 변화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잘 살리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교사 역량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의 문해력에 맞는 역량 개념이 제시되어야 하며 역량과 커리큘럼의 제반 요소 간의 체계적인 연결성이 부각되어야 함. • 교사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 전달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핵심역량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준의 안내가 요구됨. • 교육내용,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프로그램 실제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함.
재구조화시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고려사항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특성과 놀이, 영유아의 주도와 선택 등의 중요성이 보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개념을 영유아에 맞춰 풀어내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교사연수,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예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아 주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강조되어야 함.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공유하고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부모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 소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도입과 그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될 경우 재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보육계 전문가들은 현 표준보육과정의 성격과 비견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 도입과 보완,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관하여 최근 사회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 표준보육과정이 이미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연결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추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아기 교육과정은 영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와 교사용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에 관해서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실용적 가치에 치우쳐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한 강점을 간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영아 교육에서는 개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행 시 역량의 특성상 교수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난점에 관해 지적하였다. 이는 역량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기술 교육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교사 주도적으로 해석·운영될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이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될 경우,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역량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추후 설계 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및 성향과 도전, 적응, 탄력성, 기후변화 및 자연 이해 등의 미래 지향점을 포함하는 영아 보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보육과정에서도 현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행위주체성, 영아의 발달 특성, 놀이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보육과정의 용어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기술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교육과 현장 사례 공유, 부모교육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역량중심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 교육학계 의견

미래형 인재상에 대한 교육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상은 교육의 비전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역량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분절적이며, 미완의 상태이므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III-4-7〉 미래형 인재상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미래형 인재상에 대한 의견	교육의 비전으로서의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을 생각하고 만든 인재상이라기보다 교육에 대한 비전을 인재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교육 비전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인재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이며, 인간상은 교육의 비전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간상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과 역량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구분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도 미완성이라고 봄. • 인간상들이 너무 분절적이며 산만하고 범주의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1) 미래형 인재상에 대한 의견

가) 교육의 비전으로서의 인간상

인간상을 교육의 비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한 핵심 가치가 인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상의 특성으로 역량이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리가 인재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인간을 생각하고 만든 인재상이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인재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육 비전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되는...(전문가3, 2024. 5. 3)

인재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어떤 교육에 대한 비전으로서의 인재상이고요. 교육이 이때까지 추구해 온 건 인간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상은 교육의 비전에서 제시했던 핵심 가치가 이미 녹아 있는 거죠.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거고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나면 역량이라든지 인간상에 대한 특성에서 드러난다는 거죠.(전문가3, 2024. 5. 3)

나) 인간상의 개선: 미완, 분절성, 역량과의 관계

역량과 인간상이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도 미완이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간상의 분절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2 교육과정 진행 상황에서도 논의가 됐었죠. 인간상과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역량이 도입됐기 때문에 추가된 건데, 인간상과 역량이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드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015 교육과정부터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저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고요.(전문가1, 2024. 4. 29.)

전 초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4가지도 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늘 2015때도 그랬고 2022때도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봤습니다.(전문가2, 2024. 4. 29)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해서는 추가하기보다는 인간상들이 너무 분절적으로 되어있고 산만하고 범주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요.(전문가2, 2024. 4. 29)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역량의 개념과 속성의 이해, 역량과 소양,

능력의 개념적 관계의 정립, 핵심역량과 인간상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8〉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역량의 개념과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의 속성 중 하나는 발달성이며, 러닝 프로그래션이 필요하다고 봄. • 역량을 볼 때, 사람마다 발달 양상이 다르며 학교 급별로 차이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봄.
	역량, 소양, 능력의 개념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은 역량의 기초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반면 역량은 복잡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며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의 전문성이 중요함. • 소양, 역량, 인간상은 중첩되어 있으며, 단지 다른 관점에서 추출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 초중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역량을 길러줘야 하며, 소양과 3R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초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역량은 단순한 능력과 달리, 삶 속에서 수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량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여겨짐. • 아이들의 능력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만을 기준으로 할 뿐이며, 하나의 수행으로 아이들의 능력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임.
	핵심역량 간의 배타성 및 인간상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가지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역량의 속성인 총체성, 맥락성, 수행성에 따라,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함. • 복지적 관점에서는 기능보다 잠재가능성(capacity)이 더 맞으며, 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총량을 의미함. • 2022 교육과정에서 가치와 태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 역량을 사용한다면, 인간상과 역량의 차이가 크게 느껴짐.
	통합교과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과의 역량이 핵심역량보다 더 커져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라리 교과 역량을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통합교과 2022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틀이 통일되지 않음. • 통합적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할까 고민했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그것이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6가지 핵심역량을 통합하게 됨.
	추가해야 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게 반영된 것이 구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함. • OECD에 보면 건강 기반이라는 말이 나오며, 사회정서적, 인지적과 함께 기초를 범주화하고 있음.

가) 역량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역량, 소양, 능력의 개념적 관계

핵심역량의 필요성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역량의 발달성, 개별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역량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발달성이거든요. 러닝 프로그래션이 만들어져야 돼요. 루브릭 만들 때도 내용을 먼저 잡고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수행에 대한 정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래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게 요소가 없어서 프로그래션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학교 급이라든지 거기에서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전문가3, 2024. 5. 3)

한편 소양, 역량, 능력과의 개념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하고, 중첩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소양은 역량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가 요즘 확장된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양이나 역량 같은 경우도 둘 다 공통적으로 맥락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소양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가까운 걸 보통 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량은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에요.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요하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전문성 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양과 역량은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전문가3, 2024. 5. 3)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소양이 세 가지거든요. 언어소양, 수리소양, 디지털 소양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 중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소양이나 역량이나 인간상이나 이게 다 중첩돼 있는 것들을 별도로 다른 관점에서 이걸 추출해내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전문가6, 2024. 5. 3)

초3에서 5학년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관점에서는 역량과 소양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초중에서 보면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거든요. 만약에 역량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있다면 소양이라는 용어가 또 3R처럼 돼버릴까 봐 좀 싫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양과 전통적인 3R를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셔서요. 그래서 기초 역량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전문가3, 2024. 5. 3)

능력인데 역량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데몬스트레이트 되는 것, 수행으로 드러내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했으면 그리고 수행만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통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능력 개념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전문가3, 2024. 5. 3)

아이들을 판단할 때 저 아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걸로 드러나는 수행을 가지고 판단을 할뿐이거든요. 기본 전제는 나는 이 아이를 이것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의 능력치를 판단할 수 없어라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전문가3, 2024. 5. 3)

나) 핵심역량 간의 배타성 및 인간상과의 관계

핵심역량이 서로 배타성과 연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인간상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처리 역량과 협력적 소통 능력이 밑바탕에 있는 분야의 언어 능력이 존재한 자기조절 능력이 좀 중요할 것이고 주장성이라든지 협력성 자기 통제력, 사회적인 유능감이 중요한 그거를 제가 읽었을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심역량 간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있고 협력적인 소통을 한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이고 이게 병렬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전문가4, 2024. 5. 3)

6가지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합의 요소를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느냐하는 거죠. 역량이 갖고있는 속성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총체성, 두 번째가 맥락성, 세 번째가 이제 수행성으로요. 총체성 합의는 결국 아이들이 맥락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해요. 이것이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구분해선 안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전문가3, 2024. 5. 3)

물론 6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동에게 작동할 때 통합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각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전문가3, 2024. 5. 3)

복지적인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기능보다 잠재가능성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competence라는 의미보다는 capacity라는 의미가 더 맞다. capacity라고 하는 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총 총량. 얼마나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총량, 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 2022에서 가치, 태도까지 다 아우르는 총체라는 부분을 OECD 나침반의 규정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가치, 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량을 쓴다고 한다면 인간상하고 역량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전문가5, 2024. 5. 3)

다) 통합교과의 역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에서는 역량을 통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재정의 하였는데, 층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통합교과는 통합교과 역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히려 그 층위가 핵심역량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역량을 다 없애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통합 교과가 어떻게 보면 3, 4학년과의 연계를 볼 때 활동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 체계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를 관통하는 키 콘셉트가 없거든요.(전문가3, 2024. 5. 3)

통합교과 2022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이나 이런 걸 통일시키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만드셨

는데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전문가2, 2024. 4. 29)

일단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삶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건 역량교육이랑 일맥상통해요. 영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동의 삶에서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아동이 갖추어야 될 능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이긴 하지만 너무 나이브한 거죠. 우리는 이미 영역명 자체가 역량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해도 되나싶은 생각이들고요.(전문가3, 2024. 5. 3)

통합 교과 같은 경우 한 통으로 개발했습니다. 바, 슬, 즐이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될 지향이 뭘까 어떤 역량을 우리가 길러줘야 될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그게 바로 역량이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핵심역량을 통합을 한 거죠.(전문가6, 2024. 5. 3)

라) 추가해야 할 역량

추가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리더십,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리더십이 남의 성공에 기여하는 걸로 리더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심리학자 애덤글랜트가 어떤 사회적 위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giver)이지 테이커(taker)가 아니다. 그게 반영이 된 게 구글의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했어요.(전문가4, 2024. 5. 3)

인간상에 건강이 들어간 게 핵심 파운데이션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OECD에 보면 건강 기반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사회정서적, 그다음에 인지적, 이 세 가지로 기초를 범주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우리는 건강을 왜 자꾸 신체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은 그 문화적 감수성이예요.(전문가32, 2024. 5. 3)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한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해서는 영유아기 특성과 차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핵심역량의 적용에 대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의 연계, 디지털 역량 도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9〉 인간상과 역량의 영유아기 적용

질문	주요 의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한 의견	인간상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성과 같은 부분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가 의문이 있음. • 주도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 문제 해결 융합과 같은 내용을 영유아시기에 전면 에 내세우는게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인간상을 여러 개가 아닌 하나로 제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소통이 강조되는 측면의 인간상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고 봄.
	핵심역량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정의 5가지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수준의 방식으로 생각해 봄. • 이미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있다고 생각하기에 기존의 내용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면 함. • 의사소통도 역량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며 사회관계, 예술경험, 탐구도 마찬가지로 라고 봄. • 지식정보 처리 역량 안에 디지털 역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 • 지식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자체가 역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 핵심역량에 대해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봄. • 6가지 핵심연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며, 해외사례에서는 결국 인지, 사회, 정서로 구분됨. • 놀이도 좋지만 놀이를 통해 무엇을 길러주려는 것인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놀이 자체가 경험이니 굳이 역량이라는 기준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가능함.

가) 인간상의 적용: 영유아기 특성 및 차별성 강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영유아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영유아기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영유아기에 적절하지 않은 인간상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인간상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유아 시기도 위와 같은 인간상을 반영해야 할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십시오)에서 보면 초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이나 핵심역량, 핵심역량을 별도로 두더라도 차별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2, 2024. 4. 29)

영유아 시기에도 2022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형 인간상이 반영되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주도성과 같은 부분은 영유아시기에는 적절한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전문가1, 2024. 4. 29.)

배려와 포용, 창의혁신은 괜찮지만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 문제 해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길러야 하지만 영유아시기에는 이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전문가1, 2024. 4. 29.)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력은 빠지더라도 소통 부분이 강조되는 측면의 인간상은 여기에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전문가1, 2024. 4. 29)

여러 개로 제시하는게 아니라 영유아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하나로 제시하는게 맞다.(전문가1, 2024. 4. 29)

나) 핵심역량의 적용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핵심역량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5~6개 영역을 포괄하는 역량이 제시되어야 하며,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는 이미 역량이 반영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1) 영역별 내용의 반영

유아교육과정에 있는 5가지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역량이라고 제시를 하면 현재의 교육과정과 크게 무관하지 않으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역별 내용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드러내는 방식으로요. 조금 더 역량적인 측면을 반영하라고 요구한다면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전문가1, 2024. 4. 29)

지금 유치원의 5가지 영역이 운동, 의사소통, 이런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역량교육에서 추가하는 그런 범주들과 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두 번째의 의사소통은 역량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회관계, 대인관계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하는 나라들에서 강조하는 학습 영역입니다. 예술 경험과 탐구도 마찬가지고요.(전문가1, 2024. 4. 29)

개인적으로 유치원 교육, 영유아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어를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기존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전문가1, 2024. 4. 29)

(2)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이견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추가되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는 디지털도구의 활용 능력 자체가 역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디지털 역량은 강조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저는 추가보다는 만약에 지금 <표2>에 제시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과 관계를 보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식과 정보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에 디지털 역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전문가1, 2024. 4. 29)

지식 정보 처리는 훨씬 사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에 맞춘 거죠. 그때 디지털 리터러시

는 좀 더 도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다르다라는 것, 물론 지식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자체가 역량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전문가3, 2024. 5. 3)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의 연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그대로 영유아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영유아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6가지 핵심역량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연계성 차원에서는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좀 크게 범주화를 하는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인지, 사회, 정서로 구분이 돼요.(전문가3, 2024. 5. 3)

우리나라의 6가지 핵심역량이나 호주의 핵심역량이나 다른 나라의 역량도 결국에는 크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기 때문에 연계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전문가3, 2024. 5. 3)

독일 함부르크를 보면 개인적인 역량이 있고 사회적인 역량이 있고 학습에 관한 역량, 이렇게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1, 2024. 4. 29)

2019를 놀이 중심 누리과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에 대해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사인 내가 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조화된 학습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를 어려워하고요.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뢰해야하지만요. 교육과정이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한다면 놀이도 좋지만 놀이를 통해 무엇을 길러주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봐요. 다른 분들은 아니야 놀이 자체가 경험인데 굳이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으려고 해라고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거죠.(전문가3, 2024. 5. 3)

4)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삶과 관련 있는 역량중심에 가까우므로 신중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구조화할 경우, 영유아기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인간상과 역량의 리워딩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관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과 같다.

〈표 III-4-10〉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질문	주요 의견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들은 삶과 관련된 살아있는 교육 같은 느낌을 받음. • 역량과 지식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보적으로 작용한다면 역량중심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봄. • 영유아교육보육과정은 교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가능하다고 봄. •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을 설정하거나 바람직한 발현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자주적인 유아, 창의적인 유아 등에서 인재상을 가져와 재구성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임. • 인간상, 핵심역량은 그대로 두고 유아상, 미래지향적인 유아 삶 등의 이름은 어떠한지 생각함. •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여 더 미래지향적이고 최근에 언급되는 언어들이 필요하다고 봄. • 자연탐구 보다는 생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역량이 더욱 세련된 표현으로 보임. •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짐. •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역량을 기반으로하여 재구조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봄. • 국가 교육과정의 역량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 유아도 초중등과 같은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핵심역량을 같이 가지고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봄. •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유아의 역량을 구성할 때 수를 통합해서 줄이는 방식은 어떠한지 생각함. • 영유아교육에서의 연구를 통해 초중등 교육에서 제시된 6가지 역량의 개선 방안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람. • 목적지향적인 것을 떠나 영유아 교육의 장에 맞는 틀을 개발하기를 기대함. • 인간상과 역량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함. • 교육과정에 역량이 추가되면서 인간상이 필요없어졌다고 생각함. • 통합적인 프레임워크가 요구됨. • 역량교육은 학습자 스스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기에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길러주기 위한 평가는 다르다고 생각함.

가) 핵심역량 중심 재구조화의 신중한 접근 필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중심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특성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부합하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영유아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전문가2, 2024. 4. 29)

유치원 교육과정의 그 영역들을 보면 정말 삶과 관련된 살아 있는 교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중등 교육도 다는 아니지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과 지식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상보적으로 작용만 한다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전문가1, 2024. 4. 29)

영역 구분이 있긴 해도 교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유아기 쪽에서 역량 중심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 중심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영유아 교육을 통해서 기를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요. 구성 요소가 몇 가지라도 나와준다면요. 이제 3세 기준, 5세 기준으로 매 연령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전문가2, 2024. 5. 3)

유아교육에서도 뭔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역량들을 설정하거나 또는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이 각 5가지 영역, 5개 영역별로 나온다면요. 신체운동 건강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돼야 될까 이 역량이 또는 예술 경험에서는 이 역량이 어떻게 발현되면 바람직할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인간상, 핵심역량에 대해서 동의 여부하고는 별도로 이것에 기반해서 풀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6, 2024. 5. 3)

나)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의 리워딩 필요

영유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간상과 역량의 리워딩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할 때 유치원하고 연결 한다는, 유치원에 앞서서 조금 더 역량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 구분이 용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같은 역량을 가지고 조금씩 발달시켜 가는 모습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핵심역량 부분들을 도출해 내신다면, 저희의 미래 시대상에 맞게 고민을 해 주시면, 용어 같은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유아교육 쪽에서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1, 2024. 4. 29)

자주적인 유아, 창의적인 유아 이렇게 유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재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재구성해보면 어떨까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초중등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만들었지만 유아에서는 그게 수준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유아에서는 이렇게 인간상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추구하는 인간상 위에 쓰시고 나는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유아상은 이렇다, 누리과정을 끝마쳤을 시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유아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전문가6, 2024. 5. 3)

누리과정 인간상은 이대로 두고요. 지금 현재 5개. 왜냐하면 총론의 핵심역량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과 역량을 아까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누리과정은 보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인간상이라든지 핵심역량은 그대로 둡니다.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걸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유아학생, 유아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는 유아 삶이라든지...(전문가6, 2024. 5. 3)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더 미래 지향적인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었을 때에는 최근에 언급되는 언어들 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지 않을까.(전문가1, 2024. 4. 29)

유치원 교육에서도 하나의 영역으로 자연탐구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생태, 우리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역량들이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1, 2024. 4. 29)

지식 정보처리 역량이라는 말이 진부해요. 단어가요.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는 것도 모호하고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도 용어상으로 영어로 하면 괜찮지만 한국말로 해 놓으니까...(전문가2, 2024. 4. 29)

웰빙을 건강이라기보다는 행복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행복, 안녕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봤고요. 건강은 약간 그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교양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건강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전문가6, 2024. 5. 3)

저도 교육과정의 어떤 형식이나 틀을 영유아교육과정의 교육의 특징에 맞게 또는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로 항목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런 틀 말고 다른 틀로 접근을 하신다던지, 아니면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 다라는 표현보다는 배운다는 것보다 발현이 맞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전문가2, 2024. 4. 29)

다) 영유아기 특성을 반영한 역량 도출

영유아기 특성을 반영한 역량을 도출하되, 전체 교육과정의 틀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되도록 우선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전문가6, 2024. 5. 3)

협력적 소통도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을 때 지식 정보 처리와 창의적 사고를 같이 고민 해주시고요. 심리적 감성 역량을 영유아에서도 가져갈지 아닐지, 왜냐하면 모호하게 진술이 되어있어요.(전문가3, 2024. 5. 3)

하위 역량 뽑아내실 때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 목표와 이 핵심역량에 대해 기술한 내용 있죠. 거기서 공통된 요소가 뽑히면 될 것 같고요. 하위 요소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하위 요소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신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 순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는 쓰지만 좀 애매해요. 지식 정보량 창의적 사고가 많이 겹쳐요.(전문가3, 2024. 5. 3)

스웨덴 교육과정에도, 초등학교와 마지막 5살 단계인가요? 그것과 초등 돌봄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공통과정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어가는 점이 인상이 깊었고, 스웨덴의 초등돌봄 보니까 영역이 초등 돌봄의 교육과정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영역이 언어와 의사소통, 창의적 심리적 활동, 자연사회탐구 그리고 게임 신체활동 공간 활동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하는게 핵심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전문가4, 2024. 5. 3)

초등 교육을 하려면 유아를 고려해서 그 기반에서 초등 교육을 하고, 초등 교육에 기반해서 중등 교육을 이렇게 순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국가 교육과정의 역량을 이렇게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시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제안하는 의미에서

살짝 다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아까 인간상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이 없잖아요.(전문가6, 2024. 5. 3)

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역량의 연계성 고려

평생학습 체제로서 영유아기의 인간상과 역량은 연계성을 고려하여 프레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 교육 역시 국가교육과정, 같은 우산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전문가6, 2024. 5. 3)

미래형 인재상이라든지 핵심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의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국가 교육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유아도 초등, 중등이나 이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유아도 다른 인재상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이 범주 안에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음에 들든 아니든 이 핵심역량으로 유아도 이 핵심역량을 같이 가지고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전문가6, 2024. 5. 3)

학교의 중장기에서 요구받은 게 평생학습 체제예요. 맞아요. 전체 통일된 프레임은 좀 잡아달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유보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전문가5, 2024. 5. 3)

재구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역량이라든지, 인간상이라든지 그거는 그대로 같은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교육의 어떤 연속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두시고요. 밑에 유아상 또는 유아 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방식보다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구성하시면 최적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전문가6, 2024. 5. 3)

마) 교육과정 설계시 영유아 관점 반영 요구

영유아의 특수성을 유지하되, 보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개선 아이디어가 전체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어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초중고로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큰 그림을 계속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걸 계속 주장하고 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해서 일관된 국가 체제에 특히 초등학교가 됐든, 유아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이거야라고 하는거 보편적인 뭘 만드는 게...(전문가5, 2024. 5. 3)

건강한 사람을 역으로 유아교육에서 조금 다르게 설정했어요. 그게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형식으로 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역량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이것을 수정, 보완하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수를 통합해서 줄이는 방식으로 유아의 역량들을 구성해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전문가6, 2024. 5. 3)

영유아 교육 시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 능력을 초, 중, 고까지 쪽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중략)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 인간상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영유아교육의 특징에 맞는 인간상, 역량을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발달됐으면 초중고 교육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전문가2, 2024. 4. 29)

디지털 역량이 지금 2022에서는 기초 소양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소양, 디지털 역량을 영유아교육에서 강조하고 제시한다고 해서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중요하다면 영유아 교육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워줄 것이냐 하는 고민이 몇 단계 더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교육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초중등 교육에 제시된 이 6가지 역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전문가2, 2024. 4. 29)

편성운영, 교수 학습이라는 평가 약간 목표 지향적이고 어떤 수단, 목적의 교수 학습의 틀에 입각해 있어서요. 목적 지향적인 것을 떠나 영유아 교육의 징에 맞는 틀을 개발하셔서... 역량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전문가2, 2024. 4. 29)

바) 인간상과 역량의 통합 고려

인간상과 역량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역량이 들어오면서 인간상이 사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과도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상을 가져왔는데 이걸 버리기도 애매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들어간 거예요.(전문가3, 2024. 5. 3)

인간상과 역량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는 의견에 진짜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저는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인간상 밑에 물론 진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렇게 덧붙여지고 약간 모자이크식으로 작당하게 포푸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포푸리 형식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갖다 끼우는 것 같아요.(전문가6, 2024. 5. 3)

인간상이 인간이 갖추어야 될 특성으로 진술하고 있고 더 구체화한 것이 핵심역량이고요. 핵심역량별로 교육 목표 안 만든 까닭은 이게 지나치게 분절적인 원가를 야기할까 봐 다시 인간상별로 교육 목표를 만들었거든요. 핵심역량별로 교육 목표를 안 만들었어요.(전문가3, 2024. 5. 3)

5)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필요

교과중심의 초·중등 학교급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역량, 교과, 지식 등의 관계를 관통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조망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과로 분리돼 있어서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묶어놨더니 영역별로 삐걱거려서 사실은 분리를 해도 통합할 수... 충분히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하다. 프레임워크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근데 사실 교수님 프레임워크 없어요.(전문가6, 2024. 5. 3)

Whitehead가 교육의 리듬을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단계는 지식을 정교화하고 특정 교과 지식들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그래서 연습의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의 단계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낭만의 단계로 교과 지식을 만나고 경험하고 어떤 교과 지식들을 활용하는 경험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근데 그 시기에 중첩되는 단계가 중학교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중등에서 그렇게 본격적인 분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교과를 통합한 경험들이 애네들한테 충분히 경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는 앞으로 자기들이 정교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직접 연구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연습하고 정교화하는...(전문가6, 2024. 5. 3)

핀란드 사례를 조금 주의 깊게 보는데요. 핀란드 사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면 유치원도 5개의 영역인데 일부 영역은 상당히 독립적인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특히, 의사소통은 거의 국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Phenomenom, 현상 혹은 주제 기반 통합적인 학습 모듈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번 이상씩이요. 저도 사실은 국가 수준에서 처방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뭐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같은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전문가1, 2024. 4. 29)

역량교육은, 사실 내용은 교과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진짜 살아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삶과 연계해서 역량 교육이라고 하죠. 절충안으로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했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역량교육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유아 교육에도 맞는게 역량교육이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어떤 성장의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니까요. 이전 교육은 외부의 어떤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었잖아요. 지식 체계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수단인거죠.(전문가2, 2024. 4. 29)

우리 논의의 초점이 역량을 만들기 때문에 영역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영역이 있는데 역량을 만드려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준점으로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전문가3, 2024. 5. 3)

역량을 측정하는 위한 평가하고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평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비판은 역량을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성이라고 해서 항상 수행을 양화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판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말하는 평

가랑 그분들이 말하는 평가가 다른 평가였구나, 그분들은 evaluation, measurement를 자주 이야기하는 구나
난 assessment 이야기한 건데...(전문가3, 2024. 5. 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20명 기준(CVR=0.42)보다 높은 0.7로 나타났고,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또한 0.5로 나타났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의 핵심역량의 타당도 또한 0.7로 나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4-11〉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및 핵심역량에 대한 타당도

단위: 명(%)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전혀 타당하지 않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한 편이다	매우 타당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	1(5.0)	2(10.0)	15(75.0)	2(10.0)	3.90	.64	0.7	20(100.0)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	-	5(25.0)	12(60.0)	3(15.0)	3.95	.60	0.5	20(100.0)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타당도	-	-	3(15.0)	12(60.0)	5(25.0)	4.10	.64	0.7	20(100.0)

주: 1) 평균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매우 타당하다'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타당한 편이다 응답자수+매우 타당하다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심신이 건강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에 대해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인 사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며,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자주적인 사람의 각각 0.56으로 합의해 도달하였다.

〈표 III-4-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명(%)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심신이 건강한 사람	1(5.6)	2(11.1)	1(5.6)	6(33.3)	8(44.4)	4.00	1.24	0.56	18(100.0)
2) 윤리적인 사람	3(16.7)	2(11.1)	2(11.1)	6(33.3)	5(27.8)	3.44	1.46	0.22	18(100.0)
3) 자주적인 사람	1(5.6)	1(5.6)	2(11.1)	5(27.8)	9(50.0)	4.11	1.18	0.56	18(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표 III-4-13〉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의견
인간상 명칭 보다는 각 인간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기술할 때 미래 변화 대응 능력의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인간상은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드러난 창의성은 '문제해결' 등 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창의성'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포용과 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감상, 창조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의 측면의 요소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혁신적 포용인재'라는 인재상의 목표가 추상적이어서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간상에서 '교양있는 사람'은 포괄적이며 의미가 모호합니다.
교양있는 사람과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유사한 층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여 상호 배타적인 요소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도성과 책임감=지속가능사회 실현노력, 자기주도성>, <배려와 포용=협력, 공감, 회복탄력성>, <문제해결·융합=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및 적용>, <창의, 혁신=새로운 발상, 반성, 공동체 의식> 등 주요 요소와 세부 내용 역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마음과 인간에 집중하는 따뜻한 감성교육과 신체·건강영역의 중요성 더욱 강조할 필요성 있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추가 사항은 신체적 역량과 인성입니다.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래형 인재상의 '주도적 책임감' 기초 능력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초등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내용으로는 그 중요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시기(초중고)보다도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발달하는 신체의 여러 감각과 능력으로 세상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상에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미래 교육과정의 추진 내용으로 적합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 인재상 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어휘로 표현되었으면 합니다.
배려와 포용의 세부 내용으로 협력, 공감, 회복탄력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인내' 혹은 '자기 조절력'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협력과 공감 등 외부에 표현되는 인성이 자기 조절과 인내가 있어야 긍정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4가지는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개인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학습자의 주도성과 책임감,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 등 지식 및 기술적인 측면의 내용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배려와 포용은 가치, 태도적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의 인간상은 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다른 역량들의 통합적, 포괄적 발현으로 나타나는 인간상처럼 느껴집니다. 교양 있는 사람과 연계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은 아름다움의 인식, 창조적 표현, 문화적 이해와 소

의견

통 능력을 포함하는데, 이는 주도성, 창의, 융합, 공감, 협력 등의 세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범주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추가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은 더욱 높아졌으나, 이로 인한 정신적 질병(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등)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연령이 점차 어려저 청소년과 초등학생 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6가지 중 자기관리 역량 안에는 감정조절과 건강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적, 정서적 자기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상과의 직관적 연계는 다소 약해 보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상에 자기관리 역량이 포함되긴 하겠으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인간상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상에서 강조한 중심어와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관련지어 볼 때, 주도성과 책임감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배려와 포용은 더불어 사는 사람에 반영되는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은 창의적인 사람에, 문제해결 및 융합은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에 각기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022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반영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이 문화적 소양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인간상을 의미하고는 있으나,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개념(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추진계획안에서 국내 및 국외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형 인간상에 필요한 역량적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함. WEF(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사용, 판단, 조정, 디자인,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역량이 세부역량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감수성, 탄소중립등의 개념을 포함한 환경이해역량이 세부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변혁적 역량 중심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대전환함을 제시하고 있음. AI, 지구환경 등 변화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대한 이해, 실천, 판단의 역량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추구하는 인간상의 세부 내용에 포함하거나 인간상 용어에 대한 재정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글로벌 시민 의식이나 윤리적인 사람(도덕적 판단력)과 같이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인간상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 → '교양'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움. 학습자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4가지 인간상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개정 때마다 조금씩 문구 수준에서 수정되어 옴.

인간상 네 가지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미래형 인간상으로서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각 인간상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내적인 논리가 드러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선, 교양있는 사람은 다른 세 가지 인간상에 비하여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음. 자기주도성은 창의적인 사람의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부각시켜 창의적인 사람보다 위에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임.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인 것인데 과연 무엇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인 것인지도 모호함. 2015 개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수정하면서 그 의미가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차기 개정 때 인간상을 개선하려면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대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내면적 측면 vs 관계적 측면'

내면적 측면: 교육은 결국 내면을 단련시키는 것(사유능력)(건강한 정신과 이성, 사유능력과 독자적인 사고) 사유능력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생각의 싹,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의욕, 새로운 열정을 피워내는 것(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창의 혁신, 자기주도성 등)

2. 관계적 측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배려, 공감, 협력(배려와 포용)

또는 역량을 범주화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음.

의견

1. 사고역량(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성, 메타인지)
2. 행동역량(의사소통, 협업, 디지털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3. 삶의 역량(시민의식, 글로벌 이해, 리더십과 책임감, 대학 및 직업세계에서의 스킬)

(로라 그린스타인, 권오량·이찬승(역). 수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역량평가 매뉴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요약하자면, 인간상을 규정하는 논리를 먼저 세운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핵심역량을 제시할 때에도 동일한 논리에 따라 인간상과 연계된 구체적인 능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중 '교양있는 사람'의 경우, 교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고 있는 모호성을 고려,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차조사 의견>

자주적인 사람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자주적인 사람으로 수정해야 함(2015 개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이었음).

심신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포함되어있어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소양 함양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의 기본토대가 되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윤리'란 살아가면서 준수해야할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데, 근대 국가주의적인 교육관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에 내재된 요소이므로 국민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학습자 개인의 변혁적 역량을 담아야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배려(양보)하는 사람, 탐구심이 많은 사람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표 III-4-1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명(%)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2(11.1)	4(22.2)	1(5.6)	3(16.7)	8(44.4)	3.61	1.54	0.22	18(100.0)
2) 자신감 있는 사람	2(11.1)	3(16.7)	2(11.1)	9(50.0)	2(11.1)	3.33	1.23	0.22	18(100.0)
3) 배려(양보)하는 사람	3(16.7)	3(16.7)	2(11.1)	6(33.3)	4(22.2)	3.28	1.45	0.11	18(100.0)
4) 탐구심이 많은 사람	2(11.1)	2(11.1)	3(16.7)	6(33.3)	5(27.8)	3.56	1.34	0.22	18(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표 III-4-1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1차 조사결과

1차 조사결과
건강한 사람과 자주적인 사람이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설서를 보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자주적인 사람에 포함시키고 있음.
인간상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학교급의 인간상과 연계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개 인간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의 5개 목적과 목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목표와 연계되는지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5개 영역과 독립적으로 인재상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기의 인간상으로 타당하기는 하나, 교육부 미래형 인재상과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질문의 의견과 같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마음과 인간에 집중하는 따뜻한 감성교육과 신체-건강영역의 중요성 더욱 강조할 필요성 있음.
영유아 시기는 정서적 안정(애착)과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규칙과 습관 등의 역량이 매우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예전의 아이들보다 감정 기복의 폭이 크고, 자기조절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소통의 시간이 적어지고 미디어 등의 접근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처리하고 표현해하는지,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등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상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인간상 부분 중 더불어 사는 사람에서 소통능력과 함께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미래형 인재상의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인재상의 내용인 주도성, 책임감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튼튼한 몸과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존중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주도성, 책임감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의 내용은 '창의적인 사람' 및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연계됩니다. 영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 일상과 놀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인 적용 능력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려와 포용의 내용은 '더불어 사는 사람'과 연계됩니다. 유아는 자신과 친근한 사람 및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발적으로 사회질서와 소통 방식을 배워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기존에 제시된 인간상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으나, 사회 시대적 변화(개인주의, 디지털화, 지구 온난화 등)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좀 더 강조되고 구체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0-2세 영아기는 신체적 성장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성격 발달의 토대가 되는 시기이므로 다른 모든 인간상에 우선하여 '건강한 사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이 영유아에게 사회성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5가지 인간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데, 약간 모호한 표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심신의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은 역량이라기 보다는 전생애에 걸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굳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 내용 요소에 맞도록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감성, 풍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함. 반드시 감성이 풍부해야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음. 초등의 '교양이 풍부한'도 의미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봄.

1차 조사결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더 적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초중등 인간상보다 더 분화되어 있음. 좀 더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표현이 필요함 (예: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통합하여 제시).

누리과정에 제시된 5개의 인간상은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에 제시된 인간상과 연계하여 비교적 잘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초·중등학교 교육의 인간상에 유아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건강한 사람'을 추가하고 교양있는 사람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함.

유아교육에서는 인간상이 초·중등학교 교육보다 더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교육 인간상을 규정하는 논리를 먼저 세운 다음 유아교육의 인간상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초·중등학교 교육 인간상보다는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재의 유아교육 인간상을 초·중등학교 교육의 인간상과 연계되면서도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정한다면 '건강한 사람, 자신감있는 사람, 양보(또는 배려)하는 사람' 등 세 가지로 제한함.

현재 제시된 인간상은 영유아기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용어를 영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예. 창의적인 사람 → 탐구심이 많은 사람).

기본적인 자기표현과 감정조절, 의사소통 기술, 호기심과 탐구 등은 해외 각국의 유아기 역량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인데, 이 중 일부는 현재의 다섯 가지 인간상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가령,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인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호기심이나 탐구는 어느 인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호함. 이는 인간상이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간상과의 연결을 더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임.

〈표 III-4-1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수정이 필요한 이유: 2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위에 제시한 인간상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해야 함.

- 건강한 사람 → 심신이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자신감 있는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탐구심이 많은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배려(또는 양보)하는 사람

영유아기는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조절, 공감능력, 배려하는 사람은 영유아기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표현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

1) 00와 00라고 복수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음. 3) 배려와 양보는 서로 다른 뜻이므로 배려가 낫겠음. 배려는 상대의 필요를 살피는 태도이고, 양보는 구체적인 행동임.

'감정조절과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 배려(양보)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의 하위 요소라고 생각하며 두 가지 모두 행위적 요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주적인 사람'의 하위 요소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자기중심성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탐구심이 많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의 하위 요소라고 생각하며 창의적 사고력에는 논리성, 문제해결력, 지식 관심 등이 포함되므로 탐구심이 많은 사람을 포괄적인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과 배려(양보)하는 사람: 역시 기존의 '더불어 사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덕목으로 오히려 추구하는 인간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서 세분화, 중복적으로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자신감과 탐구심 역시 '자주적인'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느낌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인재상'으로서 지나치게 세분화, 협소해지는 것

2차 조사결과

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인간상으로 설정하기에는 모두 영유아의 발달상 1) 2) 3)은 모두 어려운 과제로 보여서 타당성을 낮게 보았고, 영유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4)는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4)는 현재 교육과정에 '창의적인 사람'의 내용과 유사한데, '탐구심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 타당성을 약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1), 2), 3)은 기존 인간상의 내용을 해설하는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라 독립된 인간상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교육에서 역량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의 총체',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길러지는 행동특성이나 할 수 있는 능력', '교육에서의 역량은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 '교육에서의 역량(competency)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전 경험을 통해 주관적인 성취와 행복을 추구해가는 능력과 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6가지 핵심역량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삶의 능력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합의한 능력'이라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4-17〉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정의: 1차 조사결과

의견
특정 과제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으로 보아야 함. 개별 학생의 성장을 기초로 하지만 인간이라는 보편성 개념에 비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으로 볼 필요가 있음.
한 개인이 사회적 변화 및 개인적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과 개인의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운동적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의 총체
역량(competence)은 학습한 결과를 규정된 맥락(교육, 일터, 개인 혹은 전문적인 능력 개발)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능력으로, 혹은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41, 2009)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 2022 개정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다른 나라 및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찰(or 사고력 등)을 포함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 기술, 태도, 가치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McClelland(1973,1993)는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았고,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처하며 성장 변화하는 능력(윤정일 외, 2007)으로 보았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서의 역량은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길러지는 행동특성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수행 능력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던 아이들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과정의 중요성도 포함되어 정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역량의 개념을 교육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으로 다져진 능력과 기술, 지식 등의 실천과 표현을 중요시 하는 분야이며, 교육은 기술의 실천을 위한 개인적 역량까지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이 사회에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특히 영유아교육은) 인성과 태도 부분을 포함하여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기업에서 사용하는 역량이 개인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교육에서의 역량은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성공, 성취가 아닌 학습자의 잠재적 요소까지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그 기업만의 운영철학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교육에서의 역량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 시대적 변화와 사회 공동체적인 가치 등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역량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 역량 속에 내포된 내용과 가치 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획일화되지 않도록 보다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란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고, 기업의 핵심역량이 능력, 기술, 지식이라면, 교육 분야에서 역량이란 사회나 직업 세계에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역량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의 역량(competency)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전 경험을 통해 주관적인 성취와 행복을 추구해가는 능력과 태도' 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역량(competence)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학습자가 살아가게 될 미래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량과는 다르게 정의되어야 함. 현재 학습자가 처한 고도의 복잡한 상황뿐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 변혁적 역량을 반영하여야 함.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까지 포괄하여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도 및 가치(attitudes & values)를 포괄한 개념이 역량에 반영되어야함. 다만 교육과정이 이러한 역량에 기반하여 조직되어야하며 평가를 통하여 교육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인간을 발전시키는 힘,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힘

교육에서의 역량은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 태도, 가치 등을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이나 원리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여러가지 학문의 내용을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정서적인 역량도 지식이나 기술 만큼 중요하므로 함께 길러야 하는 핵심역량이며, 평생 배우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나 여러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다운 인간성에 대한 철학, 즉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판단력, 건전한 가치관, 윤리 의식이 필요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와 인류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가 이른 시기부터 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임을 명시하고,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의 기본전제는 '학습자는 유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함 → '역량'이라는 개념 역시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존재'라는 존재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기본 자질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 '홀로'와 '공유'의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역량은 직업교육에서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규정될 수 있음. 역량 교육이 논의되기 이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은 지식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역량 교육이 도입된 현재에도 여전히 지식교육 중심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움). 역량 교육이 도입됨으로써 교육의 초점은 지식교육(교과 교육)에서 '지식교육(교과 교육)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함양'으로 이동함. 지식교육(교과 교육)은 여전히 중요함. 지식을 가르치되 삶과 연계하여 삶에서 필요한 능력(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자는 것임.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고 몇 가지 능력으로 압축하여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능력 중에서 학교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능력을 선택해야 하는데 '핵심역량'은 이러한 다양한 능력 중에서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된 능력임.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핵심역량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6가지 핵심역량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삶의 능력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된 능력임.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과 자질

learner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교수실제, 교수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통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통합된 것으로 접근해야 하며 맥락과 상황 속에서 구현(발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표 III-4-18〉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한 타당도 인식: 1차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자기관리 역량	0(0.0)	2(10.5)	1(5.3)	6(31.6)	10(52.6)	4.26	.96	0.88	19(100.0)
2) 지식정보처리 역량	0(0.0)	5(26.3)	1(5.3)	7(36.8)	6(31.6)	3.74	1.16	0.53	19(100.0)
3) 창의적 사고 역량	0(0.0)	0(0.0)	2(10.5)	9(47.4)	8(42.1)	4.32	0.65	1	19(100.0)
4) 심미적 감성 역량	0(0.0)	2(10.5)	1(5.3)	4(21.1)	12(63.2)	4.37	0.98	0.88	19(100.0)
5) 협력적 소통 역량	0(0.0)	0(0.0)	2(10.5)	4(21.1)	13(68.4)	4.58	0.67	1	19(100.0)
6) 공동체 역량	0(0.0)	1(5.6)	4(22.2)	4(22.2)	9(50.0)	4.17	0.96	0.44	18(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표 III-4-19〉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1차 조사결과

1차 조사결과

- 1)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자기정체성에 포함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 2)의 경우 영유아기의 학습 영역의 성격을 고려해서 삶의 영역 혹은 그 영역의 성격이 드러나게 진술하면 어떨까요?
- 3)의 경우 영유아기의 학습 분야를 전문 분야라고 해야 할지 검토 필요합니다.
- 6)의 경우 공동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 검토 필요합니다.

핵심역량 6가지는 영유아기부터 초중고까지 연계되는 핵심적인 역량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기에 적용할 핵심역량의 내용은 영유아기의 발달 및 과업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영유아기의 자기관리 역량의 내용에는 영유아기의 발달상황에 맞게 2019 개정누리과정의 인간상 중 건강한 사람과 자주적인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건강, 영양, 안전'을 포함하는 '웰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역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명칭의 적절성이 떨어짐, 다른 핵심역량은 역량이 내포하는 가치가 역량 명칭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도구적인 의미만을 담음.

위의 용어들은 기존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성인의 역량에 기준하여 제시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 수준을 영유아교육과정 용어에 맞게 서술한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개념입니다. 다만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교과 중심의 초등이후 학교교육과정과는 연결될 수 있으나 통합적인 놀이중심의 영유아교육과정과 연결 짓기에는 한계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은 영유아라는 연령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협력적 소통 역량에 부분적인 요소로 포함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윤리적 마인드'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가지 핵심역량 모두 내용을 조금 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조정한다면 모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관리 역량에서도 영유아가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취학 전까지 일상

1차 조사결과

을 스스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자주적인 사람' 인간상 내용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또한 지식정보처리 역량에서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영유아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19개정 누리과정이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과 다소 유사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의적인 것으로 해설한다면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새로 배움에 대한 태도와 기술 역량으로서 독립적으로 구분해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III-4-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미래 역량

의견

정보처리 역량을 비판적 사고 역량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함.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는 '지식'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마치 인지적 측면에 있는 것처럼 내용이 기술(description)되어 있음.

심미적 감성 역량은 단순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것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도 직결되어 있음. 신체는 개인의 인지 및 정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개인이 자신의 신체, 운동, 건강과 관련하여 자신을 관리/운영할 줄 아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인데, 이와 관련한 단어가 포함되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는 급격한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더 고도화되리라 사료됨. 지식정보처리 역량에 지식 정보를 얻고 비판적/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디지털 매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영유아의 경우도 디지털 매체에 대한 노출이 보편적이며,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추세로 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기관리 역량에 기본운동능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역량 추가가 필요함.

심미적 감성 역량의 내용에 따라 핵심역량 용어를 인간이해 역량으로 수정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부분이 핵심역량 내용에서 연결과 강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 인류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의 언급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아존중감과 자기 조절력, 회복탄력성 등이 강조될 필요

2022 개정에 제시된 6개의 핵심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소 구태의 연한 표현이며, '공동체 역량'은 인류 차원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역량인데 그 용어가 그러한 의미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등(글로벌 시티즌십?)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함.

미래사회에서는 '문제해결 역량'이나 '비판적 사고역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함.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문화적 역량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내러티브 역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의미를 구성하는 이야기 능력

한편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인지 능력(호기심, 사회성, 자제력, 열정, 낙관성, 유연성, 감사하는 마음, 회복 탄력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신체조절 능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 습관', 인내심, 배려, 문제해결력, 자신감,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III-4-21〉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 1차 조사결과

의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주적인(혹은 자기주도적인) 능력 사고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창의적 사고 역량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 감수성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함,
다문화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인간 중심 교육 속에서 먼저 영유아 자신인 나를 알고 자기 조절 능력 및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등 감정 공유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에는 오감 자극, 감성 발달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비인지 능력(호기심, 사회성, 자제력, 열정, 낙관성, 유연성, 감사하는 마음, 회복 탄력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함,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은 신체조절 능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 습관 등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타인을 위한 기초적인 배려 등
자기인식과 자존감 호기심과 탐구하는 태도 주도성 문제해결력
자신감 의사소통
사회적 역량(타인과의 상호작용, 협력, 의사소통, 감정 조절 및 행동 조절) 정서적 역량(자기 인식, 자기 조절, 감정 표현 및 이해, 공감능력 등) 언어적 역량(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인지적 능력(수리력, 과학적 탐구능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창의력, 기억력, 집중력, 비판적 사고 등) 자기주도 학습 능력(자율성, 동기 부여, 목표 설정 및 조절 등) 미학과 창의적 역량(감성, 상상력, 예술적 표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
도덕적 역량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기초 역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능력'이라고 생각함.
운동 역량 놀이 역량
웰빙 역량(기본적인 자기관리 역량) 감정인식 및 조절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내러티브 역량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을 9가지로 제시하여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문해력, 수리력, 정보인식 및 활용을 제외한 대소근육 발달,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 문제해결 능력,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표 III-4-22〉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명(%)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대소근육 발달	1(5.3)	2(10.5)	2(10.5)	1(5.3)	13(68.4)	4.21	1.28	0.65	19(100.0)
2)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1(5.3)	1(5.3)	1(5.3)	3(15.8)	13(68.4)	4.37	1.15	0.88	19(100.0)
3) 문해력	1(5.3)	2(10.5)	5(26.3)	6(31.6)	5(26.3)	3.63	1.16	0.29	19(100.0)
4) 수리력	1(5.3)	3(15.8)	7(36.8)	4(22.2)	4(22.2)	3.37	1.15	-0.06	19(100.0)
5) 정보인식 및 활용	1(5.3)	3(15.8)	6(31.6)	5(26.3)	4(22.2)	3.42	1.11	0.06	19(100.0)
6) 문제해결 능력	1(5.3)	1(5.3)	4(22.2)	7(36.8)	6(31.6)	3.84	1.08	0.53	19(100.0)
7)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1(5.3)	0(0.0)	2(10.5)	4(22.2)	12(63.2)	4.37	1.05	0.88	19(100.0)
8)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1(5.3)	0(0.0)	3(15.8)	2(10.5)	13(68.4)	4.37	1.11	0.76	19(100.0)
9)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1(5.3)	0(0.0)	3(15.8)	5(26.3)	10(52.6)	4.21	1.07	0.76	19(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한편 제시한 9가지 능력(역량)에서 추가, 수정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역량과 능력의 구분 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서와 관련된 대인관계역량이므로 의사소통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표 III-4-23〉 영유아기 역량으로 추가되어야 할 역량

의견
1~4는 필요한 능력이지만, 역량과 기능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호주처럼 문해력과 수리력을 역량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므로 연구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문해력과 수리력, 정보인식 및 활용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타당도를 부여했습니다. 9가지 핵심역량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발달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학 전 부모의 불안한 심리와 육구 충족을 위해 선행학습적인 요소가 영유아기의 필요 역량으로 중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소근육 발달을 신체활용능력으로 조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근육만 발달하면 안되니까요)
문해력(리터러시)과 수리력에는 기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차원에 비해 6이 좀더 포괄적입니다.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해결능력에 문해, 수리, 정보인식과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정서이해력과 소통능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요?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된 역량이 하나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행동실천능력)

의견

1.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으로 제시된 범주들간에 층위가 다소 맞지 않음. 대소근육발달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부분임. 문제해결능력은 매우 상위의 능력으로 문해력, 수리력, 정보인식 및 활용 등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2.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하여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3. 문해력과 수리력은 영유아기에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아야 함. 독립적으로 문해력, 수리력을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무엇이든 시도해보자하는 능력,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 찾아보고자 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능력. 좌절하지 않고 회복하는 능력 등이 영유아기에 경험하고 길러져야 하는 주요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나 영유아 대상 역량에 수리력이 포함되어지는 것 만으로 이해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가 생김.

영유아기는 의사소통의 기초적인 역량을 습득하는 시기이므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포함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서와 관련된 대인관계역량이므로 의사소통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타 핵심역량과 서술 수준이 맞다고 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용과 활용력에 대한 영유아기에 적절한 역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영유아 대상 디지털 및 미디어를 교육적 수단으로 과잉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인식과 타인의 정서인식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면서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생애 초기에는 자기 인식이 먼저 일어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구분하는 것은 정서발달에 대한 혼돈, 또는 현장에서 교육내용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영유아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핵심역량'이라고 칭할 수 없다고 사료됨. 핵심역량은 보다 포괄적/상위수준 개념으로 각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인지, 정서, 신체, 사회"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됨. 위에서 제안한 핵심역량들은 서로 수준이 맞지 않는 항목들(세부/포괄)이 뒤섞여 있음.

문해력과 수리력도 영유아 수준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이라면 '매우 높음'도 타당할 수 있겠으나 유능하게 읽고 쓰는 정도의 문해력이나 수리적 문제해결과 같은 수리력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높은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3. 부모 의견조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더불어 사는 사람(26.1%), 창의적인 사람(17.5%), 자주적인 사람(15.1%), 감성이 풍부한 사람(8.1%) 순이었다. 부모 모두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창의적인 사람을,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주적인 사람을 강조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상태가 자영업인 경우 더불어 사는 사람을, 비정규직과 비취업인 경우 자주적인 사람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2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

단위: %(명)

구분	인간상					계(수)	$\chi^2(df)$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전체	33.1	26.1	17.5	15.1	8.1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35.8	21.6	17.2	16.0	9.4	100.0 (500)	15.555* (8)
	유아반(만3~5세반)	29.6	28.2	19.0	14.0	9.2	100.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4.0	28.4	16.4	15.4	5.8	100.0 (500)	
자녀수	1명	33.6	23.8	16.6	16.9	9.0	100.0 (797)	13.536 (8)
	2명	33.3	27.7	18.9	12.6	7.5	100.0 (610)	
	3명 이상	28.0	34.4	17.2	16.1	4.3	100.0 (93)	
응답자 성별	아버지	31.6	24.8	20.4	13.9	9.3	100.0 (805)	14.995** (4)
	어머니	35.0	27.5	14.2	16.5	6.8	100.0 (695)	
거주지	광역시	31.5	27.0	18.5	14.4	8.5	100.0 (577)	5.302 (8)
	시/도	33.5	26.2	16.6	15.8	8.0	100.0 (825)	
	군	39.8	19.4	19.4	14.3	7.1	100.0 (9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9	24.1	16.1	13.8	8.0	100.0 (87)	7.879 (8)
	대학교 졸업	32.8	26.4	16.6	15.5	8.7	100.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32.9	25.2	22.6	13.7	5.6	100.0 (234)	
취업상태	정규직	33.1	25.5	18.3	14.2	8.9	100.0 (1169)	22.965* (12)
	비정규직	32.9	22.4	16.5	21.2	7.1	100.0 (85)	
	자영업	34.4	35.6	16.7	7.8	5.6	100.0 (90)	
	비취업	32.7	26.9	12.8	23.1	4.5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33.7	26.1	17.3	14.6	8.3	100.0 (998)	0.948 (4)
	외벌이	32.1	26.1	17.9	16.1	7.8	100.0 (502)	

* $p < .05$., ** $p < .0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의 바른 사람(6.3%), 정직한 사람(5.4%), 행복한 사람(4.7%), 바른 사람(4.7%), 자기 주도적인 사람(3.6%), 착한 사람(3.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1순위, Top20)

단위: %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비율
예의 바른	6.3
정직한	5.4
행복한	4.7
바른	4.7
자기주도적인	3.6
착한	3.4
공동체 정신이 있는	2.9
자존감이 높은	2.0
지혜로운	1.9
따뜻한	1.7
긍정적인	1.6
성실한	1.6
인간적인	1.6
인성을 갖춘	1.5
도덕적인	1.4
공감능력이 있는	1.3
사랑할 줄 아는	1.3
사회성이 있는	1.3
자유로운	1.2
관대한	1.1

〈표 III-4-2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종합, Top30)

단위: %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비율
예의바른	8.7
정직한	8.2
행복한	7.1
바른	6.8
자기주도적인	6.3
공동체 정신이 있는	6.3
착한	5.6
긍정적인	4.1
성실한	3.9
지혜로운	3.4
자존감이 높은	3.4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비율
사랑할 줄 아는	2.8
도덕적인	2.7
사회성이 있는	2.6
인성을 갖춘	2.5
따뜻한	2.3
인간적인	2.3
공감능력이 있는	2.3
즐거운	2.1
관대한	2.1
사려 깊은	2.1
배플 줄 아는	1.8
똑똑한	1.7
친절한	1.6
자유로운	1.6
책임감이 있는	1.6
도움을 주는	1.5
이타적인	1.3
존중할 줄 아는	1.3
정의로운	1.3

[그림 III-4-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정직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뢰(17.9%), 자유(13.9%) 공존(10.2%), 부(8.2%) 순이었다.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가치는 권력(0.8%)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2.1%), 명예(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응답한 비율이 자녀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평화와 평등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4-27〉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1순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계수	χ² (df)		
	정직	신뢰	자유	공존	부	평화	평등	사회공헌	명예	권위	권력			기타	
전체	25.6	17.9	13.9	10.2	8.2	7.7	6.4	3.5	2.4	2.1	1.3	0.8	100.0	(1500)	
자녀	24.6	16.8	14.2	10.6	8.2	6.2	7.2	4.6	2.8	3.0	1.0	0.8	100.0	(500)	19.542
소속반	27.0	17.4	12.4	10.4	7.4	8.4	6.0	3.8	2.8	2.2	1.2	1.0	100.0	(500)	(22)
(학급)	25.2	19.6	15.2	9.6	9.0	8.4	6.0	2.2	1.6	1.0	1.6	0.6	100.0	(500)	
1명	24.2	17.8	14.4	10.3	8.2	7.0	5.8	4.3	2.8	2.8	1.5	1.0	100.0	(797)	38.160*
2명	26.7	18.2	13.9	11.0	8.7	7.4	6.6	2.8	2.1	1.5	0.5	0.7	100.0	(610)	(22)
3명 이상	30.1	17.2	9.7	4.3	5.4	15.1	10.8	2.2	1.1	0.0	4.3	0.0	100.0	(93)	
응답자	27.3	17.1	13.4	9.7	8.6	6.2	6.5	3.6	2.6	2.7	1.2	1.0	100.0	(805)	13.409
성별	23.6	18.8	14.5	10.8	7.8	9.4	6.3	3.5	2.2	1.3	1.3	0.6	100.0	(695)	(11)
광역	26.9	17.7	12.5	8.3	8.7	8.0	7.6	4.3	2.6	1.4	1.4	0.7	100.0	(577)	
시/도	24.8	18.2	14.4	11.6	7.8	7.6	5.9	2.9	2.2	2.4	1.2	0.8	100.0	(825)	16.048
군	24.5	17.3	18.4	9.2	9.2	6.1	3.1	4.1	3.1	3.1	1.0	1.0	100.0	(98)	(22)
최중	23.0	12.6	16.1	10.3	9.2	12.6	13.8	0.0	0.0	1.1	1.1	0.0	100.0	(87)	36.319*
학력	26.3	19.1	13.7	9.7	8.1	7.6	6.0	3.3	2.3	1.9	1.1	0.9	100.0	(1179)	(22)
대학원 졸업 이상	23.1	14.1	14.5	12.8	8.1	6.0	5.6	6.0	3.8	3.4	2.1	0.4	100.0	(234)	
정규직	26.5	18.2	13.5	9.3	7.8	7.4	6.6	3.6	2.4	2.5	1.3	0.9	100.0	(1169)	
취업	18.8	12.9	21.2	17.6	5.9	5.9	5.9	7.1	4.7	0.0	0.0	0.0	100.0	(85)	39.424
상태	24.4	17.8	16.7	12.2	8.9	7.8	4.4	3.3	0.0	2.2	2.2	0.0	100.0	(90)	(33)
비취업	23.1	18.6	11.5	11.5	12.2	10.3	6.4	1.3	2.6	0.0	1.3	1.3	100.0	(156)	
경제활동	25.6	17.9	14.6	10.4	6.5	7.7	6.6	3.9	2.4	2.5	1.4	0.4	100.0	(998)	22.086*
상태	25.7	17.9	12.5	9.8	11.6	7.6	6.0	2.8	2.4	1.2	1.0	1.6	100.0	(502)	(11)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명)

한편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정직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뢰(38.2%), 자유(26.7%), 공존(21.3%), 부(17.9%) 순으로 1순위와 같은 영향을 보였다.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가치 또한 권력(3.3%)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3.9%), 명예(5.6%) 순으로 나타나 1순위와 같은 영향을 보였다.

<표 III-4-28>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1+2순위)

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사례수	
	정직	신뢰	자유	공존	부	평화	평등	사회공헌	명예	권위	권력		기타
전체	42.7	38.2	26.7	21.3	17.9	17.8	15.3	6.3	5.6	3.9	3.3	0.9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42.6	35.2	28.0	19.4	16.8	18.8	16.0	7.2	6.6	4.6	4.0	0.8	(500)
유아반(만3~5세반)	41.4	41.4	24.2	20.8	16.6	18.4	16.4	6.4	6.2	4.4	2.8	1.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4.0	38.0	28.0	23.8	20.4	16.2	13.6	5.4	4.0	2.6	3.2	0.8	(500)
1명	40.5	38.1	27.1	21.2	17.6	17.4	15.6	6.9	6.4	4.4	3.8	1.0	(797)
2명	44.9	38.9	26.6	22.3	18.5	16.4	14.9	6.1	4.9	3.4	2.3	0.8	(610)
3명 이상	46.2	34.4	24.7	16.1	17.2	30.1	16.1	3.2	3.2	2.2	6.5	0.0	(93)
응답자 성별													
아버지	43.6	37.3	25.8	21.7	18.3	15.4	15.8	7.3	6.3	4.7	2.7	1.0	(805)
어머니	41.6	39.3	27.8	20.9	17.6	20.6	14.8	5.2	4.7	2.9	4.0	0.7	(695)
광역	41.6	36.7	27.9	19.9	15.6	19.8	17.7	6.8	6.8	2.8	3.8	0.7	(577)
시/도	43.4	38.8	25.8	23.0	18.2	16.8	14.7	6.3	4.6	4.4	3.0	1.0	(825)
군	42.9	41.8	27.6	15.3	29.6	14.3	7.1	4.1	7.1	6.1	3.1	1.0	(98)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9	33.3	29.9	18.4	24.1	28.7	21.8	1.1	0.0	1.1	3.4	0.0	(87)
대학교 졸업	44.4	39.4	26.1	21.2	18.1	16.6	14.7	6.0	5.9	3.7	2.9	1.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35.9	33.8	28.6	23.1	15.0	19.7	16.2	9.8	6.4	5.6	5.6	0.4	(234)
정규직	43.9	38.8	26.6	20.0	17.5	16.6	15.2	6.4	6.2	4.5	3.5	0.9	(1169)
비정규직	31.8	28.2	34.1	32.9	22.4	16.5	17.6	8.2	7.1	0.0	1.2	0.0	(85)
자영업	42.2	37.8	27.8	18.9	16.7	22.2	14.4	10.0	2.2	3.3	4.4	0.0	(90)
비취업	39.7	39.7	23.1	26.3	19.9	25.0	15.4	2.6	2.6	1.3	2.6	1.9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43.3	38.8	27.1	20.8	16.6	17.1	15.0	6.8	5.9	4.5	3.6	0.4	(998)
외벌이	41.4	37.1	26.1	22.3	20.5	19.1	15.9	5.4	5.0	2.6	2.8	1.8	(502)

단위: %(명)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41.8%)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15%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어머니인 경우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II-4-29〉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

단위: %(명)

구분	핵심역량 범주			계(수)	$\chi^2(df)$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전체	43.0	41.8	15.2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40.8	42.6	16.6	100.0 (500)	8.795 (4)
	유아반(만3~5세반)	40.2	43.4	16.4	100.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8.0	39.4	12.6	100.0 (500)	
자녀수	1명	44.0	41.7	14.3	100.0 (797)	1.555 (4)
	2명	42.1	41.6	16.2	100.0 (610)	
	3명 이상	39.8	44.1	16.1	100.0 (93)	
응답자 성별	아버지	40.6	42.4	17.0	100.0 (805)	6.198* (2)
	어머니	45.8	41.2	13.1	100.0 (695)	
거주지	광역시	45.4	37.6	17.0	100.0 (577)	8.281 (4)
	시/도	41.5	44.8	13.7	100.0 (825)	
	군	41.8	40.8	17.3	100.0 (9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5	39.1	18.4	100.0 (87)	0.873 (4)
	대학교 졸업	43.1	41.8	15.1	100.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42.7	42.7	14.5	100.0 (234)	
취업 상태	정규직	42.4	41.7	15.8	100.0 (1169)	6.127 (6)
	비정규직	41.2	41.2	17.6	100.0 (85)	
	자영업	46.7	37.8	15.6	100.0 (90)	
	비취업	46.2	44.9	9.0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43.3	40.2	16.5	100.0 (998)	5.415 (2)
	외벌이	42.4	45.0	12.5	100.0 (502)	

* $p < .05$.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는 자기주도성이 2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배려와 포용성(16.0%), 문제해결 능력(13.9%) 의사소통능력(12.9%), 창의성(6.6%) 순이었다.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능력은 과학적 소양(2.7%)이었고, 그 다음은 예술적 자질(3.2%), 비판적 사고력(4.3%), 수리능력(4.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로 배려와 포용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언어능력이나 수리능력이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 자기주도성이나 문제해결능력의 응답률이, 아버지인 경우 의사소통능력이나 창의성, 협업능력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가 시도인 경우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응답률이, 군인 경우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종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배려와 포용성, 언어능력, 대졸인 경우 의사소통능력, 고졸인 경우 협업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취업상태가 비취업인 경우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로 자기주도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리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II -4-30〉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1순위)

구분	기대하는 능력											계(수)	χ ² (df)	
	자기 주도성	배려와 포용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언어 능력	협업 능력	수리 능력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	과학적 소양			
														20.0
전체	20.0	16.0	13.9	12.9	9.7	6.6	6.1	4.6	4.3	3.2	2.7	100.0	(1500)	
자녀	20.0	14.2	11.6	11.4	9.2	8.8	7.2	6.0	5.2	3.2	3.2	100.0	(500)	
소속반	17.6	14.2	14.0	14.4	11.8	7.0	5.2	5.6	4.4	2.8	3.0	100.0	(500)	42.321** (20)
(학년)	22.4	19.6	16.0	12.8	8.2	4.0	6.0	2.2	3.4	3.6	1.8	100.0	(500)	
1명	20.7	14.6	14.6	14.3	8.7	7.2	5.8	4.4	4.8	3.0	2.1	100.0	(797)	
2명	18.9	17.0	13.3	11.3	10.8	6.1	6.7	5.4	4.1	3.1	3.3	100.0	(610)	19.128 (20)
3명 이상	21.5	21.5	11.8	10.8	11.8	5.4	5.4	1.1	2.2	5.4	3.2	100.0	(93)	
응답자	17.5	15.5	12.7	13.8	10.7	6.1	7.2	5.2	5.2	3.0	3.1	100.0	(805)	20.189* (10)
성별	22.9	16.5	15.3	11.8	8.6	7.2	4.9	3.9	3.3	3.5	2.2	100.0	(695)	
광역	20.1	15.8	14.6	8.8	10.6	6.9	5.9	6.2	5.2	2.9	2.9	100.0	(577)	
시/도	20.1	16.4	13.6	15.8	9.3	6.5	6.4	3.2	3.4	2.9	2.4	100.0	(825)	33.556* (20)
군	18.4	14.3	12.2	12.2	8.2	5.1	5.1	7.1	7.1	7.1	3.1	100.0	(98)	

단위: %(명)

구분	기대하는 능력													계(수)	χ^2 (df)
	자기 주도성	배려와 포용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인어 능력	협업 능력	수리 능력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	과학적 소양	계(수)			
	20.7	19.5	10.3	19.5	8.0	5.7	2.3	6.9	1.1	5.7	0.0	100.0	(8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8	17.1	14.7	11.1	9.6	7.2	6.3	4.1	4.2	3.1	2.8	100.0	(1179)	43.621** (20)
	대학교 졸업	20.5	9.0	11.1	19.2	11.1	3.8	6.8	6.4	6.4	2.6	3.0	100.0	(234)	
	대학원 졸업 이상	18.9	15.9	13.7	13.4	10.1	6.2	6.4	4.9	4.4	3.3	2.7	100.0	(1169)	
취업 상태	정규직	15.3	10.6	16.5	14.1	8.2	9.4	4.7	5.9	4.7	5.9	4.7	100.0	(85)	48.168* (30)
	비정규직	18.9	11.1	12.2	11.1	12.2	7.8	5.6	5.6	8.9	3.3	3.3	100.0	(90)	
	자영업	31.4	22.4	14.7	9.0	6.4	7.1	5.1	1.3	0.6	1.3	0.6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18.7	14.4	14.6	13.4	10.4	6.5	5.9	4.6	5.0	3.7	2.6	100.0	(998)	16.270 (10)
	외벌이	22.5	19.1	12.4	11.8	8.4	6.8	6.6	4.6	3.0	2.2	2.8	100.0	(502)	

* $p < .05.$, ** $p < .01.$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자기주도성이 3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배려와 포용성(33.4%), 문제해결능력(31.1%) 의사소통능력(25.9%), 창의성(18.7%) 순으로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능력은 과학적 소양(6.6%)이었고, 그 다음은 예술적 자질(6.7%), 비판적 사고력(7.9%), 수리능력(9.1%) 순으로 나타나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 -4-31>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1+2순위)

구분	기대하는 능력													계(수)
	자기 주도성	배려와 포용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협업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	과학적 소양	계(수)		
	33.5	33.4	31.1	25.9	18.7	14.3	12.7	9.1	7.9	6.7	6.6	100.0	(1500)	
전체	34.2	31.0	27.4	24.4	18.0	15.2	14.6	12.4	8.0	6.8	8.0	100.0	(500)	
자녀 소속반 (학년)	영아반(0~만2세반)	30.6	32.6	29.0	27.4	22.0	14.2	9.2	8.4	6.4	7.2	100.0	(500)	
	유아반(만3~5세반)	35.6	36.6	37.0	26.0	16.2	14.8	5.8	7.4	6.8	4.6	100.0	(500)	

단위: %(명)

구분	기대하는 능력										계(수)	
	자기 주도성	배려와 포용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협업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		과학적 소양
1명	35.3	30.4	32.1	26.7	16.6	14.8	14.2	9.2	8.9	6.0	5.9	100.0 (797)
2명	31.5	35.7	30.0	24.8	21.6	13.8	11.1	9.5	7.4	7.4	7.2	100.0 (610)
3명 이상	31.2	44.1	30.1	26.9	18.3	12.9	9.7	6.5	3.2	7.5	8.6	100.0 (93)
아버지	30.3	33.3	28.7	26.1	20.6	15.4	12.5	9.4	9.4	6.2	7.8	100.0 (806)
응답자 성별 어머니	37.1	33.5	34.0	25.8	16.5	12.9	12.8	8.8	6.2	7.2	5.2	100.0 (695)
광역	32.8	32.1	31.7	21.7	22.7	12.3	12.8	9.5	9.2	7.3	7.8	100.0 (577)
시/도	34.4	34.5	31.0	29.1	16.4	15.9	12.7	8.2	6.7	5.7	5.3	100.0 (825)
군	29.6	31.6	28.6	24.5	15.3	12.2	11.2	14.3	11.2	11.2	10.2	100.0 (98)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3	40.2	33.3	29.9	18.4	14.9	9.2	10.3	2.3	12.6	3.4	100.0 (87)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34.1	34.6	31.8	24.1	18.7	13.9	13.5	8.7	7.5	6.7	6.3	100.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33.3	24.8	26.9	33.8	19.2	15.8	9.8	10.7	12.0	4.3	9.4	100.0 (234)
정규직	32.4	33.4	29.9	26.9	18.9	14.5	12.2	9.9	8.0	6.7	7.2	100.0 (1169)
취업 상태 비정규직	28.2	29.4	32.9	23.5	18.8	15.3	15.3	11.8	9.4	9.4	5.9	100.0 (85)
자유업	33.3	30.0	28.9	22.2	21.1	14.4	13.3	6.7	14.4	7.8	7.8	100.0 (90)
비취업	44.2	37.8	41.0	21.8	16.0	12.2	14.1	3.2	3.2	4.5	1.9	100.0 (156)
경제 활동 상태 맞벌이	32.2	32.4	30.8	26.7	19.0	14.5	12.0	9.2	8.3	7.8	7.0	100.0 (998)
외벌이	36.1	35.5	31.9	24.5	18.1	13.7	13.9	9.0	7.2	4.4	5.8	100.0 (502)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이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협력적 소통역량(22.3%), 창의적 사고역량(21.7%), 공동체 역량(14.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낮은 역량은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 5.4%가 응답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 자기관리역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2〉 2022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계(수)	$\chi^2(df)$	
	자기 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전체	28.0	22.3	21.7	14.2	8.4	5.4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26.4	20.8	21.2	14.0	9.4	8.2	100.0 (500)	25.096** (10)
	유아반(만3~5세반)	24.2	24.0	23.8	14.4	8.8	4.8	100.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4	22.2	20.0	14.2	7.0	3.2	100.0 (500)	
자녀수	1명	29.7	20.6	20.8	13.8	8.8	6.3	100.0 (797)	9.841 (10)
	2명	25.4	24.8	22.6	14.4	8.0	4.8	100.0 (610)	
	3명 이상	30.1	21.5	22.6	16.1	7.5	2.2	100.0 (93)	
응답자 성별	아버지	24.6	22.7	23.5	14.8	9.1	5.3	100.0 (805)	11.295* (5)
	어머니	31.9	21.9	19.6	13.5	7.6	5.5	100.0 (695)	
거주지	광역시	29.8	21.5	22.0	12.8	8.8	5.0	100.0 (577)	5.220 (10)
	시/도	27.3	22.5	21.3	15.4	8.0	5.5	100.0 (825)	
	군	23.5	25.5	22.4	12.2	9.2	7.1	100.0 (9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6	21.8	25.3	9.2	12.6	3.4	100.0 (87)	10.216 (10)
	대학교 졸업	29.1	22.2	21.4	14.2	8.0	5.2	100.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22.6	23.1	21.8	16.2	9.0	7.3	100.0 (234)	
취업 상태	정규직	27.5	22.2	22.3	14.0	8.2	5.7	100.0 (1169)	23.315 (15)
	비정규직	24.7	23.5	22.4	11.8	9.4	8.2	100.0 (85)	
	자영업	28.9	15.6	20.0	14.4	16.7	4.4	100.0 (90)	
	비취업	33.3	26.3	17.3	16.7	4.5	1.9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27.7	21.9	22.9	13.3	8.5	5.6	100.0 (998)	4.478 (5)
	외벌이	28.7	23.1	19.1	15.9	8.2	5.0	100.0 (502)	

* $p < .05$., ** $p < .01$.

부모들이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은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17.9%),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14.9%),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11.5%) 순이었다. 가장 응답률이 낮은 기초 역량은 수리력(4.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해력(4.1%), 정보인식 및 활용능력(4.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반인 경우 기초적 자조기술능력, 자녀가 유아반인 경우 대소근육발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가 광역시인 경우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지가 군인 경우 기초적 자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대소근육발달이라는 응답률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문해력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대소근육발달이라는 응답률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3〉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

구분	영유아기에 중요한 기초 역량											계(수)	$\chi^2(df)$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	대소근육 발달	문제해결 능력	정보인식 및 활용	문해력	수리력					
	24.7	17.9	14.9	11.5	10.8	8.8	4.5	4.1	3.0					
전체												100.0	(1500)	
자녀	25.0	17.8	14.4	8.8	11.8	8.0	5.6	4.8	3.8			100.0	(500)	
소속반(학년)	25.6	17.4	16.2	15.4	7.2	7.8	3.4	3.8	3.2			100.0	(500)	31.035* (16)
	23.4	18.4	14.0	10.2	13.4	10.6	4.4	3.6	2.0			100.0	(500)	
1명	25.5	17.3	14.2	10.2	12.0	8.5	4.3	4.9	3.1			100.0	(797)	
2명	24.3	18.9	14.6	13.0	9.7	8.5	4.9	3.3	3.0			100.0	(610)	16.820 (16)
3명 이상	20.4	16.1	22.6	12.9	7.5	12.9	3.2	2.2	2.2			100.0	(93)	
아버지	21.7	19.3	14.7	11.3	10.6	9.8	5.1	4.5	3.1			100.0	(805)	12.416 (8)
어머니	28.1	16.3	15.1	11.7	11.1	7.6	3.7	3.6	2.9			100.0	(695)	
광역	20.5	15.9	17.2	12.8	9.0	11.4	5.9	4.5	2.8			100.0	(577)	
시/도	27.5	19.3	13.8	10.9	10.9	7.4	3.4	3.8	3.0			100.0	(825)	39.012** (16)
군	25.5	17.3	10.2	8.2	20.4	5.1	5.1	4.1	4.1			100.0	(98)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에 중요한 기초 역량										계수	x ² (df)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	대소근육 발달	문제해결 능력	정보인식 및 활용	문해력	수리력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8	13.8	9.2	10.3	23.0	13.8	2.3	0.0	5.7	100.0 (87)	27.152* (16)
	대학교 졸업	25.0	18.1	15.1	11.5	10.3	8.2	4.7	4.2	2.8	100.0 (1179)	
	대학원 졸업 이상	23.9	18.4	15.8	11.5	9.0	9.8	3.8	4.7	3.0	100.0 (234)	
취업 상태	정규직	24.6	18.3	15.2	10.3	10.2	9.4	4.8	3.9	3.3	100.0 (1169)	36.366 (24)
	비정규직	23.5	11.8	18.8	12.9	14.1	5.9	5.9	4.7	2.4	100.0 (85)	
	자영업	22.2	21.1	6.7	11.1	14.4	10.0	5.6	6.7	2.2	100.0 (90)	
	비취업	27.6	16.0	14.7	19.9	11.5	5.1	0.6	3.2	1.3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24.9	18.0	14.8	10.4	11.3	8.8	4.7	3.8	3.1	100.0 (998)	4.745 (8)
	외벌이	24.1	17.5	14.9	13.5	9.8	8.8	4.0	4.6	2.8	100.0 (502)	

* $p < .05$, ** $p < .0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 중 현재 자녀 이용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생활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운동·건강(43.6%), 의사소통(38.1%), 사회관계(36.8%), 자연탐구(29.7%), 예술경험(19.5%) 순이었다.

〈표 III-4-34〉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내용 중 자녀 이용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 이용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계(수)	
	기본생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전체	45.1	43.6	38.1	36.8	29.7	19.5	-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45.8	46.6	34.2	33.8	26.4	20.2	(500)
	유아반(만3~5세반)	44.4	40.6	42.0	39.8	33.0	18.8	(500)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체운동·건강이라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사회관계(25.8%), 기본생활(22.3%), 의사소통(20.1%), 자연탐구(2.3%), 예술경험(2.2%) 순이었다. 응답자가 어머니 일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취업상태가 비취업일 경우 기본생활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35〉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계(수)	$\chi^2(df)$	
	신체운동, 건강	사회 관계	기본 생활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전체	27.3	25.8	22.3	20.1	2.3	2.2	100.0 (1000)	-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28.0	22.8	22.4	21.8	2.4	2.6	100.0 (500)	5.881 (5)
	유아반(만3~5세반)	26.6	28.8	22.2	18.4	2.2	1.8	100.0 (500)	
자녀수	1명	26.8	26.8	22.6	20.0	2.0	1.8	100.0 (541)	4.601 (10)
	2명	28.5	23.6	21.8	20.8	2.7	2.5	100.0 (403)	
	3명 이상	23.2	32.1	23.2	16.1	1.8	3.6	100.0 (56)	
응답자 성별	아버지	29.0	28.0	18.2	21.1	1.4	2.3	100.0 (517)	16.137** (5)
	어머니	25.5	23.4	26.7	19.0	3.3	2.1	100.0 (483)	

구분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계(수)	$\chi^2(df)$
		신체운동, 건강	사회 관계	기본 생활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거주지	광역시/도	28.3	22.3	25.5	19.5	2.6	1.8	100.0 (385)	13.056 (10)
	시/도	25.9	27.5	20.2	21.5	2.2	2.7	100.0 (549)	
	군	33.3	31.8	21.2	12.1	1.5	0.0	100.0 (6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0	12.0	30.0	26.0	6.0	4.0	100.0 (50)	22.412* (10)
	대학교 졸업	27.3	27.2	23.0	18.0	2.3	2.3	100.0 (788)	
	대학원 졸업 이상	29.0	23.5	16.7	28.4	1.2	1.2	100.0 (162)	
취업 상태	정규직	27.7	26.0	21.3	20.8	1.7	2.4	100.0 (801)	33.527** (15)
	비정규직	22.8	28.1	12.3	31.6	3.5	1.8	100.0 (57)	
	자영업	39.6	18.9	24.5	11.3	3.8	1.9	100.0 (53)	
	비취업	19.1	27.0	36.0	11.2	5.6	1.1	100.0 (89)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27.5	26.1	21.7	20.2	2.1	2.4	100.0 (709)	1.284
	외벌이	26.8	25.1	23.7	19.9	2.7	1.7	100.0 (291)	(5)

* $p < .05$, ** $p < .0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내용 외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18.3%), 다양한 체험 활동(13.6%), 공동체 의식(배려심)을 심어주는 경험(6.1%), 자연 친화적인 경험(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4.5%)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II-4-36〉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외에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단위: %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비율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	18.3
다양한 체험 활동	13.6
공동체 의식(배려심)을 심어주는 경험	6.1
자연 친화적인 경험	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4.5
자주성을 높이는 활동	4.0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	3.9
사회적 규범, 예절을 익히는 경험	3.8
협동심을 키우는 활동	3.4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	3.3
창의성을 기르는 활동	3.1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활동	1.9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비율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	1.9
적응력을 높이는 경험	1.3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	1.2
언어(외국어)능력 향상 활동	1.1
자아를 인식, 확립할 수 있는 경험	1.0
자연 보호 의식을 기르는 경험	0.8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롭게 사고 할 수 있는 활동	0.8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0.7
(해외) 여행	0.7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0.7
긍정적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0.7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경험	0.6
독서 활동	0.5
예술 활동	0.5
옳고 그름을 아는 경험	0.5
안전 훈련	0.5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경험	0.4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경험	0.4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	0.3
정리정돈, 위생 관념을 기르는 경험	0.3
인내심을 기르는 경험	0.3
신뢰감을 쌓는 경험	0.3
책임감을 기르는 활동	0.1

4. 소결

본 절에서는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보육, 교육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간상과 역량, 역량중심의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설정할 때 인간의 성장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방향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 방향을 추구해야 하지만, 영유아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영유아 고유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에 적용될 때는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을 고려하여 재정의되고,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관하여 최근 사회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 표준보육과정이 이미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연결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추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아기 교육과정은 영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와 교사용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셋째, 영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예의 바른 사람(6.3%), 정직한 사람(5.4%), 행복한 사람(4.7%), 바른 사람(4.7%), 자기 주도적인 사람(3.6%), 착한 사람(3.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정직이 25.6%로 가장 높았고,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는 자기주도성이 2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배려와 포용성(16.0%), 문제해결능력(13.9%) 의사소통능력(12.9%), 창의성(6.6%) 순이었다. 한편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이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협력적 소통역량(22.3%), 창의적 사고역량(21.7%), 공동체 역량(1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18.3%), 다양한 체험 활동(13.6%), 공동체 의식(배려심)을 심어주는 경험(6.1%), 자연 친화적인 경험(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4.5%)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IV



미래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제1절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1.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가. 배경

인간상(人間像)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미래의 인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미래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본 결과, 미래의 인간상으로 인간 고유의 본질인 인간다움과 인성 및 감성을 갖춘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인성과 감성, 인간다움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변화에 적응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전문가가 미래의 인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의 인간상을 고려하여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는 적응유연성, 주도성, 창의성, 융·복합성 등의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구촌 전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미래사회의 인간상으로 글로벌 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이 제시되고 있는데, 개별 국가의 국민을 넘어 지구촌 전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공동체성이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생태·환경 변화와 관련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에 미래의 인간상에서 기후시민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후시민으로서 기후소양(생태 및 기후 감수성과 시민성)을 갖추는 토대가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가 중시되고 있는데, 미래형 교육과정 인재상은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최근 개정·고시된 2022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연계하되, 미래사회 변화와 영유아기 특수성을 고려한 인간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나.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의 재명명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고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며 이를 핵심역량과 연계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행 영아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 문서상 추구하는 인간상의 연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발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성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 및 유아와 초등 교육과정 연계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은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혁신적 포용 인재라는 용어가 4가지 요소(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간상이 미래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반영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나,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량과 미래 인간상을 연계한다면, 도덕성, 인간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사람과 미래형 인재상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초중고 연계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정서적 역량, 세계 시민의식, 도덕과 윤리, 정신건강,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협력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협력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FGI 참여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대체로 반영하였다는 의견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의 건강과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들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4가지는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개인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견도 공존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추가하여야 하는 인간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신이 건강한 인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고, 미래 사회의 기후와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는 인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기계와 협력하는 인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설정할 때 인간의 성장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방향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 방향을 추구해야 하지만, 영유아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영유아 고유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20명 기준(CVR=0.42)보다 높은 0.7로 나타났고,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또한 0.5로 나타났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의 핵심역량의 타당도 또한 0.7로 나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배려(양보)하는 사람, 탐구심이 많은 사람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더불어 사는 사람(26.1%), 창의적인 사람(17.5%), 자주적인 사람(15.1%), 감성이 풍부한 사람(8.1%) 순으로 나타나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의 바른 사람(6.3%), 정직한 사람(5.4%), 행복한 사람(4.7%), 바른 사람(4.7%), 자기 주도적인 사람(3.6%), 착한 사람(3.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2)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역량의 연계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하여 일반적인 능력 수준에서 진술한 차이가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아래 제시된 목표는 영아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되어 영아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을 각 영역별 접근이 아닌 전체 보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이 기존 영역별 보육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각론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것임을 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한다(교육부, 2022a). 또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여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 목표 기술 방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교과별 접근을 넘어서 전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접근과 동일하게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영역별 접근을 넘어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총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기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 IV-1-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구분	추구하는 인간상 및 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아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즐겁게 교류하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튼튼한 몸과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p> <p>• 자주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끌어 나간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p> <p>•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 세계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아는 자연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물과 문제에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세계를 탐색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p>

구분	추구하는 인간상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유아는 다양한 사물과 매체, 사람과 자연에 민감하고 주변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재미를 발견한다. 또한 유아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다양한 언어, 노래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일상과 놀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이를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한다. 유아는 주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며, 자신과 친근한 사람 및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발적으로 사회질서와 소통 방식을 배워 나간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가족, 이웃, 동식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p>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본 연구의 FGI 참여자 대다수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영유아 수준에 적절한 역량을 반영하고 있음에 동의하였다.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교육·보육과정에 더 강조되어야 할 역량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놀이·일상의 경험과 관련된 건강한 자아, ‘나’와 관련된 자기인식, 자아형성, 자기관리, 자기조절, 자기주도, 자기유능감, 자기만족(행복감) 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의 기초적 자질이 되는 ‘자아’에 대한 역량을 영유아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더 주요하게 요구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또래-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즐거운 공동체 생활 경험부터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되며, 사람들과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영유아기에 보다 강조되길 기대하였다.

한편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된 인간상은 미래형 인재상의 내용과 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자연탐구영역과, 심미적 감성역량은 예술경험영

역과,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영역과, 공동체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영유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영유아기 특수성을 반영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제시할 것인지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의 동의어이자 여러 가지 ‘가치’의 종합이며,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추구하는 인간상’의 근간이 되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백혜조, 박지혜, 2014).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22b). 이와 같은 교육이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4개의(자기주도적 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란 교육을 통해서 지향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기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과 자질, 능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며(김명주, 2009), 더불어 인간은 주어진, 하위의, 현실의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갖지 못한, 상위의, 미래의 가치를 회구한다(김정환, 강선보, 2003)는 점에서 교육적 인간상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백혜조, 박지혜, 2014).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기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교육과정 문서에 포괄적 목표로서 제시되었고, 2차와 3차 교육과정기는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항목’에서 인간상의 특징과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추구하는 인간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제시되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이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7차 교육과정기이다(양은주, 조경원, 임현식, 2000).

〈표 IV-1-2〉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변천

교육과정 시기	인간상의 내용	문서상의 제시 형식
4차 교육과정 (1981~1987)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제시
5차 교육과정 (1987~1992)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6차 교육과정 (1992~1997)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직접 진술

교육과정 시기	인간상의 내용	문서상의 제시 형식
7차 교육과정 (1997~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을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6~2009)	수시 개정으로 각론만 제시	-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으로 제시

자료: 양은주 외(2000)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에서 2024.8.9. 인출하여 재정리함.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5개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영유아기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강한 사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양 있는 사람'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되었는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1차년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기각된 바 있어 '교양 있는 사람'과 대별할 수 있는 용어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자주적인 사

람'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19년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으나 개정 시기가 상이하여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인간상과는 차이가 있는 상태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정된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시,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선(안)

2019 개정 누리과정 (2019.7)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8)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12)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건강한 사람 -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주변 세계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사람 -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교양 있는 사람 -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주: 밑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 볼드체는 차이 있는 용어임.

1) 추구하는 인간상의 총체성과 연속성 고려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교육부, 2022b).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또한 교육·보육을 통해 기대하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인간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의 추구하는 인간상이 특수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연계성 있게 제시하되,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인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영유아기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한 사람’의 제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라는 표현에 ‘건강한 사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과정 총론에는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는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2b). 또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인간상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으나 미래의 인간상으로 심신의 건강을 바탕으로 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었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기에 영유아기에 특히 강조해야 할 인간상으로 판단하여 ‘건강한 사람’을 별도로 제시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시,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개정에서 인간상의 변천을 고려할 때, 6차 교육과정기까지 제시되었던 ‘건강한 사람’을 추가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 웰빙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3) ‘자주적인 사람’과 ‘자기주도적인 사람’의 개념 명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학습자의 주도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제시하며,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22b).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교육부, 2015)으로 설명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자주성’과 ‘자기주도성’의 개념적, 학습적 차이를 반영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교양 있는 사람’의 의미 연결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교육부, 2022b)으로 ‘교양(教養)’의 사전적 의미인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국립국어원, 2024.8.9.)¹²⁾

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양(驕揚)’의 개념으로 왜곡되어 읽힐 가능성도 있다. ‘교양(教養)’이라는 용어를 영유아기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인간발달의 총체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간상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제시한다.

5)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를 위한 지원

교육에서의 인간상은 교사의 직접적인 훈시나 의도하는 특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되는 성질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로운 목표로서 교육 실제에서 구현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갖는 모든 경험, 특히 수업 상황에서 갖는 교과 학습 경험의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양은주 외, 2000).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2.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설정

가. 배경

OECD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의 조건으로 사회와 개인을 위한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해야 하고,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해야 한다는 것 3가지를 들었다(OECD, 2005: 4). OECD(2019)는 Learning Compass 2030 보고서를 통해 역량(Competencies)과 더불어 학습자 행위주체성/행위성(Learner agency)을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였고, 교과나 가르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던 것을 ‘전통적인’ 것으로, 역량과 학습자를 중심으로 가치, 태도, 지식, 학습 성향 배양과 더불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미래적인’ 교육과정으로 보며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이연선, 2023: 91). 2019 Learning Framework에서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을 추가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였는데, 환경문제와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변화를 이끄는 것을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이연선, 2023: 95). 한편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는데, 교육은 4번째 목표에 해당되며 7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유아교육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박은혜,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에서 2024.8.9. 인출.

2017: 119). 세부목표의 특징을 보면, 문해력의 개념이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형식적인 학교교육 내의 교과나 지식, 기술 중심의 교육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둬으로써 정서나 동기 같은 soft skill을 강조하고 있다(박은혜, 2017: 127).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유아기 역량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 연구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영유아기 역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인간이 길러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미래역량을 추가한다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영유아기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반영되기 이전에 핵심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박민정(2009), 소경희(2009), 이원희(2015)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활용하게 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목표-교육 내용-평가의 일관성 추구에 대하여 교육과정사에서 행동주의적 접근이 야기하였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행동주의적 접근과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역량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성의 추구라는 핵심역량이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결국 현행 하는 교육이 ‘지식’, ‘이해’, ‘개념’과 개념들을 결합한 ‘원리 또는 일반론’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보다는 지식의 본래 의미와 지식 교육의 본래 역할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 F. D. Young은 핵심역량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 중심 역량 기반 접근 방식(test-driven competency-based approaches)으로 표현하는 한편(Young, 2008: xi), 이를 도입한 2007년 개정된 영국 교육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교육과정을 도구로 취급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Young, 2008: 224). 다시 말해서 지식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핵심역량 등) 외부적인 기제에 의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그 외부적인 기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예를 들어 핵심역량의 경우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휘둘려 교육이 교육으로서 추구해야 할 본래의 방향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Young(2013)은 교육과정에서 ‘강력한 지식(powerful knowledge)’이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2014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핵심역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고려 사항

1)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OECD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그 동안 직업 교육에서 제시하여 온 특정 직업의 역량 또는 일반적인 직업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중등 전체 학교급을 통틀어 길러져야 하는 전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경제기구에 해당되며, OECD DeSeCo 프로젝트가 국제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하는 PISA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정된 핵심역량이 평가 문항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도입을 행동주의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역량이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¹³⁾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던 암기 위주의 (또는 문서로서 존재하는) 단편적인 지식 중심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 중심 교육은 과도한 교육열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 교육이 잘못 해석·적용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지 교과 교육 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개념의 관점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간 교육계에서의 역량 개념은 기존의 교육이 지식 위주의 수업으로 내용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데 치중해왔으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역량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이며, 전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 실행과 성취의 측면을 강조하는 역량 개념은 직무역량과 직업 교육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OECD에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활용되면서 교육 분야로 그 적용이 확장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특히, 역

13) 일반적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또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전자가 핵심역량을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로서 중점적으로 활용한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핵심역량이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비하여 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조작적 정의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저서나 논문에서 이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 혹은 후자를 모두 포함하여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량기반 교육은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제안되면서 그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역량교육의 직업교육적 기원에 의한 행동주의적 특성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역량 담론의 옹호자들은 역량의 재개념화를 통해 인문주의적 성격을 역량교육에 접목한 ‘역량기반 자유교육’ 또는 일반역량 중심의 ‘일반역량 교육’을 제안하였다. 결과와 성취에 기반한 역량의 한계를 인문주의와의 융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역량교육을 둘러싼 모순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량교육이 직면한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역량 담론을 교육과정에 수용하면서 엄밀한 개념의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박은주, 2022; 황규호, 2017)라는 비판에도 분명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측면에서 역량교육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 크다.

유아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유아 역량’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그동안 역량 개념이 유아교육 분야에 수용되는 과정과 절차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핵심역량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교과와의 연계 부재가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에서 역량 개념의 수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핵심역량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부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핵심역량 도입이 먼저 수용된 것은, 국제적으로 개발된 핵심역량의 이론적 타당성이 교육 현장에서 해소하고 싶어하던 암기 중심의 단편적 지식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정책이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수용은 초·중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과 관련된 한계 또는 문제의 개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핵심역량의 도입이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교육 현장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과 자유교육적 성격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과 조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논의는 여전히 이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존재한다.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따라 핵심역량 도입의 필요성, 핵심역량의 개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의 도입 여부 및 그 실현 체제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함께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의 핵심역량의 정체성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을 개념을 보면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총체적 측면을 담고 있다. 역량이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계나 우려가 있으나 해외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이해하는 접근을 보면 역량은 기술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량은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술과 달리 역량은 동기나 가치지향과 같은 내부의 정신적 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Wu & Tan, 2021). 역량이란 개념이 총체적인 측면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래 교육과정의 체제에서 역량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핵심역량의 위상 및 위계 검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등장은 교육에서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정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개인적 지식, 암묵적 지식,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제기하려는 시도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량(competency)라는 용어는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개인적 지식, 암묵적 지식, 판단이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정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역량’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핵심역량’이 지향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 단편적인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기능 및 가치·태도를 포괄하는 핵심역량의 개념 등이 본래 교과 교육이 추구하여 온 교육 내용의 방향이며 온전한 의미의 지식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교과 교육을 본래의 의도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Wiggins와 McTighe(2008: 58-72)는 Bruner가 제시한 지식의 구조에서 전이 가능성을 승계하되 ‘지식(knowledge)’을 ‘이해(understanding)’로 확장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해’는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Wiggins&McTighe, 2008: 2011-2016)(표 III-3-2 참고). 즉, 깊이 있는 이해란,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의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역량이 가치적인 측면과 떨어질 수 없기에 같은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의 측면에서 역량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많은 지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

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작업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았으나 미래 사회의 준비를 위한 역량은 자칫 글로벌 사회나 자본의 필요에 의한 역량을 구성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관심과 강점이 나타나야 하며 국가의 지역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언급되었던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덜 강조될 수 있으며 우리 문화 안에서 강조해야 하는 역량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글로벌 사회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 내에서 역량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의 실행 지원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때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놀이 기반 학습을 고려하여 역량중심 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관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이해 함양과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조화 전에 현장 교사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교사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기관은 현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역량중심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반영 방향

1) 역량의 정의 및 반영 방식

해외 초중등 교육연구사례에서 교과와 역량 통합모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 영유아기 통합모델에서는 역량(가치, 태도, 스킬과 성향)을 먼저 두고 학습 영역을 뒤에 배치하거나, 혹은 학습 영역에 역량의 요소를 많이 포함시키는 형태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연선, 2023: 108). 또한 어린이를 초기 학습자이자 평생학습자로 보고 역량을 키우기에 앞서 초기에 학습 성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며, 학습 성향의 개념은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초적인 마음의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이연선, 2023: 109).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도 영유아기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적 공존 가치와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가치, 태도의 기초를 기르는 것을 핵심에 둔다(이연선, 2023: 110). 결국 영유아기에는 역량 자체보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성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개념을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영유아를 행위와 과정의 수동적 수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주체성의 개념이 적용 가능한 학습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명시하고, 이를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였다. 표준보육과정 성격에서는 영유아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루어지므로 영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 과정을 운영함(보건복지부, 2020)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아를 놀이 속에서 스스로의 자발적 시도와 주도가 가능하며, 주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유능함을 갖춘 배움의 행위주체자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ducation 2030에서 제시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 중 개념, 내용에서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학교에서 실천하기 위해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며, 교사에게 전문적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보육과정 운영 시 현장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도 유사하며,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교사를 교육의 협력적 행위주체자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에서는 영유아의 행위주체성에 관해서는 문서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행위주체자 및 협력적 행위주체자로서의 개념이 이미 제 4차 표준보육과정 구성 방향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육내용에 따라,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고려하여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초등교육과 연계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16).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될 경우,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보육과정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추후 설계 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및 성향과 도전, 적응, 탄력성, 기후변화 및 자연 이해 등의 미래 지향점을 포함하는 교육·보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보육과정에서도 현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행위주체성, 영아의 발달 특성, 놀이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보육과정의 용어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기술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교육과 현장 사례 공유, 부모교육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역량중심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에서 역량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의 총체’,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길러지는 행동특성이나 할 수 있는 능력’, ‘교육에서의 역량은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 ‘교육에서의 역량(competency)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전 경험을 통해 주관적인 성취와 행복을 추구해가는 능력과 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6가지 핵심역량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삶의 능력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합의한 능력’이라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역량의 요소 설정

역량(competency)과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어떤 일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기여하는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OECD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3가지 범주로 다양한 도구 사용,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을 들었다.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은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의 범주로 기초 문해력, 역량, 성격 특성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는 형식적인 학교교육내의 교과나 지식, 기술 중심의 교육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OECD에서는 최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역량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소 다른 점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역량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역량을 교육과정 문서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국가는 핀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유아 교육과정인 국가핵심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and care)에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의 목적을 다루는 부분에서 유아의 역량을 기술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은 유아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횡단적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의지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체(entity)로 인식된다. 보통 역량이 주로 기술적(skillful)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의 성격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의지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먼저 보여준다. 또한 역량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실행해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가 받아들이는 가치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 가운데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른 역량과의 위계적 관계에서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소통 역량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소통 역량과 중복된 개념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은 핵심역량 가운데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유아교육연구 분야에서 핵심역량의 개념이 어떤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높은 비율(31.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공동체 역량(11.6%), 창의적 사고(9.8%), 지식정보처리(7.8%), 의사소통 역량(5.9%)순이었다.

이외에도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나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2022년 개정본에서 멀티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이 분리되었는데 두 역량의 배경에는 영유아의 교육적 평등이 있다. 현재 혹은 미래의 사회에서 이러한 역량은 교육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교사나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특히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여 교사가 교수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 한편 역량 자체로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개별 속도에 맞추는 학습, 실시간 피드백 제공,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제시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량의 내용을 찾는 작업은 학습자가 지식, 기술 및 태도 측면에서 획득해야만 하는 특정한 역량을 찾는 것으로(Gervais, 2016)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역량이 학습 영역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인가? 혹은 특정 영역에서 구체화(domain-specific) 할 수 있는 역량인가? 이다(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예를 들면, 핀란드는 영역을 가로질러 역량을 규정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등이 해당된다. 누리과정 영역별 목표를 역량과 연결시킨다면 이는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국외 사례에서 살펴본 역량은 학습영역별로 나타난 역량이 아니라 학습영역을 가로지르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미래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역량 내용을 규정하기 전에 역량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역량에 접근할 때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가치 등 사회가 가져야 할 집단 역량에 대한 이해도 함께 기술되기를 제안한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또한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인지 능력(호기심, 사회성, 자제력, 열정, 낙관성, 유연성, 감사하는 마음, 회복 탄력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신체조절 능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 습관’, 인내심, 배려, 문제해결력, 자신감,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추가 혹은 수정이 필요한 역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 영역의 추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내면적 건강도 중시하는 전인적 건강 역량,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식정보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능력, 공감적 이해 및 문화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사회 정서적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으로는 도덕성, 인성, 윤리와 같은 절대가치의 역량, 건강한 사람, 세계시민의식, 지식정보처리 역량, 신체운동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등이 다소 부족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영유아기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으로는 정서 및 사회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신체 운동 역량 및 창의적 역량의 강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기조절 역량, 자기 조절 역량 및 자기 관리역량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관점에서 협력적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추가가 필요한 역량으로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신체적 역량과 신체 건강 부분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으며, 협력과 공동체 의식, 디지털 리터러시, 도덕성 및 인성, 자기 조절력,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역량은 상호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될 수 없다. 역량 간의 개념이 겹치는 문제는 역량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며 오히려 역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역량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모 조사결과,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이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협력적 소통역량(22.3%), 창의적 사고역량(21.7%), 공동체 역량(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적 감성역량이 5.4%로 가장 낮았으나 영아반 부모들이 심미적 감성역량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년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기 교육·보육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영유아가 탐색 및 놀이 과정에서 보이는 호기심, 도전, 몰입, 지속력, 개방적 사고, 주도성, 상상력의 가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역량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포괄할 뿐 아니라 확장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는 영유아의 인지적 역량이나 탐구 역량이 제한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 구분과 정의를 영유아의 경험과 가능성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영아기의 경우, 의사소통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 각각의 토대 마련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하여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이라는 초중등 수준의 정의가 너무 성숙하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이 영유아 교육과정에 적용될 때는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을 고려하여 재정의되고,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교육 내용과 영역, 영역과 역량의 연계

OECD DeSeCo 프로젝트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특정 직업인의 육성을 위한 직업 역량 또는 특수 역량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즉, 일반 시민의 양성과 관련되는 일반 역량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총론의 측면에서 일반 역량으로서의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교과 또는 교과 내 과목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각 교과에 동일 명칭이나 동일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 지향하는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지향하는 도덕적 사고 및 정서와 동일하게 명칭을 통일하거나 그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거나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도덕적 사고 및 정서를 수학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은 교육과정의 학습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 교육적 활동,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에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역량이 교육과정의 내용, 흔히 부르는 학습 영역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성과 기반 교육(outcome-based education)과 연결되어 있는 바(Catacutan, Kilag, Diano Jr, Tiongzon, Malbas & Abendan, 2023) 평가의 성격 및 내용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요 단계별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성과 기반 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러 국가가 교육과정에서 학습 성과나 학습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나 기준

과정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연결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추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아기 교육과정은 영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와 교사용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에 관해서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실용적 가치에 치우쳐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한 강점을 간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영아 교육에서는 개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수자들이 특정 교수활동과 연결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역량의 개념이 혼재되어있어 특정 기술 교육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교사 주도적으로 해석·운영될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영유아기 특수성의 반영

초등교육과정은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 특히 'OECD 교육 2030'을 반영하여, 핵심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움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유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관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영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각 영역별 구성은 영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영유아들이 다면적인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은 영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이 포괄적인 세계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역마다 포함되어 있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은 상이하며 영역마다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유아교육의 국제적 트렌드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보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 영역마다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에 대한 보완과 보다 명확한 설계가 요구된다.

역량중심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지식기반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을 강조하고 교과기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유아교육에 적합하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유초연계 관점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

견도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인재상과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통합적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또한 초등과의 연계가 유아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 시 첫째, 핵심역량 6가지를 유아기에 적합하게 강조할지, 기본 4개를 연계성 있게 유지하고 2개는 유아의 독자성을 유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타 학교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유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초등과 연계되면서도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재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역량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역량과 인간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

라.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제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배려와 협력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교육부, 2022). ‘의사소통’에는 OECD 핵심역량의 정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역량 자체를 ‘협력적 소통’으로 바꿔 ‘의사소통’의 의미역을 좁힐 필요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반드시 협력적일 수만은 없고, 불만과 갈등을 객관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능력(이찬승, 2021)이라는 지적을 고려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의사소통 역량’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핵심역량 중 영유아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설명하고,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안)을 제시하였으나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해석과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영유아기 핵심역량과 하위요소(안)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내용	영유아기 핵심역량	내용	하위 요소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감	자기관리 역량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와 일상 경험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자기인식, 자기표현, 자기주도, 자아존중 정서인식, 정서조절, 기본생활습관 형성, 건강관리
지식정보 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함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와 탐색을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함	문제인식, 개념 및 내용 이해,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	창의적 사고 역량	놀이와 일상에서 주변 세계를 관찰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산출함	호기심, 독창성, 유창성, 민감성, 개방성 창의적 성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함	심미적 감성 역량	놀이와 일상에서 주변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경이감, 아름다움을 발견함	감수성, 인성, 감정이입, 정서표현, 공감, 정서적 안정감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	의사소통 역량	놀이와 일상에서 언어, 상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언어적/비언어적 소통 능력 타인 이해, 타인 존중, 또래(성인) 상호작용, 갈등해결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	공동체 역량	놀이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음	소속감, 사회적 인식, 나눔과 배려, 협력, 사회성과 예의, 시민의식, 사회적 태도, 대인관계 기술, 공동체 의식

주: 볼드체는 수정 제안 용어임.

제2절

영유아기 역량을 반영한 총론의 방향



1. 비전과 인간상, 역량의 제시

영유아기 역량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역량을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역량이 새로 도입되기 위해서 즉, 역량 중심 교육·보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총론에서 역량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등의 비전과 인간상을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인간상을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또한 차이가 있어서는 연계성을 확보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개념을 재정의하되, 정의된 개념의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타당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역량교육은 지식교육의 무기력 문제와 관련되어 쟁점화 되었지만,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역량 개념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영유아 교육·보육의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제 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하여 도출한 영아기 역량 6요소는 영아의 발달특성상 특정 역량의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I-1-1 참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 역량 요소들이 영역별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교육과정은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 특히 ‘OECD 교육 2030’을 반영하여, 핵심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움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영유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관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은 영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영유아들이 다면적인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은 영유아의 놀이와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이 포괄적인 세계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역마다 포함되어 있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은 상이하며 영역마다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역량의 요소들이 균등하게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경험될 필요는 없지

만, 경험의 경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역량 요소가 영유아에게 적절한지, 교육과정에서 부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설계시 고려사항

가. 총론과 각론의 연계

초·중등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며, 각론은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즉,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존재한다. 교육과정 총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총론과 각론 각각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일관된 정체성을 적절히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교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인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 분야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총론의 방향 설정은 역량 중심 교육·보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된다.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역량을 도입할 경우, 총론과 교육·보육과정 운영 상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인간상과 연계한 역량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추후 총론에 제시된 역량이 각론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역량의 하위 요소 간의 연계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나. 핵심역량의 반영 방법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각 교과에 동일 명칭이나 동일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의 제시 방법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난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박순경 외, 2014: 124-128).

〈표 IV-2-1〉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2015 개정 기초 연구의 안)

	전제 조건	장점	단점
• 방안1: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요소들을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총론에서 모든 교과들이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핵심역량 설정	핵심역량과 교과 교육의 일관성 확보, 교과 교육 과정 간의 통일성 확보	교과 간의 특수성이나 고유성 간과
• 방안2: 교과별로 총론에서 제시된 역량 중에서 일부 해당 교과에 적합한 역량을 교과 대표 역량으로 설정하는 방안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요소들을 공통의 기반으로 교과 역량 설정	교과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화	각 교과별 핵심역량의 해석과 선택이 총론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이상과 목표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방안3: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하되 교과의 독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핵심역량의 대체나 변경까지 허용하는 방안			

자료: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pp. 124-128의 주요 내용 발췌 제시

이상의 논의 결과에 근거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I’에서는 “교과 역량을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지 않고, 목표에 통합 반영하여 진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한혜정 외, 2022: 53). 그러나 교과 역량의 요소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핵심역량 교육과정 설계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II’(민용성 외, 2022: 88-111)에서는 총 7차로 진행된 교과 교육과정 각론 시안 검토 가운데 4차부터 교과 역량의 요소를 (‘성격’이 아니라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목차에서 처음 생성된) ‘교육과정 개요’에 포함하여 소개하되 그에 대한 각 요소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내용을 교과 목표에 녹여서 진술하도록 제시하였다.

상기한 논의를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시 총론과 각론을 연계하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초중등학교급과는 달리 영역별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제안하지 않고, 총론에서의 역량이 각론에서 하위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도 있다.

3. 역량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으로 재정의

Wu와 Tan (2021)은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의 주요 단계 성과(Key stage outcomes)와 21세기 역량 체제(21st Century Competencies Framework) 아래 주요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부각되는 21세기 역량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그림 II-4-7 참고). 그림에서 가장 안

쪽 부분이 주요 가치이며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실천 안에서 육성, 성취, 전이를 통해 역량이 고양된다. 다음 바깥쪽 원에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이 있고, 가장 바깥에 부각되는 21세기 역량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면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21세기 역량 체제 안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2022 개정과 비교하면 주요 가치에서 존중, 책임, 진실, 배려, 탄력성, 조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진실성, 탄력성, 조화가 빠지고 정직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를 보면 2022 개정 전에서 교육과정의 개념들이 보다 역량 체제 안에 있었으나 2022 개정에서는 이러한 체제 없이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 학습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가되는 21세기 역량 대신 학습 성향이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NEL 체제에서 역량은 OECD의 제안과 같은 서구적 전통만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량의 맥락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Jonse & Moore(1995)는 문화가 역량의 본질적, 역사적 저장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역량에 대한 접근 자체가 서구적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비-서구적인 전통, 여기에서는 유교적 개념(Confucian notion)을 가져오고 있다. 역량에 대해서 연구되지 못한 부분을 역량을 비-서구적 전통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교적 개념과 역량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유교적 개념인 인간됨(person-making)이나 중용(Zhongyong)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역량을 통합적(holistic)으로 보고자 하였다. 역량 하나 하나가 중요함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역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Wu & Tan, 2021). NEL 체제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NEL 체제의 배경이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21세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념이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도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 준비와 함께 구체적인 학습목적을 규정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OECD DeSeCo 프로젝트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특정 직업인의 육성을 위한 직업 역량 또는 특수 역량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즉, 일반 시민의 양성과 관련되는 일반 역량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총론의 측면에서 일반 역량으로서의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 및 교과의 활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교육과정 내 역량을 구성하는 작업은 각국의 배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교육과정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

로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핵심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에서 확인한 핵심역량을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연계하고 있다. 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과 함께 국가교육과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한 후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1차년도 연구인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연구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설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 교육·보육과정의 개선 방안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탐색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3개년도로 계획되어 3차년도에는 1, 2차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체제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유보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는 물론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셨던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영유아기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했던 탐색적 연구로 향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인간상과 역량의 재정의에 대한 합의,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에 대한 타당화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학술논문

-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9.2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1차).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집.
- (사)한국기업교육학회(2010. 9. 6.). HRD 용어사전.
- 경기도교육청(2012). 경기도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이해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 고동환, 서영선, 정용찬, 하승희, 김나연, 조민정, 서용석, 문명재, 유병준, 윤정식, 정일영, 조남훈,
진희승(2023).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2019).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교육부.
-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2022b).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교육부.
- 교육부(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
-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2023).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이음교육 이론편: 교사용 안내서.
- 권미나, 배지현(2019). 유아참여권을 중심으로 본 미소반의 민주적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실행연구.
유아교육연구, 39(1), 79-101.
- 김경애, 류방란, 김지하, 김진희, 박성호, 이명진(2018).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초·중등교육을 중
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3), 1-29.
- 김경자, 강태중, 강현석, 구정희, 김대현, 김두정, 김이경, 김인석, 김창원, 박경미, 박순경, 박창언,
소경희, 송진웅, 이경진, 이광우, 이승미, 장명희, 최상훈, 최진영, 허숙, 허경철, 홍원표, 황규
호, 홍은숙(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김경철, 이민영(2022). 유아와 교사가 만들어가는 '기록'의 모습과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7(2), 87-117.
- 김경철, 이민영(2023). 유아의 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쓰기 특성 분석. 교원교육, 39(4), 203-229.
- 김경희,정은희(2012). 평생교육과 아동복지의 만남: 센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과 저소득취약계층아동의 평생학습역량. 평생교육학연구, 18(4), 297-317.
- 김교령(2022).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육과학연구, 53(2), 75-95.
- 김란주(2019). '심미적 감성 역량'의 개념 탐색. 교육과정연구, 37(3), 1-28.
- 김명주(2009). '욕망' 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 '탈주'와 '생성' -. 철학논총, 3, 31-50.
- 김무련, 김수향(2017). 인성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4), 107-132.
- 김미경(2012). 자기 주도적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의 핵심역량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3), 5-22.
- 김미호(2023). 미래 핵심역량으로서 소통역량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문화연구, 29(6), 151-177.
- 김민아, 김승희(2019). 핵심역량 중심 유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3(4), 151-182.
- 김민정, 이현진(20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협력에 기반한 협동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5), 221-235.
- 김안나, 임선아, 김혜정(2023). 미래사회에 필요한 유아의 핵심역량과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0(3-4), 27-47.
- 김영래(2017).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SEL).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2), 31-53.
- 김영숙(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주요 쟁점과 방향. 교육평가연구, 16(1), 241-264.
- 김영연, 함수경(2017). '몸으로 읽는 동화'를 통해 본 유아움직임교육의 예술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2), 21-39.
- 김영옥(2019). 유아중심 관점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사유(思惟). 유아교육연구, 39(2), 235-253.
- 김영옥(2020).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누리과정의 과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75-103.
- 김영옥, 박미자, 서현(2013). 유아의 사회적 정서역량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7(3), 501-526.

- 김은주(2020). 유아의 창의적 인재 역량 척도 개발에 대한 예비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4), 553-579.
- 김인애, 오아름(2023). 유아의 그림에서 나타난 가정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경험. *한국유아교육연구*, 25(1), 231-251.
- 김자영, 최미숙(2020).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5(3), 43-67.
- 김정환, 강선보(2003). *교육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종윤, 이승미, 박선화, 임윤진, 배화순(2018). 성취기준 질 제고를 위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숙(1999). 미국의 기준 운동에 비추어 본 한국의 절대평가 기준 개발. *교육과정연구*, 17(2), 339-362.
- 김혜경, 박정미, 어윤경(2023). 순환학습기반 유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인간발달연구*, 30(4), 111-129.
- 남지영, 정혜원(2022). 유아 사회정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 민용성, 이광우, 이주연, 이승미, 전호재, 온정덕, 박창언, 임유나, 홍옥수, 유영식, 박상준, 송호현, 김현숙, 이경진, 이영호, 박성운, 조은정, 염근영(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교수·학습 및 평가)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만구, 임현정, 박현지, 김영현(2023). 수학 교과 역량 검사 도구 개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수준을 대상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6(3), 185-204.
-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양정실, 이광우, 이근호, 이미경, 이미숙, 이승미, 이혜원, 정영근, 한혜정(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은주(2022). 인문적 역량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탐색. *교육철학연구*, 44(4), 91-123.
- 박은진, 최영인(2020). 핵심역량으로서 '심미적 감성 역량'의 재개념화를 위한 방향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31(1), 213-231.
- 박은혜(2017).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과제. *유아교육연구*, 37(3), 119-136.
- 백남진(2007).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과 미국 과학(생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1), 129-159
- 백승선, 조형숙(2018).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

- 개념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2(6), 303-335.
- 백혜조, 박지혜(2014).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나타난 가치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0(3), 59-77.
- 보건복지부(2012).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
- 보건복지부(2020b).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 서민주, 임부연. (2014). 유아 미술활동에서 조형매체를 통한 소통의 의미 탐구. 미술교육논총, 28(2), 31-58.
- 서민주, 정경수, 임수정, 임부연(2016). 유아교실의 ‘이미지 단어장’에 대한 의미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1267-1285.
- 서현선, 전홍주, 이문옥(2019). 호주 유아교육과정의 세계시민교육 고찰: 한국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351-379.
- 성승희, 홍후조(2021).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39(3), 165-191.
- 성열관(2005). 교육과정 성취기준 논쟁의 동향 및 평가. 한국교육학연구, 11(1), 215-235.
- 성열관(2014).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글로벌 규범과 로컬의 전유. 교육과정연구, 32(3), 21-44.
- 성태제(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55(2), 1-21.
-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신소림(1992). 플라니 지식론의 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에서, 김지은(2017). 세계시민교육에 기초한 협동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2(4), 5-38.
- 심향분, 성소영(2014). 한국그림책을 통한 유아들의 문화 읽기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4(5), 275-301.
- 안나영(2021). 가정연계 신체활동이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9(3), 351-361.
- 양은주, 조경원, 임현식(2000).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18(2), 47-68.
- 역량(n.d.). HRD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8478&cid=51072>

- &categoryId=51072 (2023. 2.27. 인출).
- 역량(n.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none> (2023. 2.27. 인출).
- 역량(n.d.). 한국경제신문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0351> (2023. 2.27. 인출).
- 오은순, 김윤희(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 핵심역량과 유아교육 방향.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011-1021.
- 온정덕, 김병연, 박상준, 방길환, 백남진, 이승미, 이주연, 한혜정(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세종: 교육부.
- 유구중, 윤여진(2023). 알파미니 AI로봇을 활용한 통합놀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및 교육적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05-134.
- 유은정(2016).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평화문화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한국보훈논총, 15(4), 39-65.
- 유재경(2018).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 세계시민교육.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 윤순진(2024). 미래 생태·환경의 변화와 교육.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대토론회 자료집-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 윤인현(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논어(論語)』와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韓民族語文學), 91, 173-215.
- 윤현숙(2023). 예비유아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수업에 대한 실재감과 학습몰입 및 학습경험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5), 77-90.
- 윤혜영, 김지연(2023). 가정 및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지원환경과 미디어 매체 사용 시간이 유아의 신체역량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7(1), 135-153.
- 이경민(2017). 새로운 시대 인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 4차 산업혁명시대와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담론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3), 137-156.
- 이경호(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제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5(2), 143-166.
- 이경화, 김정숙(2015). 유아 봉사학습의 의미와 실천 방향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19-239.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2009). 미래한국인의 핵심역량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방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이근호, 이주연, 이미숙, 김창언, 박병, 모경환, 박철웅, 진재관, 박경미, 곽영순, 진의남, 서지영, 이경언, 박소영, 임찬빈, 온정덕, 김사훈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

- 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백경선, 온정덕, 소경희, 양일모, 김경숙, 이미숙, 김창원, 박병기, 모경환, 구정화, 진재관, 박경미, 곽영순, 진의남, 서지영, 이경언, 박소영, 임찬빈(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경, 부성숙(2021). 유아의 신체활동역량이 놀이성, 또래유능성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1017-1032.
-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2019a).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941-952.
-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2019b).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역량 차이. 한국스포츠학회지, 17(3), 107-119.
- 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연, 이명애, 가은아, 김현수, 박은아, 박징동, 김현경, 진의남, 김기철, 이경언, 양윤정, 주형미, 백경선, 김경훈, 장호성, 이근님, 한혜정, 서민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성은(2008). 열린교육의 재정립을 위한 회고와 전망. 열린교육연구, 16(3), 1-17.
- 이성희, 이현정(2023). 유아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8(2), 181-211.
- 이수기(2017).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137-148.
- 이수정, 이승미, 최정순, 유금복, 김선희, 조현영, 오수정, 방은희(2021).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미(2001). 지식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 고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승미(2014).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총론의 주요 역할 탐색. 교육학연구, 52(3), 115-145.
- 이승미, 이경남, 신호재, 배화순, 박주현, 변희현, 변태진, 권유진, 조기희, 이경언, 최성희, 김준식, 이병천, 박순경(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및 기능 체계화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미, 박순경(2014).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개발 실태와 개선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2(2), 53-79.

- 이승미, 박순경, 김영은, 이동원, 이근호, 권점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실태와 개선 방향 탐색. KICE 이슈페이퍼, Vol.2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미, 이경남, 신호재, 배화순, 박주현, 변희현, 변태진, 권유진, 조기희, 이경연, 최성희, 김준식, 이병천, 박순경(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및 기능 체계화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연선(2023). 국외 사례를 통해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 함께 만들어가기: '학습자 행위주체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2023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강연 2.
- 이연선(2023. 9. 9.). 국외 사례를 통한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 함께 만들어가기: '학습자 행위주체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충북.
- 이연선(2023.4.1.). 학습자 행위주체성(learner-agency)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어린이의 놀이를 통한 배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s://21erick.org/column/10381/>
- 이원희(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개념 도입과 해결 과제: 행동주의와 인지론의 접근. 통합교육과정연구, 9(4), 113-134.
- 이유정, 정연아(2020). 만 4-5세 버들피리반 유아들의 참여권 존중에 관한 실행과 그 의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3), 29-60.
- 이윤옥(2013). 이야기 그림책에 기초한 감정코칭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4), 163-183.
- 이은철, 변영신 (2023).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핵심역량 요소 구성 연구. 사물인터넷융합논문지, 9(5), 55-60.
- 이재은, 김준수(2020). 북유럽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아 소프트웨어(SW) 교육 고찰. 유아교육연구, 40(3), 229-251.
- 이재호, 백승욱, 이윤조, 이경화(2018). 미래인재 역량 정립 연구. 창의정보문화연구, 4(3), 311-320.
- 이정연, 류재만 (2020). 국내외 교육과정에 반영된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의 심미적 감성역량. 한국초등교육, 31(4), 99-118.
- 이정우(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공동체 역량 의미와 하위요소 탐색. 시민교육연구, 49(4), 149-170.
-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2017).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 역량 개념들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진희(2023).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영유아교육과정 이음에 대한 대화. 2023 한국영유아 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탐구.
- 이흥우(1998). 지식의 구조와 교과(증보 3쇄). 서울: 교육과학사.
- 이훈연, 홍필태(2021). 워드 코로나 시대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원격교육 제한사항과 이에 따른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 개발 제안.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3(2), 251-259.
- 이화도(2017). A Case of study Key Competencies-bas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France. 비교교육연구, 27(5), 45-66.
- 임보영(2023).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정서역량과 교사의 사회정서교수역량 변화. 심리운동연구, 9(3), 45-74.
- 임부영, Lake, V. (2022). Mrs. Kim's journey of embracing technology and becoming a virtual constructivist teacher: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2), 81-97. <http://dx.doi.org/10.18023/ijece.2022.28.2.005>
- 임영은, 박소영(2021). 심미적 감성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탐구. 교원교육, 38(2), 371-397.
- 정미경, 황준성, 이선호, 허은정, 최수진, 김성기, 박상완, 안성훈(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초·중등교육영역. 한국교육개발원.
- 정옥희(2023). '심미적 감성 역량'의 페다고지론적 의미 성찰. 미술교육연구논총, 74, 157-186.
- 정홍인, 조대연, 최지수, 이종민, 장은하, 강현주(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단계별 미래인재 필요 역량 및 우선순위 역량 도출. 평생교육학연구, 24(4), 61-92.
- 정희영, 정윤(2015). 핵심역량 관련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2(3), 357-386.
- 조경진(2022). 유아 메이커 마인드셋: 메이커 마인드셋과 21세기 역량,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원리 탐구. 어린이미디어연구, 21(3), 173-200.
- 조상연 (2023. 9. 9.).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이음과 횡단. 2023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주용국, 이은화(2016). 유아핵심인성역량 수업을 통한 민화반, 동화반 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비교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509-538.
- 최민자, 김진경(2023). 부모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6(2), 167-193.
- 최양미(2010).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9(4), 1-21.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이완정, 임여정, 권혜진, 김유미, 김지연, 신윤승,

- 정정희, 임수진,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2023).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최지혜, 이영선, 정소영(2022).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8(5), 175-199.
- 최혜윤(2015). 유아교육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핵심역량 개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2(3), 5-34.
- 한현정(2018). 일본의 영유아 역량개발에 관한 최근의 논의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1), 43-62.
- 한혜정, 이광우, 민용성, 이주연, 전호재, 온정덕, 박창언, 임유나, 유영식, 이석영, 이영호(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혜정, 이승미, 민용성, 이주연, 이수정, 노은희, 주형미, 변희현, 김현미, 김광규, 배화순, 김상범, 유금복, 서지영, 장근주, 임윤진, 권유진, 이은경, 윤영순, 최성희(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김두정(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명진(2014).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활용에 따른 사회역량변화: 부모설문을 기초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85-101.
- 홍후조(2017).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황규호(2017). 일반역량 교육 논의의 쟁점 분석. *교육과정연구*, 35(3), 247-271.
- 황규호, 소경희, 강현석, 온정덕, 백남진, 최종선, 이승은, 박영출, 손미현, 김진원(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 황신해, 김민진. (2024).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오류에 대한 교사의 수정피드백과 업테이크 연구. *유아교육연구*, 44(1), 149-172.
- Bobbitt, F.(1924). *How to Make a Curriculum*. Boston: Houghton-Mifflin.
- British Columbia(2024).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communication>.
- Martín, S. C., Gonzalez, M. C., & Garcia Penalvo, F. J. (2020). Digit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ttitude, knowledge and use of ICT.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 (2), 210-223.
- Catacutan, A., Kilag, O. K., Diano Jr, F., Tiongzon, B., Malbas, M., & Abendan, C. F. (2023).

- Competence-Based Curriculum Development in a Globalized Education Landscape. *Excellencia: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Education* (2994-9521), 1(4), 270-282.
- Christodoulou, D.(2014), Seven Myths about Education. 김승호 역(2018).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가지 교육 미신. 서울: 페이퍼로드.
- Department for Education, England(2014).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 Dewey, J.(196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Originally Published 1915).
- Eisenr, E. W.(1967). Franklin Bobbitt and the "Science" of Curriculum Making. *The School Review*, 75(1), Seventy-fifth Anniversary Issue (Spring, 1967), 29-47.
- Erickson, H. L., Lanning, L. A., & French, R.(2017). *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the Thinking Classroom*. Thousand Oaks, CA: . Corwin Press.
- Ewens, T.(1979). Analyzing the impact of competence-based approaches on liberal education. In G. Grant et al.(Eds.), *On competence: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ence-based reforms in higher education*(pp. 160-19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and care.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 Gervais, J.(2016).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1(2), 98-106.
- Guthrie, W. K. C.(1986), *The Greek Philosophers-From Thales to Aristotle*, Harper & Row Publishers, 박종현 역(2000), *희랍 철학 입문 - 탈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서울: 서광사.
- Hardersen, B.(2012). Digital Competence in the Kindergarten Sector. *Nordic Journal of Digital Literacy*, 7 (3), 227-230.
- Hauenstein, A. D.(2004). *신 교육목표분류학 :전통적 분류학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Jones, L., & Moore, R.(1995). Appropriating Competence: the competency movement, the New Right and the 'culture change' projec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 8 (2), 78-92.
- Madaus, G. F.(1998). The Influence of Testing on the Curriculum. 71-112. in Rehage, K. J. & Early, M.(ed)(1999). *Issues in Curriculum: Selected Chapters from NESS Yearbooks* (98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ger, R. F.(1962). Preparing Instructional Objectives. CA: Fearon Press.
- Martín, S. C., Gonzalez, M. C., & Penalvo, F. J. G.(2020). Digit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ttitude, knowledge and use of ICT.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2), 210-223.
- Masoumi, D., & Bourbour, M.(2024). Framing adequate digit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1-19.
- Ministry of Education(2017). Te Whāriki.
- Ministry of Education(2022). Nurturing early learners. A curriculum framework for pre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 Ministry of Education(2023a). Primary school, <https://parents.education.govt.nz/primary-school/learning-at-school/key-competencies/>
- Ministry of Education(2023b). The New Zealand Curriculum. <https://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collapsible7>
- Ministry of Education(2024. 2. 27). Key competencies. <https://nzcurriculum.tki.org.nz/Key-competencies/About#collapsible1>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Ontario(2005).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9 and 10: Mathematics.
- Ministry of Education, Québec(2001). The Québec Education Program - Preschoo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2018). How the key competencies were developed: The evidence base.
- Nussbaum, M. C.(2011).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 Approach*.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O’Connell, W. & Moomaw, W.(1975). *A CBC Primer :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general undergraduate programs*. Atlanta, GA: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 Oakeshott. M.(1967), *Learning and Teaching*, In T. Fuller(ed.)(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Yale University Press, pp. 43-62, 차미란 역(1992), ‘학습과 교수’, 유한구·김승호(1999),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OECD(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learning-compass-2030/> (2023.12.23. 인출).
- Polanyi, M.(1962). *Personal Know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07). *The national curriculum: Statutory requirements for key stage 3 and 4*.
- Ryle, G.,(1949).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
- Short, E.(1984). Competence reexamine. *Educational Theory*, 34(3). 201-207.
- Short, E.(1985). The Concept of competence: Its use and misuse in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6(2), 2-6.
- Spencer, H.(1861).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New York: D. Appleton.
-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2007).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 - level 6*.
- Wiggins, G., & McTighe, J.(2008). *Understanding by Design*.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 World Economic Forum.(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 World Economic Forum.(2024). *The Global Risks Report 2024-19th edition, Insight Report*.
- Wu, S., & Tan, C.(2021).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Curriculum reforms for pre-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Euro-Asian Encounters on 21st-Century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forms: Cultural Views o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211-227.
- Young, M. F. D.(2008). *Bringing Knowledge Back In ; From Social Constructivism to social realism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Young, M. F. D.(2013). Overcoming the crisis in curriculum theory: a knowledge-based approach.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5(2), 101-118.
- Zosh, J. M., Hopkins, E. J., Jensen, H., Liu, C., Neale, D., Hirsh-Pasek, K., Solis, S. L., & Whitebread, D.(2017). *Learning through play: a review of the evidence (white paper)*. The LEGO Foundation, DK.

2.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1. 11. 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3. 참고 웹사이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2024.8.9.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4.8.9. 인출)

역량(n.d.). HRD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8478&cid=51072&categoryId=51072> (2023.2.27. 인출).

역량(n.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none> (2023.2.27. 인출).

역량(n.d.). 한국경제신문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0351> (2023.2.27. 인출).

OECD(2019). Learning Compass 2030.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learning-compass-2030/> (2023.12.23. 인출).

4. 참고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부록



부록 1. 유아 역량 관련 국내 학술연구 동향분석 관련 표

부록 2. 영유아기 미래 역량 도출을 위한 언론 기사 분석 관련 표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표

부록 4. FGI 질문지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부록 6.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2차)

부록 7. 부모 설문조사 질문지

부록 1. 유아 역량 관련 국내 학술연구 동향분석 관련 표

〈부록 표 III -3-1〉 유아 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의 관련성 탐색

유아교육분야 역량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1	임보영 (2023)	사회정서역량 (역량요소 5가지)	자기관리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2	김인나, 임선아, 김혜정 (2023)	미래시대에 필요한 유아의 핵심역량 (키워드 22개 중 출현빈도 5위)	자기주도력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창의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3	이은철, 변영신 (2023)	유아 인공지능 핵심역량 (역량요소 4가지)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 사고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가치							
4	박만구 외 (2023)	수학 교과 역량 (영역 3가지와 하위요인)	가치 태도 수학 태도 함양	지식 이해 과정 가능 가치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기능성 문제해결 추론 연결 정보처리 수학 가치	가치 태도 수학 가치 인식	과정 가능 의사소통				

유아교육분야 역량" 관련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 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5	김경철, 이민영 (2023)	쓰기역량 (역량성격 4가지)		태도 인식			총체성 맥락성 수행성 학습가능성	
6	관혜인, 이유미 (2023)	지속가능한 식생활 역량 (역량 하위영역 3가지)	건강			환경		배려
7	윤혜영, 김지연 (2023)	신체역량 (역량 핵심 구성 요소 3가지)	다양한 활동에서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즐거움 및 동기, 즉 신체활동을 대하는 태도 건강한 생활 방식과 평생의 신체활동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스포츠 규칙, 전통 및 가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8	남지영, 정혜원 (2022)	유아 사회정서역량 (역량 요인 5가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9	조경진 (2022)	21세기 역량 (역량 6가지)	자신감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의사소통	협력
10	이미경, 부성숙	신체활동역량 (역량 하위요인)	기본움직임기술					

유아교육분야 역량 관련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 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11	김민정, 이현진 (2021)	4가지	건강체력	분류				
			신체활동량					
11	김민정, 이현진 (2021)	수학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 6가지)	신체활동태도	수				
				측정				
				도형				
				통계				
12	인나영 (2021)	정서조절능력 (하위요인 4가지)	자기정서인식					정서 지능
			자기정서조절					
			기초체력					
			신체활동량					
12	인나영 (2021)	신체활동역량 (하위요소 3가지)	신체활동태도					
			적응적 정서 조절능력					
			불안정/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					
13	김은주 (2020)	창의적 인제 역량 (역량차원 3가지)	기본음직임 기술		창의적 사고력			사회관계적 인성
			신체활동역량 (측정요소 3가지)					
14	공은숙, 김유미 (2020)	유아기 사회정서 역량 (검사도구 하위요인 6가지)	정서조절					규범인식
			자이개념					
15	김기현, 신태섭 (2020)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인식 및 표현					포래상호작용
16	이재은, 김준수	EU 디지털 역량 (역량분야 5가지)	인전	정보-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창출		소통과 협력	소통과 협력

유아교육분야 역량 관련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 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핀란드 디지털역량 (역량정의 4가지)	안전하고 책임있는 ICT 사용 능력	문제해결 ICT의 주요 원리, 개념 및 내용 이해	ICT의 창의적·생산적 활용 능력		상호작용 및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ICT의 효과적 사용 능력	상호작용 및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ICT의 효과적 사용 능력
		스웨덴 디지털역량 (역량 정의 4가지)	디지털 도구 및 디지털 자원의 비편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능력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디지털 영향력 이해 디지털 미디어와 도구의 효과적 활용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17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 (2019a)	(2020)	노르웨이 디지털역량 (역량정의 4가지)	안전하고 책임있는 디지털 도구 사용 능력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도구의 효과적 활용 능력 비편적 사고능력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덴마크 디지털역량 (역량정의 4가지)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능력(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능력(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	창의적 생산자 디지털 콘텐츠 (예: 텍스트, 그림, 멀티미디어) 창출 능력	책임 있는 사회 참여자		책임 있는 사회 참여자
		에스토니아 디지털역량 (역량정의 5가지)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능력(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능력(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	디지털 콘텐츠 (예: 텍스트, 그림, 멀티미디어) 창출 능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
		유아 신체활동역량 (하위요인 4가지)	기본움직임 기술 건강체력 신체활동량 신체활동태도	문제해결 능력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유아교육분야 역량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 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18	이미경 외 (2019b)	유아 신체활동역량 (하위요인 4가지)	기본운동기술 건강체력 신체활동량 신체활동태도					
19	김민아, 김승희 (2019)	핵심역량 (역량 3가지와 그에 따른 하위요인)	절제 책임감	창 의 성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의사 소통 능력 존중 배려 행동 가치부여적 행동	의사 소통 능력 배려 행동 정서적행동	배려 행동 정서적 행동 능동적 행동 규범적 행동 가치 부여적 행동
20	오은순, 김윤희 (2019)	4차 산업 혁명 시대 유아 핵심역량 (역량 6가지)	신체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윤리적 인식 역량	소통 역량	
21	한현정 (2018)	살아가는 힘 (축 3가지)	튼튼하게 살기 위한 건강과 체력 스스로를 조절	확실한 학력		감동하는 마음 등의 풍부한 인간성	타인과 함께 협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22	이화도 (2017)	프랑스 핵심역량 (역량 7가지) 한국형 핵심역량 (역량 9가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자율성과 주도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적·도구 활용능력 수학과 과학 기술 지식의 요점 정보통신기술 숙련도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성	인본주의적 지식 다양성에 대한 이해 삶을 즐기는 능력	프랑스어 능력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으로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사회성과 예의 시민의식

유아교육분야 역량 관련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3	김영래 (2017)	인성교육 10대 역량 (역량 10가지)	자기관리·자아성찰·자아정체성	의사소통·갈등해결	연민·공감·관용·개방성·봉사	연민·공감·관용·개방성·봉사	의사소통·갈등해결	공동체의식·준법의식
			근면성·완전성					
24	이경민 (2017)	4차산업혁명시대와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 (대범주 3가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과 관점	비판적 사고·정의감	실적 삶을 향유 할 줄 아는 긍정인성	실적 삶을 향유 할 줄 아는 긍정인성	의사소통·갈등해결	공정적인 사회 관계능력
25	주용국, 이은화 (2016)	유아의 도덕적 인성역량 (하위 요인 3가지)	갈등을 관리	갈등을 관리	다른 사람을 존중 배려	다른 사람을 존중 배려	의사소통·갈등해결	다른 사람을 존중·배려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
26	최혜윤 (2015)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분석기준 (분석기준 3가지)	신체움직임(운동)	신체움직임(운동)	건강	안전	신체움직임(운동)	건강
			안전					
27	허명진 (2014)	청각장애아동의 사회적 역량 하위항목 (하위항목 4가지)	자기 자립심	자기 자립심	자기 자립심	자기 자립심	자기 자립심	사회집단
			삶의 대한 만족					
28	이윤옥 (2013)	사회적 기술 (최도 하위요인 4가지)	자기통제	자기통제	자기통제	자기통제	자기통제	협동
			자기주장					
		자아 탄력성 (최도 하위요인 4가지)	애착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주도성	주도성					
		자기통제 (최도 하위요인 4가지)	자기통제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					

유아교육분야 역량 관련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 번	저자 (연도)	중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형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9	김영옥 외 (2013)	유아의 사회적 역량 (구성요소 10가지)	자이존중감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표현	의사소통	사회적 태도	
			행동조절				정서표현		대인관계 기술
			긍정적 자아정체감				정서인식		사회적 문제해결
			자이존중감				정서인식		사회적 기술
29	김영옥 외 (2013)	유아의 정서역량 (구성요소 10가지)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정서표현	
			정서조절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자아정체감						
			자이개념						
29	김영옥 외 (2013)	유아의 정서역량 (구성요소 10가지)	행동조절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정서표현	
			자이존중감						의사소통능력
			행동조절						
			정서인식						
30	김미경 (2012)	자기 주도적 핵심역량 (주요요인 9가지)	정서조절	지식의 적용	호기심	정서인식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태도	
			정서인식						
			정서조절						
			긍정적 자아정체감						
30	김미경 (2012)	자기 주도적 핵심역량 (주요요인 9가지)	자기관리	지식의 적용	호기심	정서인식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기술	
			자기조절						
			신념						
			동기						
30	김미경 (2012)	자기 주도적 핵심역량 (주요요인 9가지)	휴식	지식의 적용	호기심	정서인식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기술	
			공동협력						
			비계						
			비계						

자료: 1) 임보영(2023).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정서역량과 교사의 사회정서교수역량 변화. p. 57 내용에서 하위요소 추출함.
 2) 김인나 외(2023). 미래사회에 필요한 유아의 핵심역량과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pp. 35-36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3) 이은철, 변영신(2023). 유아 인공지는 교육을 위한 인공지는 핵심역량 요소 구성 연구. p. 59 내용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4) 박만구, 임현정, 박현지, 김영현(2023). 수학 교과 역량 검사 도구 개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수준을 대상으로. pp. 193-194 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5) 김경철, 이민영(2023). 유아의 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쓰기 특성 분석. p. 225 내용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6) 권해민, 이유미(2023). 지속가능 식생활교육을 위한 뒷받침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역량과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p. 120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7) 윤혜영, 김지연(2023).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신체활동 지원환경과 미디어 사용 시간이 유아의 신체역량에 미치는 영향. p. 136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 추출함.
- 8) 남지영, 정혜원(2022). 유아 사회정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p. 1107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9) 조경진(2022). 유아 메이커 마인드셋: 메이커 마인드셋과 21세기 역량. p. 175 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0) 이미경, 부성숙(2021). 유아의 신체활동역량이 놀이성, 도래유능성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p. 1020 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1) 김민정, 이현진(20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협력에 기반한 협동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적해결력과 정서기능에 미치는 효과. pp. 224-225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2) 안나영(2021). 가정연계 신체활동이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p. 354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3) 김근주(2020). 유아의 창의적 인재 역량 척도 개발에 대한 예비연구. pp. 557-563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4) 공은숙, 김유미(2020). 신체활동 유형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신체활동 역량 차이 비교. pp. 117-119 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5) 김가현, 신태성(2020). 아 대상 미술 기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p. 307 내용을 인용함.
 - 16) 이재은, 김준수(2020). 복유립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아 소프트웨어(SW) 교육 고찰. pp. 234-235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7) 이미경 외(2019a). 복유립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아 소프트웨어(SW) 교육 고찰. pp. 234-235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8) 이미경 외(2019b).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역량 차이. p. 109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19) 김민아, 김승희(2019). 핵심역량 중심 유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pp. 164-165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0) 오은수, 김윤희(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 핵심역량과 유아교육 방향. pp. 1013-1014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1) 한현정(2018). 일본의 영유아 역량개발에 관한 최근의 논의 고찰. pp. 45-46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2) 이화도(2017). A Case of study Key Competencies-bas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France. pp. 48-49. p. 51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3) 김영래(2017).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SEL). p. 41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4) 이경민(2017). 새로운 시대 인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 4차 산업혁명시대와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담론을 중심으로. p. 149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5) 주용국, 이은화(2016). 유아핵심인성역량 수업을 통한 민화반, 동화반 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비교분석. p. 513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6) 최혜윤(2015). 유아교육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핵심역량 개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p.14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7) 허명진(2014). 인공와우를 활용한 정감장애아동의 의사소통 활용에 따른 사회역량변화: 부모실문을 기초로. p. 90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8) 이윤옥(2013). 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기법 연계 감성코칭문제해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pp. 168-169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29) 김영옥, 박미자, 서현(2013). 유아의 사회적 정서역량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pp. 508-509. p. 511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 30) 김미경(2012). 자기 주도적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의 핵심역량고찰. pp. 9-10에서 유아 역량 하위요소 추출함.

부록 2. 영유아기 미래 역량 도출을 위한 언론 기사 분석 관련 표

〈부록 표 III -3-2〉 기간별 미래사회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화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화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화제어	2022	2023	2022-2023
1	세계	588	586	580	1,754	세계	825	1,025	1,009	1,113	3,972	세계	1,203	1,445	1,418	4,066	세계	1,284	1,075	2,359
2	교육	327	324	306	957	교육	481	678	755	784	2,698	교육	844	766	888	2,498	교육	830	634	1,464
3	창의	309	444	372	1,125	창의	626	845	836	782	3,089	창의	674	593	608	1,875	창의	587	449	1,036
4	지연	224	256	239	719	지연	369	492	577	605	2,043	지연	667	678	824	2,169	지연	801	567	1,368
5	부모	342	352	314	1,008	부모	488	476	578	646	2,188	부모	670	442	502	1,614	부모	460	429	889
6	생각	327	279	285	891	생각	393	466	516	593	1,968	생각	588	542	592	1,722	생각	503	397	900
7	시작	255	237	234	726	시작	313	434	452	554	1,753	시작	575	565	647	1,787	시작	562	398	960
8	정책	223	217	208	648	정책	316	391	468	484	1,659	정책	552	540	634	1,726	정책	644	482	1,126
9	환경	218	212	204	634	환경	283	383	395	419	1,480	환경	486	586	772	1,844	환경	643	484	1,127
10	역량	163	169	191	523	역량	249	388	518	544	1,699	역량	560	542	628	1,730	역량	599	441	1,040
11	운영	194	173	194	561	운영	321	393	470	491	1,675	운영	534	536	609	1,679	운영	619	427	1,046
12	참여	191	202	195	588	참여	298	401	483	534	1,716	참여	492	540	651	1,683	참여	567	389	956
13	국가	217	206	234	657	국가	328	404	434	447	1,613	국가	480	522	572	1,574	국가	527	432	959
14	해결	219	208	200	627	해결	290	367	488	511	1,656	해결	510	436	564	1,510	해결	563	423	986
15	발전	215	216	206	637	발전	320	441	447	436	1,644	발전	475	498	544	1,517	발전	567	390	957
16	계획	192	158	195	545	계획	279	365	403	439	1,486	계획	456	534	627	1,617	계획	543	434	977
17	노력	192	204	215	611	노력	314	367	413	451	1,545	노력	489	491	533	1,513	노력	512	385	897
18	사람	250	254	259	763	사람	320	405	436	445	1,606	사람	473	487	469	1,429	사람	428	337	765
19	성장	187	193	169	549	성장	289	337	412	448	1,486	성장	510	527	581	1,618	성장	552	355	907
20	강화	159	153	165	477	강화	246	332	377	477	1,432	강화	431	534	587	1,552	강화	573	352	925
21	평가	191	185	204	580	평가	305	392	437	477	1,611	평가	443	421	497	1,361	평가	475	354	829
22	활동	180	194	156	530	활동	280	400	366	449	1,495	활동	475	420	536	1,431	활동	571	342	913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23	결과	206	169	172	547	281	351	412	463	1,507	469	454	465	1,388	449	356	805
24	활용	150	147	161	458	223	354	348	419	1,344	425	510	564	1,499	502	440	942
25	혁신	82	112	143	337	180	336	420	396	1,332	483	539	579	1,601	542	394	936
26	학교	199	201	170	570	283	374	439	439	1,535	466	378	472	1,316	451	317	768
27	학대	151	152	139	442	235	284	377	432	1,328	457	476	514	1,447	526	376	902
28	추진	136	141	171	448	245	324	366	373	1,308	397	482	568	1,447	526	388	914
29	사업	138	155	155	448	213	320	359	374	1,266	414	500	578	1,492	557	342	899
30	문화	196	192	167	555	312	347	324	402	1,385	423	399	447	1,269	489	365	854

〈부록 표 III -3-3〉 기간별 미래사회 교육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1	세계	382	373	342	1,097	517	638	673	686	2,514	747	854	744	2,345	698	641	1,339
2	창의	242	289	231	762	463	682	702	663	2,510	564	427	473	1,464	474	353	827
3	지원	162	175	154	491	246	353	436	436	1,471	473	448	555	1,476	555	380	935
4	부모	239	266	224	729	356	379	436	508	1,679	518	321	392	1,231	368	338	706
5	역량	113	115	119	347	181	308	416	441	1,346	440	390	461	1,291	457	336	793
6	운영	147	126	128	401	237	319	363	374	1,293	400	391	443	1,234	459	297	756
7	인재	151	134	118	403	193	289	390	399	1,271	359	335	363	1,057	380	283	663
8	생각	175	144	130	449	232	277	322	362	1,193	354	295	332	981	321	252	573
9	참여	125	116	114	355	187	282	337	368	1,174	317	332	392	1,041	366	243	609
10	평가	125	118	138	381	217	289	319	345	1,170	334	275	321	930	332	240	572
11	시작	139	116	120	375	179	270	287	331	1,067	345	310	384	1,039	333	233	566
12	강화	105	97	92	294	173	257	287	345	1,062	316	341	401	1,058	383	242	625
13	해결	118	117	117	352	183	233	347	340	1,103	340	268	336	944	349	261	610

구분	화제어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4	환경	135	119	122	152	260	262	281	955	298	301	421	1,020	389	266	655
15	활동	121	136	87	178	286	279	320	1,063	338	261	344	943	386	215	601
16	프로그램	130	117	98	189	298	287	331	1,105	297	304	318	919	334	244	578
17	정책	122	126	121	175	226	291	280	972	317	291	340	948	364	277	641
18	계획	140	110	107	185	269	286	269	1,009	295	293	380	988	339	247	586
19	노력	114	115	128	184	226	286	292	988	329	270	312	911	322	242	564
20	성장	122	121	79	182	220	254	279	935	323	317	342	982	346	229	575
21	양성	94	108	111	141	247	328	303	1,019	281	270	346	897	318	255	573
22	발전	114	129	105	175	277	284	252	988	285	299	292	876	333	243	576
23	국가	115	110	129	202	245	281	267	995	295	298	290	883	309	246	555
24	활용	94	87	91	134	237	233	277	881	293	333	362	988	340	275	615
25	혁신	57	63	78	114	232	290	260	896	311	332	363	1,006	360	260	620
26	확대	90	95	85	143	207	263	298	911	310	298	343	951	343	221	564
27	준비	119	97	88	174	244	284	270	972	306	310	296	912	319	185	504
28	추진	101	85	107	158	223	251	250	882	248	271	344	863	309	237	546
29	사업	90	94	98	138	219	263	248	868	240	294	340	874	348	200	548
30	기회	102	97	82	174	214	235	251	874	286	277	330	893	284	209	493

〈부록 표 III -3-4〉 기간별 미래사회 학교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교육	178	164	148	240	327	392	391	1,350	408	309	416	1,133	387	283	670	
2	세계	221	195	177	285	331	378	356	1,350	370	300	360	1,030	366	282	648	
3	부모	191	228	191	331	283	386	423	1,423	413	266	312	991	314	239	553	
4	창의	175	168	137	320	361	437	414	1,532	328	235	279	842	307	206	513	
5	지원	92	110	80	150	191	254	240	835	269	207	298	774	290	180	470	
6	생각	132	123	94	174	177	241	248	840	230	184	208	622	238	152	390	
7	운영	94	74	78	168	183	242	215	808	242	210	246	698	261	163	424	
8	역량	74	70	54	110	182	261	261	814	260	161	254	675	268	176	444	
9	참여	83	78	62	116	174	232	226	748	202	186	217	605	212	124	336	
10	수업	74	65	68	126	180	217	184	707	180	190	240	610	210	138	348	
11	활동	88	84	55	118	192	198	212	720	228	153	185	566	229	122	351	
12	평가	80	91	74	143	173	213	214	743	216	135	193	544	199	130	329	
13	시작	101	85	77	110	149	199	219	677	202	178	221	601	191	122	313	
14	인재	93	85	61	123	147	230	220	720	199	145	188	532	196	154	350	
15	준비	83	70	58	118	150	193	190	651	204	181	173	558	208	100	308	
16	프로그램	87	73	57	129	176	186	203	694	161	155	162	478	200	136	336	
17	해결	78	85	65	118	145	201	194	658	197	123	182	502	204	129	333	
18	노력	73	88	81	129	135	172	179	615	187	153	171	511	175	143	318	
19	교사	78	67	66	94	150	192	202	638	195	157	187	539	169	126	295	
20	강화	70	72	55	97	139	151	199	586	169	145	218	532	212	130	342	
21	결과	74	74	64	114	130	180	180	604	186	152	189	527	192	121	313	
22	학습	77	63	34	102	161	168	170	601	180	155	198	533	206	129	335	
23	계획	79	78	52	113	154	169	147	583	166	159	214	539	174	133	307	
24	활용	68	59	55	85	146	151	173	555	173	174	210	567	186	152	338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회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회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회제어	2022	2023	2022-2023
25	능력	90	77	45	212	능력	134	172	203	197	706	능력	189	82	158	429	능력	143	116	259
26	환경	73	70	71	214	환경	70	129	127	155	481	환경	158	155	241	554	환경	237	120	357
27	정책	63	73	83	219	정책	98	118	176	147	539	정책	185	137	180	502	정책	202	131	333
28	성장	70	82	47	199	성장	105	125	148	171	549	성장	194	156	178	528	성장	188	116	304
29	관심	82	68	67	217	관심	124	134	159	165	582	관심	201	136	146	483	관심	176	119	295
30	경험	71	61	39	171	경험	95	120	152	178	545	경험	168	130	186	484	경험	195	106	301

〈부록 표 III -3-5〉 기간별 미래사회 유치원 변화 관련 회제어(Top30)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회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회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회제어	2022	2023	2022-2023
1	부모	0	39	26	65	부모	48	14	53	34	149	부모	64	42	30	136	부모	37	45	82
2	교육	1	14	8	23	교육	16	13	27	21	77	교육	34	25	30	89	교육	26	21	47
3	세계	2	21	4	27	세계	12	16	15	11	54	세계	31	35	20	86	세계	16	20	36
4	학교	0	10	7	17	학교	16	10	26	15	67	학교	18	21	25	64	학교	21	16	37
5	창의	0	14	7	21	창의	10	13	18	15	56	창의	26	30	30	86	창의	6	8	14
6	지원	1	8	7	16	지원	6	11	21	16	54	지원	18	21	17	56	지원	23	21	44
7	정책	1	7	5	13	정책	10	6	13	15	44	정책	26	21	18	65	정책	18	15	33
8	생각	1	12	6	19	생각	11	10	13	17	51	생각	19	19	14	52	생각	11	14	25
9	환경	2	7	3	12	환경	9	7	8	10	34	환경	19	20	20	59	환경	19	16	35
10	국가	1	4	3	8	국가	11	6	12	14	43	국가	20	16	18	54	국가	16	12	28
11	시작	1	9	3	13	시작	13	9	14	12	48	시작	11	20	14	45	시작	17	8	25
12	운영	1	10	8	19	운영	11	10	19	10	50	운영	14	11	11	36	운영	16	10	26
13	참여	1	12	8	21	참여	7	5	20	15	47	참여	17	13	13	43	참여	8	10	18
14	제도	0	7	6	13	제도	8	5	12	14	39	제도	20	22	15	57	제도	8	11	19
15	해결	1	7	8	16	해결	16	6	13	9	44	해결	18	13	13	44	해결	11	12	23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화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화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화제어	2022	2023	2022-2023
		1	9	1	11		수준	8	12	13	44		수준	14	10	20		44	수준	16
16	수준	1	9	1	11	수준	8	12	13	44	수준	14	10	20	44	수준	16	10	26	
17	강화	1	3	4	8	강화	4	14	15	37	강화	11	21	15	47	강화	16	13	29	
18	사람	1	11	6	18	사람	6	11	14	40	사람	12	19	12	43	사람	6	12	18	
19	역량	0	4	4	8	역량	5	4	16	35	역량	14	18	14	46	역량	16	14	30	
20	활동	0	14	1	15	활동	11	9	10	41	활동	17	10	13	40	활동	12	10	22	
21	확대	2	6	2	10	확대	4	5	13	36	확대	17	18	16	51	확대	11	9	20	
22	평가	0	8	4	12	평가	7	4	15	33	평가	17	11	16	44	평가	17	11	28	
23	수업	0	7	2	9	수업	9	8	12	44	수업	14	8	16	38	수업	15	9	24	
24	계획	0	3	8	11	계획	9	7	12	38	계획	17	8	15	40	계획	8	16	24	
25	추진	1	3	4	8	추진	5	4	16	36	추진	11	16	14	41	추진	18	6	24	
26	성장	1	7	4	12	성장	9	5	11	32	성장	13	12	16	41	성장	17	6	23	
27	개선	1	4	2	7	개선	5	3	11	26	개선	15	20	11	46	개선	16	11	27	
28	현상	0	2	5	7	현상	10	8	14	41	현상	8	16	12	36	현상	16	5	21	
29	노력	2	8	7	17	노력	11	8	10	41	노력	11	9	7	27	노력	9	8	17	
30	결과	0	3	2	5	결과	7	6	11	31	결과	16	15	13	44	결과	13	9	22	

〈부록 표 III -3-6〉 기간별 미래사회 어린이집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5-	2018	2019	2020	2021	2019-	2021	2022	2023	2022-	2023
		2012	2013	2014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	2015-	2018	2019	2020	2021	2019-	2021	2022	2023	2022-
1	부모	4	19	18	41	33	14	31	30	108	32	21	14	67	49	34	83				
2	세계	13	14	24	51	26	20	8	13	67	27	19	0	46	20	17	37				
3	지원	6	16	10	32	13	18	11	22	64	25	18	14	57	20	23	43				
4	교육	8	12	16	36	10	7	12	20	49	21	8	14	43	19	20	39				
5	정책	5	13	16	34	6	15	7	18	46	24	10	11	45	18	19	37				
6	계획	5	7	11	23	13	13	4	20	50	16	19	9	44	13	21	34				
7	시작	8	11	11	30	11	10	12	16	49	16	9	13	38	17	12	29				
8	문화	7	9	6	22	15	14	5	16	50	16	13	10	39	17	16	33				
9	사업	8	11	6	25	11	10	3	18	42	14	14	11	39	22	12	34				
10	운영	7	13	15	35	9	11	9	14	43	11	12	7	30	18	10	28				
11	해결	5	10	15	30	9	7	11	20	47	14	7	7	28	16	12	28				
12	사람	5	11	15	31	7	9	14	16	46	14	11	7	32	15	8	23				
13	추진	5	10	10	25	11	8	3	12	34	16	16	14	46	16	11	27				
14	생각	6	6	12	24	11	11	13	17	52	15	8	5	28	14	13	27				
15	확대	4	9	5	18	10	9	6	19	44	16	17	8	41	12	15	27				
16	환경	5	6	13	24	4	11	4	17	36	13	12	10	35	12	15	27				
17	노력	7	4	12	23	9	8	7	17	41	14	12	6	32	13	9	22				
18	보육	6	8	9	23	13	5	9	16	43	9	8	3	20	14	18	32				
19	참여	7	11	15	33	10	6	9	17	42	12	4	4	20	11	12	23				
20	생활	6	6	10	22	7	10	11	14	42	13	10	11	34	15	3	18				
21	개선	4	7	8	19	11	8	6	14	39	11	10	9	30	18	8	26				
22	제도	0	6	12	18	9	10	5	15	39	13	11	6	30	15	12	27				
23	국가	5	5	8	18	10	12	5	10	37	18	10	3	31	14	11	25				
24	강화	4	4	8	16	8	10	3	18	39	11	11	8	30	9	16	25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25	창의	4	6	34	44	18	7	8	4	37	8	4	4	16	8	3	11
26	역량	2	11	12	25	6	8	4	12	30	12	8	6	26	12	12	24
27	성장	7	5	10	22	10	7	3	14	34	11	8	7	26	11	11	22
28	수준	2	6	11	19	9	13	3	10	35	12	6	3	21	15	12	27
29	구축	3	7	7	17	11	4	3	7	25	11	15	7	33	11	13	24
30	활동	8	9	2	19	2	8	5	14	29	9	10	6	25	14	12	26

〈부록 표 Ⅲ -3-7〉 기간별 미래사회 유아교육 변화 관련 회제어(Top30)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1	부모	9	2	0	11	3	2	3	12	20	0	5	2	7	24	3	27
2	세계	10	2	0	12	3	4	2	12	21	2	7	2	11	9	2	11
3	학교	3	2	0	5	3	1	2	6	12	2	5	3	10	13	6	19
4	역량	2	4	0	6	2	2	2	6	12	2	6	2	10	10	6	16
5	창의	3	2	0	5	0	7	4	10	21	2	2	5	9	6	1	7
6	운영	2	4	0	6	5	4	3	4	16	2	6	0	8	7	5	12
7	인재	2	2	0	4	2	4	3	6	15	2	5	3	10	7	3	10
8	지원	0	4	0	4	2	2	1	4	9	2	6	3	11	8	6	14
9	발전	4	4	0	8	2	1	1	4	8	0	6	0	6	9	3	12
10	역할	2	4	0	6	4	1	3	3	11	0	3	3	6	8	2	10
11	강화	1	2	0	3	4	3	0	5	12	2	4	2	8	7	3	10
12	성장	5	2	0	7	3	1	0	6	10	0	5	0	5	7	4	11
13	혁신	0	0	0	0	0	0	3	9	12	2	5	3	10	9	1	10
14	정책	1	4	0	5	2	0	1	2	5	0	2	3	5	11	6	17
15	준비	2	2	0	4	2	3	1	10	16	0	3	0	3	6	2	8

구분	회제어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2023	2022-2023			
16	국가	2	2	0	4	2	0	1	7	10	국가	0	5	3	8	국가	8	1	9
17	체계	0	0	0	0	5	4	1	4	14	체계	2	4	2	8	체계	4	5	9
18	평가	2	0	0	2	3	1	1	4	9	평가	0	1	2	3	평가	12	4	16
19	환경	3	2	0	5	3	2	1	6	12	환경	0	3	3	6	환경	5	0	5
20	인공지능	0	0	0	0	0	3	4	0	7	인공지능	2	4	5	11	인공지능	8	2	10
21	전공	3	2	0	5	2	4	1	3	10	전공	2	2	3	7	전공	3	2	5
22	교육과정	0	2	0	2	3	5	2	5	15	교육과정	0	4	0	4	교육과정	2	4	6
23	프로그램	0	4	0	4	2	4	0	4	10	프로그램	2	4	0	6	프로그램	5	2	7
24	시작	3	2	0	5	2	0	1	4	7	시작	0	3	4	7	시작	8	0	8
25	양성	2	0	0	2	3	4	2	2	11	양성	2	4	2	8	양성	5	1	6
26	수준	0	2	0	2	2	0	2	4	8	수준	2	2	2	6	수준	10	0	10
27	이해	2	0	0	2	4	1	2	3	10	이해	0	4	3	7	이해	4	2	6
28	전문가	3	2	0	5	2	2	1	5	10	전문가	2	2	1	5	전문가	5	0	5
29	현장	5	2	0	7	2	3	0	1	6	현장	0	2	2	4	현장	4	4	8
30	능력	2	2	0	4	2	2	3	5	12	능력	0	1	2	3	능력	4	2	6

〈부록 표 III -3-8〉 기간별 미래사회 보육 변화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화제어	회제어	화제어	회제어	화제어	회제어	화제어	회제어
1	부모	39	부모	30	부모	30	부모	58
2	세계	42	세계	16	세계	20	세계	38
3	지원	27	지원	18	지원	25	지원	38
4	정책	20	정책	19	정책	20	정책	35
5	교육	21	교육	24	교육	24	교육	37
6	국가	25	국가	16	국가	15	국가	25
7	계획	20	계획	13	계획	19	계획	26
8	해결	17	해결	18	해결	17	해결	24
9	확대	15	확대	12	확대	23	확대	23
10	문화	25	문화	6	문화	18	문화	30
11	시작	17	시작	14	시작	17	시작	29
12	운영	19	운영	16	운영	17	운영	27
13	생각	16	생각	13	생각	15	생각	25
14	추진	20	추진	18	추진	16	추진	21
15	환경	12	환경	11	환경	19	환경	20
16	제도	20	제도	18	제도	14	제도	19
17	개선	16	개선	14	개선	13	개선	27
18	사업	14	사업	4	사업	13	사업	29
19	참여	17	참여	13	참여	16	참여	24
20	강화	14	강화	12	강화	15	강화	17
21	출산	14	출산	9	출산	16	출산	12
22	성장	15	성장	4	성장	12	성장	23
23	노력	11	노력	10	노력	20	노력	23
24	수준	15	수준	9	수준	14	수준	21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회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회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회제어	2022	2023	2022-2023
25	창의	10	8	19	37	창의	28	7	13	11	59	창의	8	13	7	28	창의	14	12	26
26	사람	7	7	11	25	사람	11	4	12	21	48	사람	16	11	5	32	사람	21	23	44
27	발전	9	10	11	30	발전	13	3	9	15	40	발전	14	19	3	36	발전	27	16	43
28	결과	3	4	11	18	결과	12	5	16	14	47	결과	18	18	0	36	결과	18	24	42
29	역량	4	9	8	21	역량	10	4	13	16	43	역량	10	16	4	30	역량	18	26	44
30	구축	5	7	9	21	구축	9	3	15	11	38	구축	13	19	2	34	구축	22	22	44

〈부록 표 III -3-9〉 기간별 미래사회 인간상 관련 회제어(Top30)

구분	회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회제어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회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회제어	2022	2023	2022-2023
1	창의	0	0	4	4	창의	12	4	0	15	31	창의	1	0	4	5	창의	10	4	14
2	교육	1	1	7	9	교육	6	12	2	6	26	교육	1	1	6	8	교육	4	2	6
3	변화	0	0	6	6	변화	4	8	2	4	18	변화	0	0	4	4	변화	4	4	8
4	학교	0	0	5	5	학교	5	11	0	4	20	학교	0	1	4	5	학교	4	2	6
5	세계	0	1	6	7	세계	4	7	2	7	20	세계	0	0	3	3	세계	2	0	2
6	생각	1	0	2	3	생각	5	3	2	2	12	생각	0	2	5	7	생각	4	2	6
7	사람	0	1	0	1	사람	6	7	2	2	17	사람	0	1	3	4	사람	4	2	6
8	국가	0	1	5	6	국가	5	10	0	4	19	국가	0	0	2	2	국가	0	0	0
9	현장	0	1	7	8	현장	2	9	0	2	13	현장	1	0	5	6	현장	0	0	0
10	자원	1	0	4	5	자원	2	6	0	4	12	자원	0	1	5	6	자원	2	0	2
11	부모	0	0	9	9	부모	0	7	0	3	10	부모	0	0	2	2	부모	4	0	4
12	주도	0	0	2	2	주도	2	2	0	8	12	주도	1	0	2	3	주도	4	2	6
13	교육과정	0	0	5	5	교육과정	2	3	0	6	11	교육과정	1	0	2	3	교육과정	4	0	4
14	융합	0	0	8	8	융합	4	2	0	6	12	융합	0	1	2	3	융합	0	0	0
15	능력	1	0	1	2	능력	4	6	0	3	13	능력	0	0	2	2	능력	4	2	6

구분	화제어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	논의	0	0	6	1	7	2	2	12	논의	0	0	0	2	4
17	참여	0	0	5	3	0	0	5	8	참여	0	1	4	2	4
18	핵심	0	0	5	2	8	0	4	14	핵심	1	0	0	2	0
19	의미	0	0	6	0	7	2	0	9	의미	0	2	3	2	0
20	지식	0	0	1	2	6	0	4	12	지식	0	1	1	4	2
21	추구	0	1	7	2	5	0	2	9	추구	0	0	3	0	2
22	교과	0	0	5	2	3	0	5	10	교과	0	1	2	2	0
23	혁신	0	0	0	2	6	0	4	12	혁신	0	0	2	4	2
24	환경	0	0	6	0	0	0	4	4	환경	0	1	5	2	2
25	방향	0	0	7	2	3	2	2	9	방향	0	0	2	2	0
26	가치	0	1	3	2	2	2	4	10	가치	0	1	3	2	0
27	수업	0	0	5	3	2	0	4	9	수업	1	0	2	2	0
28	요구	0	1	7	3	0	0	4	7	요구	0	1	0	2	2
29	평가	0	0	1	3	4	0	6	13	평가	0	0	2	2	0
30	인재	0	0	5	3	2	0	6	11	인재	0	0	0	0	2

〈부록 표 III -3-10〉 기간별 미래사회 역량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화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화제어	2022	2023	2022-2023
1	세계	394	376	335	1,105	493	619	696	805	2,613	세계	800	936	864	2,600	세계	919	798	1,717
2	교육	188	208	197	593	327	487	606	676	2,096	교육	699	589	719	2,007	교육	696	565	1,261
3	창의	179	295	294	768	498	641	696	706	2,541	창의	588	438	486	1,512	창의	494	362	856
4	지원	150	198	186	534	279	371	492	538	1,680	지원	573	519	673	1,765	지원	695	508	1,203
5	변화	163	169	191	523	249	388	518	544	1,699	변화	560	542	628	1,730	변화	599	441	1,040
6	강화	134	156	151	441	226	322	361	452	1,361	강화	413	449	583	1,445	강화	572	359	931
7	운영	114	134	135	383	226	324	412	464	1,426	운영	457	428	537	1,422	운영	524	415	939
8	인재	133	154	121	408	208	302	402	453	1,365	인재	436	349	425	1,210	인재	434	348	782
9	참여	110	116	116	342	162	283	396	424	1,265	참여	359	364	496	1,219	참여	421	335	756
10	계획	114	146	136	396	180	287	298	328	1,093	계획	317	375	457	1,149	계획	452	362	814
11	사업	96	140	139	375	139	250	321	331	1,041	사업	338	368	480	1,186	사업	475	310	785
12	평가	121	119	136	376	208	276	360	373	1,217	평가	396	319	379	1,094	평가	408	278	686
13	성장	114	139	109	362	185	230	305	376	1,096	성장	360	373	429	1,162	성장	426	299	725
14	프로그램	104	119	102	325	181	287	326	390	1,184	프로그램	360	325	374	1,059	프로그램	364	330	694
15	부모	133	126	91	350	232	234	385	421	1,272	부모	447	257	282	986	부모	347	287	634
16	활동	99	125	104	328	168	270	306	391	1,135	활동	407	273	373	1,053	활동	447	274	721
17	학교	116	127	93	336	184	268	348	387	1,187	학교	402	264	355	1,021	학교	383	277	660
18	활용	79	88	104	271	165	247	261	339	1,012	활용	362	367	422	1,151	활용	394	360	754
19	발전	116	142	111	369	194	276	317	322	1,109	발전	311	310	372	993	발전	409	305	714
20	추진	94	119	119	332	160	239	296	311	1,006	추진	296	327	429	1,052	추진	415	316	731
21	확대	89	110	91	290	156	215	305	335	1,011	확대	344	336	422	1,102	확대	415	295	710
22	환경	106	124	105	335	134	224	249	276	883	환경	299	328	482	1,109	환경	459	320	779
23	양성	86	118	112	316	156	255	330	319	1,060	양성	329	291	398	1,018	양성	379	315	694
24	노력	102	114	123	339	190	240	300	331	1,061	노력	337	307	363	1,007	노력	385	281	666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25	혁신	44	81	87	212	118	226	314	294	952	354	350	456	1,160	423	325	748
26	해결	90	102	111	303	163	219	336	368	1,086	338	286	344	968	412	278	690
27	정책	102	114	118	334	159	199	297	308	963	279	288	367	934	405	307	712
28	시작	96	97	124	317	155	244	304	312	1,015	306	295	370	971	363	262	625
29	국가	104	117	133	354	176	227	276	281	960	280	313	350	943	358	288	646
30	생각	114	123	123	360	176	197	285	356	1,014	323	258	318	899	307	239	546

〈부록 표 III -3-11〉 기간별 미래사회 역량 영역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1	세계	237	174	143	554	292	367	429	440	1,528	485	343	373	1,201	418	307	725
2	창의	136	127	150	413	353	484	447	488	1,772	436	261	333	1,030	322	234	556
3	교육	124	127	108	359	223	347	386	433	1,389	468	330	428	1,226	418	315	733
4	지연	88	108	80	276	149	235	277	308	969	337	255	339	931	343	247	590
5	변화	84	74	78	236	135	240	281	312	968	307	230	309	846	295	203	498
6	운영	72	76	56	204	148	231	257	304	940	299	242	297	838	306	233	539
7	인재	93	92	61	246	156	214	296	318	984	311	230	269	810	263	195	458
8	학교	85	98	57	240	154	225	267	309	955	327	203	282	812	283	207	490
9	부모	83	97	52	232	189	196	295	318	998	345	198	230	773	256	196	452
10	강화	70	72	50	192	132	213	199	255	799	248	202	279	729	271	172	443
11	평가	84	78	72	234	144	207	246	236	833	287	175	214	676	240	157	397
12	프로그램	59	69	53	181	133	210	213	263	819	246	221	202	669	235	185	420
13	양성	60	61	52	173	110	187	234	232	763	235	192	237	664	227	178	405
14	참여	54	49	52	155	96	192	230	260	778	212	185	222	619	222	150	372

구분	화제어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2023	
15	활동	62	64	42	168	185	191	239	730	269	155	186	610	252	144	396
16	학습	63	48	25	136	184	184	201	665	222	197	214	633	246	152	398
17	수업	44	31	37	112	176	211	218	701	199	175	234	608	222	157	379
18	융합	37	44	46	127	166	220	231	707	240	190	188	618	203	134	337
19	계획	73	72	42	187	191	175	172	629	180	173	234	587	193	157	350
20	교육과정	56	22	51	129	154	225	205	687	195	182	224	601	186	132	318
21	능력	79	49	44	172	186	202	221	742	234	112	161	507	166	123	289
22	활용	41	45	41	127	150	161	191	592	223	180	215	618	196	173	369
23	해결	48	43	51	142	138	202	200	633	205	134	179	518	199	132	331
24	성장	51	58	37	146	141	152	188	582	195	163	205	563	202	127	329
25	확대	41	56	30	127	139	169	192	587	214	143	206	563	192	136	328
26	노력	54	55	45	154	136	172	175	585	207	151	177	535	186	140	326
27	준비	58	47	40	145	128	183	182	578	192	168	169	529	211	120	331
28	확신	29	29	34	92	146	167	152	522	211	162	232	605	194	154	348
29	주도	43	33	36	112	154	182	184	586	167	149	212	528	201	130	331
30	사업	54	62	49	165	147	178	179	574	173	149	191	513	181	117	298

〈부록 표 III -3-12〉 기간별 미래사회 영유아 역량 관련 화제어(Top30)

구분	화제어	2012	2013	2014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화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화제어	2022	2023	2022-2023
1	부모	0	2	0	2	2	0	1	8	5	14	부모	14	1	2	17	부모	19	17	36
2	교육	0	4	0	4	4	2	1	5	6	14	교육	11	0	3	14	교육	16	16	32
3	지인	0	4	0	4	4	2	1	3	6	12	지인	9	1	2	12	지인	11	13	24
4	변화	0	4	0	4	4	2	0	4	4	10	변화	6	0	2	8	변화	12	14	26
5	운영	0	4	0	4	4	2	1	3	6	12	운영	7	1	1	9	운영	9	10	19
6	환경	0	4	0	4	4	2	1	1	5	9	환경	10	0	3	13	환경	9	9	18
7	강화	0	2	0	2	2	2	1	1	2	6	강화	7	1	3	11	강화	15	10	25
8	세계	0	4	0	4	4	4	0	7	6	17	세계	7	0	0	7	세계	5	10	15
9	계획	0	2	0	2	2	2	1	1	3	7	계획	10	0	0	10	계획	8	12	20
10	정책	0	4	0	4	4	0	0	2	3	5	정책	5	1	2	8	정책	9	12	21
11	확대	0	4	0	4	4	0	1	0	4	5	확대	10	0	2	12	확대	8	8	16
12	추진	0	2	0	2	2	2	0	1	3	6	추진	6	1	2	9	추진	12	7	19
13	시작	0	4	0	4	4	2	1	5	1	9	시작	1	1	3	5	시작	10	8	18
14	체계	0	2	0	2	2	0	0	0	6	6	체계	7	1	2	10	체계	7	9	16
15	프로그램	0	4	0	4	4	2	0	5	2	9	프로그램	3	0	1	4	프로그램	7	10	17
16	서비스	0	4	0	4	4	2	0	1	3	6	서비스	6	0	0	6	서비스	9	9	18
17	해결	0	4	0	4	4	0	0	2	4	6	해결	5	0	3	8	해결	5	9	14
18	학습	0	0	0	0	0	0	0	2	3	5	학습	4	0	3	7	학습	8	12	20
19	문화	0	4	0	4	4	0	0	2	4	6	문화	8	0	0	8	문화	6	7	13
20	노력	0	2	0	2	2	2	1	3	2	8	노력	5	0	0	5	노력	8	8	16
21	수준	0	2	0	2	2	0	0	2	1	3	수준	4	1	2	7	수준	9	10	19
22	사업	0	4	0	4	4	2	1	1	3	7	사업	5	0	3	8	사업	8	3	11
23	성장	0	2	0	2	2	0	1	3	3	7	성장	4	0	0	4	성장	9	7	16
24	양성	0	2	0	2	2	0	0	3	0	3	양성	5	0	3	8	양성	3	13	16

구분	2012-2014				2015-2018				2019-2021				2022-2023				
	2012	2013	2014	2012-2014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화제어	2019	2020	2021	2019-2021	2022	2023	2022-2023
25	0	2	0	2	0	0	3	2	5	구축	5	1	0	6	3	12	15
26	0	2	0	2	0	0	2	3	5	구축	3	0	2	5	7	9	16
27	0	2	0	2	0	1	1	5	7	구축	6	0	0	6	7	5	12
28	0	4	0	4	2	1	3	3	9	구축	3	0	1	4	3	7	10
29	0	2	0	2	0	1	0	4	5	구축	4	0	3	7	6	7	13
30	0	2	0	2	0	0	4	5	9	구축	1	0	0	1	7	8	15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표

〈부록 표 III-4-1〉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의견
역량을 기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함 지나치게 지식 전달식 혹은 활동 중심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계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 사고, 탐구,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방향성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함. 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사료됨. 1차적으로 대강화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정수만을 제안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제적 구현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 개인의 속성인지, 행동인지, 행위의 결과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의 지식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량함양교육은 "수행"과 관련되므로 성취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시행할 것인지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과정중심 유아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지식의 적용과정과 관련되는지, 아니면 개념적 지식의 깊은 이해와 탐구를 통해 길러지는지 각각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역량이 학습의 전이를 중요한 속성으로 한다는 점, 학습의 의미에서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강조한다는 점(삶과의 연계/연속성), 유아교육과정이 교과 기반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과정의 역량함양 교육과정은 적합한 구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연구진이 질문으로 제기하신 것과 같이 무엇을 역량으로 정의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음 전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놀이중심교육과정 속에서 놀이를 통해 유아가 습득하는 또는 길러지는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교육기관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개개인의 생물학적 타고난 여러 조건과 환경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기를 희망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불가한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 및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식을 정확히 획득하는 능력보다 지식을 통합하고 분석하며, 공유하고 활용하는 능력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접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습자의 역량신장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에 기반한 인재상이 자칫 교육의 목적을 쓸모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이 인간으로서 배워나가야 할 다양한 영역의 내용 중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회가 규정한 '성공적인 삶' 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재상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구성해 나갑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교육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역량 목록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목표는 어떤 의미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시대적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일 수는 있으나, 교육은 무엇보다 '배움' 의 가치와 즐거움, 배움은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깨달음과 지속적인 의미의 탐색과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교육영역에서(특히 영유아교육)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한 것을 접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교육은 인간의 역량을 기르는 것과 길러진 역량이 안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것의 균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역량(안)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적인 접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교육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과거 방식에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지식과 사고의 틀을 전수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유능하지 못한 존재로 자연도태의 위협에 빠질 것 같습니다. 현상과 대상에 대한 호기심, 탐구와 직접 경험, 문제해결능력,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실패를 통한 배움과 회복탄력성, 실행력, 개인간 비교가 아닌 개인내 비교와 평가 등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정신의 힘'이라는 의미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식, 기술과 대비하여 '태도 및 가치'를 어떻게 역량에 포함시켜, 교육과정으로서 조직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모델로서 학습자/교수자의 목표와 평가에 대한 다소 명확한 기준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체계나 실체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엔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와는 달리 '역량'이 수사학적으로 동원된 측면이 있음
영유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갖춰야할 것으로 추상적인 역량으로 설정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거쳤을 때 결과적으로 성취해야할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유아가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져야 합니다.
- 역량 교육은 '삶과 동떨어진 교육'을 '삶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죽은 지식교육'에서 '살아있는 지식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에 초점이 있음.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량 교육을 학교에서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임.
- 역량 교육,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되며 앞으로 국내외 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방향을 더욱 완전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함.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래사회에 적합한 방식이라 보임
역량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유아 시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봄.

<부록 표 III-4-2>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의견
현재 우리나라 교과 교육에서 지나치게 지식 요소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어서 비록 새 교육과정에서 '과정기능'으로 학생의 사고와 탐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기능이라기 보다는 활동이거나 절차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음 오히려 각 교과에서 교과 역량이라고 설정한 것을 정교화하고 개선해서 '과정기능'의 역할을 해야 함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방향성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함. 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사료됨. 1차적으로 대강화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정수만을 제안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제적 구현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
현재 2022 교육과정의 다른 학교급에서 제시하는 역량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교과역량 포함). 역량은 분절된 지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상 중심으로 필요 역량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견

이러한 경우라면, 기존 5개 영역과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5개 영역 대신 핵심역량 하위 영역으로 변경? 아니면 역량을 중심으로 5개 영역의 내용 연계? 등).

유아의 발달 및 놀이에 중심을 둔 교육활동으로 신체 및 기본운동능력 발달(건강) 등 역량 강조 필요함
이유는 부모의 지식 위주 교육의 영향으로 영유아기부터 영어교육, 수, 인지교육 등 정적인 활동에 노출되며 다양한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일찍부터 디지털 매체를 접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영유아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현 법교과 교육부터 많은 역량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도 개인의 발달 보다는 많은 양의 역량 중심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도 역량중심교육과정으로 바뀐다면 유아기에만 기를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강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임에도 지나치게 한 사람이 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을 기르고 실천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 부분의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기르기 위한 000한 사람으로 표현했던 누리, 표준보육과정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영유아교육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및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욱 급격해질 것이고, 교육과정 또한 실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인재상과 핵심역량, 교육적 방향과 내용들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영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 안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소통 역량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보다 중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은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인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성, 차별성 등이 무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핵심역량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재개념화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기는 초등 이상의 교육과정과 달리, 기질과 발달의 개인차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생애 시기이므로 어린 영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량 내용인지 숙고해야 하며, 특히 공동체 역량이나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이 영유아기에 어떤 수준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입시 및 상급학교 진학에서 요구하는 학업능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지식과 기술의 가시적인(발현적인) 습득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태도와 가치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문서상의 나열과 정리가 아닌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반

무엇보다 영유아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유아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6가지의 총위가 단일하지 않다. 어떤 역량은 기술에 가깝고 어떤 역량은 태도나 가치에 가깝게 정의되어 있다. 역량에 대한 정의가 공유되어있지 않고,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의 평가 방식(성취기준)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의 부합성이 떨어져 보임

역량중심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중요성과 대립되는 개념이어서는 안됨. 역량을 발휘하는 기반으로써 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익힐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상당 부분은 교육내용보다는 교육방법과 생활지도를 통해서 습득되는 비인지적 내용인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의 교육내용의 연결과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점입니다.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역량교육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내용체계표 상에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들이 성취기준으로 연계되는 체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또한 내용 체계표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하고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행과제를 어떻게 개발할지

의견

에 대한 안내가 미흡함.

역량은 지식이나 정보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칫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음

영유아기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내용이나 표현에서 가독성이 높아져야 함.

역량을 접근하는 철학이나 입장이 혼재되어 있음.

역량은 목표에 가까우나 내용, 방법, 평가 모두에 역지로 반영하려는 점이 문제임.

<부록 표 III-4-3>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핵심역량 중심 재구조화 시 고려사항

의견

내용을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구성해서 활동 중심 수업(놀이만 있는 수업)에서 구심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 세상을 빅 아이디어(큰 개념)로 해석하고 학습한 것을 삶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지금 영역은 다행히 학문 중심의 교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빅 아이디어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교육과정은 상위 학교급과 다르게 교과목이 아니라 영유아의 통합적 발달을 고려하여 이미 5개 영역으로 제안이 되어 왔음. 핵심역량 중심으로의 재구조화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별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개별 핵심역량의 구체적 요소와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그의 실재를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량을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행동 특성(혹은 능력)이라고 본다면, 기준 혹은 성취목표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역량을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예를 들어 사고역량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등),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의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보육과정은 필요하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및 '미래형 인재상'과도 연계되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함
이유는 유·초·중·고의 이름 및 연계교육 일환으로 장기적인 교육 발달을 위해서는 인재상 연계와 기관별 연계가 필요함
재구조화가 된다면 관련된 교사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분야별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도 재구조화 하기 전 홍보 안내 및 사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봄

누리과정 개정 시에 교사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도입 초기 수천명 대상으로 1회 연수가 진행되었고 후에 관련 교사 연수가 진행되었으나 시기가 도입 후라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서 인재상으로 핵심은 인성 즉 인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수행만을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유초중고가 이어지듯 그 초석인 유아교육에서 이후 교육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표의 역량중심을 영유아의 특징으로 고려해 볼 때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유아기는 역량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전체교육과정이 역량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영유아발달 특징을 고려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는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단편적, 분절적 역량이 아닌 통합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 및 발달차를 감안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량에는 지식, 기술과 같이 가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지만, 동기, 특질, 자아개념 등과 같은 잠재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이는 수행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관심, 흥미, 의도, 동기 등을 최대한 존중하며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디지털을 활용하여 지식, 정보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 디지털 보급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유아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등도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핵심역량이 영유아의 발달을 간과하거나 또 다른 결과중심, 성취중심 교육과정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보다 영유아기는 연령에 따른 발달특성과 더불어 개인차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구조적인 학습 경험보다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이 반복, 확장되면서 다양한 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영유아기를 고려하였을 때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심역량이 영유아의 생활과 기관에서의 일과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여 교육/보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과 보육의 용어를 계속 분리할 것인지? 3~5세는 보육이 아닌지? 0~2세만 보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본래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함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장, 교사, 부모의 동반 역량 신장 도모
주변 성인이 바뀌지 않고 아이들만 역량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즉 상호작용의 주 대상자인 교사와 부모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재구조화 필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춘 핵심역량의 핵심개념 정립, 이를 구성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설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 개인의 학습속도와 방식, 발달 수준에 맞춘 학습경로와 역량의 개발 경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므로 교육과정에 개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방향이 바뀌어도 이것을 가르치는 원리나 교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원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연수와 교수방법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2015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되어있음. 따라서 역량중심이라고 명기하지 않았을 뿐 학습자인 영유아의 주요경험이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주도성,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명확하게 학습자중심교육과정으로서 명시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주요경험을 고려하여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너무 세부적으로 많은 수의 역량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추구하는 인간상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건강한 어린이, 자주적인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 더불어 사는 어린이로 기술하면 먼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재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차별성, 독특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보다는 기초역량 등과 같이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면적 평가방법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 구현
학습자 개인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교육 방안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수자의 역량

영아에게 역량이 적합한지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내용이나 표현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있어 쉽게 이해되고, 그 결과 현장과 잘 소통될 수 있어야 함.

발달 단계의 특성 상 교육의 과정 상 목표에 집중하는 것.

〈부록 표 III-4-4〉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역량중심 재구조화 시 영유아/교사/기관 수준에서 고려(준비)할 사항

의견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유아들의 개별적 발달사항 고려 - 영유아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돌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영유아도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방법의 내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유아기의 보편적 발달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잠재력과 고유성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함.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주체인 영유아는 교육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받아야 함. 또한 발달 지연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도 개별적인 배려가 포함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영유아의 부모들에게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영유아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 필요. 유능한 학습자 관점에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관련하여 영유아의 권리 존중특히 의사표현 존중 등 영유아를 미숙하고 무지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부모와의 협력(부모의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필요) - 영유아 : 영유아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수업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교사-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잘 제공해야 하는 교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 개정누리과정도 그러한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마다 이해의 폭이 달라서 초반에는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를 위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의 측면에서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영유아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사례들이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제공자이자 조력자인 교사는 영유아에게 효과적인 교육 내용으로써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발달을 지원하며 충분한 관찰과 영유아 주도의 활동을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갖추어야 함. 우연적 학습, 개별화 학습, 놀이 중심의 학습이 미래 역량과 연결되어 효과적인 성취를 돕는다는 것을 교사가 인식해야 함 - 교사수준에서는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 영유아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찰 및 평가 능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기존 기관수준 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요소에 대한 인식 및 보완 - 기관측면(유치원, 교육청 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교사 뿐 아니라 기관의 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관 측면에서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 기회 확대, 부모교육 등이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부모들과 이 부분을 공유하고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기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함. 의무교육이 아닌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선택권을 가진 부모와의 목표 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기관 수준에서는 '영유아기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풍부한 환경구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과정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원내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기관의 실정에 맞는 실행방법과 개선 및 노력할 점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현장 실행 실제의 간극을 줄여야 함(특별활동, 학습지 등 중심) - 핵심역량의 효과적 증진을 위해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 환류체계 구축 및 실행

의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영역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영유아기 아동의 사고 및 탐구 양식 혹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핵심역량의 함양과 놀이 중심 교육과정(핵심역량의 주요한 함양 통로로서의 놀이)과의 관련성 - 이러한 측면에서의 놀이 지원 전문성과 학부모 교육 - 준비라기보다 유아교육과정에 역량함양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을지, 영유아기의 핵심역량은 무엇 인지 등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 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놀이중심교육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유아의 행동 특성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다양한 지원과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교사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관은 이러한 핵심역량 교육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초등은 물론 가정과 연계 및 인근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물적, 인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 필요함 - 유아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입니다. - 현재도 유아들이 하루 8시간 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교육 받고 있습니다. 성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유아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2019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했던 놀이 중심의 내용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 역시 역량중심교육과정을 접했을 때 '영유아들에게 역량을?'이라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 현장은 how to가 중요한 곳입니다. 현장의 해석에 따라 교육과정 실천의 수단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초, 중고등처럼 교과서로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정확히 전달할 수도 없는 곳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역량을 안정적인 실천을 위한 역량중심교육과정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의무교육이 없다면 현장의 혼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우려하고 있으며, 무서운 사회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핵심역량은 발달을 고려한 인간 교육입니다. - 영유아기는 발달의 차이와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핵심역량 요소에 따른 영아/유아 또는 0-1세/2세/3-5세에 따른 교육적 접근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9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율성, 기관과 개인에 따른 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도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다른 형태로 개정될 것 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으나, 추구하는 인간상 외에 핵심역량에 대한 제시는 필요하다고 본다. -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현재 교육과정인 놀이중심이 유지되어야 함. 영유아 시기 놀이만큼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통로는 없다고 여겨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연계 확장된 의미에서의 핵심역량을 고려해야 함 - 각각의 역량에 대한 개념, 발달적 양상, 평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의 정의, 건강한 하위개념, 각 하위개념별 연령별 역량(상중하) 기술, 교육과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 역량과 교육과정이 교수자의 교육 계획단계에만 토대가 되고, 학습자 중심의 성과 고찰에는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들에게 루브릭 정도의 평가 가이드가 하위영역별로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문서 체제나 용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그것과 연계되면서도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의 독특성이 드러나고 보호되는 문서 형식이나 용어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누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등의 항목보다는 자연 교육, 소극적 교육, 발현 교육이라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의 특징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용어와 문서 체제가 구안될 필요가 있음. - 역량에 대한 이해(역량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력, 교수자의 역할과 기대 및 이에 대한 기관의 지원 - 핵심역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잘 이해하는 것 - 그리고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기

1-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미래형 인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1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강조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또는 능력)

2-1.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며(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5),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표 2>와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은 미래형 인재상과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감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함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함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 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2-1-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중,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역량 또는 수정이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중, **영유아기 교육보육과정(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1.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2.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더 강조되어야 할 역량(또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3-1.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1-1. 역량중심(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1. 현재 국가수준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이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고려(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미래 역량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3-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과제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상,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되며, 1차 의견조사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2차 의견조사를 추가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개방형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질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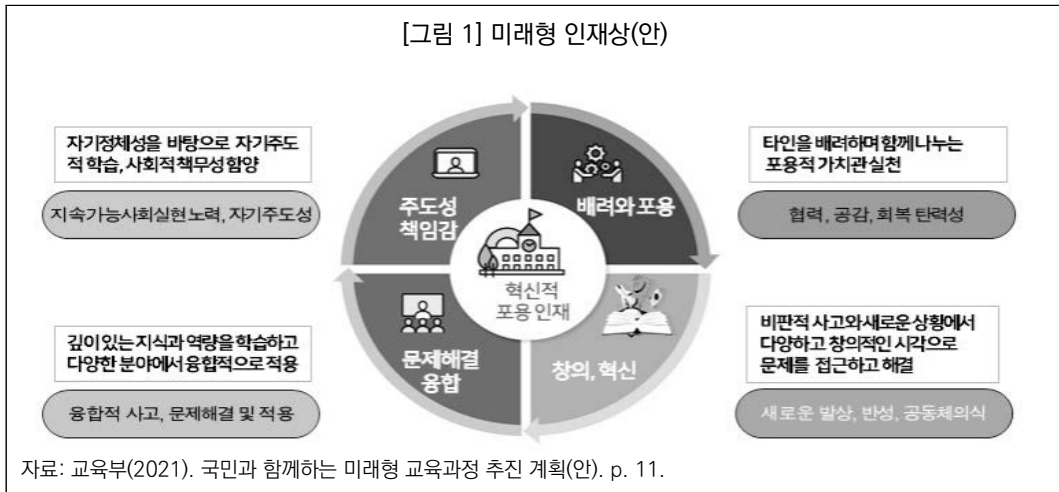
202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장

※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p>〈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p>
-----	---

1. 미래 인간상에 대한 의견

1. 2021년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인재상과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검토하는 안을 제시하고, 미래 인재상(안)으로 혁신적 포용 인재를 목표로 주도성과 책임감, 배려와 포용,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및 융합이란 중심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교육부, 2021: 11). 이러한 인간상이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제시된 인간상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별로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하다

1-1. 미래형 인간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인간상이 영유아기의 인간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별로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하다

2-1. 영유아기 인간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I.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1. 역량(competency)은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기업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기업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HRD 용어사전, 2010. 9. 6.). 교육에서의 역량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1. 귀하께서 정의하신 역량의 개념의 기초하여,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역량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별로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하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감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함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함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 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2-1. 미래 역량으로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II.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의견

1.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1. 역량중심(함양)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된다면, 영유아, 교사, 기관 수준에서 고려(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 응답자 일반 배경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 소속 대학/기관	① 전문대학 ② 4년제대학 ③ 방송통신대학 ④ 사이버대학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⑦ 초등학교 ⑧ 기타()		
3-1. 현 소속 학과 (①~④에 응답한 경우)	① 유아교육학과 ② 아동관련 학과 ③ 보육관련 학과 ④ 기타()		
5.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아동학 ③ 가족학 ④ 교육학 ⑤ 기타()		
6. 경력	① 대학교수 경력 ____년 ____개월 ② 유치원 총 경력 ____년 ____개월 (교사, 원감, 원장 경력 합산) ③ 어린이집 총 경력 ____년 ____개월 (교사, 원장 경력 합산) ※ 유치원/어린이집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부록 6.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2차)

‘미래 역량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3-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과제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상,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을 개발 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p>〈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p>
-----	---

1. 미래 인간상에 대한 의견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구분	M	SD	CVR	계
1)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3.90	.64	0.7	20(100.0)
2)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3.95	.60	0.5	20(100.0)

1. 1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타당도가 높았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해주시시오.

구분	타당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심신이 건강한 사람					
2) 윤리적인 사람					
3) 자주적인 사람					

1-1.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1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타당도가 높았으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해주시시오.

구분	타당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2) 자신감 있는 사람					
3) 배려(양보)하는 사람					
4) 탐구심이 많은 사람					

2-1.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I.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

※ 1차 조사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타당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단위: 명(%)				
구분	M	SD	CVR	계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타당도	4.10	.64	0.7	20(100.0)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해주시시오.

핵심역량	내용	타당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감					
2)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함					
3)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					
4)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함					
5)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					
6)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					

1-2.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해주십시오.

핵심역량	타당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대소근육 발달					
2) 기초적 자조기술능력(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3) 문해력					
4) 수리력					
5) 정보인식 및 활용					
6) 문제해결능력					
7)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8)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9)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2-1.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II. 응답자 일반 배경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 소속 대학/기관	① 전문대학 ② 4년제대학 ③ 방송통신대학 ④ 사이버대학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⑦ 초등학교 ⑧ 기타()		
3-1. 현 소속 학과 (①~④에 응답한 경우)	① 유아교육학과 ② 아동관련 학과 ③ 보육관련 학과 ④ 기타()		
5.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아동학 ③ 가족학 ④ 교육학 ⑤ 기타()		
6. 경력	① 대학교수 경력 ____년 ____개월 ② 유치원 총 경력 ____년 ____개월 (교사, 원감, 원장 경력 합산) ③ 어린이집 총 경력 ____년 ____개월 (교사, 원장 경력 합산) ※ 유치원/어린이집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부록 7. 부모 설문조사 질문지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 (II) 영유아기 미래 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3-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과제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상,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연 락 처 영유아정책연구팀

조사기관  Ipsos 입소스 코리아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연 락 처 사회조사여론본부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선정

- SQ0. 귀하가 태어난 년도를 적어주세요.
()년
-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도 ()시/군/구
- SQ2.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법률혼) ☞ SQ3으로 이동
 ② 미혼 ☞ 조사중단
 ③ 동거(사실혼) ☞ 조사중단
 ④ 기타(사별/이혼 등) ☞ SQ3으로 이동
- SQ3.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임신 중인 자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① 있다 ☞ SQ3-1로 이동
 ② 없다 ☞ 조사중단
- SQ3-1. 귀하의 총 자녀와 미취학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① 총 자녀 수 ()
 ② 미취학 자녀 수 ()
- SQ4. 귀하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1명인 경우 해당 자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출생연도로 응답해주세요.
 ()년
- SQ5.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하의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제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일제 이상 학원 : 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을 말하며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제외하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예 ☞ SQ5-1로 이동
 ② 아니요 ☞ 조사중단

SQ5-1. 현재 귀하의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미취학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 ⑦ 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 ⑩ 기타()

SQ5-2. 귀하의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는 현재 몇 세반을 다니고 있습니까?

※미취학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어린 미취학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만 0세반(0-1세반, 0-2세반의 해당 연령) ☞영아
- ② 만 1세반(0-1세반, 0-2세반의 해당 연령) ☞영아
- ③ 만 2세반(0-2세반의 해당 연령) ☞영아
- ④ 만 3세반(3-4세반, 4-5세반, 3-5세반의 해당 연령) ☞유아
- ⑤ 만 4세반(3-4세반, 4-5세반, 3-5세반의 해당 연령) ☞유아
- ⑥ 만 5세반(4-5세반, 3-5세반의 해당 연령) ☞유아

SQ5-3.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하의 가장 어린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 SQ6-1로 이동
- ② 중학교 ☞ 조사중단
- ③ 고등학교 ☞ 조사중단
- ④ 대학교 ☞ 조사중단
- ⑤ 기타() ☞ 조사중단
- ⑥ 학교를 다니지 않음 ☞ 조사중단

SQ6-1. 현재 귀하의 가장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초등학생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공립 초등학교
- ② 사립 초등학교
- ③ 기타()

SQ6-2. 귀하의 가장 어린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초등학생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학년 ☞ Q1로 이동
- ② 2학년 ☞ Q1로 이동
- ③ 3학년 ☞ Q1로 이동
- ④ 4학년 ☞ 조사중단
- ⑤ 5학년 ☞ 조사중단
- ⑥ 6학년 ☞ 조사중단

I.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

Q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한 사람(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② 자주적인 사람(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③ 창의적인 사람(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④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⑤ 더불어 사는 사람(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Q2.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외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빈칸에 형용사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① _____ 사람
- ② _____ 사람
- ③ _____ 사람

II.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Q3. 다음 중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정직 | ② 자유 |
| ③ 평등 | ④ 평화 |
| ⑤ 신뢰 | ⑥ 사회공헌 |
| ⑦ 공존 | ⑧ 부 |
| ⑨ 명예 | ⑩ 권위 |
| ⑪ 권력 | ⑫ 기타 () |

Q4. 다음의 핵심역량 범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는 무엇입니까?

- ① 다양한 도구(언어, 상징, 텍스트/지식과 정보/기술)를 사용하는 능력
- ②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 ③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Q5.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길 기대하십니까? 가장 어린 자녀 (1자녀인 경우 해당 자녀) 기준 기대하는 능력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언어 능력(외국어 포함) | ② 수리(수학) 능력 |
| ③ 과학적 소양 | ④ 비판적 사고력 |
| ⑤ 문제해결 능력 | ⑥ 창의성 |
| ⑦ 협업 능력 | ⑧ 의사소통 능력 |
| ⑨ 배려와 포용성 | ⑩ 자기주도성 |
| ⑪ 예술적 자질 | ⑫ 기타 () |

Q6. 다음은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입니다. 제시된 역량 중, 가장 어린 (1자녀인 경우 해당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기관리 역량 |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
| ③ 창의적 사고 역량 | ④ 심미적 감성 역량 |
| ⑤ 협력적 소통 역량 | ⑥ 공동체 역량 |

Q7. 다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역량입니다.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소근육 발달
- ② 기초적 자조기술능력(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 ③ 문해력
- ④ 수리력
- ⑤ 정보인식 및 활용
- ⑥ 문제해결능력
- ⑦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 ⑧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 ⑨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 ⑩ 기타 ()

Ⅲ.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SQ5=1인 경우만)

Q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어린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기본생활
- ② 신체운동·건강
- ③ 의사소통
- ④ 사회관계
- ⑤ 예술경험
- ⑥ 자연탐구

Q9.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생활
- ② 신체운동·건강
- ③ 의사소통
- ④ 사회관계
- ⑤ 예술경험
- ⑥ 자연탐구

Q10.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내용 외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IV. 응답자 배경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DQ4. 귀하의 취업 상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비취업

DQ5. 귀댁의 경제활동 상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맞벌이

② 외벌이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24-15-01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발행 2024년 08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735-3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and System Establishment Plan (II):
Restructur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Focusing on Future Competenci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 791155 677359
ISBN 979-11-5567-735-3

비매품/무료

96370